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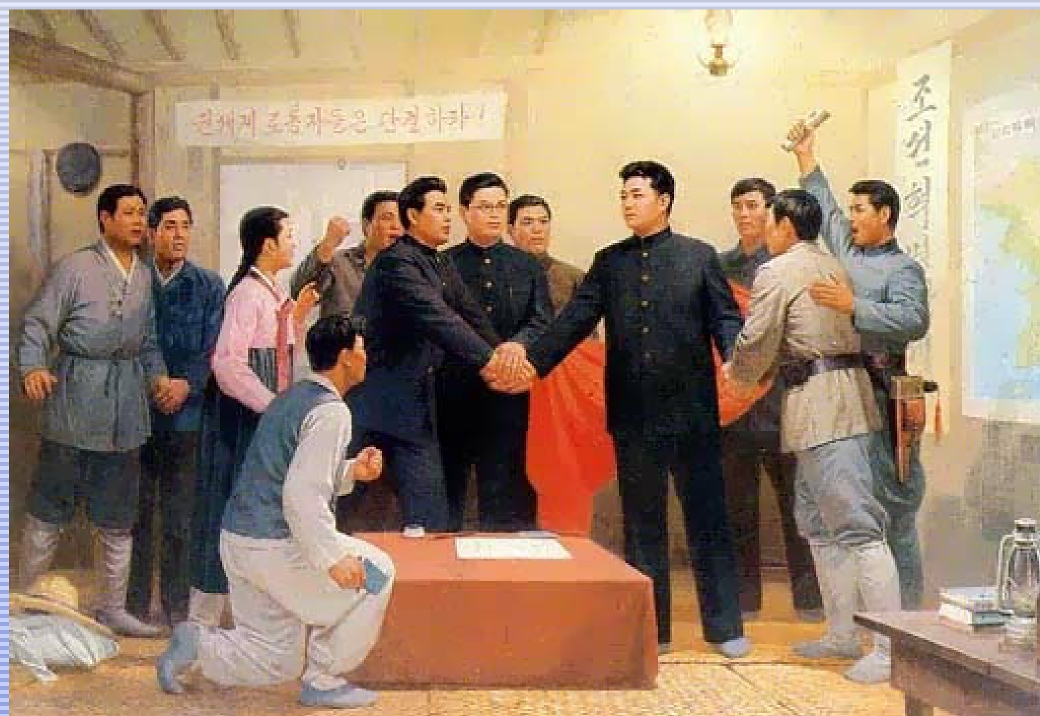
2

백두청년회 산하 백두산편집부



차 례

제4장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던 나날에

손정도목사
준엄한 봄
카륜회의
첫 당조직 – 건설동지사
조선혁명군
혁명시인 김혁
1930년 여름
두만강을 거너
≪이상촌≫을 혁명촌으로
잊을 수 없는 사람들

■ 시기 : 1930. 5 ~ 1930. 12

1. 손정도목사


손정도목사

나는 만주의 정세가 매우 험악한 때에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반일독서회사건으로 온 도시가 발칵 뒤집히던 1929년의 가을처럼 길림의 거리에는 계엄사태를 방불케 하는 긴장된 분위기가 떠돌고 있었다. 도로교차로점들과 관청건물의 주변에서는 독군서의 헌병들이 통행인들을 세워놓고 검문검색을 하고 있었다. 총대를 들고 이골목, 저골목에서 가택수색을 하는 군경들도 보이었다.

이립삼의 좌경노선 때문에 온 만주땅이 진통을 겪고 있던 시기여서 공기가 이만저만 살벌하지 않았다. 그때 만주지방에서는 5.30폭동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다.

우리 나라 역사가들속에서 5.30폭동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이 투쟁을 중국사람들은 ≪적색5월투쟁≫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 투쟁을 5.30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상해에서의 5.30참살 5돐에 즈음하여 벌어진 투쟁이고 또 5월 30일에 그 투쟁이 절정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공산당의 지도권을 잡고 있던 이립삼은 1925년 5월에 있은 상해시민들의 영웅적 투쟁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노동자, 학생, 시민 3파가 파업을 일으키는 동시에 폭동형식의 투쟁을 전개하여 쏘비에트유격대를 창설할 것을 전당에 지시하였다.

이 노선이 내여오자 만주성위산하의 혁명조직들은 이립삼이 제창한 ≪한 개 성 또는 수 개 성의 우선적 승리≫라는 구호를 들고 군중을 동원하여 도처에서 돌격식 집회를 소집하고 폭동을 일으켰다. 동만의 거리와 농촌들에는 폭동을 선동하는 삐라와 격문들이 나붙었다.

5.30폭동의 시작과 함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적들의 공세는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그 파동이 벌써 길림에까지 미쳐오고 있었다.

감옥을 나와 내가 맨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우마항에 있는 손정도목사의 집이였다. 일곱 달 동안 꾸준히 옥바라지를 해온 손정도일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고 떠나는 것이 도리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손정도목사는 자기 자식이 감옥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기뻐하면서 나를 맞아주었다.

≪군벌이 자네를 일본놈들에게 넘겨줄가봐 우리는 은근히 마음을 조이였네. 형을 지지 않고 무사히 풀려나왔으니 천만다행일세.≫

≪목사님께서 후원을 잘 해주신 덕에 저는 감옥생활을 한결 헐하게 했습니다. 저때문에 옥리들에게 돈도 많이 찔러주셨다는데 그 신세를 무엇으로 갚을지 모르겠

습니다. 목사님 은혜를 일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목사는 그때 중국관내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손정도목사에게 무슨 까닭으로 갑자기 길림에서 떠날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고 물었다.

손목사는 한숨을 쉬고 나서 서글프게 웃었다.

≪장작림까지 맥을 추지 못하게 이제는 이 길림바닥에서 우리를 비호하고 후원해줄 힘도 바랄 수 없게 되었네. 장작상이 조선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일본군대가 쳐들어와도 야단이야. 3부가 통합되면 독립운동도 날개달린 용마가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용마는커녕 집안싸움으로 평온할 날이 없으니 이 고장에 더 버티고 있을 생각이 나지 않네.≫

관내에는 그가 상해임시정부 의정원 부의장과 의장직을 겸임할 때 가깝게 지내던 인사들도 있었고 흥사단 시절의 단우들도 있었다. 손정도가 관내로 들어가려고 결심한 것은 그런 사람들과 다시 연계를 가지고 독립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투신해보려는 동기에서 출발하지 않았겠는가고 생각된다.

손정도목사는 일제의 만주침공이 시간문제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주는 장차 어떻게 할 작정인가고 물었다.

≪저야 다른 길이 있습니까. 군대를 크게 조직해가지고 일제놈들과의 결판을 내자고 합니다.≫

내가 이런 대답을 하자 손목사는 놀라서 나를 쳐다보았다.

≪총으로 일본과 맞서보겠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 길밖에야 다른 출로가 없지 않습니까.≫



길림 시가

≪일본이 세계 5대강국의 하나라는 걸 명심하라구. 의병이나 독립군도 일본의 신식무장앞에서는 맥을 못추고 주저앉았네. 하지만 이왕지사 결심을 했으면 판을 크게 벌려보게.≫

나는 내가 길림에 발을 붙인 초기보다 별로 어수선하고 썰렁해보이는 목사의 집 안풍경을 살펴보면서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전에는 이 집에서 축음기 소리도 들리고 시국을 논하는 독립운동자들의 활기에 찬 목소리도 들리었다. 손목사를 찾아오는 신자들의 경건한 모습도 볼 수 있었으며 소년회원들이 부르는 ≪바람아 불지 말아≫라는 구슬픈 노래가락도 들을 수 있었다.


신채호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었다. 목사의 주변에서 맴돌던 이 집의 단골손님들은 모두 유하로, 흥경으로, 베이징으로 종적을 감추고 ≪황성예터≫와 ≪방랑가≫를 애달프게 부르던 축음기도 입을 다물어 버리었다.

손정도목사 자신도 그 후 얼마동안은 베이징에 가 있었다. 베이징은 상해임시정부 초창기 목사와 뜻을 같이 하던 이름난 역사가이며 문장가이신 단재 신채호가 활동하던 고장이었다. 그 곳에는 신채호 외에도 손정도선생의 동지들이 많았다.

목사가 베이징에 갔을 때는 단재가 동방연맹과의 사업을 위해 대만에 상륙하다가 체포되어 여순감옥으로 끌려간 뒤였다. 신채호가 없는 베이징은 그지없이 고적하고 한산스러워 보이었다. 목사와 단재는 그처럼 큰 우정으로 튼튼히 얽혀져 있었던 것이다.

신채호는 후대들에게 우리 민족의 유구한 애국전통과 찬란한 문화를 소개하고 조국애를 고취한 일념으로 국사서술에 많은 시간과 정력을 바친 사람이다. 그는 민족의 계몽을 위하여 한동안 출판활동에도 열정을 쏟아부었다. ≪혜조신문≫은 그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망명생활을 할 때 찍어낸 인기있는 신문이었다. 박소심이 ≪혜조신문≫에 논문을 종종 써보낸 것도 그것을 주관하고 있던 신채호의 이름이 교포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노선상으로 보면 신채호는 무력항쟁의 제창자였다. 그는 이승만의 외교론과 안창호의 준비론을 다같이 현실성없는 위험한 노선이라고 보았으며 조선민중이 한편이 되고 일본 강도가 한 편이 되어 네가 망하지 않으면 내가 망하게 된 정황에서 우리 2천만 민중은 하나가 되어 폭력파괴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일부 인사들이 이승만을 상해임시정부 수반으로 내세웠을 때 신채호가 분격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정면으로 반대해 나선 것도 평소부터 이승만의 위임통치론과 자치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왔기 때문이었다.


여순형무소

≪이승만은 이완용보다 더 큰 역적이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아직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은 놈이다.≫

이것은 그가 임시정부를 조각하는 자리에서 폭탄같이 내던진 유명한 말이다. 그는 임시정부를 탈퇴한 후 발표한 ≪조선혁명선언≫에서도 이승

만을 호되게 비판하였다.

손정도목사는 이따금씩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신채호는 성미가 면도날 같고 주장이 무쇠쪽 같은 사람이었다. 그가 이승만을 이완용보다 더 큰 역적이라고 탄핵할 때 나는 마음속으로 통쾌감을 금할 수 없었다. 신채호의 말은 민심을 대변한 것이었다. 단재의 심정이자 내 심정이었다. 그래서 나는 신채호와 함께 임정을 결별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런 발언을 참고해보면 손목사의 정견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치론도 위임통치론도 다같이 망상이라고 단정한 사람이었다. 안창호의 실력양성론에 대해서는 반신반의의 입장을 취하였으며 대중을 동원하여 거족적인 항쟁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우리의 전민항쟁론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런 혁신적 입장은 그로 하여금 이승만과 같은 사대주의자, 야심가가 수반으로 군림하고 있는 상해임시정부에서 각원으로 남아있을 필요를 더는 느끼지 않게 하였으며 결국은 임정과 결별하고 길림으로 활동무대를 옮기는 용단을 내리게 하였던 것이다.



임시정부요인들

손목사는 길림에 온 후 일본경찰들이 ≪제3의 세력≫이라고 규정한 혁신파 인물들과 연계를 가지고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새 세대의 청년들과도 잘 어울리었으며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성의를 다하여 후원해주었다. 그가 교직을 차지하고 있는 대동문 밖의 예배당은 우리의 전용집회장소나 다름없었다. 나는 이 예배당에 자주 찾아가 풍금도 타고 연예선전대의 활동도 지도하였다. 손정도목사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면 무엇이건 다 해결해주고 우리의 혁명활동을 충심으로부터 지지해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친아버지처럼 따르고 존경하였다.

손정도목사도 나를 친자식처럼 사랑해주었다. 내가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있을 때 장작상에게 뇌물을 먹이면서 나를 석방시키기 위한 청원운동을 이끌고 나간 주동인물도 바로 손목사였다.

손목사는 나를 친구의 자식으로 뿐 아니라 일가견을 가진 혁명가로 대해주었다.

그는 독립운동자들속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어 해결을 보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문제까지도 내앞에 서슴없이 털어놓고 조언을 요구하였다.

그 당시 손목사는 맏딸 손진실과 윤치창과의 혼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길림의 독립운동자들은 누구나 그 혼사를 완강하게 반대하였다. 손목사 자신도 딸이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였다고 못마땅해 하였다. 그는 딸이 윤치창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가문망신을 시킨다고 생각하였다. 윤치창은 친일파이며 매판자본가인 윤치호의 동생이었다. 목사가 딸을 설복하지 못해 속을 썩이고 있을 때 독립군보수파들이 윤치창에게서 자금을 뽑아내려고 한 주일 동안 그를 억류하였다.

≪이 사람,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손정도목사는 내 의향을 물었다. 나는 어른들의 혼사에 간참하는 것이 주제넘는 일 같아서 얼마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였다.

≪저희들끼리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하는데 떼놓을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의향에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조언을 준 다음 독립군보수파 인물들을 설복하여 윤치창을 놓아주도록 하였다.


손정도목사의 집과 그의 딸

손정도목사는 베이징에 갔다가 그 다음해인가 길림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것이 오인화, 고원암과 같은 혁신계 인물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어느 정도의 진실성을 띠고 있는 판단인지는 알 수 없다. 여하간 목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길림에 머물러 있은 것을 보면 베이징방면의 독립운동상황도 낙관적이 못되었고 그의 건강상태도 그닥 좋지 않았던 것 같다.

감옥에서 나와 손정도목사를 만났을 때 그가 내 얼굴이 축갔다고 염려해주었지만 나는 오히려 그의 얼굴에 배여있는 병색을 보고 걱정하였다. 그는 고질로 되고 있는 병이 도져 식사도 변변히 하지 못하였다.

≪나라가 망했는데 몸까지 병들고 보니 주야장탄일세.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아버지도 나한테는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구만. 그놈의 유배살이덕을 단단히 보는 셈이지.≫

손정도목사의 말이었다. 목사가 1919년에 만주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던 중 가쯔라 다로 암살음모의 혐의로 체포되어 진도에서 2년동안 유배살이를 한 적이 있었다. 아마 그 때에 목사는 유배지에서 병을 얻은 것 같았다. 미신은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군중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병마도 쉽게 침범하였다.

나는 이듬해 봄에 명월구에서 손정도목사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나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손목사가 길림 동양병원에서 비명에 작고하였다고 하였다.

나는 처음에 그것을 낭설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로서는 목사가 병으로 급사하였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반년 전에 만났을 때에도 침상에 눕지 않고 독립운동의 장래를 논하던 사람이 위궤양 때문에 초불처럼 그렇게 쉽사리 꺼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은 사실이었다. 지하조직선을 통해 알아본 데 의하면 목사는 입원 첫날에 벌써 입으로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운명하였다는 것이었다.

당시의 교포사회에는 손목사의 죽음을 모살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것을 모살로 보는 첫 번째 논거는 입원 직전의 손목사의 병세가 생명을 좌지우지할만한 정도의 위험계선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양병원이 일본인들이 경영하는 병원이라는 것도 역시 다른 하나의 유력한 논거였다. 조선 사람들을 세균전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족속들이니 모살이 아니라 그보다 더 흉악한 음모도 꾸밀 수 있다는 것이 교포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가장 확실한 논거는 손정도목사가 이름난 애국지사라는데 있었다. 손목사는 일본경찰들이 한시도 감시를 늦추지 않고 있던 요시찰인이었다. 가쯔라 다로의 암살혐의도 혐의지만 상해임시정부 의정원 의장, 임정교통총장, 시사책진회 성원, 흥사단단원, 노병회 이사라는 항일로 일관된 목사의 경력은 일본경찰들로 하여금 그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일본인들이 손정도목사를 얼마나 집요하게 주시해왔는가 하는 것은 목사가 급사한 직후 길림총영사가 자기네 외무대신에게 ≪불령선인 손정도의 사망에 관한 건≫이라는 문건을 특별히 작성하여 발

송한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해석(바다의 돌)이라는 손정도목사의 호에 그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되어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는 표면에 잘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교직자의 간판을 가지고 한 생을 항일성업에 고스란히 바쳐온 지조가 굳고 양심적인 독립운동자였다. 손목사는 길림에 와서도 정의부의 혁신계인물들과 함께 시대의 변천에 순응하는 독립운동의 방향전환과 애국역량의 단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우리가 조선인길림소년회와 조선인유길학우회를 조직하던 그 무렵에는 만주농민호조사결성 발기인이 되어 그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손정도목사는 동생(손경도)의 명의로 액목현의 경박호일대에 50향의 땅을 사서 농업공사도 경영하였다.

안창호가 제창한 ≪이상촌≫의 일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경박호반은 안창호선생이 한때 제일 눈독을 들이었던 이상향건설의 후보지였다. 목사는 농업공사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독립운동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손정도목사의 장례는 봉천회관에서 기독교식으로 엄숙히 거행되었다. 합방이전부터 수 십년의 풍상을 독립항쟁에 바쳐온 목사의 영전에는 일본경찰의 방해로 인하여 40명 남짓한 조객들만 모였다고 한다. 생전에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속에 에워싸여 애국의 혼으로 그들을 열심히 교화시키던 목사일진대 고인과의 작별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쓸쓸한 것이었다. 국부가 죽어도 마음대로 울지 못하는 세상이었으니 경찰이 입회하는 식장에서 눈물인들 제대로 흘리며 통곡인들 제대로 하였겠는가.

나는 멀리 길림쪽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하염없이 뿌리며 간도땅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손목사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슬프게 울었다. 이 나라 아버지들의 영령을 지키고 원한을 씻기 위해 기어이 나라를 찾고야 말리라는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나는 나라를 찾는 길이야말로 은인들의 신세를 갚는 길이고 그들의 불행을 덜어주는 길이며 인민의 손과 발에서 쇠고랑을 벗겨주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0년 여름 길림을 떠나실 때 오르셨던 북산공원

그 후 나와 손정도목사의 유가족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현세기가 다 가는 오늘까지도 가셔지지 않고 있는 분단의 비극은 우리를 철조망과 콩크리트장벽과 파도사나운 대양으로 사정없이 갈라놓고 있다. 나는 평양에, 손인실은 서울에, 손원태는 오마하(미국)에 우리는 반세기 이상이나 서로 안부조차 전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러나 한 번도 손정도목사와 그의 유가족들을 잊은 적이 없다. 그들에 대한 추억은 시간과 공간의 끊임없는 교차속에서도 풍화되거나 덞어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세월과 함께 련련히 이어져 왔다.

민족의 비극이 심화되고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장벽이 높아질수록 이 땅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이 나라를 위해 선혈을 뿌리던 은인들과 열사들에 대한 그리움은 더

절절하게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역사는 그 그리움을 외면하지 않았다.

1991년 5월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시에서 병리학의사로 일하던 손정도목사의 막내아들 손원태가 우리 해외동포영접부의 초청으로 부인(이유신)과 함께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성화강 모래터에서 소년회원들과 유길학우회원들이 ≪땅≫편과 ≪바다≫편으로 갈라져서 군사놀이를 할 때 매번 내가 속한 편에 들겠다고 싱갱이질을 하던 십대의 연약한 소학생 손원태는 팔갑을 앞둔 백발노인이 되어 내앞에 나타났다. 60풍상의 짓궂은 장난도 그의 백발밑에 뚜렷이 새겨진 길림시절의 흔적을 지워버릴 수 없었다.

≪주석님!≫하고 부르며 나를 얼싸안는 손원태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수만 마디의 언어가 집약되어 있는 눈물, 참으로 많은 사연을 담고 있은 눈물이었다. 허구한 세월 그리움으로 가슴을 에이면서도 우리는 어찌하여 백발이 다되어서야 만나게 되었는가, 무엇이 우리의 해후를 반세기 이상이나 끌어오게 하였던가.

60년이란 인간의 옹근 한 생에 맞먹는 장구한 시간이다.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를 가진 비행기들이 하늘을 씽씽 날고 있은 문명시대에 십대에 헤어졌던 사람들이 80이 다되어 만났다면 우리를 노년기에로 끊임없이 떠밀어온 그 시간의 누적은 너무나도 무정하고 공허한 것이 아닌가.

≪손선생은 어떻게 되어 머리가 그렇게 세였습니까?≫

나는 지난날의 소년회원이 아니라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노학자를 대하는 공식적인 말투로 손원태에게 물었다.

손원태는 길림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약간 응석기가 비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김**주석님을 만나뵙고싶어 마음을 쓰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길림시절에 **김**주석을 형님처럼 따르고 주석님도 자기를 동생처럼 사랑해왔는데 제발 선생이라는 호칭만은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면 옛날식으로 원태라고 합시다.≫

나는 웃으면서 말하였다.

서먹서먹하던 감정은 순간에 사라졌다. 우리는 흡사 길림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평양의 응접실이 아니라 길림의 옛 하숙집에서 손원태를 만나는 것 같은 생각까지 들었다. 길림시절에는 나도 손목사네 집에 자주 찾아갔고 손원태도 내가 하숙하는 집에 뻔질나게 찾아왔다.

차광수처럼 목을 늘 한쪽 옆으로 기울이고 다니던 체소하고 과묵한 소년, 그러나 일단 입을 열기만 하면 기지가 번쩍이는 농과 유모아를 연발하여 상대방의 웃음을 자아내군 하던 제4성립학교 소학생 손원태, 그가 병리학의사가 되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는 백발노인이 되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였다. 새삼스럽게 머리를 잡아 휘두르는 격세지감, 길림에서 헤어진 것이 어제 같은데 그처럼 다감하던 소년시절은 어디로 가고 우리는 이렇게 노인이 되어 그 시절을 옛말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가.

나는 손원태와 함께 길림에서 보낸 나날들을 끝없이 회상하였다. 소년회와 관련한 생활은 두말할 것도 없고 거리 바닥에서 코흘리개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던 개눈깔사탕 장사까지도 우리의 화제거리가 되였다.

길림의 사탕장사들은 참말 능청스럽기도 했지. 사탕이 먹고 싶으면 함지에서 한알 꺼내어 입안에 슬쩍 집어넣고 실컷 굴리다가 그걸 도루 뱉아서 팔군 했으니까.

아이들은 사탕을 사먹으면서도 그 사탕이 장사군의 입에 한 번씩 들어갔다가 나온 사탕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거든.

우리는 이런 회상앞에서 만가지 시름도 다 잊고 큰 소리로 웃군 하였다.

손원태는 서방에서 떠도는 소문과 달리 주석님께서 퍼그나 정정하시다고 하면서 나의 손을 허물없이 끌어당기더니 한참동안 내 손금을 살펴보는 것이였다.

나는 그때 몹시 어리둥절했다.

≪명금이 이토록 좋으시니 필시 만년장수하시겠습니다. 대통령금까지 이렇게 뚜렷하니 나라의 수령으로 높은 존경을 받으시는 것이올시다.≫

손원태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나의 손금을 보아주는 사람도 난생 처음 보았고 사람의 손금가운데 대통령금이 있다는 말도 처음으로 들었다. 손원태가 나의 손금을 보아주면서 명금이 길다고 한 것은 나의 장수를 축수하는 심정의 표현일 것이며 그가 대통령금이 뚜렷하다고 한 것은 우리의 사업에 대한 지지의 표시일 것이다.

손원태는 한 나라의 수반과 회견한다는 공식적인 관념은 조금도 없이 나에게 이런 청까지 하였다.

≪주석님, 언제 나에게 ≪짱즈궈즈≫를 사주시겠습니까? 길림에 있을 때 주석님과 함께 들던 ≪빙땅훌루≫도 먹고 싶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친형제간이 아니고서는 꺼내기 어려운 요구를 그가 하였기 때문이였다. 그는 정말로 나를 친형처럼 대하고 있는 것이였다. 손원태가 형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불쑥 내 머리에 떠올랐다. 손원태의 형 손원일은 한때 남조선에서 국방부장관까지 하다가 몇 해 전에 고인이 되었다.

내가 아무리 지성을 기울여 손원태를 대접한다고 하여도 손원일이 자기 동생을 보살펴준 그 사랑의 높이에까지는 도달할 수 없을 것이였다.

그러나 ≪짱즈궈즈≫나 ≪빙땅훌루≫가 먹고 싶다는 그의 소원이야 풀어주지 못하겠는가. ≪짱즈궈즈≫란 콩국과 기름에 튀긴 과배기 비슷한 중국음식이다. 나는 길림에 있을 때 손원태와 손인실을 데리고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그들에게 ≪짱즈궈즈≫를 몇 번 사준 적이 있었다.

내가 ≪짱즈궈즈≫를 사줄 때마다 어린 두 남매는 그것을 여간 맛있게 먹지 않았다. 손정도선생한테 진 신세를 생각하면 사실 돈을 다 털어서라도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먹이고 싶은 것이 당시의 나의 심정이었다. 그러나 내 수중에 있는 돈은 학비도 변변히 댈 수 없는 보잘 것 없는 것이였다.

나는 손원태가 ≪짱즈궈즈≫를 정말로 먹고 싶어 그런 청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짱즈궈즈≫라는 한 마디의 말로 우리들이 친형제나 친남매간처럼 가깝게 지내던 길림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였을 뿐이다.

≪≪짱즈궈즈≫가 먹고 싶다면 다음 번에 해주겠소.≫

손원태는 롱삼아 그런 말을 했지만 나는 그에게 정말로 ≪짱즈궈즈≫를 해먹이고 싶은 생각이 났다.

다음 번이 아니라 당장에 만들어주고 싶은 욕망을 느끼였다. 그가 나에게 언제 ≪짱즈궈즈≫를 사주시겠습니까 하고 허물없는 말을 한데서 나는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이틀 후 우리 요리사들이 만든 ≪짱즈궈즈≫가 손원태부부에게 전달되었다. 조반 전에 그 음식을 받은 손원태는 김주석님덕분에 어린 시절에 즐겨먹던 ≪짱즈궈즈≫를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눈물을 삼키었다고 한다.

인정은 시간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시간의 힘앞에서는 모든 것이 퇴색하고 조락해버리지만 인정 하나만은 매장시켜버리지 못한다. 진실하게 맺어진 우정이나 사랑에는 노쇠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변질이란 것도 있을 수 없다.

행로의 차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두절되였던 우리의 우정은 6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을 뛰어넘어 이렇게 다시 이어졌다.

우리는 오래간만에 만나 길림시절에 부르던 ≪사향가≫도 합창하였다. 놀라운 일은 나도 가사를 잊어버리지 않았고 그도 가사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였다.


최일

손원태는 민족을 위해서도 별로 해놓은 일이 없기 때문에 나를 볼 면목이 없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겸손한 말이였다. 그는 베이징에서 대학을 다닐 때 학생회 감찰부장으로 학생운동에도 참가하였고 일화배척운동에도 뛰어든 애국청년이였다.

이것은 훗날 그를 나가사끼감옥으로 끌어가게 한 근거로 되였다.

한평생 정치와 담을 쌓고 살아온 그의 모습에는 길림시절의 그 깨끗하고 순진한 품격이 그대로 살아있었다. 내가 아니면 너라는 생존경쟁의 풍토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손원태는 우리가 해놓은 모든 일에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공감을 표시하였으며 우리 조국을 ≪아름답고 고상한 나라, 후손들을 위한 건설의 나라≫라고 격찬하였다. 나는 때늦게나마 손원태가 우리를 찾아와 길림시절을 회고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조국애와 민족애, 인간애로 넘치는 손원태의 모습은 그대로 손정도의 모습이였고 손인실의 모습이였다. 그는 나를 만날 때마다 ≪주석님, 부디 늙지 말고 장수하십시오!≫하고 말하군 했다. 나의 건강을 충심으로 걱정해주는 그의 모습은 60년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보던 손정도목사의 모습을 방불케하였다.

그날 손목사는 나를 바래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세가 삼엄한 것만큼 길림에는 더 있지 말아주게. 이 고장 형세가 이만저만 흉흉하지 않아. 시국이 시국이니만치 어디 가서나 신변을 주의해야 하네. 간도에 가더라도 당분간은 벽촌에 숨어서 정양을 하는게 좋겠네.≫


안신영

나는 나의 신변을 걱정해주는 다심한 인정에 고마움을 금치 못하였다. 손목사의 조언이 얼마나 시기적절한 것이였는가 하는 것은 9.18사변 후의 만주정세가 웅변으로 증명해주었다. 길림을 점령한 일본군경은 그때 나부터 찾았다. 그들은 길림감옥의 명부를 뒤지면서 군벌들에게 김성주를 넘겨달라고 요구하였다. 손정도목사를 비롯하여 고원암, 오인화, 황백하와 같은 독립운동자들의 후원으로 감옥에서 제때에 석방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붙잡혀 10년 쯤 옥중생활을 더 하였을 것이다. 10년만 철창속에 더 갇혀 있었더라면 무장투쟁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내가 손목사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길림시절 나를 도와주고 나의 혁명활동을 충심으로 지지해준 사람들을 헤아리자면 실로 끝이 없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최만영, 오상헌, 김기풍, 이기팔, 최일과 같은 전 세대의 운동자들도 있었고 최중연, 신영근, 안신영, 현숙자, 이동화, 최봉, 한주빈, 유진동, 최진은, 김학석, 우석윤, 김온순, 이덕영, 김창술, 최관실, 유수경

과 같은 동년배의 선각자들도 있었으며 이동선, 이경은, 윤선호, 황귀헌, 김병숙, 곽연봉, 전은심, 안병숙, 윤옥채, 박정원, 곽기세, 정행정과 같은 애국소년들도 있었다.

나는 정세의 흐름으로 보아 길림에 더 머물러 있을 형편이 못된다는 것을 직감하였다. 감옥 안에서도 어느 정도 예견했던 바였다. 손목사는 자기 집에서 나를 보양시키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것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목사의 권고를 고맙게 받아들인 나는 점심을 한끼 대접받은 후 인차 신안툰으로 향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 향 가**

정서 깊게

1. 내 고 향 을 떠 나 올 때
나 의 어 머 니 문 앞 에 서
눈 물 흘 리 며 잘 다 녀 오 라
하 시 던 말 씀 아 — 귀 에 쟁 쟁 해

2. 우리 집에서 멀지 않게 조금 나가면
작은 시내 돌돌 흐르고 어린 동생들
뛰노는 모양 아 눈에 삼삼해

3. 대동강물 아름다운 만경대의 봄
꿈결에도 잊을수 없네 그리운 산천
광복의 그날 아 돌아 가리라

2. 준엄한 봄

나는 노상에서 뜻밖에도 차광수를 만났다. ≪델렁광창≫의 눈은 도수높은 근시경밑에서 기쁨으로 반짝거리고 있었다. 나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멀리서부터 환성을 질렀다.

차광수는 나의 소식을 알고 싶어 손정도목사네 집으로 가던 길이라고 하면서 나를 두 팔로 안아들고 몇 바퀴 빙그르르 돌아갔다.

그는 혁명을 하느라고 뛰어다니던 사람들이 다 잡혀가니 고독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 하면서 한참동안 길림소식을 알려주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말을 꺼냈다.

≪성주, 조선의 노동운동은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소. 투쟁구호, 투쟁양상… 모든게 새롭고 생신하거든. 30년대의 민족해방운동은 특히 투쟁양상에서 큰 변화를 보일 것 같은데 어떻소? 이제는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우리 혁명이 새로운 기치를 들고 전진해야 하지 않을까?≫

그는 피발이 선 눈으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혁명가의 이상은 고사하고 일신의 목숨조차 보존하기 어려웠던 살벌한 시기에 적의 공세에 위축되거나 겁을 집어먹지 않고 오히려 변복을 해가면서 동지들을 찾아다니며 공산주의자로서의 모색을 계속하고 있는 그의 변함없는 모습에서 나는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

≪우리 혁명이 새로운 기치를 들고 전진해야 하리라는 광수동무의 견해에는 나도 동감이요. 그런데 그 기치란 무엇이겠소?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옥중에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는 우리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새 형의 당을 창건해야겠다는 것과 무장투쟁에로 이행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소. 무장투쟁만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고 민족의 해방을 가져올 수 있소. 조선인민이 벌이는 모든 투쟁은 당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무장투쟁을 주축으로 하여 온 민족이 총동원되는 거족적인 항전으로 발전해야 하오.≫

나는 옥중에서 내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토로하였다.

차광수는 내 말에 절대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신안둔에 가서 김혁, 박소심 동무들과도 토론해보았는데 그들도 동감이라고 하였다. 무장을 잡지 않고서는 조선을 구원할 수 없고 새로운 노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혁명을 전진시킬 수 없다는 것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다.

무장투쟁은 조선의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제기되는 성숙된 요구였다. 일제의 파쑈적인 강권통치는 이 시기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였다. 조선민족의 무권리와 빈궁은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 1929년부터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경제공황의 파도가 일본에도 미치었다. 일제는 대공황으로부터의 출로를 아세아대륙에 대한 침략에서 찾고 전쟁준비를 다그치면서 조선에 대한 식민지적 폭압과 수탈을 강화하였다.

일제가 조선민족에 대한 수탈과 억압에서 부국강병의 길을 찾았다면 우리 민족은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데서 민족재생의 길을 찾았다. 경제투쟁일면으로 치우치던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이 점차 폭동적인 성격을 띠고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나는 그때 신흥탄광 노동자들의 파업을 흥미있게 주시하였는데 그 파업도 종국적으로는 폭동으로 발전하였다. 수백 여명의 노동자들은 파업단의 지도밑에 탄광감탄소와 사무소, 기계실, 발전실, 공장장사택을 습격파괴하고 탄광구내의 전선을 모조리 절단하였으며 탄광을 운영하던 일본사람들이 두 달이 걸려야 탄광의 복구가 가능하다고 비명을 지를 정도로 파업노동자들은 회사측에 심대한 손실을 주었다.

폭동은 무장경관대의 개입으로 백수십만 명에 달하는 피검자를 내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양상을 보이면서 전국을 뒤흔들어 놓았다.


원산노동자총파업

이 폭동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훗날 무장투쟁을 할 때 위협을 무릅쓰고 신흥지구에 들어가 노동운동지도자들을 만나보았다.

조선노동계급의 투쟁은 조직력과 단결력, 지구성, 연대성의 측면에서도 종전의 운동에 비해 질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었다.

원산노동연합회에 망라된 2000여명의 노동자들, 농민들은 곳곳에서 격전, 격문, 동정금을 보냈으며 대표들을 파견하여 그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였다.

홍원, 회령을 비롯한 국내의 로조단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원산에서 수 천리 떨어진 길림에서도 우리가 조직한 반일노동조합산하의 한성회성원들이 원산노동연합회에 동정금을 모아 보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그 당시 우리 나라 노동계급의 의식수준이 얼마나 높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산총파업은 1920년대 우리 나라 노동운동의 정점을 이룬 사변으로서 세계노동운동사상에 조선노동계급의 전투력과 혁명성을 뚜렷이 부각해 놓았다.


元山勞聯委員長
金瓊植氏又收監
數日內形勢急轉

조선일보에 실린 원산노동연합위원장의 수감 기사

나는 옥중에 있을 때 원산총파업의 전과정을 심중하게 주시하면서 그 투쟁이 우리 나라 노동운동역사에 특기할 만한 투쟁이며 그들의 투쟁경험이 조선의 사회운동자들이 다같이 참고하고 따라배울만한 가치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하였다.

만일 그때 갱신된 노동연합회지도부가 취업지시를 내리지 않고 끝까지 파업을 밀고 나갔거나 전국의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이 파업에 호응하여 본격적인 실력투쟁을 벌이었더라면 원산노동계급의 투쟁은 승리로 결속되었을 것이다.

나는 원산총파업의 실패를 통해서도 조선에 노동계급의 투쟁을 승리적으로 조직하고 영도할 수 있는 맑스-레닌주의당을 한시바삐 내와야 할 필요성을 다시한번 절감하였


원산노동자총파업

으며 무장투쟁이 민족해방운동의 주축을 이루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될 때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중투쟁도 그 배경밑에서 더 치열하게 벌어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적이 철권을 가지고 민족해방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조건에서 조선인민의 투쟁은 불가피하게 폭력화의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혁명적 폭력이야말로 발톱까지 무장한 적의 반혁명적 폭력을 타승할 수 있는 가장 승산있는 투쟁수단이었다. 적이 총칼로 휘두르는 조건에서 조선 민족도 자신을 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장에는 무장으로 맞서야 하였다.

교육, 문화, 경제의 진흥을 통한 순수한 ≪실력양성운동≫이나 노동대중의 쟁의나 외교공작의 방법으로써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수 없었다. 원산총파업과 신흥탄광 탄부들의 폭동을 통하여 조선의 노동계급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비할 바 없이 두터워졌으며 그 과정에 나는 우리 나라 노동계급이 훌륭한 노동계급이며 우리 민족이 참으로 전투적인 민족이라는 것을 깊은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느끼었다.

문제는 노선이고 지도였다. 시대의 추이에 맞는 옳은 노선이 있고 올바른 지도만 있으면 어떤 강적과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이 생기였다. 파괴된 조직들을 시급히 복구정비하고 대중에 대한 의식화, 조직화 사업을 끊임없이 벌려 그들을 일본제국주의와의 결전에 하루속히 준비시켜야겠다는 조바심 때문에 내 마음은 불덩어리처럼 달아올랐다.

이러는 사이에 흩어졌던 동무들이 내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 둘씩 나한테 모여들었다.

나는 길림지구 공청과 반제청년동맹, 반일노동조합, 농민동맹 핵심들과 마주앉아 적들의 백색테러가 강화되는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조직을 빨리 복구정비하고 군중을 묶어세우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차광수를 흥분시켰던 무장이라는 한 마디의 말은 여기서도 청년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 지지가 나를 크게 고무해주었다.

우리는 간도와 조선의 북부국경일대에서 공청사업을 강화하며 이 지역을 신속히 혁명화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당창건준비사업을 실속있게 벌일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면하게 해결하여야 할 몇 가지 과업을 토의한 다음 그 집행을 위하여 각지에 공작원들을 파견하였다.

나도 신안툰에서 하루밤 자고 인차 돈화를 향해 떠났다.

내가 돈화를 공작지로 정한 것은 거기가 동만 각 현들과 연계를 짓기에 편리한 고장이고 또 그곳에 나를 도와줄만한 친지들이 여러 사람 있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 얼마동안 머무르면서 폭동이 세차게 번져가고 있는 동만의 사태에 대처할 조직들의 활동방향을 제시해주고 옥중에서 무르익혀온 구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안을 세울 작정이었다.

길림을 떠나면서 내가 제일 허전하게 생각한 것은 어떻게 하나 중학만이라도 마치라고 한 아버지의 유지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었다.

박일파는 나에게 자기가 아버지를 내세워 육문중학교 당국과 복교교섭을 할 터

이니 중학교를 마저 다니라고 권고하였다.

그는 길림에서 ≪동우≫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있던 민족주의자 박기백의 아들이다. 막우천은 그의 필명이다.

내가 육문중학교를 다닐 때 박일파는 길림법정대학을 다니면서 유길학우회의 사업을 도와주었다. 그의 꿈은 법조계에 진출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그는 러어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백계러시아장교를 따라다니였다. 그가 백파장교와 접촉하는 것을 신생러시아에 대한 일종의 배신행위처럼 여기고 있던 우리 동무들은 나에게 그와의 거래를 끊으라고 권고하였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외국어도 배워두면 혁명을 위해 큰 밑천이 될 수 있으니 그가 백파장교를 따라다닌다고 배척하는 것은 편협한 처사가 아닌가.≫고 하였다. 해방 후 박일파가 톨스토이의 ≪고난의 길≫과 같은 명작들을 많이 번역하여 독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은 것은 학창시절에 러어공부를 꾸준히 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박일파와 마찬가지로 김혁과 박소심도 복교가 가능하다면 한 해 공부를 더하여 중학과정을 어떻게 하나 끝내라고 권고하였다.

이광한교장이 공산주의자를 이해하는 사람이니 김성주가 한 해 공부를 더하겠다고 청원하면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리라는 것이였다.

나는 공부는 자습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인민이 우리를 기다리고 파괴된 조직들이 우리를 가디리는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든 혁명을 외면하고 학창으로 되돌아갈 수 없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들의 권고에 응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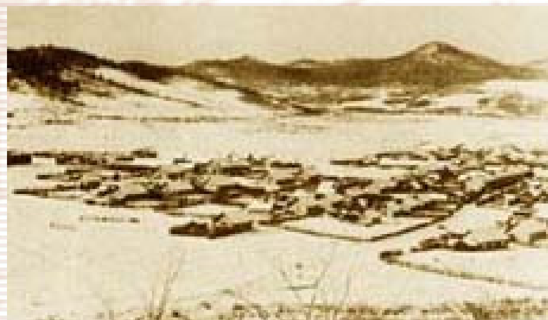
중학공부를 단념하고 막상 길림을 떠나자고 하니 별의별 생각이 다 났다. 아버지가 생전에 조국에 나가 공부하라고 하면서 엄동설한에 나를 홀몸으로 고향에 내보내던 일,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상앞에 앉혀놓고 조선역사와 조선지리를 가르쳐 주던 일, 임종을 앞두고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성주만은 중학까지 보내려고 했는데 당신이 내 뜻을 이어 하루 세끼 풀을 뜯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성주를 중학교에 꼭 보내라고 유언하던 일들이 떠올라 내 마음을 착잡하게 하였다.

졸업을 한 해 앞두고 내가 학교를 중도반단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삼년동안 모지라지도록 삯빨래와 삯바느질을 하여 다달이 학비를 보내주시던 어머니는 얼마나 실망하시며 동생들은 얼마나 허전해 하겠는가. 나를 친자식처럼 사랑해주며 학비를 보태주던 아버지의 친구들과 나의 학우들은 또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

그러나 어머니만은 나를 이해해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아버지가 숭실중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할 때에도 어머니는 학교를 그만두고 직업적인 혁명의 길에 나서려는 아버지의 뜻을 무조건 따르고 지지하였다. 그러니 아들이 설사 중학이 아니라 대학을 다니다가 중도반단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혁명을 위하고 내 나라를 위한 처사라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육문중학교를 중퇴하고 인민들속으로 들어간 것은 나의 인생에서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로부터 나의 지하활동이 시작되었고 직업적인 혁명가로서의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감옥에서 나온 후 집에 문안편지 한 장 전하지도 못하고 돈화로 가는 내 마음은 산란하기 그지없었다. 아무리 혁명에 전념할 때라고 하여도 한두 줄의 인사야 전할 수 있



강반석여사께서 혁명활동을 벌리신 흥륭촌

지 않겠는가고 스스로 자기를 꾸짖어도 보았지만 웬일인지 편지를 쓸 수 없었다.

나는 감옥에 잡혀들어간 다음에도 어머니가 걱정할가봐 내 신상에 일어난 일을 집에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1929년 겨울방학을 우리 집에 가서 보낸 동무들이 그만 내가 감옥에 간 전말을 어머니에게 알리고 말았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길림에 오지 않았다. 자식이 감옥에 들어갔다면 천리 밖에 있다가도 보따리를 꾸려가지고 와서 간수들에게 면회를 시켜달라고 애걸하는 것이 어머니들인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머니로서는 상당한 참을성을 발휘한 셈이었다. 아버지가 평양감옥에서 옥고를 치를 때에는 나까지 데리고 몇 번씩 면회를 가던 어머니가 10년 후 아들이 옥중생활을 할 때에는 단 한 번도 감옥을 찾지 않았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도황구의 고재봉

훗날 안도에서 나를 만났을 때에도 어머니는 감옥에 찾아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감옥을 찾아오지 않은 거기에 바로 어머니의 참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철창속에서 어머니를 만나면 오히려 성주가 괴로와할 수 있다, 내가 면회를 간대야 그 애에게 무슨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겠는가, 앞에는 넘어야 할 고개도 많은데 첫 걸음에서부터 인정에 끌리면 그 애가 장차 걸음을 똑바로 걷겠는가, 옥중에서 고독을 느끼더라도 차라리 면회를 가지 않는 것이 그 애를 위해서도 이로울 것이다. 어머니는 아마 이런 심정으로부터 면회를 단념할 결단을 내린 것 같았다. 나는 이 사실에서 순수한 보통여성으로부터 혁명가로 성장한 강직한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감옥생활을 마치고 넓은 세상에 나서고 보니 이제는 학교에 매인 몸도 아닌데 집에 가서 다문 며칠만이라도 어머니를 모시고 지내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는 돈화땅으로 결연히 발걸음을 옮기였다.

돈화에서 서남쪽으로 60리쯤 가면 사도황구라는 산간마을이 있다. 이곳이 바로 내가 담당한 공작지였다.

내가 감옥에 갇힌 후 길림에서 일어난 검거의 선풍이 무송에까지 미쳐오는 것을 예방하려고 공청, 백산청년동맹, 부녀회 조직들에 망라되어 활동하던 여러 세대의 집들이 안도와 돈화방면으로 이주하였다. 어머니 자신도 추운 겨울날 형권삼촌과 함께 동생들을 데리고 안도땅으로 이사하였다.

그 당시 동만으로 이주한 수십 세대의 집들 중 여섯 세대가 사도황구에 자리를 잡았다. 그 여섯 세대 가운데는 고재봉이네 일가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의부 급비생으로 무송사범학교를 졸업한 고재봉은 백산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독립군에 입대하여 무송지구별동대 지휘관으로도 복무하였다. 그는 반일군중단체의 핵심이었다.

그의 손아래동생 고재룡은 화성의숙시절의 나의 동창생이었다. 훗날 그는 양정우부대에 참군 하였다가 몽강인가 임강에서 전사하였다.

고재봉의 막내동생 고재림은 백산학교를 졸업한 다음 길림육문중학교를 다니면서 나와 함께 공청활동을 한 사람이었는데 1930년 봄부터는 만철의학전문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었다. 그가 길림에 있을 때 나의 일을 많이 도와주었다.

고씨문중 사람들은 원래 무송에 있을 때부터 우리 집과 각별히 가깝게 지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부모들을 돕는 일이라면 몸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객주업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많이 도와주었다.

소남문거리의 우리 집으로는 그때 애국지사들과 독립운동자들이 무시로 수없이 찾아왔다. 그들 중에는 우리 집에서 침식을 해가며 며칠씩 묵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머니는 그들의 시중을 하느라고 손에서 쌀함과 물동이를 놓을 새가 없었다.

이것이 군벌의 주의를 끌지 않을 수 없었다.

경찰이 우리 아버지를 감시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고재봉의 어머니(송계심)는 어느 날 우리 집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김선생님, 댁에서는 이제부터 손님들을 치르지 말아주시우다. 지금처럼 댁에 사람들이 끓게 되면 김선생 신상에 불길한 일이 생길 수 있수다. 무송에 오는 독립군 손님들은 우리가 다 받아들이겠으니 ≪무림의원≫댁에 오는 손님들은 모두 우리 집으로 보내주시우다.≫

이 일로 해서 우리 아버지는 고재봉의 어머니를 크게 신임하게 되었으며 나도 고재봉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백산학교가 폐교된 후 우리 어머니가 교사로 쓸 건물을 해결하려고 사방으로 뛰어다닐 때에도 고재봉이네는 자기 집 웃방을 교실로 쓰라고 선뜻 내맡기었다.

고재봉은 사도황구에 온지 반년도 안되었지만 그 동안 동흥의숙을 설립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편 부백가장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사도황구와 그 주변마을들에 공청과 백산청년동맹을 조직하고 계속하여 반일부녀회와 농민동맹을 조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도황구의
송계심어머니

고재봉의 어머니는 내가 가자 너무 반가와 눈물을 흘리며 무송시절을 회상하였다. 지난해 가을부터 감옥살이를 하다가 얼마 전에 석방되어 사도황구로 곧추 오는 길이라고 했더니 내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며 모색은 예전과 다름없으나 부종이 있고 병색이 짙은데 집의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가슴아파하겠느냐고 하였다.

나는 이 집에서 한 달 가까이 신세를 졌다.

고재봉의 어머니가 그때 나의 몸을 추세워주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였다.

그는 보리쌀에 좁쌀을 섞어 지은 밥에 산나물을 무친 찬을 정성껏 마련해가지고 내앞에 끼니마다 독상을 차려주면서도 음식이 초라해서 안됐다고 미안해하였다. 생소한 산골에 와서 객주업도 하지 못하고 첫해 농사를 방금 시작한 데다가 외손자들까지 와서 더부살이를 하는 그 집안 형편을 생각하면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무송시절부터 나의 식성을 잘 알고 있은 송계심어머니는 마을에 하나밖에 없다는 분틀을 구해다가 나에게 국수를 눌러주었고 고재봉은 돈화현성에 가서 절임한 송어까지 사다가 밥상에 놓아주었다. 고재봉의 매부는 부종에 특효가 있다는 상골을 잡으려고 새벽마다 샘터에 나갔다. 이 일가의 지성으로 내 건강은 빨리 회복되어 갔다.

고재봉은 안도까지 찾아가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보고 돌아왔다. 사도황구에서 안도까지 200리가량 되었는데 그는 이 먼길을 하루동안 가내군 하였다. 고재봉은 소설 ≪임꺽정≫에 나오는 황천왕동이처럼 하루에 300리를 걷는다고 했다. 내가 감옥에서 나와 돈화지방에 머무르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때 철주가 고재봉을 따라 사도황구에까지 왔다갔다. 철주는 어머니의 편지와 내가 입을 속옷을 가지고 왔다. 나는 그 편지를 보고 무송을 떠난 집안식구들이 그 동안 구안도(송강) 서문 밖에 있는 마춘욱이네 집에서 재봉기를 세내여 삯바느질을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였는데 흥륭촌에 가서도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손에서 일을 놓지 않는 다고 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철주는 새 고장에 별로 정을 붙이지 못하고 있었다. 중강, 임강, 팔도구, 무송과 같이 큰 강을 낀 시가지에서만 살아온 그에게 있어서 벌방과 철도에

서 멀리 떨어진 안도는 너무나도 한적한 시골이였고 새롭게 개척하지 않으면 안되는 또 하나의 서름서름한 고장이였다.

≪형님, 감옥에서 나온 다음 무송에는 들려보았나요?≫

그때 철주는 나에게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하였다.

≪들리고 싶었지만 들리지 못했다. 집에도 가보지 못하고 돈화로 곧추 온 내가 무송에 어떻게 간단 말이냐.≫

≪무송사람들이 형님을 몹시 보고싶어 했어요. 울화형은 형님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하루에 한번씩 우리 집에 오군 했어요. 무송사람들이 참 좋았지요?≫

동생의 목소리는 무송시절에 대한 그리움에 푹 젖어있었다.

≪그럼, 좋구말구.≫

≪무송에 두고 온 동무들이 자꾸 생각나군 해요. 형님이 그쪽으로 가실 기회가 생기면 우리 동무들을 꼭 만나보라요.≫

≪그렇게 하자꾸나. 그래 안도에 와서도 새 동무들을 많이 사귀었니?≫

≪아직 많이 사귀지 못했어요. 안도에는 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나는 철주가 새 고장에 와서도 무송시절을 계속 그리워하고 있으며 그 그리움 때문에 안도생활에 깊숙이 발을 잠그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지낸다는 것을 감촉하였다. 애수에 잠긴듯한 동생의 눈과 쓸쓸한 얼굴표정이 그것을 다 말해주고 있었다. 그 나이의 망향소년들에게서 흔히 보게 되는 현실에 대한 일종의 반감의 표시하고나 할가. 동생의 불안정한 정신상태는 어쩐지 내 마음까지도 어수선하게 하였다.

≪철주야, 부지런한 농사군에게 좋은 땅, 나쁜 땅이 따로 없듯이 훌륭한 혁명가에게는 좋은 고장, 나쁜 고장이 따로 없단다. 안도라고 왜 좋은 동무들이 없겠느냐. 동무라는 건 찾아낼 탓이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지 않더냐. 동무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석을 캐내듯이 찾아내야 한다구. 좋은 동무들을 많이 찾아내서 한번 안도를 멋있게 개척해보아라. 너두 인젠 공청생활을 해야 할 나이가 아니냐.≫

나는 공청에 가맹할 준비를 잘해야한다고 동생에게 거듭 강조하였다.

≪알겠어요. 형한테 걱정을 끼쳐 미안해요.≫

동생은 표정을 가다듬고 엄숙한 기색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후 철주는 인차 공청에 가맹하였다. 나는 사도황구에 머무르는 기간 고재봉, 고재룡 동무들을 도와 소년탐험대와 농민동맹, 반일부녀회를 무어주는 한편 동남만각지에 널려있는 혁명조직성원들과 연계를 짓기 위해 노력하였다. 고재봉을 통해 용정, 화룡, 길림의 연락소에 보낸 나의 편지를 받고 김혁, 차광수, 계영춘, 채수항, 김중권 등 10여 명의 동무들이 사도황구로 찾아왔다. 그들은 모두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의 지휘성원이였다.


돈화거리

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동만을 뒤흔들고 있는 폭동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격렬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폭동의 주력을 담당한 것이 바로 만주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사람들이였고 그들을 폭동에로 선동하고 인도한 것이 한빈, 박윤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중국당에 전당하려면 실천투쟁에서 공로를 세워 그 당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폭동에 궐기하라고 호소하였다.

당시로 말하면 동북지방에 있던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국제당의 1국1당원칙에 따라 당재건운동을 포기하고 중국당에 적을 옮기기 위한 공작을 맹렬하게 벌이고 있을 때였다.

중국당에서도 실천투쟁을 통한 검열과 개별적인 심의를 거쳐 개인의 자격으로서만 당에 들어올 수 있다는 원칙밑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을 받아들이겠다고 선포하였다. 이런 때에 국제당에서 내려온 사람들까지 폭동을 선동하며 돌아다녔기 때문에 중국당에 전당하려고 탐위적 목적을 앞세우면서 인민들을 무모한 폭동에로 내몰았다. 그들은 청산하지 말아야 할 대상들까지도 청산하였고 지어는 학교와 발전소에까지 불을 질렀다.


일제의 의해 잘려나간 사람들의 머리

5.30폭동은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중국의 반동군벌들로 하여금 만주지방에서 공산주의운동과 반일애국투쟁을 탄압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을 주었다. 유치장과 감옥들은 모두 폭동군중으로 차고 넘치었다. 수많은 폭동관계자들이 조선으로 압송되었다. 그들은 서울에 끌려가서 모두 극형과 중형을 언도받았다.

봉천군벌도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간계에 넘어가 폭동군중을 잔인하게 탄압하였다. 일제는 조중인민들사이의 이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선사람들이 동만에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군벌의 우두머리들은 그 선전을 그래도 곧이듣고 조선사람들은 공산당이며 공산당은 일제놈의 앞잡이기 때문에 모두 죽여야한다고 하면서 폭동군중을 닥치는대로 살해하였다. 우둔한 군벌은 공산주의자와 일제의 앞잡이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었다.

5.30폭동기간에 체포되고 살해된 사람들은 실로 수천 명에 달하였는데 그 대다수가 조선사람이었다. 피검자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였다. 폭동으로 하여 우리의 혁명조직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폭동을 계기로 조선사람들과 중국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몹시 나빠졌다.


일제에 의해 살해된 사람들

이립삼노선은 훗날 중국당내에서 ≪망동주의노선≫, ≪소부르조아적 광증≫으로 평가되었다. 이립삼의 쏘비에트홍군노선은 동북지방의 실정에 맞지 않는 모험주의적 노선이였다.

그 해 9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이립삼의 좌경모험주의노선을 심각히 비판하였다. 국제당에서도 ≪11월 16일부 서한≫을 통하여 이립삼의 좌경모험주의적 오류를 비판하였다.

우리도 1931년 5월의 봄 명월구회의에서 이립삼노선을 비판하고 좌경모험주의적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그러나 이립삼의 좌경모험주의의 해독은 그 후에도 완전히 청산되지 않고 여러 해 동안 동북일대의 혁명투쟁에 영향을 주었다.

사도황구에 모여온 청년들은 ≪조선민족의 피가 아깝다.≫고 통탄하였고 ≪우리 혁명이 언제까지나 이런 혼동 속을 헤매야 하겠는가≫고 가슴을 치며 안타까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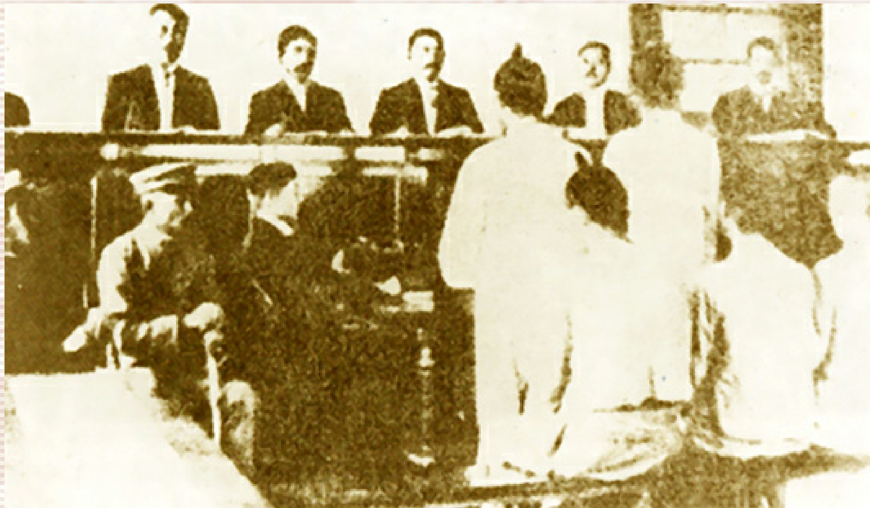

명월구회의가 진행된 곳

나는 그들에게 힘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폭동의 후과가 큰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후과가 크다고 한탄만 해서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한탄은 그만하고 각지에 나가서 조직을 복구하며 뒤수습을 해야겠다. 중요한 것은 종파분자들의 야욕을 발가내고 군중을 그들의 영향에서 떼내는 것이다. 그러자면 그들에게 조선혁명의 진로를 가르쳐주어야 한다. 폭동은 비록 유혈로 끝났지만 군중은 그 과정을 통해 크게 단련되고 각성되었을 것이다. 조선민족은 이번 폭동을 통해 전투력과 혁명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나는 우리 민족의 그 위대하고 헌신적인 투쟁정신에서 크나큰 힘을 얻었다. 이런 인민에게 과학적인 투쟁방법과 전술을 가르쳐주고 민족이 나아갈 진로를 밝혀준다면 우리 혁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동무들은 이런 호소를 듣고도 별로 큰 자극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한별동무의 말이 옳다. 그런데 대중을 공감시킬만한 새 진로가 어디 있는가?≫고 하면서 답답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 노선을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서 섬겨바치는 것도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만들어야 한다. 내가 옥중에서 생각


애국적인민들을 재판하는 일제

해둔 것이 있는데 동무들의 의견을 듣고싶다.≫고 하였다.

그렇게 되어 차광수, 김혁, 박소심 등과 이미 토론한 바 있는 조선혁명의 노선상 문제를 내걸고 장시간에 걸치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것이 사도황구회의다. 이 회의에서도 내가 제출한 안은 동무들의 지지를 받았다.

동만의 방방곡곡에서 빚어진 참혹한 유혈을 나를 다시한번 흥분시키고 각성시키었다. 나는 이 통탄의 한복판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앞에 그리며 어떻게 하면 조선의 혁명군중을 피바다속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조선의 민족해방투쟁을 역경에서 건져내고 승승장구하는 혁명에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줄곧 하였다. 혁명은 무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잘 조직되고 훈련된 혁명군대와 인민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2천만을 승리의 길로 향도할 수 있는 강령과 그 강령을 집행할 수 있는 정치적 참모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외의 정세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조국과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성전에서 전환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전환이 없다면 우리 민족이 더 많은 유혈과 참화를 당할 수 있었다.

나는 우리가 이 전환의 돌파구를 열어야 하며 1930년 여름에 바로 이런 전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심을 가지고 머리속에 떠오르는 사색의 알맹이들을 목책에 쉬임없이 정리해주었다.

우리는 사도황구를 떠나는 조직성원들과 공작원들에게 맡은 임무를 시급히 끝낸 후 6월 하순에 카륜에서 다시 만날 곳을 굳게 약속하였다.

그 후 돈화에서 길동지구당회의가 열리었다.

회의에서는 폭동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파쟁분자들은 5.30폭동과 같은 폭동을 또 일으키려고 계획하였다. 나는 5.30폭동은 무모한 폭동이었다는 것을 비판하고 그들의 계획을 반대하였다.

그 해 봄 나는 옥중생활에 이어 5.30폭동까지 겪으면서 많은 것을 체험하였다.

참으로 나의 일생에서 1930년의 봄은 잊을 수 없는 성장의 봄, 시련의 봄이었다.

이 봄에 우리 혁명은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였다.



애국자들을 집단학살하는 일제침략군

3. 카륜회의



카륜회의

6월하순이 되자 동무들은 약속한대로 카륜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카륜에는 이미 우리의 혁명조직들이 들어가 있었다. 우리는 1927년경부터 만주각지로 쉽게 내왕할 수 있는 고통의 분기점에 활동기지를 하나 만들어둘 필요를 느끼고 공청핵심들을 파견하여 이 일대를 개척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카륜에서 회의를 하려고 결심하게 된 것은 이곳이 교통상 편리한 지점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과 회의참가자들의 신변안전과 비밀보장을 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은폐된 활동기지라는 점을 고려해서였다.

카륜은 반일운동자들의 내왕이 잦은 고장이였지만 적들에게는 노출되지 않은 곳이였다. 이 고장 인민들이 또한 우리의 일이라면 후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장소는 이상적인 곳이였다.

내가 카륜에 도착하니 소년탐험대 총대장인 정행정이 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카륜에 갈 때면 늘 그가 역에 마중을 나왔다가 나와 동행하곤 하였다.

카륜에 와보니 돈화나 길림보다는 분위기가 좀 평온하였다.

5.30폭동이 휩쓸고 지나간 뒤여서 그 당시 간도의 공기는 대단히 험악하였다. 그런데다가 일본군대의 동만출병이 박두한 것과 관련하여 더 긴장해졌다. 일제가 간도에 군대를 들이밀려고 한 것은 이 일대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은 혁명운동을 진압하고 만몽을 점령하여 쏘련을 침공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자는데 있었다. 이런 목적을 위해 나남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제 19사단 사단장 기와사마중장이 용

정, 연길, 백초구, 두도구 지방을 순시하고 있었다. 국민당 길림군참모장과 민정청 처청장도 때를 같이하여 동만을 시찰하였다.

간도지방의 혁명조직들이 동만으로부터 일본군 중장과 국민당 참모장, 민정청청자를 내몰라고 호소한 것이 바로 이 시기였다.

나는 그때 카륜에 가서 전명학교 교원들인 유연선과 장소봉이 집에 숙소를 정하였다. 장소봉은 진명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편 ≪동아일보≫지국자의 일도 겸하여보았다. 그는 차광수처럼 글도 잘쓰고 식견도 높은데다가 일도 잘하여 동무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것이 흠이었다.

동무들이 충고를 주면 자기 안해가 지나치게 봉건적인 여자여서 도무지 뜻이 맞지 않는다고 타발하였다. 장소봉이 가정생활에 취미를 붙이게 하느라고 내가 여러번 설복도 하고 비판도 하였지만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

장소봉은 조선혁명군이 조직된 후 무기를 구입하려고 장춘에 나갔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전향하였다. 한때는 나에 대한 ≪귀순공작≫에도 동원되었다고 한다.

카륜을 혁명화하는데서 김혁과 장소봉은 특별히 많은 공로를 세웠다. 그들은 이 지방의 유지들과 힘을 합쳐 학교와 야학을 세우고 그것을 거점으로 교육운동을 벌이었으며 농민회, 청년회, 소년회, 부인회 등 종래의 계몽단체들을 농민동맹, 반제청년동맹, 소년탐험대, 부녀회 등의 혁명적인 조직들로 개편하여 각계각층 군중을 항일혁명의 담당자로 훌륭히 교양육성하였다.

김혁의 주관하에 잡지 ≪볼쉐위크≫가 창간된 곳도 바로 카륜이었다.

나는 카륜에 가서도 사도황구에서처럼 조선혁명의 진로를 두고 사색을 계속하였다. 한달가량 사색하고 정리한 것을 종합해보니 펴그나 부피가 큰 글이 되었다.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우리 나라의 민족해방투쟁이 새로운 지도이론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적 절박감을 뼈에 사무치도록 통감하였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도이론이 없이는 혁명을 한 걸음도 전진시킬 수 없었다.

자주성을 요구하는 피압박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은 1930년대에 들어와서도 세계적 규모에서 더욱더 확대되었다.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던 대륙이 아세아였다.

아세아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중심무대로 된 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이 무렵에 와서 아세아후진국들의 이권을 강탈하기 위한 침략을 더욱 노골화하였기 때문이며 동방의 여러 나라 인민들이 과감히 떨쳐 일어나 도처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결사적으로 전개하였기 때문이었다.

외세를 구축하고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새 사회에서 살아가려는 동방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은 그 어떤 힘으로써도 멈춰세울 수 없었다.

쏘련, 몽골 혁명의 약진에 발을 맞추어 중국, 인도,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아세아 여러 나라들에서 혁명의 억센 조류는 격랑처럼 끓어번지었다. 비폭력불복종운동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인도의 거리에서 방직공들이 붉은기를 들고 시위를 단행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중국인민은 제 2차 국내전쟁의 불길속에서 1930년대를 맞이하였다.

중국을 비롯한 아세아 여러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혁명투쟁과 국내 인민들의 적극적인 진출은 우리를 끝없이 흥분시키고 분발시켰다.

당을 내오고 옳은 지도이론만 내놓는다면 인민을 궐기시키며 얼마든지 일본제국주의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움직일 수 없는 신념으로 뿌리를 내리었다.

이 시기에 와서도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무대에는 각당, 각파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여러 가지 주의주장이 등장하여 대중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론들은 이러저러한 시대적, 계급적 제한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때까지의 민족해방투쟁에서 우리가 그 중 높은 형태의 투쟁이라고 본 것은 독립군들의 무장투쟁이였다. 이 투쟁에는 민족주의 좌익진영에서 가장 적극적인 반일독립운동자들과 애국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이 독립군부대를 조직해가지고 무장투쟁을 시작한 것은 독립전쟁을 해야 나라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였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대에 의한 군사활동으로써만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인 테러전술만이 일본제국주의자들을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도라고 주장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군대를 잘 훈련시켜두었다가 쏘련, 중국,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일본과 전쟁을 할 때 그들과 연합하여 독립을 이룩하는 것이 조선의 실정에 맞는 전략이라고 하였다. 이 모든 주장들은 어느 것이나 다 일제와의 혈전은 지향하고 있었다.



카륜역

그러나 독립군의 투쟁은 이러한 초지를 끝까지 관철할 만한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갖추지 못하였고 독립전쟁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강력하고 세련된 지도부를 가지지 못하였으며 그 투쟁을 인적, 물적, 재정적으로 뒤받침할 수 있는 튼튼한 대중적 지반을 꾸리지 못하였다.

개량주의이론가운데서는 ≪실력양성론≫이라는 안창호의 ≪준비론≫이 독립운동자들의 화제거리고 되고 있었다.

우리는 안창호란 인물자체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에 일생을 고스란히 바친 청렴하고 양심적인 애국지사로 존경하고 있었지만 그의 이론에 대해서는 환영하지 않았다.

상해임시정부의 비폭력적 독립운동노선도 대중의 지지와 공감을 받지 못하였다.

상해임시정부가 조직된 지 얼마 안되어 사람들의 실망을 자아낸 존재로 된 것도 이 단체가 시종일관 한 가닥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비폭력적인 외교노선에 매달려 세월을 보냈기 때문이였다. 그런 것만큼 군사노선을 절대화하고 있던 독립군은 이것을 한사코 냉대하였다.

조선을 국제연맹의 위임통치하에 두어달라고 애걸한 이승만의 청원에 대해서는 무슨 노선이라고 말할 것도 없으며 민족주의 우파가 제창한 ≪자치론≫ 역시 민족의 독립정신에 배치되는 하나의 몽상에 지나지 않았다.

1925년에 창건된 조선공산당도 조선의 실정에 맞는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세우지 못한 채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었다.

총괄적으로 말하여 선행세대의 전략이나 노선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약점은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고 외면한데 있었다.

선행세대의 운동자들은 한결같이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며 혁명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진리를 무시하고 있었다. 수백만 대중의 조직된 힘에 의거해야 일제를 타도할 수 있겠는데 우리 나라의 반일운동자들은 혁명도 독립전쟁도 특수한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공산주의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이런 입장에서 기초축성은 별로 하지 않고 몇몇 상층인물들로써 당중앙을 선포하는 방법으로 당을 만들었으며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3인1당, 5인1파식으로 서로 분열되어 여러 해 동안 헤게모니싸움을 벌였다.

선행세대의 노선이나 전략들은 또한 조선의 산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지 못한 심중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조선의 산 현실에 부합되는 옳은 지도이론을 내놓자면 고전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절대시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독창적인 방식을 풀어나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였다. 지도이론을 마련한다고 하여 10월혁명의 경험 같은 것을 통채로 받아들여도 안되었고 국제당이 그 어떤 만병통치의 처방을 가져다줄 것 같이 기대하면서 팔짱을 끼고 앉아있어도 안되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인민대중의 힘밖에 없다. 2천만의 힘을 믿고 그 힘을 하나고 묶어세워 일본제국주의자들과의 혈전을 벌이자.≫

나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웨침이 자주 울리었다.

나는 이런 충동을 안고 오늘 우리가 주체라는 이름을 달아서 부르고 있는 사상을 보고의 구절구절에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보고에 담으려고 한 내용들은 모두 우리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심중한 문제들이였다.

나는 그때 특히 무장투쟁문제를 놓고 많은 생각을 하였다.

우리는 보고에서 무장으로 전면적인 항일전쟁을 벌일 데 대한 문제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기본노선으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첫째가는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무장투쟁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내리고 그것을 방침으로 채택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적수공권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조건에서도 나는 무장투쟁을 하자면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손으로 새 형의 군대를 창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독립군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면 되지 따로 군대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반일군사역량이 분열되지 않겠는가고 의견을 달리하였다.

독립군이 우경화되고 반동화되어가는 조건에서 그 속에 들어가 군대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무장활동을 벌인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였고 불가능한 일이였다.

1930년 당시 독립군의 무력은 매우 열세한 상태에 있었다. 국민부산하에 독립군의 무력이 있었다고 하지만 9개 중대밖에 되지 않았다. 그 무력조차도 상층의 분열로 국민부파와 반국민부파로 대립되어 있었다.

국민부파란 독립군이 10여년동안 틀어쥐고온 기존방침의 고수를 절대화하는 보수세력이었고 반국민부파란 기존방침을 반대하고 새로운 노선을 추구하는 혁신세력이었다. 반국민부파 인물들은 공산주의에 공감하면서 그와의 제휴를 기도하기도 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을 ≪제3세력≫이라고 규정하였다.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닌 새로운 중도세력이라는 뜻이다. 민족운동내부에서 반국민부파와 같은 ≪제3세력≫이 대두하였다는 것은 이 운동의 방향을 공산주의운동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지향이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실증해주었다.

국민부파와 반국민부파의 대립으로 독립군역량은 분열되었고 민족운동내부는 혼란에 빠지었다.

독립군 중대들은 대체로 유격전쟁을 하는데 불리한 벌방지대의 부락들에 주둔하고 있었다. 무장도 변변치 못하였지만 규율이 문란하고 훈련상태가 저조한데다가 군중들과의 관계도 잘 가지지 못하였다.

청산리전투나 봉오골전투에서와 같이 일제의 대부대를 무리로 통쾌하게 섬멸하던 1920년대초의 전성기와는 달리 독립군은 점차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다.

남만청총대회에 참가하려고 왕청문에 갔을 때 나는 현묵관과 함께 국민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질문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카륜에서 계셨던 집

≪선생님, 국민부역량을 가지고 일본과 싸워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가 국민부자랑을 너무 하기 때문에 자극을 주노라고 던진 물음이였다.

≪승산은 무슨 승산, 이렇게 버티다가 대국들이 도와주면 독립을 하는거지.≫

나는 그 대답을 듣고 아연해졌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배심도 없이 대국들이 원도를 기다리면서 맹목적으로 싸우는 군대가 어떻게 맥을 추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농담삼아 어떻게 국민부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우리한테 모조리 넘겨주지 않겠는가, 무기만 넘겨주면 우리가 3-4년안으로 일본놈들을 몰아내겠다고 말하였다.

대회준비위원들에 대한 테러가 있기 전이여서 그때까지는 그런 농담을 할 여유가 있었다. 현묵관이 원래 길림시절부터 내 농담은 잘 받아주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쓴웃음만 지었다. 철없는 공상을 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국민부군대 같은 것은 가지고서는 현상유지만 하자고 하여도 힘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형의 군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지도하는 무장투쟁만이 가장 철저하고 혁명적인 반일항전으로 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만이 자기의 무장대오에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반일애국역량을 폭넓게 집결시킬 수 있으며 대중의 이익을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전략전술로 무장성전을 끝까지 책임적으로 전개하면서 전반적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영도할 수 있기 때문이였다.

우리가 타도해야 할 일본제국주의는 청일, 러일 두 전쟁에서 자기 영토의 몇십 배나 되는 광대한 땅을 가지고 있는 대국들과 싸워 쉽사리 승리한 신흥강국이였다.

이런 강국을 타승하고 나라를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였다.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한다는 것은 곧 세계적으로 공인된 일본의 군사력을 타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의 광신적인 황도정신을 타승하고 명치유신 후 신흥일본이 근 70년동안 이룩해놓은 모든 인적, 물적, 재정적 역량과의 소모전에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장투쟁만 하게 되면 3-4년안팎에 일본을 패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젊은 혈기가 아니고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생각이었다. 일본군벌들이 그런 고백을 들었더라면 아마 앙천대소하였을 것이다.

무슨 담보로 그렇게 판정했는가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다. 맨주먹밖에 없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담보가 있었겠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애국심이였고 젊은 혈기뿐이였다. 우리가 3-4년안팎이라고 한 것은 일본의 힘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애국심이 그보다 더 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담보가 있었다면 그것은 2천만 민중의 힘이였다. 2천만을 잘 훈련시켜 도처에서 들고일어나 일본군경들을 족치면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으리라는 배심이 우리에게 있었다.


진명서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투쟁을 본때있게 해나가자면 대중적 지반을 잘 닦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여기로부터 반일민족통일전선에 대한 구상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조직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 화성의숙시절이라면 민족의 힘을 처음으로 느끼고 뇌리에 새겨둔 것은 3.1인민봉기 때였다. 내가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묶어세우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하겠다는 결심을 품은 것은 길

림시절이었다.

2천만의 총동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족적인 항전이 없이는 식민지노예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순수한 계급혁명이라면 노동자, 농민 대중이 혁명의 동력으로 되겠지만 우리 혁명의 성격자체가 봉건을 반대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인 것만큼 노동자, 농민은 말할 것도 없고 청년학생, 지식인, 애국적인 종교인, 민족자본가들도 다 혁명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주장하였다. 우리의 원칙은 민족해방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반일애국역량은 다 집결하고 다 동원시키자는 것이었다.

우리가 이런 노선을 내놓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고전에 없는 규정이라고 하면서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그런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자, 농민을 제외한 다른 계층들과 동맹을 맺겠다는 것은 몽상이라고 하였으며 종교인이나 기업가 계층들과는 손을 잡을 수 없다고 하였다. 화요파에서 김찬이 한때 국민부의 몇몇 인물들과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그들 조선공산당 만주국 책임자의 자리에서 물러난 것도 그런 관점 때문이었다.



카륜회의가 진행되고 첫 당조직이 무어진 자쟈툰부락

민족주의자들 중에도 공산주의자들을 냉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공산주의운동내부에서는 민족주의가 금물이었고 민족주의운동내부에서는 공산주의가 금물이었다. 이런 경향은 민족역량을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의 두 개 진영으로 분열시키는 결과를 빚어냈다.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하였다. 그런 사람들의 노력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20년대 중엽부터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두 진영의 합작을 위한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1927년에 신간회의 창립으로 결실을 보았다. 신간회의 출현은 이념이 달라도 민족을 위한 길에서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 사변으로 민중은 누구나 이것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그러나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파괴책동과 그에 매수이용된 개량주의자들의 분해작용으로 하여 이 단체는 1931년에 그 해체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역량이 애국이라는 대전제로 견고한 결합을 이룩했더라면 설사 안팎의 파괴작용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처럼 쉽사리 허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신간회의 해산으로 모처럼 성사되었던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의 합작이 무산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몹시 분하게 여기였다. 민족을 우위에 놓지 않고 이념만 절대화하게 되면 진정한 합작이 이루어질 수 없다. 민족해방이라는 대전제를 첫 자리에 놓는다면 어떤 계층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그 당시 나의 견해였다.

우리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해방 후 일생을 반공으로 살아온 김구선생과도 합작하였고 지금도 모든 겨레의 이성을 향해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면 남는 것은 외세와 매국노들뿐이다. 민족의 대단결이 그처럼 귀중한 지상의 과제이고 경륜이기에 우리는 반공일선에서 우리에게 총부리를 맞대고 평생을 살아온 최홍희, 최덕신 선생이 평양으로 찾아왔을 때에도 그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고 혈육의 정으로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때 나는 최덕신선생에게 북에 사는 사람이건 남에 사는 사람이건 민족을 첫 자리에 놓고 통일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민족이 있고야 계급이 있고 주의도 있지 않겠는가, 민족이 없이 공산주의는 해서 뭣하고 민족주의는 해서 뭐하며 ≪하느님≫은 또 믿어서 뭣하겠는가고 하였다.

우리는 카륜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노선을 모색하던 60여년 전에도 역시 그렇게 부르짖었다. 정치는 그릇이 크지 못하면 대중을 다 담지 못하며 정치가가 도량이 넓지 못하면 대중이 그 정치가를 외면해버린다.

보고에서는 당창건문제를 비롯하여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투쟁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입장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나는 보고초안이 준비되자 그것을 곧 카륜회의에 참가하려고 여러 곳에 모여온 공청과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들의 토의에 붙이였다. 그때 우리는 낮에는 벌에 나가 일을 하면서 논밭머리와 무개하의 버들숲에 모여 토론하였고 밤이면 진명학교 숙직실에서 낮에 종합된 의견들을 놓고 한조항한조항 토의를 심화시켰다.

대중적인 토의과정에 제출된 의견들 가운데는 흥미있는 현실적 문제들이 적지 않았다.

우선 조선혁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겠는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논쟁이 생기였다. 보고에서 밝힌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는 규정을 두고 논의가 분분했다. 논쟁의 초점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는 새로운 성격규정이 혁명의 보편적 원리나 합법칙성에 모순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였다. 그때 당시의 청년들은 근대역사를 변혁시킨 혁명가운데는 부르조아혁명이나 사회주의혁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사회주의혁명도 아니고 부르조아혁명도 아닌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고 규정한 것은 우리 나라에 조성된 계급관계와 우리 혁명앞에 제기된 과업으로부터 얻어낸 결론이였다. 조선민족이 수행해야 할 가장 절박한 혁명임무는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우리 인민을 얽매어놓고 있는 봉건적 관계를 청산하며 우리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였다. 이런데로부터 우리는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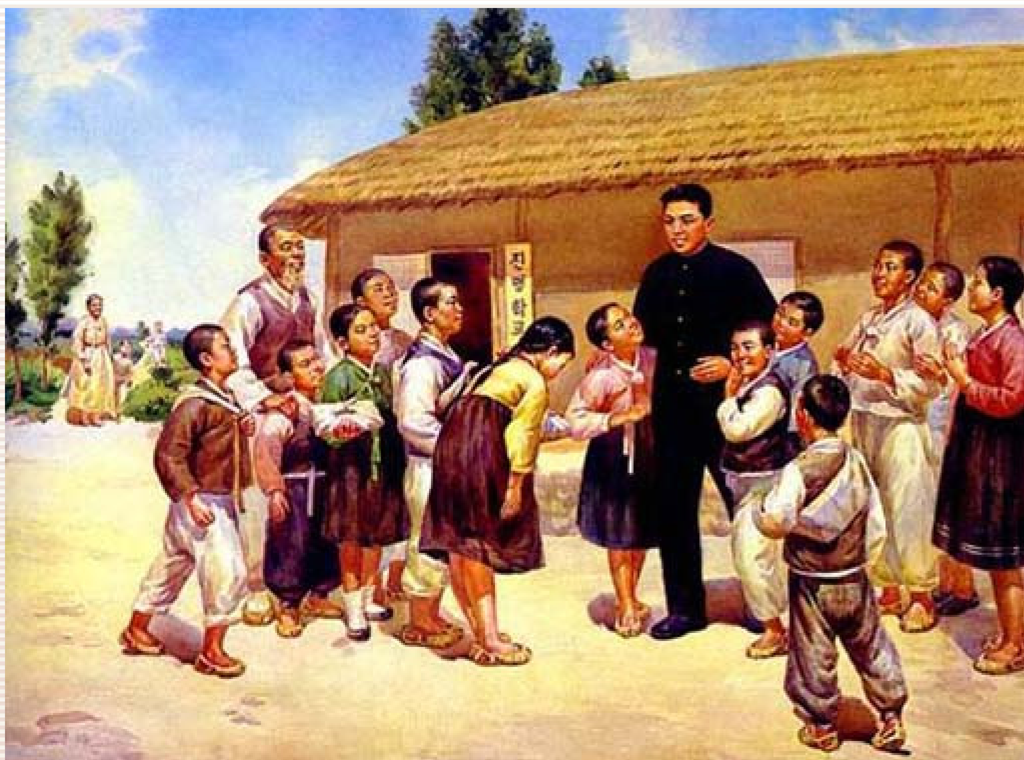
남들이 만들어놓은 형태에 억지로 틀어맞추어 혁명의 성격을 규정해버리면 교조를 범한다. 형태가 선차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이 선차이다. 설사 고전에 없는 정식화이고 남들에게 없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나라의 실정에 부합되는 과학적인 규정이라면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을 서슴없이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창조적 태도이다.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더니 대표들은 이해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그것을 열렬히 지지한다고 하였다. 제일 논의가 활발했던 것은 반일민족통일전선과 관련된 문제였다. 민족통일전선전략과 관련된 문제는 그 당시 이론실천상으로 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문제로 공인되고 있었다. 국제당에 있던 일부 사람들이 중국에서 국공합작이 실패한 것을 이유로 통일전선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밀몰아 개량주의자로 규정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조심스럽게 대하였다.

큰 용단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런 때에 민족통일전선정책을 노선으로 제기할 수 없었다. 그런 문제를 노선으로 제기하면 국제당의 입장에 도전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였다.

그때 동무들이 참으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아버지는 지주인데 그의 아들이 혁명을 지지해나서는 경우 그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자본가로서 독립자금도 많이 내고 독립군에 대한 물질적 보장도 많이 했는데 공산주의자라면 덮어놓고 상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면장으로서 왜놈들하고는 잘 섭쓸리고 인민들하고도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도 혁명에 포섭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본인의 사상동향을 위주로 하여 사람들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 때의 이런 견해가 그 후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구체화되었으며 해방 후 20개조정강에서 국가정책으로 명문화되었다. 우리가 카륜에서 내놓은 반일민족통일전선노선의 정당성은 그 후 실생활을 통하여 확증되었다. 동무들의 의견은 보고를 완성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다. 카륜회의가 정식으로 열린 것은 1930년 6월 30일



밤이었다. 카륜의 동무들은 진명학교 교실에다가 회의장을 준비하였다. 대표들을 위해 교실바닥에 초롱방석들을 깔고 천정에는 여러 개의 남포등을 매달아놓았다.

첫날 회의는 나의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그치고 그 다음날부터는 농민들의 일손을 도우면서 강가나 버들숲에서 조단위로 혹은 대표전원이 모여서 보고에서 제기된 과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아주 독특한 회의방식이었다.

카륜의 혁명조직들이 부락의 경비를 철통같이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놓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소년탐험대원들이 회의의 전기간 특히 우리를 잘 보호해주었다.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대부대가 중부만주지방에 집결되어있다는 것을 내탐한 일제는 우리의 활동구역인 장춘현, 회덕현, 이통현 일대에 민정들을 대대적으로 파견하였다. 밀정들 중에는 내 사진까지 들고 다니며 행처를 탐문하는 자들도 있었다.

만주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영사관의 끄나불들과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밀정들을 통하여 길림을 중심으로 한 만주지역에 종래의 공산주의자들 나타나 역량을 확대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내탐한 일제는 처음부터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지도핵심을 잡아내기 위해 우리의 뒤를 집요하게 추격하였다. 우리가 소문을 크게 내지 않으면서도 터를 넓게 잡고 인민들속으로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놈들도 우리를 만만치 않게 본 것 같았다.

그 때 카륜에서 부락의 경비조직을 책임지고 소년탐험대원들과 반제청년동맹원들을 통솔한 사람은 김원우였다. 그는 회의장에 앉았다가도 슬그머니 밖에 나가 마을을 돌아보면서 경비상태를 알아보군 하였다. 내가 일에 몰려 숙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진명학교 교실에서 밤을 새울 때면 그도 밖에서 우리들의 신변을 지켜주느라고 밤을 밝히었다. 어떤 날에는 학교 숙직실 부엌아궁이에서 감자를 구워가지고 우리에게 밤참으로 내놓군 하였다.

카륜, 고유수, 오가자 등지를 개척하는데서 김원우의 공로가 컸다. 그는 길림에서 청년학생운동을 할 때에도 많은 일을 하였다. 우리는 1928년 봄에 장춘지방의 농촌들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김원우를 파견하였다.

그 때 김원우는 카륜의 진명학교에서 교원생활을 하면서 카륜과 고유수 일대를 돌아다니며 청년들을 교양하였다. 1930년 봄부터는 차광수를 도와 조선혁명군결성을 위한 준비사업에도 참가하였다. 김원우가 얼굴이 곱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여자옷을 입히고 현균과 부부간으로 ≪짝≫을 무어주어 지하공작에 보낸 적도 있었다.


김원우

김원우는 조선혁명군이 조직된 후 무기를 구입하려고 돌아다니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어 몇 해 동안 감옥살이를 하였다. 그는 옥중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견결하게 잘 싸웠다.

김원우는 전후시기 안팎의 정세가 복잡할 때 지방에서 당의 노선을 옹호하여 싸우다가 종파분자들에게 잘못되었다. 그 당시 종파분자들은 당에 충실한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해하였다. 김원우의 본명은 변룩성이다.

카륜이 우리의 믿음직한 활동기지로 되고 우리의 이념을 실현하는 혁명촌으로 전변된 것은 김원우, 김리갑, 차광수, 김혁과 같은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이 마을을 개척하기 위해 일찍부터 피타는 노력을 해온 결과였다. 우리가 이 고장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곳 사람들은 남도패와 북도패로 갈라져 서로 등을 지고 살았다. 남도패가 논밭을 일쿠느라고 물목을 막으면 북도패가 자기네 논이 말라버린다고 하면서 삽을 들고 달려가 그 물목을 터뜨려놓군 하였다.

나중에는 아이들까지 북도패와 남도패로 갈라져 한데 어울려 놀지 않는 서글픈 대치상태까지 빚어졌다. 이와 같은 사태를 바로잡으려고 김혁, 김원우, 김리갑, 장소봉 등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들은 군중을 설복하여 패싸움을 청산하고 카륜에 여러 가지 대중조직들을 내왔으며 학교를 세워 면비교육도 실시하였다. 대표들은 7월 2일 밤 진명학교 교실에 다시 모여 회의를 계속하였다. 그날밤 분공안을 발표하고 회의를 결속하였다.

회의가 끝날 무렵에 사회를 담당하고 있던 차광수가 집행석에서 벌떡 일어나 격동적인 연설을 하였다.

그는 ≪덜렁광창≫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울만큼 덜렁거리기도 하고 흥분도 잘하는 동무이지만 그런 때에도 이성만은 잃지 않았으며 오히려 격정에 넘치는 웅변으로 사람들을 경탄시키는 희귀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주목을 내두르며 웨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좌절을 당했다고 모두가 가슴치며 통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여기 카륜에서 조선혁명의 새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고고지성을 울리었다. 이 여명이 종소리와 함께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새로운 궤도를 따라 매진할 것이다. 동무들, 즉각 무장을 잡고 일제와의 판갈이싸움에 떨쳐나서자!≫

우리는 그 연설을 듣고 모두 환성을 울리면서 ≪혁명가≫를 불렀다. 우리가 카륜에서 이처럼 조선혁명의 진로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길림시절에 이미 청년학생운동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조선혁명에 대한 주체적 입장과 태도를 확립하고 공산주의운동의 새 길을 개척해왔기 때문이였다. 나는 투쟁의 나날에 심어지고 옥중에서 무르익힌 그 사상과 입장을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을 뿐이다.

그것이 곧 우리 혁명의 노선으로 되고 지도사상으로 되었다. 우리가 그 논문에서 전개한 내용을 보면 모두가 주체사상을 핵으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상은 그 후 항일혁명투쟁을 비롯한 여러 단계의 혁명을 거쳐 어렵고 복잡한

실천투쟁속에서 부단히 발전풍부화되어 오늘과 같이 사상과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를 갖춘 하나의 철학사상으로 되였다. 해방 후 우리가 주체를 세울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한 것은 전후시기 사회주의기초건설을 할 때였다.



1955년에 나는 당선전선동부문 일군들앞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세울 데 대한 연설을 하였는데 이것인 곧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문헌으로 세상에 공개되었다.

주체를 세울 데 대해서는 그 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의 본질과 그것이 창시되게 된 경위, 그 사상을 어떻게 구현해왔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외국인들과의 담화를 통하여 여러 차례 설명하였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것을 체계화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어볼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저 우리 인민이 그 사상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혁명실천에 구현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였다. 그 후 **김정일**비서가 그 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여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으로 세상에 발표하였다.

우리는 카륜회의 후 항일무장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그 회의에서 내놓은 노선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적들은 우리는 ≪창해일속≫이라고 하였지만 우리의 뒤에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진 인민의 바다가 있었다. 우리가 무슨 노선을 내놓기만 하면 인민들은 그것을 쉽게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며 우리 대오에 수천수만 명의 아들딸들과 형제자매들을 보내주면서 물심양면으로 우리를 도와주었다.

우리가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속에서 15년동안이나 발톱까지 무장한 강적과 싸워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인민이라는 강력한 성새가 있고 인민대중이라는 무한대의 창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체사상탑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그 빛나는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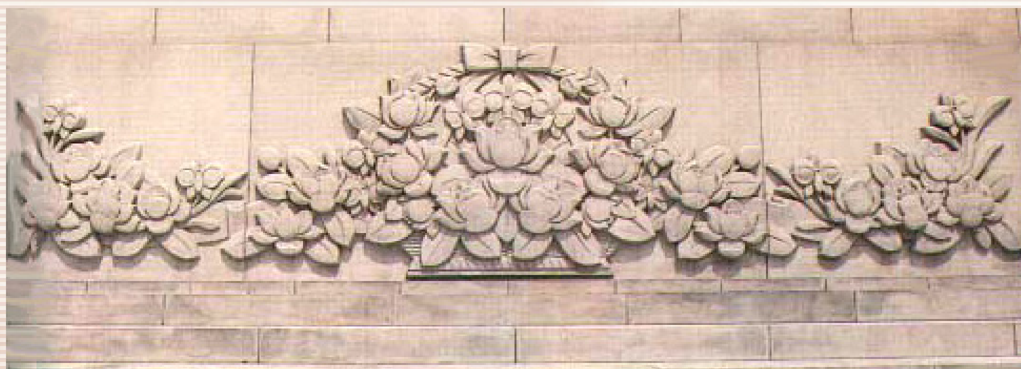


주체사상탑에 새겨진 글발 – 주체


평양의 대동강반에 솟은 주체사상탑



영광스러운 주체의 당 조선노동당 마크를 높이 추켜든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를 상징한 군상



김일성화와 목란꽃을 형상한 추제사상탑 기단 장식 부각 - 꽃바구니



부주제 조각군상 – 만풍년



부주제 조각군상 – 주체공업



부주제 조각군상 – 철벽의 요새



부주제 조각군상 – 배움의 나라



부주제 조각군상 – 주체예술



부주제 조각군상 – 무병장수

4. 첫 당조직- 건설동지사



조선노동당의 시원으로 되는 주체형의 첫 당조직을 결성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카륜회의가 끝난 다음날인 1930년 7월 3일 우리가 새 형의 당조직을 내온 사실은 여러 해전에 공개되였고 그 모임에서 한 나의 연설도 이미 세상에 나갔다.

당이 혁명에서 참모부의 역할을 수행하며 당의 역할에 따라 혁명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혁명이 역사의 기관차라면 당은 혁명의 기관차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혁명가들은 당을 중시하고 당을 꾸리는 일에 그처럼 큰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다.

맑스가 과학적 공산주의이론을 창시한 후 실천투쟁에서 첫 사업으로 공산주의자동맹을 창건하고 ≪공산당선언≫을 발표한 것이 그의 활동에서 가장 큰 공적으로 오늘까지도 찬양되고 있는 것은 세계를 개조하기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에서 당이 노는 사명과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의의를 가지기 때문인 것이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노동운동상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유형의 기회주의, 개량주의도 구경을 당에 대한 견해와 입장이 그릇된데서 발생된다고 말할 수 있다.

공산주의가 새로운 시대사조로서 노동운동무대에 출현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공

산주의자들이 지구상에서 이룩해놓은 모든 세기적 변혁들은 그 어느 것이나 다 당이라는 신성한 이름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는 카륜회의에서 내세운 과업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당조직을 내오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우리가 새 형의 당을 창건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내리고 그 방도를 전면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공산당이 국제당에서 제명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였다. 우리 나라에서 공산당이 조직된 것은 1925년 4월이었다. 각국에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속속 출현하여 대중을 이끌던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어 정치적 활동의 자유와 권리의 불모지였던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정당이 창건되었다는 사실은 새 사조와 시대적 추세에 대한 조선사람들의 정치적 감수성이 얼마나 민감하고 풍부하였는가를 실증해준다. 조선공산당의 창건은 조선노동운동과 민족해방운동 발전의 필연적 귀결이며 합법칙적 산물이었다. 조선공산당은 창건 후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속에 사회주의 사상을 보급하고 노동운동을 영도하여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영도되는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놓았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조선공산당이 존재하는 기간 6.10만세시위투쟁과 같은 큰 규모의 투쟁을 지도하며 민족의 기개를 과시하였으며 민족주의자들과의 합작으로 신간회와 같은 대중단체들도 만들어 반일애국역량을 집결시키는 사업에도 이바지하였다.

조선공산당이 창건되고 그 영도밑에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중운동이 전개된 것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시초를 열어놓은 하나의 역사적 사변으로서 민족해방운동발전을 일정하게 추동하였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상층인물들의 파쟁으로 하여 1928년에 조직된 역량으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었다. 국제공산당에서는 1928년 여름에 제6차대회에서 조선공산당의 승인을 취소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사실에 있어서 조선공산당이 국제당대열에서 제명되었음을 의미하였다. 물론 우리는 조선공산당이 존재할 때에도 파쟁을 일삼는 그 상층부에 대하여서는 시답지 않게 여기였다. 그러나 그 당마저 국제당대열에서 제명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분하고 수치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 때 국제공산당의 처사에 대하여 야속하게 생각하였다. 이때부터 나는 비록 나이도 어리고 공산주의운동경험도 적지만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새 형의 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순결하고 참신한 새 형의 당을 창건하자면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을 타개해야 하였다. 가장 큰 난점은 공산주의대열안에 종파주의가 의연히 남아있는 것이었다. 종파주의가 청산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초기공산주의자들은 당재건운동도 통일적으로 하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분열된 상태에서 파벌별로 하였다.

조선공산당이 국제당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후 우리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국내외에서 당을 재건하기 위한 운동을 치열하게 벌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무차별적인 탄압과 방해책동으로 어느 파벌도 재건에 성공할 수 없었다. 화요파와 엠엘파가 재건운동을 포기하고 만주지방에 조직되어 있는 총국을 해체한다고 선언한 후 서상파가 국내에서 재건바람을 일으켰지만 그것마저 노출되어 많은 당원들이 감옥에 끌려가는 것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해산된 당을 재건하거나 파쟁의 악습에 물젖은 기성세대에 의거해가지고서는 혁명적 당을 창건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당을 창건하는데서 제기되었던 다른 하나의 난관은 국제공산당이 제정한 1국1당제원칙에 의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만주지방에서 독자적인 당을 창건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로 된 것이었다. 국제당은 제6차대회에서 채택한 규약의 총칙에서도 국제공산당에 소속되는 개개의 당은 해당 나라의 공산당이라는 명칭을 가지며 매개 나라에서는 하

나의 공산당만이 국제당의 지부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1국1당제의 원칙을 규정하였다. 국제공산당 동양선전부에서는 1930년 5월 하바로프스크에서 조중공산당대표회의를 소집하고 조선공산당조직문제에 대한 국제당의 결정을 통지해주었다. 국제당은 그 결정에서 재만조선인공산주의자들에게 중국당에 가입하여 중국당원으로서 활동할 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재건운동에 열을 올리던 공산주의자들속에서 태도를 바꾸어 해체성명을 발표하고 중국당에 전당하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으며 그 바람을 타고 5.30폭동의 불길이 동만을 휩쓸게 되었다.

조선당원이 중국당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문제는 민족적 자부심이 남달리 강한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에게 심각한 자극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원칙을 놓고 우리 동무들은 열기띤 논쟁을 벌이었다. 국제당의 지령을 무책임한 처사,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난하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조치를 공명정대한 것으로 평가하는 청년들도 있었으며 국제당이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중국당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당 재건의 가능성을 영영 배제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의분을 참지 못하고 울화를 터뜨리는 청년들도 있었다.

우리 동무들은 이 문제를 화제에 올리고 나의 입장을 알고 싶어하였다.

나는 국제당이 1국1당제원칙에 따라 공산주의자들의 중국당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비난받을 처사가 아니며 그 요구가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서 당재건의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말해주었다.

≪현재의 형편에서 국제당의 요구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자기의 독자적인 정당이 있다면 구태여 무엇 때문에 남의 집 곁방살이를 하라고 요구하겠는가. 그러니 국제당의 결정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제주의적 입장이다. 중국당원의 모자를 써도 조선을 잊지 않고 조선혁명을 위해 싸우면 된다. 그러나 국제당의 지시대로 한다고 하여 독자적인 당건설을 단념하고 무한정 남의 집 곁방살이를 할 수는 없다. 조선사람은 조선사람의 당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전당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였고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 견해가 1국1당제원칙에 대한 국제당의 해석과 일치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었다. 나는 1국1당제원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당건설방침을 하루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1930년 6월하순에 쟈쟈툰에서 국제공산당 연락원 김광열을 만나보았다. 김광열은 일본에서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쏘련에 가있다가 나온 인텔리였는데 우리의 활동구역인 고유수, 오가자, 카륜지방에 많이 와있었다. 연락원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와 국제당과의 연계를 지어주려고 노력하였다. 그가 쏘련에서 사회주의물을 많이 먹다가 온 사람이라고 하면서 장소봉과 이종락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기대를 가지고 그를 만나보았다. 만나고보니 소문과 같이 박식한 사람이었다. 그는 노어와 일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였고 쏘련춤도 그나라 사람들 못지 않게 잘 추었으며 연설도 잘하였다. 그때 김광열은 나에게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기보다는 국제당에 가보라, 국제당 하얼빈연락소에 소개해줄 터이니 거기에 가서 1국1당제원칙에 대하여 토론해보라고 하였다. 김광열을 만난 후 나는 동무들과 함께 1국1당제원칙에 대한 논쟁을 거듭하였다.

우리는 1국1당제원칙의 요구를 한 나라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공산당이 국제당에 가입할 수 없고 오직 하나의 공산당만이 가입할 수 있다는 것, 한 나라에는 한 개 이상의 공산당 중앙이 존재할 수 없고 하나의 공산당중앙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원칙의 본질은 한 나라에 같은 이해관계와 목적을 가진 당중앙이 하나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국제당이 1국1당제원칙을 내놓고 그것을 엄격히 이행하도록 요구한 것은 국제

공산주의운동에서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청산하고 대열의 통일단결을 보장하자는데 기본목적이 있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역사적 교훈은 국제공산당으로 하여금 1국1당제원칙을 내세우고 공산주의운동 내에 여러 가지 이색적인 요소들이 침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게 하였다.

국제공산당이 1국1당제원칙을 명시하게 된 것은 또한 적들이 공산주의대열을 내부로부터 분열와해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한 것과도 관련된다.

그런데 국제공산당 규약은 1국1당제의 원칙만 제시했을 뿐 다른 나라에 가서 공산주의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재국의 당에 전당하는 방법은 어떻고 전당 후 그들의 혁명임무를 어떻게 설정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만주지방에서 활동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중국당에 전당하는 문제가 그처럼 복잡한 논의를 불러일으킨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하여 일부 사람들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중국땅에서 자체의 당 조직을 꾸리는 것이 1국1당제원칙에 모순된다고까지 판단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제당의 1국1당제원칙에 대한 각이한 해석으로 하여 조국의 해방을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서 엄청난 혼란과 동요가 빚어지고 조선의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조국을 위해 싸울 권리조차 의문시되고 있던 그런 시기에 나는 당을 창건하기 위한 방도를 꾸준히 모색하였다.

국제당의 지시에도 부합되고 조선혁명도 강력히 추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과연 없단 말인가.

이런 모색 끝에 내가 찾아낸 출로가 바로 선행공산주의운동의 교훈으로부터 출발하여 조급하게 당중앙을 선포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착실하게 다지고 그 토대 우에서 명실공히 우리 혁명의 참모부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당을 창건하자는 것이었다.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준비된 조직적 골간의 육성과 대열의 사상의지적 통일, 당이 의거할 수 있는 군중적 지반의 구축이 없이 주관적 욕망만으로는 당을 창건할 수 없었다.

나는 종파와 인연이 없는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을 골간으로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하는 것이 우리앞에 주어진 가장 적합하고 현실적인 창당방법이라고 간주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당을 창건하면 국제당에서도 환영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키워온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로 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 역할을 부단히 높여나가면서 우리의 발길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기층당조직을 확대강화해나간다면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지도도 능히 보장하고 우리에게 지워진 국제적 임무도 원만히 이행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중국땅안에서 우리의 당중앙을 따로 내와가지고 중국당과 병존하지 않는다면 국제당의 1국1당제원칙에도 모순될 것이 없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상을 정립하여 카륜회의에서 당창건방침을 제시하고 첫 당조직을 내오게 되었다. 혁명적 당조직을 결성하는 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필연적 요구이기도 하였다.

조선에 당이 없으니 단천농민폭동지도자들은 폭동의 전술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받기 위하여 국제당에까지 찾아다니었다. 조선에 노동자,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혁명적 당이 있고 세련된 지도역량이 있었다면 그들이 노자를 쓰면서까지 국제당에 찾아다니지 않았을 것이다.

1930년대 초엽의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은 그 폭과 심도에 있어서 종전의 반일투쟁과는 대비도 할 수 없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우리의 투쟁도 초기보다도 비할 바 없이 전진하였다. 활동범위는 길림을 벗어나 멀리 동만과 북부조선 일대에까지 확대되었다. 청년학생운동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혁명투쟁은 지하활동의 양상을 띠고 광범한 노동자, 농민 대중속으로 줄을 뻗치

었다. 경험이 축적되고 군사정치적 준비가 성숙되면 상비적인 혁명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대부대역량으로 본격적인 유격전쟁을 해야겠는데 공청이 그 영도를 다 감당할 수는 없었다. 지난날 공청이 여러 대중단체들을 지도한 것은 과도적인 현상이었지 영구적인 것은 아니였다.

이제는 당을 만들어 그 당이 공청을 비롯한 대중단체들을 장악하고 민족해방운동전반을 영도하며 중국당과의 관계도 가지고 국제당과의 사업도 해야했다.

공청의 간판을 가지고서는 국제당과의 거래도 원만히 할 수 없었다.



차광수

초기공산주의자들이 저마다 자기 파를 정통파로 자처하면서 승인을 받으려 다녔기 때문에 국제당에서도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국제당은 조선에서 종파가 청산되기 전에는 진정한 노동계급의 전위대가 나올 수 없으며 종파를 근절하고 새로운 당을 창건하기 위해서는 파쟁도 모르고 집권욕도 없는 새 세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점차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의 투쟁에 주의를 돌리였으며 우리와 손잡아보려고 여러 방면으로 줄을 놓았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의 혁명활동과정을 통하여 새 형의 혁명적 당조직을 내올 수 있는 초석도 쌓아놓았다. ≪ㅌ·ㄷ≫의 결성은 조선공산주의운동에서 종전의 당과 구별되는 새 형의 혁명적 당창건을 위한 출발점으로 되였다. 모든 것이 ≪ㅌ·ㄷ≫로부터 시작되였다. ≪ㅌ·ㄷ≫가 발전하여 반제청년동맹으로 되고 공청으로 되였다.

공청이 키워낸 우리 혁명의 핵심부대, 반제청년동맹이 이루어놓은 우리 혁명의 대중적 지반이 곧 당창건의 기초로 되였다. 공청이 창립되고 그것이 강력한 전위조직으로 혁명운동을 영솔하던 나날에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은 선행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범하였던 오류들을 극복하고 대중전취와 영도예술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발양된 영웅적인 투쟁정신과 혁명적 투쟁기풍은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타승한 원동력으로 되였으며 훗날 우리 당의 넋으로 되고 기개로 되였다.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서 하나의 봉우리를 이루는 것은 카륜회의를 계기로 조선혁명의 지도사상을 정립해놓은 것이였다. 카륜회의 결정에는 ≪ㅌ·ㄷ≫와 공청의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원칙으로 삼아야 할 전략들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새 형의 당을 창건하기 위한 사상적 기초로 되였으며 실패와 좌절의 진통속에서 오랫동안 갈 길을 찾아 암중모색하던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상 지침으로 되였다.

지도사상, 영도핵심, 군중지반, 이것은 당조직을 내오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었다.

우리는 1930년 7월 3일 카륜의 진명학교교실에서 차광수, 김혁, 최창걸, 계영춘, 김원우, 최효일 동무들로 첫 당조직을 무었다. 회의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김리갑, 김형권, 박근원, 이제우 동무들도 첫 당조직의 성원으로 되였으며 조선혁명군대장으로 내정되어있던 이종락과 박차석도 이 조직의 성원으로 되였다.

진명학교는 마을에서 500미터 가량 떨어진 쟈쟈툰 앞벌에 있었다. 학교의 동쪽과 남쪽에는 5-6정보가량되는 개버들밭이 펼쳐져 있었고 버들밭 가운데로는 무개하라는 큰 개울이 동남방향으로 흐르면서 학교를 에워싸고 있었다. 학교 동쪽에서부터 마을까지는 늪과 진펄이였다. 진명학교로 오갈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서쪽밖에 없었다. 길목에서 경비만 잘 서주면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해도 모르게 되어있었으며

설사 위험이 조성되는 경우에도 개버들밭으로 빠지면 종적을 찾을 수 없게 되어있었다.

그날밤 우리는 밀정들이 나타날 수 있는 서쪽관문에 2중3중의 보초를 세우고 회의를 하였다. 논밭에서 개구리들이 소란스럽게 울어대던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 개구리소리가 신비스러운 정서를 자아냈다.

첫 당조직을 내올 때의 인상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는 것은 김원우가 회의장을 꾸리면서 연탁앞에 붉은기를 세우느라고 애쓰던 일이다. 그 깃발의 붉은 색조는 혁명을 위해서 마지막 피한방울이 다할 때까지 싸우려는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해주었다.

지금도 첫 당조직하면 진명학교를 생각하게 되고 진명학교를 생각하면 연탁앞에 비스듬히 서있던 그 잊지못할 깃발을 그려보게 된다. 나는 그날 연설을 길게 하지 않았다. 첫 당조직을 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카륜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논의를 거듭했기 때문에 구구하게 그 취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당조직성원들이 해야할 과업으로 기층당조직을 확대하고 그에 대한 통일적 지도체계를 수립할 데 대한 문제, 대오의 조직사상적 통일과 동지적 단합을 확고히 이룩할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실천방도로서 당조직이 모든 활동에서 자주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할 데 대해서와 당조직 건설사업을 반일투쟁과 밀접히 결부시킬 데 대하여 강조하였을 뿐이다.


김혁

우리는 당 강령과 규약을 따로 채택하지 않았다. ≪ㅌ·ㄷ≫의 강령규약에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최종목표와 당면투쟁과업이 명백히 밝혀져 있었고 카륜회의에서 채택된 혁명노선과 전략적 방침들에 우리가 가야할 길과 행동규범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 후 우리는 첫 당조직에 건설동지사라는 소박한 명칭을 붙이었다. 그 명칭은 동지를 얻는 것으로부터 혁명의 첫걸음을 떼었고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결속시켜 혁명을 심화발전시키며 종국적인 승리를 달성하려는 우리의 포부와 의지를 그대로 담고 있었다.

건설동지사에 가입한 동무들은 모두가 일어나서 격정에 넘치는 열 번을 토하였다. 김혁은 그때 ≪출범이다. 우리의 배는 항구를 떠났다. 우리는 격랑을 헤치며 먼 바다로 노를 저어간다.≫는 내용으로 즉흥시를 읊었다.

김혁의 시낭송이 끝난 다음 최효일이 일어나서 일장연설을 하였다. 그는 연설을 마치자 이렇게 말했다.

≪성주, 여기가 교실이 아니고 산중이라면 기념으로 예총을 쏘고싶소.≫

나는 일본놈들과 대결할 날도 멀지 않으니 그 때가 되면 실컷 총을 쏘라고 하였다. 우리는 그때 첫 당조직의 결성을 기념하여 권총이 아니라 대포라도 쏘고싶은 심정이었다. 자기의 당조직을 가지고 조선의 당원으로 시대와 역사앞에서 혁명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고 엄숙히 선서한 우리의 기쁨과 자부심은 참으로 말이나 글로써는 다 표현할 수 없었다.

15년후 해방된 조국에서 당을 창건하고 어린 시절의 체취가 그대로 스며있는 고향집 온돌방에 멍석을 깔고 누웠을 때 나는 만가지 시름을 다 털어버리고 카륜에서 첫 당조직을 내오던 때의 일을 감회깊이 추억하였다.

첫 당조직 건설동지사는 우리 당의 태아였고 씨앗이었으며 당의 기층조직들을

내오고 확대하는데서 모체적 의의를 가지는 조직이였다. 첫 당조직을 가지게 된 때로부터 우리 혁명은 종파의 물을 먹지 않은 백지장 같이 깨끗하고 참신한 새세대 공산주의자들의 영도를 받으며 승승장구해왔다. 자주적인 당 건설을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은 이때로부터 항일대전의 도도한 흐름을 타고 줄기차게 진척되어 왔다.

그 후 우리는 건설동지사 성원들을 각지에 파견하여 두만강연안의 북부조선일대와 만주의 여러 지역에 당조직들을 내왔다.


최창걸

국내에 당조직을 내오는 일은 내가 맡아하였다. 나는 1930년 가을에 우리의 영향이 비교적 강하게 미치고 있던 함경북도 온성군에 나가 국내 당조직을 무었다. 우리의 청소한 당조직들은 인민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언제나 그들의 선두에서 항일전쟁의 진군로를 헤쳤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강철의 전위대오로 단련되고 군중의 절대적인 사랑과 신임을 받는 불패의 역량으로 자라났다. 우리는 자기의 독자적인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면서도 중국당과의 밀접한 연관속에서 사업하였다. 우리는 조선의 공산주의자이지만 조중 두 민족의 유구한 선린관계와 두 나라가 처한 처지의 유사성, 두 나라 혁명가들이 짊어지고 있는 시대적 사명의 공통성으로부터 시종일관 중국혁명을 지지해주었으며 중국당과 중국인민의 이익을 옹호하여 싸웠다. 중국당과 중국인민이 자기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거듭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제일처럼 기뻐하였으며 그들이 일시적인 실패와 곡절을 겪을 때면 그들과 함께 아파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중국땅에서 활동하는 이상 중국당과의 관계를 가지지 않고서는 중국인민의 방조를 받을 수 없었으며 반제공동전선을 튼튼히 유지해나갈 수 없었다. 우리가 중국당과의 연계를 중시한 것은 만주성위 산하의 당조직들에 조선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동만 특위에도 조선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동만지역의 현당위원회와 구당위원회 지도부도 절대다수가 조선사람으로 이루어져있었으며 당원비율에 있어서도 90%이상이 조선사람들이였다. 그들은 동만지역 당조직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만주지방에 조선인 당원들이 많은 것은 간도지방에서 공산주의운동을 개척한 선구자들의 대다수가 조선사람들이였기 때문이다.

내가 중국공산당과 관계를 가지기 시작한 것은 일제가 만주를 강점한 후부터였다.

화성의숙에서 ≪ㅌ·ㄷ≫를 조직할 때나 길림과 오가자 등지에서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나는 중국공산당과의 연계가 없었다.

원래 혁명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과 목적에 따라 자주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혁명의 지도사상을 마련하는 사업도 제 힘으로 하였고 우리 당의 시원인 ≪ㅌ·ㄷ≫도 독자적으로 조직하게 되었다.

일제가 9.18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강점함으로써 조성된 새로운 정세, 일제가 조중인민의 공동의 적으로 된 새로운 환경은 우리와 중국공산당과의 연계문제를 성숙된 요구로 내세웠다.

1931년 겨울 명월구회의를 전후한 시기에 나는 조아범의 집에 가있으면서 처음으로 중국공산당조직과 연계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조아범은 길림에서 공부할 때 나와 함께 공청사업을 하였으며 그 후에는 화룡지방에서 교편을 잡고 있으면서 중국공산당조직에 관계하고 있었다. 그 후 유격대를 조직하고 왕청 등지에서 활동할 때에는 영안현당의 책임적 지위에 있으면서 동만지구까지 맡아보던 왕윤성이와 연계를 가졌으며 동장영이 대련에 있다가 동만특위에 파견되어왔을 때는 그와 깊은 연계를 맺었다. 나와 중국공산당과의 관계는 이렇게 맺어졌으며 이 과정에 나는 중국공산당조직의 간부로도 활동하게 되었다. 동장영이 희생된 다음에는 위증민과 연계를 가지었다. 그밖에 나는 국제당 순시원이었던 반동무와도 연계를 맺고 사업하였다.


계영춘

중국공산당과의 이러한 관계는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유지되었으며 그것은 일제를 반대하는 공동전선을 확대하고 공동투쟁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우리가 중국공산당과의 깊은 연계밑에 공동투쟁을 발전시켜나간 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남의 나라 땅에서 혁명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당시의 복잡다단한 정세와 1국1당제에 관한 국제당 노선의 요구에 부합되는 주동적이면서도 신축성있는 조치였다. 우리는 중국공산당과의 이러한 공동투쟁을 적극 발전시키면서 시종일관 조국해방의 기치, 조선혁명의 주체노선을 견지하였으며 그것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과 성실한 노력에 대하여 중국의 전우들은 혁명의 민족적 의무와 국제적 의무를 옳게 결합한 뚜렷한 모범으로 된다고 진심으로 찬양하였다. 수천수만을 헤아리는 조선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중국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간고하고 시련에 찬 항일의 대장정에 참가하였다.


김원우

1963년에 최용건동무가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주은래총리는 심양에서 그의 생일을 축하하여 연회를 마련해주고 인상깊은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 때 그는 축하연설에서 동북혁명을 개척하는데서 조선사람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래서 중조친선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영원한 것이다. 항일연군은 중조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의 연합된 혁명무력이였다라고 하였다. 동북혁명을 개척하는데서 조선사람들의 공로가 많다는데 대해서는 양정우, 주보중, 위증민 동무들도 자주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중국혁명을 위해 사심없는 방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중국사람들도 우리의 일이라면 생사를 가리지 않고 성심성의로 도와주곤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가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된 후 우리는 유격대안에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내왔다. 그것은 카륜에서 조직된 첫 당조직의 확대발전으로 이루어진 결실이었다. 우리의 자주적인 당조직은 그 후 조국광복회 국내조직인 조선민족해방동맹과 농조, 노조들에도 뿌리를 뻗치었다.

우리가 조국에 개선한 후 한 달도 못되는 사이에 당창건의 위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항일혁명의 장구한 나날 당건설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근원









5. 조선혁명군


김형권동지

카륜회의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운 당조직건설사업은 첫 당조직, 건설동지사의 결성으로 제일보를 내디뎠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었다. 우리앞에는 무장투쟁준비를 다그쳐야할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었다. 우리는 무장투쟁준비를 위한 첫 사업으로 고유수에서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였다. 우리가 1년이나 2년이 지난 후에 상비적인 혁명무력을 창건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조선혁명군과 같은 과도적인 정치 및 반군사조직을 내온 것은 그 군의 활동을 통하여 대규모의 유격부대를 꾸리기 위한 준비를 해두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우리는 조선혁명군의 정치군사활동을 통하여 무장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축성하고 무장투쟁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경험을 축적하려고 하였다.

사실 우리한테는 무장투쟁을 벌이는데 필요한 지식이 별로 없었다.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영토에서 무장투쟁을 해야 하는 조건에서 우리에게는 그에 상응한 경험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본보기로 삼을 만한 군사교범이나 경험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에게 밑천이 있다면 독립군 출신의 몇몇 동무들과 화성의숙을 다닌 얼마간의 동무들이 있고 몇 자루의 권총이 있을 뿐이였다. 그 나머지는 백지상태였다.

무기도 우리 스스로 획득하고 군사적 경험도 우리 스스로 축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과도적 조직으로 내온 것이 바로 조선혁명군이었다. 고유수에서 처음에는 김원우, 이종락이 혁명군을 결성하기 위한 준비사업은 여러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준비사업의 기본은 혁명군에 입대시킬 청년들을 선발하는 일과 무기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독립군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선진사상에 동조하는 똑똑한 군인들을 돌려세워 사람이나 무기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도로 내세웠다. 혁명군에 군인출신이 많으면 그들이 모체가 되어 군사지식이 없는 청년들도 얼마든지 훈련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동무들이 국민부 산하에 있는 독립군과의 사업을 많이 하였다.

우리의 방침은 독립군중에서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군인들을 교양하여 우리 진영으로 돌려세우며 사상적 준비정도에 따라 혁명군에도 받아들이자는 것이었다.

국민부는 이 시기에 와서도 국민부파와 반국민부파로 나뉘여 권력싸움을 계속하였다. 그 당시 국민부파는 재만조선인 통수권을 쥐었고 반국민부파는 독립군의 통수권을 쥐었다. 이 조치는 결국 민중과 군대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빚어냈다.

1930년 여름에 들어서면서 두 파의 대립은 서로 상대편 간부들을 암살하는 테러전으로 번져져갔으며 이 테러전을 절정으로 하여 두 파의 세력은 완전한 결렬에 이르렀다.

사태가 이 지경이었기 때문에 독립군내에서는 대원들 뿐 아니라 소대장, 중대장들까지도 상층부를 불신하였고 상층이 주는 지시를 잘 받아물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파견한 공작원들의 말을 더 잘 들었다.

차광수는 통화, 휘남, 관서 일대에서 독립군과의 사업을 하였으며 이종락은 고유수에서 자기 휘하에 있는 대원들을 교양하여 혁명군에 받아들일 준비를 하였다.

이종락은 원래 고유수에서 정의부소속의 독립군 1중대에 있다가 화성의숙에 와서 공부할 때 ≪ㅌ·ㄷ≫에 가입한 사람이다. 그와 같이 화성의숙에 추천되어온 1중대출신의 학생들가운데는 박차석, 박근원, 박병화, 이순호를 비롯하여 여러 명의 청년들이 있었다.


七、朝鮮革命軍

조선혁명군을 조직하신데 대한 자료

이종락은 화성의숙이 폐교된 후 고유수에 있는 자기 출신중대로 돌아가 부중대장을 거쳐 중대장이 되었다. 지금과는 달리 군력이 얼마되지 않던 당시에는 중대가 큰 군사역량이었다. 만주에서 세력이 제일 강하다고 하던 국민부도 산하에 겨우 아홉개의 중대를 두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중대장이라면 자연히 독립군들속에서 큰 인물로 떠받들리기 마련이었다. 고유수에서 이종락의 위신이 대단했다.

김혁, 차광수, 박소심 동무들이 1928년부터 1929년 사이에 유하지방에서 최창걸의 영향하에 있는 독립군의 보호를 받으며 혁명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것처럼 고유수에 파견된 우리 동무들도 이종락이 지휘하는 독립군부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활동하였다. 이종락은 그때까지만 해도 혁명을 하겠다는 각오와 열의가 대단히 높았다. 그는 화성의숙이 폐교된 후 출신중대에 돌아가 우리가 화전에서 준 과업대로 독립군 대원들과의 사업을 잘하였다. 대담한 것, 결단성이 있는 것, 판단력이 빠른 것, 통솔력이 강한 것, 이런 자질이 그의 우점이였다. 그 대신 그에게는 냉철한 이성과 사고력이 부족하였다. 기분주의가 많고 과격하였으며 개인영웅심이 농후하였다.

이것이 훗날 그를 혁명을 배반하는 길로 굴러떨어지게 한 중요한 병집이였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독립군이 지휘체계도 정연하지 못하고 또 그 내부가 뒤죽박죽인데 각 지방에 산재해있는 중대들을 무장해제시켜가지고 국민부 반동들을 숙청하자고 하였으며 독립군의 외피를 벗어던지고 공개적으로 활동하면서 무장도 얻고 국민부와도 대결하자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독립군과의 사업에서 좌경적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이런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였다.

형권삼촌도 두 개의 공작조를 편성해가지고 장백지구에 나갔다. 삼촌은 지양개 뒤산에 근거지를 정하고 장백의 여러 지역에 백산청년동맹지부와 농민동맹, 반일부녀회, 소년탐험대를 조직하여 무기공작과 의식화활동을 하였으며 지방청년들을 흡수하여 군사훈련도 주었다. 형권삼촌의 노력으로 장백지구에 있는 독립군역량이 우리의 영향하에 들어오게 되었다.

대원들을 선발하고 그 후비를 마련하는 사업과 함께 무기를 얻기 위한 공작도 맹렬하게 진행되었다.

무기를 해결하는데서 제일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은 최효일이였다. 최효일은 철령에 있는 일본인무기상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였다. 그 당시 일본사람들은 만주에서 총장사를 많이 하였다. 그들은 총을 비적들에게도 팔고 중국인 지주들에게도 팔았다. 최효일은 소학교밖에 다니지 못한 청년이였지만 일본말을 아주 잘하였다. 그가 일어로 대화할 때면 조선사람인지 일본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창하였다. 최효일이 점원으로서는 아깝다고 할만큼 명석하고 일본말도 잘하였기때문에 상점주인은 그를 매우 신임하였다.

최효일을 제일먼저 쟁취한 사람은 장소봉이였다. 장소봉은 카륜을 개척할 때 장춘, 철령, 공주령 일대를 왔다갔다하면서 우연히 최효일을 알게 되었다. 몇 차례의 접촉을 통해 상대가 성실하고 대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최효일을 반제청년동맹에 흡수하고 그를 이종락에게 소개해주었다. 이때로부터 최효일은 철령에서 적후투쟁을 시작하였다. 그는 이종락과 연계를 가지고 독립군 중대들에게 무기를 살금살금 팔아주었다. 상점주인은 최효일의 손을 거쳐 판매되는 무기가 조선사람들한테 넘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상고를 높이는데만 급급하여 그런 것은 아는체 하려고 하지 않았다.


옥중의 김형권동지

최효일은 무기를 처음에 중국인들한테 팔아주다가 다음에는 독립군한테 넘겨주었으며 나중에는 일본인상점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조달해주는 전용상점으로 만들어버리었다. 그 과정에 그의 세계관도 몰라보게 발전하였다. 이종락과 장소봉은 나를 만날 때마다 철령에서 멋있는 청년을 한 명 흡수하였다고 하면서 최효일의 자랑을 하곤 하였다. 그래서 나도 최효일에게 은근히 큰 기대를 품게 되었다.

1928년인가 1929년에 최효일은 나를 만나려고 일부러 길림에 찾아왔다. 만나고 보니 얼굴이 규방처녀들처럼 해말쑥하고 곱상하게 생긴 사람이였다. 그런데 생김새와는 달리 술을 많이 마시었다.

혁명가의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그것이 좀 흠이였다. 우리는 그때 여관에서 밥을 같이 먹고 담화도 여러 시간 하였다. 그가 간드러진 일본 ≪옥상≫의 말을 흉내내면서 천황을 비롯한 일본의 고위급군정인물들과 우리 나라의 매국 5대신을 걸죽하게 욕질하는 바람에 나는 담화 도중 여러 번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최효일은 남들이 보기 드문 미인이라고 하면서 부러워하는 안해와 함께 살면서도 가정생활의 재미같은 것에 대해서는 꿈만하게 여기는 태평스러운 성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새색시같은 얼굴생김새와는 달리 혁명투쟁에서는 놀라울 만치 담이 크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였다.

그가 일본인상점의 무기를 여라문정 빼내가지고 안해와 함께 고유수로 탈출해온 것은 카륜회의 직전이였다. 우리가 상비적인 혁명무력을 건설하기에 앞서 그 과도적 단계로 소규모의 군사정치조직을 내오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 있을 때여서 최효일의 탈출은 대단한 환영을 받았다.


철령

우리는 동무들의 보고를 통하여 혁명군을 결성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고유수에 가보니 실지로 대원명단과 무기가 다 마련되어있

었고 결성모임장소와 모임참가대상자까지도 확정되어 있었다.

조선혁명군결성식은 1930년 7월 6일 삼광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되었다. 무기를 수여하기에 앞서 나는 간단한 연설을 하였는데 이 연설에서 조선혁명군은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준비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정치 및 반군사조직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조선혁명군을 기초로 하여앞으로 상비적인 혁명무력이 창건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조선혁명군의 기본사명은 도시와 농촌에 들어가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각성시켜 그들을 항일의 기치아래 묶어세우면서 무장투쟁의 경험을 쌓고 차차 무장대오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나가는 것이었다.

연설에서는 조선혁명군의 당면과업으로 항일무장대오를 꾸릴 수 있는 골간을 육성하는 문제, 혁명군대가 의거할 수 있는 대중적 지반을 꾸리는 문제, 무장투쟁을 벌이기 위한 군사적 준비를 충분히 갖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리는 조선혁명군에 제1대, 제2대, 제3대 하는 식으로 여러 개의 대를 내왔다. 나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혁명군 대장으로는 군사적 경험이 많고 통솔력이 강한 이종락이 추천되었다. 어떤 역사가들 가운데는 국민부가 만들어낸 조선혁명군과 우리가 고유수에서 조직한 동명의 조선혁명군을 같은 군사조직이 아닌가 하고 혼돈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민부가 만들어낸 조선혁명군 성원들 중에서 적지않은 사람들이 우리 혁명군에도 망라된 것만큼 그렇게 추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최효일

두 군사조직은 명칭이 같으면서도 서로 지도이념이 다르고 사명도 달랐다.

국민부가 만들어낸 조선혁명군이라는 것은 국민부 자체의 내적 모순이 그대로 반영되어 실제활동과정에 대립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그 명칭과 간부진영도 사흘이 멀다하게 뒤바뀌군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실체를 가려보기 힘든 형편이었다. 우리가 만들어낸 조선혁명군은 공산주의이념에 의해서 지도되며 군중정치사업도 하고 군사활동도 하는 정치 및 반군사 조직이었다.

조선혁명군을 결성할 때 우리는 명칭을 어떻게 달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논의를 하였다. 조선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하는 무장력으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름도 새 맛이 나게 달아야 한다고 하면서 다같이 열을 내여 토론에 참가하였다.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다.

나는 그때 국민부가 내온 조선혁명군의 명칭을 그대로 이용하여 우리 군의 이름을 조선혁명군으로 해야 한다고 그들을 설복하였다. ≪ㅌ · ㄷ≫를 결성할 때에도 민족주의자들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하여 공산주의냄새가 나는 말은 붙이지 않고 타도제국주의동맹이라고 달았는데 우리가 조직하는 군대도 조선혁명군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으면 민족주의자들의 눈에 거슬리지도 않고 활동상 편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조선혁명군이라는 외피를 썼기 때문에 그 후 우리 군은 실지로 활동에서 많은 덕을 보았다.

조선혁명군은 조직된 후 여러 소조로 편성되어 각지에 파견되었다. 국내에도 몇 개의 소조가 파견되었다. 그때 우리가 혁명군 소조들을 조선에 파견한 목적은 무장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꾸리고 국내혁명투쟁을 앙양시키자는데도 있었지만 국내에서 무장투쟁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가늠해보자는데도 있었다.

우리는 조선혁명군결성식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우, 공영, 박진영을 중심으로 하나의 국내공작소조를 뭇고 그들에게 신갈파로 해서 낭림산맥을 타고 평안북도일대로 뻗어나가면서 광범한 대중속에 혁명조직을 내올 과업을 주기로 하고 그 소조의 조장으로 이제우를 임명했다.

우리는 1928년에 이미 무송주변과 내도산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들에게 조선사람들이 많이 사는 장백지구로 활동근거지를 옮기라는 과업을 주었다. 이제우는 그 과업을 받고 장백현 일대에 나가 군중을 조직에 묶어세우고 국내깊이까지 들락날락하면서 대중을 의식화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었다.

우리는 형권삼촌을 조장으로 하고 최효일과 박차석 등을 망라한 또 한패의 공작소조를 국내에 내보내기로 하였다. 이 소조에는 장백에서 압록강을 건너 풍산과 단천, 함흥을 거쳐 평양부근에까지 진출할 과업을 주었다.


공영

박차석이 이 조에 망라되게 된 것은 형권삼촌과의 우정때문이었다. 그는 길림시 주변의 농촌에서 교원의 간판을 가지고 지하사업을 하다가 1928년 가을에는 계영춘, 고일봉과 함께 무송일대에서 혁명조직을 내오는 사업에 참가하였다. 그 때 어떻게 되어서인지 박차석이 형권삼촌과 딱친구가 되었다. 삼촌이 국내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을 듣고 박차석도 같이 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정을 이해하고 그의 제의를 쾌히 받아들이었다.

활동구역으로 떠나간 조선혁명군 대원들은 도처에서 대담무쌍한 활동을 벌였다.

사평가와 공주령 일대를 활동구역으로 삼고 사업하던 조선혁명군 대원들 중에 현대홍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평가에서 군중공작을 하던 도중 체포되어 장춘으로 끌려갔는데 체포되는 순간 놈들의 눈을 피해 몸에 품고 다니던 무기를 동지들에게 넘겨주었다.

경찰은 무기를 감춘 곳이 어디냐고 하면서 그에서 야수적인 고문을 들이대었다.

현대홍은 어떤 철도역의 이름을 대면서 그 역근처에 있는 백양나무밑에 파묻었다고 고백하였다. 탈출할 기회를 얻으려는 것이었다. 그 말에 귀맛이 바싹 당긴 경찰은 현대홍을 기차에 태워가지고 그가 권총을 파묻었다는 곳으로 향하였다. 차가 한창 달리고 있을 때 현대홍은 손목에 채워진 수갑으로 호송경찰 두 놈을 까눕히고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린 다음 혁명조직을 찾아 팔굽과 무릎으로 기어서 카륜에 돌아왔다. 카륜의 동무들은 현대홍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줄칼로 쓸어서 겨우 벗기었다.

그는 이처럼 무서운 시련을 겪고나서도 몸이 회복되자 다시금 공주령에 나가 활동하다가 이번에는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다.

공주령은 일제가 중국에서 빼앗아낸 조차지여서 일본사람들의 관할하에 있었다. 현대홍은 법정투쟁도 잘하였다. 그는 무기징역을 언도받고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고생하다가 일제의 야수적 고문에서 생긴 후탈로 세상을 떠났다.

이제우네 소조역량은 1930년대에 들어와 수십 명으로 늘어났다. 그들의 노력에 의해 장백땅에서는 반일조직들이 연이어 태어나고 마을마다 학교와 야학이 생기고 웅변대회, 연예공연, 체육대회 같은 것이 자주 벌어져 사람들을 혁명적 열정으로 끓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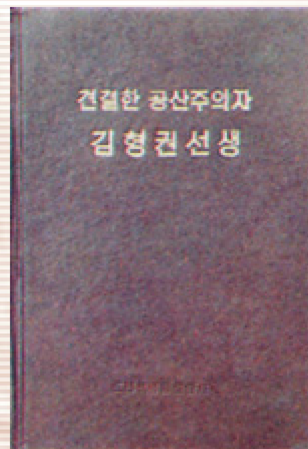

공주령

일제는 이런 때에 마적단으로 가장한 무장단을 들이밀어 조선인 부락을 하나 털어내는 연극을 꾸며가지고 이제우네를 유인해냈다. 그러나 사전에 우리가 마적단을 주의하라고 경고해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놈들의 꾀임에 말려들어가지 않았다.

크지 않은 실갱이가 벌어져 얼마간의 부상자를 냈을 뿐 사건은 전면적인 전투로까지 확대되지 않았다.

그 후 이제우네 무장성원들은 마적단과 결탁된 반동군벌군대의 불의적인 습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었다. 박진영은 전투현장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치고 이제우는 불행하게도 체포되였다.

이제우는 이 수치를 죽음으로 씻으려고 손발을 묶이운 상태에서도 식칼로 목을 찔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는 현장에서 일본경찰들의 손에 넘어갔으며 서울에 압송된 후 사형언도를 받고 옥중에서 인차 희생되였다. 공영은 만주지방의 반일운동자들을 유인납치하려고 일제가 조작한 가짜공산주의자들과 통일전선을 하려다가 살해되였다. 우리가 공영, 이제우, 박진영 동무들의 비극적인 최후에 대한 소식을 접한 것은 단천에서 농민들의 대중적인 폭동이 있은 직후였다.



연락원의 말을 들은 나는 한동안 마음을 수습하기 어려웠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에게 불효막심한 죄를 진 것 같아 머리를 들 수가 없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던 독립군대원들로서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을 맨 처음 실현한 사람들이였다.

이제우, 공영, 박진영의 비극적인 최후를 내가 그렇게도 가슴아파한 것은 카륜회의 결정을 집행할 유력한 국내공작소조 하나가 없어진데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싸우던 방향전환의 선구자들을 억울하게 잃어버렸기 때문이였다.

공영과 박진영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여도 제일 앞에서 멘 사람들이였다. 그들은 우리 어머니에게 몽상도 자기들이 입겠으니 나에게는 입히지 말라고 하였다. 열 네 살 밖에 안된 내가 몽상을 입으면 애처롭게 보일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그때부터 그 두 사람은 3년동안 베감투를 쓰고 몽상을 입었다.

그 당시 독립군 훈련소는 무송시가에서부터 좀 떨어진 말리허라는 곳에 있었다. 공영은 한주일에 한두 번씩 지게에 나무짐을 지고 우리 집에 찾아와 어머니에게 문안을 드리었다. 그의 안해도 두릅이나 참나물같은 산나물을 캐가지고 우리 집에 자주 찾아왔다. 때로는 공영이 쌀자루를 메고 올 때도 있었는데 그런 성의가 우리 집 살림에 적지 않음 보탬을 주었다.

어머니도 그들을 만나면 친동생처럼 허물없이 대해주었다. 어떤 때에는 친누이와 같은 위엄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따끔히 타일러주기도 하였다.

공영이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만주로 들어온 후 그의 안해는 벽동에서 별거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어느 해인가 남편을 찾아 무송으로 들어왔다. 공영은 그때 제비국을 끓이다가 덴 안해의 화상자리를 보고 얼굴이 보기 싫게 되었다고 하면서 시큰둥해가지고 같이 살지 않겠다고 하였다. 우리 어머니는 성이 나서 그를 막 꾸짖었다.

≪임자, 그게 제 정신을 가지고 하는 소린가. 남편을 만나보겠다고 불원천리 찾아온 안해를 금방석에 앉히지는 못할망정 같이 살지 않겠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망녕된 생각인가.≫

공영이란 사람이 원래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



일제와 맞서 사우자고 호소하는 김형권 동지
예술영화 ≪누리에 붙는 불≫

은 늘 진지하게 받아들이었다. 그날도 그는 우리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나서 잘못하였다고 사과하였다.

내가 국내에 들어간 형권삼촌네 무장소조의 활동소식을 제일 처음으로 접한 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였다. 하얼빈에 있을 때인지 어디에 있을 때인지 똑똑히 기억되지 않으나 동무들이 흥분해서 들고 온 신문을 보니 풍산땅에 4명의 무장단이 나타나 순사부장을 쏴제낀 후 북청에서 넘어오는 자동차를 빼어타고 후치령으로 사라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있었다.


무장소조를 이끌고 국내에 진출하는 김형권동지
- 예술영화 ≪누리에 붙는 불≫

신문을 가져온 동무는 국내에서 총성을 울린 것이 통쾌하다고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 총성 때문에 불안을 금할 수 없었다. 어떻게 되어 국내진출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 풍산에서 총성을 냈는가?

나는 그때 삼촌의 불같은 성미를 새삼스럽게 생각하였다.

어편지 삼촌이 그 불같은 성미를 걷잡지 못하고 총소리를 낸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원래 우리 삼촌은 어려서부터 바람벽도 문이라고 차고나가는 남아다운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형권삼촌 하면 먼저 타개죽사발에 대한 일화가 생각난다. 내가 만경대에 있을 적 일이나 삼촌의 그때 나이가 아마 열한 살 아니면 열두 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때 우리 집에서는 저녁마다 수수타개죽을 먹었다. 수수타개죽이란 수수를 껍질채로 망에 갈아서 끓인 것인데 맛도 없었지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삼킬 때마다 수수껍데기가 목구멍을 따끔따끔 찌르는 것이었다. 나도 타개죽은 질색이었다.

그런데 하루는 형권삼촌이 밥상앞에 마주앉았다가 할머니 갖다놓은 뜨거운 타개죽사발을 이마로 받아넘겨 엎질러놓았다. 어떻게나 세게 받아넘겼던지 죽사발은 봉당에 날아가 떨어지고 삼촌의 이마에는 상처가 나서 피가 흘렀다. 아직 철이 다 들지 않은 때이니 죽으로 끼니를 잇지 않으면 안되는 가난에 화가 나서 타개죽사발에 분풀이를 한 것이다.

할머니는 ≪네가 밥타령을 하는 걸 보니 사람구실을 하기 글렀다≫고 하면서 삼촌을 보고 되게 욕하였지만 뒤에 돌아앉아서는 눈물을 지었다.

형권삼촌은 철이 들면서 이마의 허물자리에 신경을 썼는데 중국에 들어와 우리 집에서 생활 할 때에는 앞머리를 좀 길러가지고 그 허물자리를 가리우고 다니었다.

형권삼촌이 중국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임강에서 살 때였다. 아버지가 삼촌을 우리 집에 와있게 한 것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였다. 아버지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삼촌이 우리 집에 와있으면 학교에 가지 않고서도 중학과정까지는 뗄 수 있었다. 장차로는 삼촌을 혁명가로 키우자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생존해계실 때까지는 형권삼촌이 우리 아버지의 영향과 통제를 받으면서 비교적 건전하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다음부터는 자기를 걷잡지 못하고 마음내키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마로 타개죽사발은 받아넘기던 어린 시절의 성미가 그대로 되살아나 우리들을 아연케하였다. 형권삼촌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자 집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임강이요, 심양이요, 대련이요 하면서 사방으로 떠돌아다녔다.

우리 가정내막을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삼촌이 고향에 가서 부모들이 정해준 여

자하고 약혼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약혼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들떠다닌다고 하였다.

물론 그것도 이유라고 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삼촌이 들뜨게 된 중요한 원인은 우리 아버지의 서거에서 받은 절망과 비분을 묵새기지 못하였기 때문이였다.

내가 화성의숙을 중퇴하고 집에 돌아가니 삼촌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술에 취한 사람처럼 들뜬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때 가정은 어머니의 삯빨래와 삯바느질로 생기는 보잘 것 없는 수입에 의하여 겨우 유지되는 참으로 어려운 형편이였다. 우리 가정형편을 보기가 딱했던지 이관린도 얼마간의 돈과 쌀을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의 일손을 돕고 있었다. 삼촌으로서는 사실 돌아간 우리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 일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다. 그 약방에 약은 많지 않았지만 잘 운영만 하면 살림에 얼마간의 보탬은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삼촌은 그 약방을 한번도 돌보지 않았다.



악질적인 순사부장 오빠시를 처단하는 김형권동지
- 예술영화 ≪누리에 붙는 불≫

솔직히 말하여 나는 그때 삼촌의 소행을 두고 아주 민망스럽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하루는 집에 들어앉아 삼촌에게 남길 장문의 편지를 썼다. 정의감이 제일 강하다고 하는 중학시절이어서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보면 웃사람이고 뭐고 참지 못하였다. 그 편지를 삼촌의 베개밑에 밀어넣고 길림으로 떠났다. 어머니는 그때 내가 편지로 삼촌을 비판하는데 대해서 매우 못마땅해하였다.

≪삼촌이 지금은 저렇게 어데도 마음을 의탁하지 못하고 구름처럼 떠돌아다니지만 때가 되면 제골에 들어서느니라. 아무렴 네 삼촌이 근본이야 잊겠니. 설령 돌아다니다가 싫증나면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리, 그러니 비판이고 뭐고 다 그만두어라. 조카가 삼촌을 타이르다니.≫

어머니는 이런 말로 나를 설득하였다. 참으로 우리 어머니다운 사고방식이였다. 그래도 나는 기어이 편지를 남기였다. 한해 후 길림육문중학교를 다니다가 방학이 되어 무송에 돌아와보니 형권삼촌은 놀랍게도 안착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예언이 맞아떨어진 셈이였다. 삼촌이 내가 써두고 간 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입밖에 내지 않았지만 나는 그 편지가 삼촌에게 적지않은 자극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해 겨울에 삼촌은 백산청년동맹에 가입하였다.

우리가 무송을 떠난 후 삼촌은 백산청년동맹을 확대하는 사업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이듬해에는 동무들의 보증으로 공청에도 가맹하였다. 이렇게 되어 삼촌은 혁명대오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1928년부터는 공청의 지시를 받아가며 무송, 장백, 임강, 안도 지방의 백산청년동맹 사업을 지도하였다.

이웃들이 신문을 보고 풍산땅에서 왜놈순사부장을 쏴죽인 사건이 터졌다고 떠



일제놈들의 승합차를 빼앗는 김형권 동지 일행
- 예술영화 ≪누리에 붙는 불≫

들어대는 바람에 만경대고향집에서도 형권삼촌이 체포되였다는 것을 알게되였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이거 또 제 형이 그러더니 동생도 일본놈을 쏴 죽이는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지 하긴 잘한다.≫고 하였다. 세월이 얼마간 흐른 뒤에야 나는 풍산땅에서 국내공작소조가 벌인 활동전모에 대한 소식을 입수할 수 있었다.

압록강을 건넌 소조원들은 단천쪽으로 나가다가 1930년 8월 14일 풍산 파발리 부근의 황수원들쭉갈에서 잠시 지체하였는데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악질경관 오빠시 순사부장의 의심을 받게 되었다. 그놈은 1919년부터 풍산지방에 와서 조선사람들의 수족을 얽어맨 악질경관이였다. 그래서 그 고장사람들은 놈에게 오빠시라는 별명을 붙이였다. 오빠시에 대한 이 고장 인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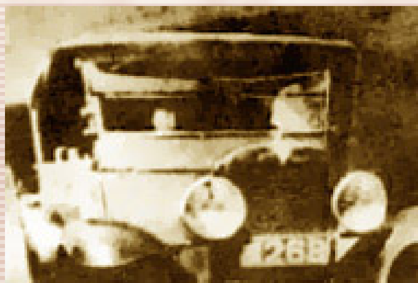
소조원들은 주재소 앞을 지나갈 때 오빠시는 일행을 주재소로 불러들이였다. 형권삼촌은 주재소에 들어가자마자 그놈을 단호하게 처단해버린 다음 인민들앞에서 공개적인 반일연설을 하였다. 그날 수십 명의 군중이 형권삼촌의 연설을 들었다. 비전향장기수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전 인민군 종군기자 이인모도 그때 파발리에서 그 연설을 들었다고 한다.

소조원들은 적들의 추격을 받으면서도 농민폭동의 불길이 일어났던 지역들에 접근하려고 시도하였다.

우리는 그 당시 단천농민폭동을 매우 중시하였다. 폭동이 휩쓴 지역들에서는 반드시 대중운동의 지도자들이 있기 마련이고 정치사상적으로 각성되고 동원된 혁명적 군중의 조직된 대부대가 있기 마련이였다. 적이 폭동지역에서 주동분자들을 색출하는데 혈안이 되였다면 우리는 폭동군중속에서 왕청의 오중화, 용정의 김준, 온성의 전장원과 같은 핵심들을 찾아내려고 하였다. 그런 핵심들과 연계를 가지고 좋은 영향을 주면 국내혁명투쟁을 앙양시킬 수 있는 지반을 닦을 수 있었다. 단천지구를 개척하는데 성공하면 그 지방을 거쳐 성진, 길주, 청진 방면으로도 뻗칠 수 있었고 함흥, 흥남, 원산을 거쳐 평양으로도 진출할 수 있었다.



파발리내중경찰서 주재소



무장소조원들이 빼앗아 탄
함남268호

우리가 형권삼촌이 인솔하는 국내공작조에 단천농민폭동의 주인공들을 찾아가라는 과업을 준 것은 그 때문이였다.

파발리에서 총소리를 내고 떠난 무장소조일행은 봉오골어귀에서 풍산경찰서 사범계 주임이 탄 승합차를 억류하고 그자의 무장을 해제한 다음 주임과 그밖의 승객들에게 반일선전을 하였으며 연이어 리원군 문앙리 일대에 진출하여 배덕골과 대바위골을 비롯한 여러 지점에서 숯구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정치사업을 하였다. 어려운 조건이였으나 투쟁은 항상 적극적이였다. 무장소조는 그 후 북청방면으로 진출하다가 대오를 두 개 조로 편성하였다. 형권삼촌과 정웅이 한 조가 되고 최효일과 박차석이 한 조가 되었다. 두 조는 홍원읍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출하였다.

형권삼촌은 정웅과 함께 9월 초 적수색대가 도사리고 있는 북청군 대덕산의 광제사를 습격하고 홍원, 경포방향으로 진출하다가 정부암 부근에서 적들과 조우하여 전진경찰관주재소 소장을 사살하였다.

삼촌은 그날로 홍원읍에 들어가 집결장소인 최진용

이네 집에 찾아갔다.

최진용이라고 하면 형권삼촌 뿐 아니라 나도 잘 알고 있는 독립군 관계자였다. 그가 무송에서 안송총관소의 총관으로 일할 때 우리 집에도 자주 드나들었다. 그는 원래 조선에서 면장질을 할 때 돈을 떼먹고 그것이 탄로되어 인민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자 동북으로 도주해와서 정의부를 따라다니었다. 한때는 우리 집에 아주 눌러앉아 어머니가 지어주는 밥을 몇 달 동안 얻어먹은 일도 있었다. 최진용은 일제가 만주로 쳐들어온 기미가 보이지 이제는 나이가 있어 독립군시중을 하기가 힘에 부치다고 하면서 무송을 떠났다. 그때 그는 자그마한 과수원이나 하나 장만해놓고 깨끗하게 여생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홍원으로 나갔는데 거기에 나가자마자 일제의 밀정으로 되었다.

형권삼촌은 그런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최진용은 적의 경계가 심하다는 구실로 삼촌을 뜨락의 구석진 곳에 숨겨놓고 경찰서에 달려가 만주에서 나온 무장단이 자기집에 있다고 밀고하였다. 삼촌이 경찰서에 끌려가니 최효일도 벌써 거기에 와 있었다. 최효일을 밀고한 것도 물론 최진용이었다.


감옥에서도 혁명적지조를 굽히지 않는 김형권 동지
- 예술영화 ≪누리에 붙는 불≫

삼촌은 그때에야 최진용이 일제의 주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진용의 변절은 너무도 뜻밖이었고 돌발적인 것이었다. 하루 세끼씩 몇 달을 두고 더운밥을 해서 상우에 반주까지 놓아 푸짐하게 대접해주던 성주 어머니의 은혜를 백골이 되어서도 잊지 않겠노라고 염불처럼 외우던 그 인간이 그처럼 더러운 배신의 길을 걸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래서 나도 최진용이 삼촌을 밀고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한동안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기에 나는 지금도 사람을 믿는 것은 좋지만 환상을 가지고 대하면 안된다고 말한다. 환상이란 비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뒤여난 천리혜안을 가진 사람도 수습하기 어려운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적의 포위망에서 벗어난 것은 정웅 한 사람뿐이었다. 정웅은 소조가 국내로 나갈 때 삼촌이 길안내자로 인입한 사람이었다. 고향이 이원인 그는 동해안 일대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도 후에 춘천에서 밀정의 고발로 체포되었다. 형권삼촌은 체포된 후 얼마동안 홍원경찰서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그 후 함흥감옥에서 다시 이송되어 거기서 또 중세기적인 고문을 받았다.

함흥지방법원에서의 법정투쟁소식은 많은 사람들의 입을 거쳐 우리에게도 전달되었다.

그 때 형권삼촌은 법정에서 일제의 죄상을 추상같이 단죄하면서 무장한 강도들과는 무장으로 싸워야 한다고 소리높이 웨치였다고 한다.

삼촌이 이처럼 법정에서 당당하게 처신할 수 있었던 힘을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혁명에 대한 신념과 충실성이었다고 생각한다. 삼촌이 죽음보다 더 두려워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인간을 정의롭고 용감하게 만들며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는 존재로 되게 하는 신념에 대한 배신이었을 것이다.

최효일은 재판에서 사형언도를 받았다. 삼촌한테는 15년의 징역형이 떨어졌다고 한다.

삼촌과 그 전우들은 재판장에서 혁명가요를 우렁차게 불렀다. 노래가 끝나면 구

호를 냅다 불렀다.

소조성원들은 법정투쟁기간을 연장하려고 서울복심법원에 상소하였다. 함흥재판에서 쓴맛을 본 일제는 서울에서 한 명의 방청도 없는 비밀재판을 하였다. 놈들은 그때 함흥지방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시인하였다.

최효일에 대한 교수형은 판결이 내린 후 얼마 안 있어 인차 집행되었다. 최효일은 잘 싸워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사형장으로 태연하게 걸어나갔다.

형권삼촌은 10년이상의 장기수들만을 주로 가두어두는 서울의 마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이 감옥에서도 삼촌은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놈들이 중형을 진 ≪정치범≫들을 전향시키려고 책동할 때 삼촌이 수많은 수감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상전향을 반대하는 열화같은 연설을 하여 군중을 격동시키고 수감자들에 대한 대우개선투쟁의 앞장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한 사연들은 이미 세상에 많이 소개되었다고 생각한다.

놈들은 전쟁준비를 다그치면서 탄알상자를 만드는 작업에 수인들을 내몰았다. 수인들은 그때 7등밥을 먹으면서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분격한 형권삼촌은 10월 혁명기념일을 계기로 교형리들의 살인적인 강제노동을 반대하는 옥내공장수인들의 파업을 지도하였다. 이 파업에 많은 수인들이 참가하였다.

놈들은 삼촌의 영향력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캄캄한 독감방에 가두어두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팔목과 발목에 고랑쇠를 채워 조금만 움직여도 그 고랑쇠가 살을 파고들게 하였다. 식사도 하루에 아이들 주먹만한 콩밥덩어리를 한 개씩 들이밀었다.

삼촌이 그처럼 엄혹한 처지에서도 투쟁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감옥당국자들은 김형권이 마포형무소를 적색화한다고 비명을 질렀다.

어느 날 박차석은 감옥안에 있는 공장에 나가 일하다가 우리들이 만주각지에서 무장투쟁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형권삼촌에게 전하였다.

삼촌은 그 소식을 듣고 철창에 끌려온 후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박차석의 손을 붙잡고 목멘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며칠 가지 못할 것 같소. 살아남은 동무들이 끝까지 싸워주오. 형기가 끝나 이곳에서 살아나가면 만경대에 계시는 나의 어머님을 꼭 찾아보고 내 이야기를 해주오. 앞으로 성주를 만나거든 내 소식을 전해주고 내가 최후의 순간까지 굴하지 않고 싸웠다고 말해주오. 이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요.≫

삼촌이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아주 누워있을 때의 일이었다.

삼촌이 사경에 처하자 형무소에서는 면회를 와도 좋다는 통지를 만경대에 보냈다.

형록삼촌이 그때 돈으로 40원을 꾸어가지고 친척인 봉주와 함께 서울에 가서 마지막으로 형권삼촌을 만나보았다.

≪형무소에 가니 간수가 병감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더구나. 다른 죄수들은 다들 앉아있는데 병신이 되어 다 죽게 된 우리 형권이만은 백골같은 모습으로 누워있지 않겠니. 그때 기가 막히던 생각을 하면 . 나를 보자 말소리도 못내고 입만 우물우물하는데 어찌도 참혹해졌는지 그게 내 동생이라고 믿기 어렵더라.



豐山에 突現한 武裝團四名
巡査部長射殺逃走
自働車를 빼서 타고 山中潛跡
武裝警官二十名急行

募資中에 巡査射殺
咸南四郡에서 活動

節婦岩路上에 怪青年
詰問하자 拳銃發射
負傷警官은 重態

파발리경찰관 주재소습격전투와 관련한 신문보도

그런 동생이 오히려 나를 보고 웃으면서 ≪형님, 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지만 왜놈들은 꼭 망합니다.≫하고 말할 땐 역시 우리 형권이 답구나 하는 생각이 나더구나.≫

내가 조국에 개선하여 고향집을 찾았을 때 형록삼촌이 나에게 한 말이었다. 나는 그 회고담을 듣고 형권삼촌을 비판한 것을 후회하였다.

동생의 처참한 형상을 보고 정신까지 잃었던 형록삼촌은 그때 간수들에게 요구했다.

≪내 동생 형권이를 집에 데리고 가서 치료하게 해주오.≫

간수는 그 말을 듣자 ≪안돼. 네 동생은 살아도 감옥에서 살아야 하고 죽어도 이곳에서 죽어 감옥귀신이 되야 해. 집에 데려가지는 못해.≫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동생대신 감옥에 들어가 있겠소. 동생이 집에서 치료를 받고 몸이 추선 다음 여기에 다시 와있으면 되지 않소.≫

≪이놈아, 징역을 대신 사는 법이 어디있어?≫

≪법이야 당신네들이 내면 법인데 왜 못하겠소. 그렇게 좀 해주오.≫



예술영화 ≪누리에 붙는 불≫의 김형권동지

≪이놈, 어디서 이따위 수작질이야. 동생이 나쁜 놈이더니 형이란 것도 몹쓸 놈이구나. 너희네 종자는 다 나쁜 놈이다. 어서 당장 나가라!≫

간수들은 이렇게 고함치면서 형록삼촌을 감옥에서 쫓아냈다.

형록삼촌은 생각다못해 간수에게 돈 16원을 맡기며 ≪아무쪼록 우리 형권이를 잘 돌봐주시오.≫하는 부탁을 남기고 만경대로 돌아왔다. 그 정도의 돈을 먹는다고 교형리들의 마음을 움직일 리 만무하였지만 삼촌은 수중에 있던 돈을 다 털어놓았다.

감옥에서 돌아온 삼촌은 한 달동안 잠을 자지 못하였다. 눈만 감으면 동생의 모습



함흥지방법원에서 일제교형리들의 죄행을 폭로규탄하는김형권동지



파발리경찰관 주재소습격전투를 조직지휘하는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형권동지

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더라는 것이다. 그 후 석달만에 형권삼촌은 형무소에서 숨을 거두었다.

1936년 초이니 내가 2차 북만원정을 끝내고 부대와 함께 남호두지방으로 가고 있을 때였다. 그때 삼촌의 나이가 서른한 살이었다.

아버지도 가고 어머니도 가고 동생도 가고 삼촌마저 가니 혁명을 위해 뼈를 깎고 살을 저미던 나의 혈육들은 다 가고 없는 셈이었다. 나는 그때 산에서 삼촌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나만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망국의 한을 품은 채 고국의 이름모를 언덕에 무주고혼이 되어 누워있는 삼촌의 원쑤를 갚고 기어이 나라를 찾으리라고 결심하였다.

사망통지서를 받고서도 노자가 없어 시체를 찾아오지 못해 삼촌이 마포형무소 공동묘지에 묻혔다는 가슴아픈 이야기는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김일성**은 내 조카이다. 그는 지금 만주에서 큰 혁명부대를 이끌고 왜놈들을 족치고 있다. 그 부대가 국내에 쳐들어올 날은 멀지 않았다.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무장으로 싸우라. 무장을 들고 싸워야 왜놈들을 쫓아내고 나라를 해방할 수 있다!≫

나는 형권삼촌을 생각할 때마다 카륜회의 결정을 관철하는 길에서 청춘을 서슴없이 내던진 수많은 전우들을 눈앞에 그려보군 한다.

형권삼촌에게는 영실이라고 부르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해방 후 만경대혁명학원에 다니었다. 나는 어떻게 하나 그 애를 키워 아버지의 뒤를 잇게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일점 혈육마저 전쟁시기 폭격에 희생되었다.

우리 혁명의 행군로를 피로써 개척한 조선혁명군대원들의 업적은 참으로 거룩하고 숭고한 것이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이들의 영웅적 투쟁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그들이 흘린 성스러운 피의 대가로 이 세상에 상비적인 혁명무장력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파발혁명전적지에 세운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의 동상

6. 혁명시인 김혁


김혁

혁명은 동지들을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자본가의 밑천은 돈이지만 혁명가의 밑천은 사람이다. 자본가가 돈을 밑천으로 하여 치부의 탑을 쌓아나간다면 혁명가는 동지를 밑천으로 하여 사회를 변혁하고 개조해간다.

청년시절 내 주위에는 동지들이 많았다. 그들 가운데는 인정적으로 사귄 친구들도 있었고 투쟁과정에 뜻을 같이하면서 얻은 동지들도 있었다. 그 한명한 명의 동지들은 모두가 억만금을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사람들이였다.

우리 후대들이 혁명시인이라고 부르는 김혁도 바로 그런 동지들 중의 한 사람이였다. 김혁은 나의 청춘시절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긴 사람이며 나는 그가 세상을 떠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오늘까지도 그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김혁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1927년 여름이였다.

그날 한문시간이 끝나고 복도에서 상월선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권태석이 뛰어와서 손님이 찾아왔다고 알려주었다. 한번도 보지 않은 사람인데 차광수라는 안경쟁이와 함께 정문에 서 있었다고 하였다.

과연 정문에는 얼굴이 여자처럼 곱상하게 생긴 초면의 청년이 트렁크를 들고 서서 차광수와 같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차광수가 자기를 소개하기도 전에 내앞에 손을 내밀고 ≪김혁이올시다!≫하며 스스럼없이 악수를 청하였다.

그래서 나도 그의 손을 잡으며 자기 소개를 하였다.

내가 김혁에게 특별한 친근감을 느낀 것은 차광수가 그에 대해 ≪광고≫를 귀에 못이 박히게 한데도 있었지만 김혁의 얼굴모습이 김원우의 얼굴과 비슷하게 생긴데도 있었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 김혁형을 데리고 기숙사에 가서 한 시간동안만 기다려주지 않겠소? 어지간한 시간 같으면 결강을 하겠는데 공교롭게도 상월선생이 담당한 문학시간이구만.≫

나는 김혁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차광수한테 이런 부탁을 하였다.

≪허허, 상월선생의 문학시간이라면 모두가 오금을 쓰지 못하니 성주도 장차 김혁이처럼 문학가가 되려는게 아니오?≫

차광수는 안경테를 추어올리면서 농을 하였다.

≪김성주라고 문학가가 못된다는 법이야 없지. 그런데 혁명을 하자면 반드시 문학을 알아야 할 것 같애. 어떻소? 김혁형, 그렇지 않소?≫

김혁은 그 말을 듣자 환성을 울리었다.

≪길림에 와서 이제야 귀맛이 당기는 말을 듣는구만. 문학을 떼놓고야 혁명을 논할 수가 없지. 혁명 그 자체도 문학의 대상이고 모체니까. 문학선생이 그렇게 인기있는 선생이라면 나도 만나고 싶소.≫

≪그럼 훗날 소개해주기로 합시다.≫

나는 이런 약속을 남기고 교실로 들어갔다.

수업을 끝내고 나오니 차광수와 김혁은 정문에서 불변자본이 어떻고 하면서 그냥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친구의 음성에서 풍기는 열정은 나에게도 그대로 옮겨졌다. 나는 김혁을 타고난 열정가라고 격찬하던 차광수의 말을 되새기면서 좋은 동무를 또 하나 얻게 되었다고속으로 기뻐하였다.

≪숙소에 가서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왜 그냥 여기에 서 있소?≫

김혁은 한쪽 눈을 쪼프리고 금빛햇살이 쏟아져내리는 허공을 바라보았다.

≪이 좋은 날 바퀴처럼 집안에 들어가 박혀선 뭘 하겠소. 이왕이면 여기서부터 길림거리를 하루종일 거닐며 이야기나 나눕시다.≫

≪금강산구경도 식후경이라는데 점심식사나 한 다음 북산으로 가든가 강남공원 같은 곳으로 갑시다. 김혁형이 상해에서 불원천리하고 우리를 찾아왔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식사도 안시키면 대접이 너무 소홀하지 않소.≫

≪길림에 와서 성주동무를 만나니 몇 끼 굶어도 배고플 것 같지 않소.≫

김혁은 성미도 열정적이였지만 언행도 활달하였다.

그때 내 수중에는 공교롭게도 돈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돈을 내지 않아도 우리를 반갑게 맞아줄 수 있는 삼풍여관으로 갔다. 그 여관집 사람들이 마음씨가 고운데다가 국수를 잘 만들었다. 여관집 어머니에게 사정이야기를 하니 국수 여섯 그릇을 말아 한 사람앞에 두 그릇씩 내주었다.

김혁은 옹근 사흘밤이나 내가 기숙하고 있는 방에서 나와 함께 밤을 새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나흘째 되는 날에는 길림일대의 실태를 파악하느라고 차광수가 있는 신안툰으로 갔다.

나는 첫 대면에 벌써 그가 불같은 열정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차광수는 덜렁덜렁한 사람이라면 김혁은 불같은 사람이었다. 평상시에는 여자처럼 조용하고 얌전하게 굴다가도 일단 충격만 가해지면 쇠가마처럼 끓으면서 단김을 뿜는 것이었다. 차광수처럼 동양 3국을 돌아다니면서 쓴맛단맛을 다 보았다면 풍운아였는데 그런 풍운아치고는 깨끗한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견문도 넓고 이론수준도 높았다. 특히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는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문학과 예술의 사명을 두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럴 때마다 김혁은 문학과 예술은 마땅히 인간에 대한 송가로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 후 길림바람을 좀 쏘이고 난 다음에는 견해를 발전시켜 혁명에 대한 찬가로 대어야 한다고 하였다. 문학관이 아주 헌신적이었다. 우리는 김혁의 이런 장점을 참작하여 그에게 한동안 군중문화계몽사업과 관련된 과업을 많이 주었다. 그가 연예선전대활동을 자주 지도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김혁이 시를 잘 지었기 때문에 우리 동무들은 그를 ≪에젠뽀찌에≫라고 불렀다. 그를 가리켜 ≪하이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김혁은 실지로 하이네나 에젠뽀찌에를 그 어느 시인보다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설에서는 주정이 강한 최서해의 작품보다도 정서가 적은 나도향의 작품을 더 좋아하였다.

우리는 김혁의 그런 취미를 두고 세상이치란 참으로 묘한 데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우리 생활에서는 서로 대조되는 것들끼리 결합되어 잘 어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차광수는 그런 현상을 가리켜 ≪음과 양의 결합≫이라고 적절하게 비유하였다. 김혁의 경우에도 음과 양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남다른 문학적 개성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김혁은 어렵고 복잡한 혁명사업을 하면서도 짬을 내어 훌륭한 시작품들을 연이어 써내군 하였다. 우리의 혁명조직에 망라되어있던 길림의 여학생들이 그의 시를 수첩에 베껴가리고 다니면서 즐겨 읊었다.



혁명영화
≪조선의 별≫

김혁은 남들처럼 종이장을 놓고 썼다지웠다하면서 시를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첫줄부터 마지막줄까지 죄다 머리속에서 다듬다가 수정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면 비로소 주먹으로 책상을 내이치고는 종이위에 옮기군 하였다.

그가 책상을 내려칠 때마다 시가 한 편씩 나온다는 것을 알고있는 동무들은 ≪김혁이 또 알(시)을 하나 낳았군≫하면서 기뻐하였다. 김혁이 시를 탈고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공동의 경사로 되고 있었다.

김혁에게는 공청생활을 하던 승소옥이라는 미모의 애인이 있었다. 몸매가 날씬하고 복성스럽게 생겼지만 정의를 위해서라면 단두대에라도 서슴없이 그런 기개와 담력을 가진 처녀였다.

승소옥은 공청조직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하였다.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투쟁이 벌어지던 그 해 가을에 거리에서 그가 선동연설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는데 연설을 아주 맵시있게 하였다.

수첩에 김혁의 시를 베껴가지고 다니면서 제일 애송한 여학생도 바로 승소옥이였다. 그가 시를 잘 읊고 노래도 잘 부르고 연설도 잘하는데다가 계절에 관계없이 늘 하얀 저고리에 깜장치마를 입고 다니였기 때문에 승소옥이라고 하면 길림시내 청년들치고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생활을 언제나 열정적으로 감수하고 시화해온 김혁은 사랑도 역시 열렬히 하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을 하면서도 사랑을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인간성도 없고 인간다운 생활도 없으며 인간다운 사랑도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혁명을 하면서 사랑을 하였고 탄우속에서도 가정도 이루었다.

그들은 군중들과의 사업을 하는 여가를 타서 종종 버들숲이 무성한 이통하강변에 나가 산책도 하고 낚시질도 하였다. 김혁이 낚시질을 할 때면 승소옥은 옆에서 고기도 따주고 미끼도 끼워주었다. 경치좋은 북산과 송화강변에서 그리고 이통하

기슭에서 혁명과 더불어 그들의 사랑은 나날이 무르익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승소옥의 아버지 승춘학이 그들의 사랑을 달가와하지 않는 것 같았다.

승춘학은 삼광학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창신학교의 설립자이며 교장이었다. 몇 해 동안 쏘련에 가서 연해주지방을 돌아다니며 공부도 하고 문명의 맛도 본 사람인 것만큼 그때로서는 상당한 정도로 개명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고유수에 가서 창신학교를 삼광학교로 개조하고 민족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대중조직들을 공산주의 조직, 혁명조직들로 개편할 때에도 그는 우리가 하는 일에 선참으로 이해를 표시하고 적극적으로 방조해주었다.

이런 사람이 자기네들의 사랑에 냉담한 태도를 취하였으므로 남아장부인 김혁이지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승소옥의 어머니는 김혁을 좋은 사위감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딸이 그와 교제하는 것을 눈감아주고 남편앞에서도 은근히 두둔해주었다. 그 후 오랜 기간 김혁의 사람됨을 면밀하게 주시해오던 승춘학도 결국은 그가 훌륭한 혁명가임을 알고는 딸의 의향을 따르게 되었다. 승춘학이 그들의 약혼을 허락한 날 김혁과 승소옥은 사진을 찍었다. 그 당시 승소옥이네 집에는 사진기가 있었다.



≪해외조선 혁명운동소사≫의 저자 최일천과 그의 아내 승소옥

김혁이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상태에 빠진 승소옥은 이통하에 몸을 던저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다. 우리 동무들이 이 강변에서 그를 끌어내다가 겨우 진정시켜 놓았다.

승소옥은 그 후에도 혁명활동에 성실히 참가하다가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의 필자인 최일천의 안해가 되어 세상을 떠나자 그에게 시집을 갔다. 비록 계모가 되어 남의 아이들을 기르는 한이 있더라도 김혁과 같은 혁명가와 일생을 같이하겠다는 것이 여성으로서의 그의 이상이었다.

김혁의 불같은 성격은 혁명실천에서 충실성으로 표현되었다. 그는 높은 책임성과 충실성을 지닌 혁명가였다. 나보다는 나이가 다섯 살이나 위이고 일본에 가서 공부도 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내색은 전혀 내지 않고 우리가 주는 과업을 언제나 성실하게 받아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김혁을 각별히 아끼고 사랑하였다.

김혁은 1928년 여름부터 차광수와 함께 유하현일대에서 활동하였다. 그들의 지도로 고산자동성학교에 사회과학연구회(특별반)가 나오고 반제청년동맹지부가 조직된 것도 이무렵이었다.

그때 김혁은 인류진화사와 세계정치지리, 문학, 음악 과목의 강의를 담당하였다. 고산자의 청년학생들속에서 인기가 대단하였다.

내가 감옥생활을 마치고 동만쪽으로 나갈 무렵에 김혁은 고유수와 길림으로 왔다갔다하면서 조직이 준 과업을 집행하고 있었다. 나는 돈화로 가면서 그에게 서면으로 강동, 길림, 신안툰의 혁명조직들을 지도하면서 새 출판물 발간을 준비하라는 일거리를 더 맡기였다.

얼마후 돈화에서 일을 카륜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혁을 찾아갔더니 그는 우리가

준 과업을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었다. 내가 옥중에서 무르익힌 생각과 카륜에 가서 할 사업내용을 이야기했더니 그는 흥분해서 자기도 당장 나를 따라 카륜으로 가겠다고 하였다. 나는 카륜으로 오되 맡은 일을 다 수행한 다음 천천히 뒤따라오라고 하였다. 김혁은 몹시 서운해하면서도 내 말대로 신안둔에 그대로 눌러앉아 새 출판물 발간준비를 다그치었다. 그럼 다음에야 카륜에 왔다.

카륜회의가 있은 후 우리는 새 출판물을 발간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켰다. 새로운 혁명노선이 일정에 오르고 그 실현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할 사명을 지는 첫 당조직이 세상에 태어난 조건에서 그 사상적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출판물을 발간하는 것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업으로 나섰다.



첫 당조직의 기관지 ≪볼쉐위크≫

김혁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카륜에 와서도 밤잠을 자지 않고 출판물에 낼 원고를 썼다. 그의 제의에 따라 출판물의 제호를 ≪볼쉐위크≫로 달았다.

우리는 ≪볼쉐위크≫를 잡지형식으로 만들어 대중을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면서 물질적 준비를 충분히 갖춘 다음 점차 신문형식으로 크게 만들고 부수도 늘이기로 계획하였다. 1930년 7월 10일에는 마침내 ≪볼쉐위크≫ 창간호가 세상에 나왔다.

이 잡지를 공청, 반제청년동맹 지부들과 여러 반일혁명조직들, 조선혁명군 소조들에 배포하였으며 우리가 장악하고 있는 학교들에도 보내여 교재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내가 카륜에서 한 보고를 해설하는 글도 그 잡지에 실리었다. 카륜회의 방침을 소개하고 선전하는데서 ≪볼쉐위크≫가 참으로 큰 역할을 하였다. 처음 얼마동안 월간잡지형식으로 발간되던 ≪볼쉐위크≫는 그 후 발전하는 혁명정세의 요구에 따라 주간신문으로 되었다.

김혁은 ≪볼쉐위크≫의 첫주필로서 카륜을 떠날 때까지 원고집필로 밤잠을 거의 자지 않았다. 불덩이같은 정열가여서 좀처럼 휴식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러다가 그는 조선혁명군 소조를 책임지고 하얼빈으로 갔다. 김혁이 하얼빈에 파견된 것은 1930년 8월초였다. 길림, 장춘, 유하, 흥경, 회덕, 이통 일대에서 주로 활동해온 그에게 있어서 하얼빈은 생소한 고장이였다. 나도 이 도시에 대해서는 별로 파악이 없었다.

우리는 길림에 있을 때부터 하얼빈을 중시하였다.

이 도시의 주민 구성을 보면 노동계급이 많았다. 노동계급속으로 들어가자면 장춘이나 하얼빈과 같은 큰 도시들에 대담하게 진출하여 우리의 역량을 키워야 했다.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고 중동철도를 공격한 군벌의 배신적인 반쏘행위를 반대하는 투쟁과정이 보여준 바와 같이 하얼빈의 노동계급과 청년학생들은 혁명성이

강하였다. 이런 고장에 가서 줄만 잘 늘이면 많은 군중을 조직에 묶어세울 수 있었다.

우리가 하얼빈을 중시한 것은 거기에 국제당연락소가 있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내가 길림육문중학교에 조직한 공청과 연계를 가지고 있던 국제당산하의 공청조직도 하얼빈에 있었다. 국제당과의 연계를 가지자면 이 도시에 우리의 통로를 내고 하얼빈을 우리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으로 개척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김혁을 하얼빈에 보낸 중요한 목적은 하얼빈일대에서 우리의 혁명조직을 늘이는 한편 국제당과의 연계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하얼빈

김혁이 그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우리가 주는 임무를 흔쾌히 받아들이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에게 국제당에 보내는 소개신을 써준 사람은 김광열(김렬)이였다.

김혁은 떠나면서 내 손을 붙잡고 오래도록 놓아주지 않았다. 우리가 주는 과업이라면 경중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해제끼는 사람이였지만 단독임무를 받아가지고 떠나갈 때에는 매번 그렇게 쓸쓸해하였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럿이서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그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고독이였다.

시인이 고독을 자주 체험해보는 것도 문학수업을 위해서는 나쁘지 않을텐데 왜 그 동무는 그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가고 언제인가 물어봤더니 김혁은 지난날 울분을 안고 세상을 떠돌아다닐 때에도 고독도 하나의 좋은 길동무였는데 그런 생활을 끝장낸 다음부터는 싫어진다고 솔직히 고백하였다. 그는 강동에서 몇 달 동안 외롭게 지내다가 카륜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밤을 밝히며 몇 날 동안 일하는 것이 재미를 좀 볼만하니까 또 헤어지게 된다고 하면서 못내 아쉬워하였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어린아이들을 달래듯이 말했다.

≪김혁이, 혁명을 하자니까 이런 이별도 있는 것이 아니겠소. 하얼빈에 갔다오면 우리 동만에 나가서 같이 일해보자구.≫

김혁은 쓸쓸하게 웃었다.

≪성주, 하얼빈의 일은 걱정하지 마오. 어떤 일이 있어도 조직에서 준 임무를 수행하고 웃으면서 동무들곁으로 돌아오겠소. 앞으로 동만에 나갈 때에는 맨 선참으로 나를 불러주오.≫

그것이 김혁과의 마지막 이별이였다.

그와 헤어지고 보니 내 자신도 마음이 허전해졌다.

우리의 선이 처음으로 하얼빈에 뻗치기 시작한 것은 1927년말부터였다. 그 당시 길림제1중학교에서 고학을 하던 몇몇 학생들이 조선민족을 모독하는 강의를 한 반동적인 역사교원과 대판싸움을 하고 나서 하얼빈으로 들고 뛴 일이 있었다. 그 학생들 가운데는 우리의 지도를 받아오던 유길학우회 성원들도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얼빈에 가서 조직을 내올 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그들은 하얼빈학원, 하얼빈고등공업학교, 하얼빈의학전문학교에 다니면서 조선청년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선인 학우친목회와 독서회를 조직하였으며 이 조직의 골간들로 1928

년 가을에는 반제청년동맹 하얼빈지부를, 1930년대 초에는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하얼빈지부를 결성하였다. 우리는 방학 때마다 한영애를 파견하여 하얼빈의 조직들을 지도하였다.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이 만주를 휩쓸 때 하얼빈의 청년학생들이 그에 호응하여 큰 규모의 투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조직들이 은을 냈기 때문이었다.

하얼빈의 혁명조직들에는 끌끌한 청년들이 많았다. 지금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으로 사업하고 있는 서철동무도 그때 하얼빈의 공청지부에서 일하였다.

김혁을 책임자로 한 조선혁명군 소조가 도착하였을 때 하얼빈의 공기는 매우 살벌하였다. 학우친목회나 독서회같은 합법적 조직들까지도 지하에 들어가야 할 형편이였다. 공청을 비롯한 비합법적 조직들은 철저히 자기를 위장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김혁은 하얼빈동무들과 함께 조직을 지켜내고 조직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도를 토의하였다. 그의 제의에 의하여 이 도시의 모든 혁명조직들은 여러 개의 조로 분산되어 지하로 더 깊숙히 들어갔다.

김혁은 무장소조원들과 함께 부두노동자들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카륜회의 방침을 정력적으로 해설하였다. 그는 능숙한 조직적 수완과 담력을 가지고 청년들을 교양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기층당조직을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과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밀고 나갔다. 적들의 삼엄한 감시망을 피해가며 국제당연락소와의 연계도 지어놓았다.

하얼빈의 일을 추켜세우는데서 김혁의 공로가 컸다. 그는 혁명의 한 개 지역을 담당한 책임자답게 종횡무진으로 활약하다가 하얼빈도시의 비밀연락소에서 불의에 달려드는 적들과 총격전을 벌이던 끝에 최후를 결심하고 3층에서 뛰어내렸다. 그런데 강철같은 육체가 그의 뜻을 배신하였다. 김혁은 자결에 성공하지 못한 채 적들에게 붙잡혀 여순감옥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그 감옥에선 모진 고문과 박해에 시달리다가 옥사하였다고 한다.

김혁은 우리 혁명대오에서 백신한과 함께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삶과 젊음을 바친 첫 세대의 대표자의 한 사람이다.

한 명의 혁명동지가 천금보다 더 귀중했던 그때 김혁과 같이 훌륭한 재사를 잃은 것은 우리 혁명에 있어서 참으로 가슴아픈 손실이었다. 그가 붙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며칠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나는 하얼빈에 갔을 때에 김혁의 발자취가 찍혀 있는 거리와 선창가를 하염없이 거닐며 그가 생전에 지은 노래를 입속으로 조용히 불러보았다.


혁명영화 ≪조선의 별≫

차광수나 박훈과 마찬가지로 김혁도 조선의 진로를 찾아 만리타향을 속절없이 떠다니다가 우리와 손을 잡은 사람이었다. 상해 프랑스조계지의 어느 하숙방에서 남의 눈치밥을 얻어 먹으며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던

그에게 차광수가 편지로 우리에 대한 소식을 알렸다. 상해에서 아까운 인생을 썩이지 말고 길림으로 오라, 길림에만 오면 네가 찾는 지도자도 있고 이론도 있고 운동도 있다. 그래서 김혁이 우리한테로 왔다. 우리와 통성을 한 후 길림시내를 며칠 돌아보고는 내 손을 덥석 틀어잡고 ≪성주, 나는 여기에 닻을 내리겠소. 내 인생은 이제부터요≫라고 말했다.

차광수와 김혁이 막역한 벗으로 된 것은 일본 동경유학시절부터라고 하였다.

나는 지금도 공청을 창립하던 날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내셔날≫의 노래를 선창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그날 김혁은 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 나는 한때 상해에서 중국학생들과 함께 시위에 참가한 적이 있다, 그들이 반일구호를 부르며 행진해나가는 것을 보고 나도 마음속이 동하여 시위대오에 뛰어들었다, 시위가 좌절되면 숙소에 돌아와서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고 혼자서 모대기하였다, 그 어떤 당파나 조직에도 속하지 않은 무소속청년이니 어디에 모이라고 찾는 사람도 없었고 내일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고 지시하거나 의논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시위를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시위를 하다가 맥을 놓을 때 앞으로 나가라고 소리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시위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내일은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는 조직이 있고 지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날까, 내가 총탄에 맞아 쓰러질 때 나를 붙안고 ≪김혁아! 김혁아!≫하고 부르며 눈물을 뿌려줄 동지가 있다면 또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그것이 조선사람들이고 조선의 조직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하는 생각을 하였다, 총구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얼마나 좋겠는가하는 생각을 하였다. 총구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이런 생각이 가슴에 맺혀 내려가지 않았는데 길림에 와서 좋은 동무들을 만나는 행운을 지닌데다가 오늘은 공청에까지 가맹하고 보니 얼마나 떳떳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김혁의 이 말에는 가식이 없었다.

그는 늘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좋은 동지들을 찾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 인생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김혁은 ≪조선의 별≫이라는 노래까지 지어가지고 혁명조직들에 보급하였다.

나는 처음에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신안툰에 내려가니 그곳 청년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김혁은 우리 몰래 차광수, 최창걸 동무들과 의논해가지고 길림일대에 그 노래를 보급하였다. 그때 나는 우리를 별에 비기고 노래까지 지어부르는데 대해 아주 엄하게 꾸짖었다.

≪조선의 별≫이 보급되던 그 무렵부터 우리 동무들은 내 이름도 한별이라고 고쳐불렀다. 저희들끼리 이름을 지어가지고는 내 의향에는 관계없이 ≪한별이, 한별이≫하고 불렀다. 한문자로 표기하면 일성(一星), 즉 한별이라는 뜻이었다.

우리 동무들과 함께 내 이름을 **김일성**(金日成)으로 고치자고 발기한 것은 변태우를 비롯한 오가자의 유지들과 최일천과 같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나는 ≪성주≫, ≪한별≫, ≪일성≫이라는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김성주는 아버지가 지어준 나의 본명이었다.

유년시절에는 증손이라고 불렀다. 증조할머니가 생존해 계실 때 나를 증손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 집안 사람들이 그 본을 따서 ≪증손이, 증손이≫하고 불렀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

절절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항일혁명투사
혁명시인 김혁지음

1.조 선 의밤하늘 에 새 별 이 솟—
아 삼— 천 리 강— 산 을 밝— 게 도 비치
네 짓— 밟 힌 조선 에 동 은 트 리—
라 이— 천 만 우리 동 포 새— 별 을보 네

2.캄캄한 밤하늘 바라다보니
신음하는 조국산천 어리여 오네
변치 말자 혁명에 다진 그 마음
2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

3.간악한 강도 일제 쳐물리치고
3천리에 새별이 더욱 빛날제
조선아 자유의 노래 부르자
2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

다.

나는 아버지가 지어준 본명을 무척 귀중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내 이름을 다르게 지어 부르는데 대하여 달가와하지 않았다. 더구나 나를 별이나 태양에 비기면서 젊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추대하는데 대하여 용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단속하고 설복하여도 소용이 없었다. 동무들은 내가 달가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즐겨 사용하였다.

김일성이라는 나의 이름이 공식출판물에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1931년 봄 내가 고유수에서 군벌들에게 체포되어 20일가량 감옥생활을 할 때였다.

그러나 그때까지 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전날의 습관대로 나를 그냥 성주라고 불렀다.

내가 동무들속에서 **김일성**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운 것은 훗날 동만에 나와서 무장투쟁을 시작한 다음부터였다.

동무들은 이처럼 새 이름을 지어주고 노래까지 지어부르면서 나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내세웠다. 나를 내세우려는 그들의 성의는 참으로 극진하였다.

내가 나이도 어리고 투쟁경력도 짧았지만 그들이 나를 세우지 못해 그처럼 애쓴 것은 통일단결의 중심도 없이 각당, 각파가 저마끔씩 영웅호걸행세를 하면서 파쟁으로 혁명운동을 말아먹던 전 세대의 운동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나라를 찾자면 2천만 민중이 합심해야 하며 2천만 민중을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게 하자면 영도의 중심, 통일단결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진리를 뼈에 사무치도록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김혁, 차광수, 최창걸과 같은 사람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잊지 못해하는 것은 그들에 나에 대한 노래를 짓고 나를 지도자로 내세워서가 아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 민족이 그처럼 절절하게 바라면서도 실현할 수 없었던 통일단결, 우리 인민의 자랑이고 영광이며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인 참다운 통일단결의 시원을 열어놓고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서 영도자와 대중의 일심동체를 이룩한 통일단결의 새 역사를 피로써 개척한 선구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와 함께 혁명을 한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은 자리다툼 때문에 대오에 불화를 조성한 적도 없고 의견상이로 하여 우리가 생명으로 내세운 통일단결을 파괴해 본 적도 없었다. 통일단결은 우리 대오에서 진짜 혁명가와 가짜 혁명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되어있었다. 그렇게 때문에 그들은 감옥과 교수대로 끌려가면서도 이 통일단결을 목숨으로 사수하였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에게 그것을 재보로 넘겨주었다.

그들의 첫째가는 역사적 공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 지도자를 내세우고 그 지도자를 핵으로 통일단결한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넋은 오늘 우리 당이 일심단결이라고 부르는 통일단결을 낳은 위대한 전통으로 되었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도자를 내세우고 그 지도자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혁명투쟁을 전개한 바로 그때로부터 조선의 민족해방투쟁은 파쟁과 혼란으로 얼룩진 지난날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장을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김혁이 우리의 곁은 떠나간 때로부터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나 혁명 때문에 밥도 새고 배도 곯고 발도 얼구면서 만주의 설한풍속을 헤쳐가던 김혁의 모습은 지금도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가 지금 살아서 우리 곁에 있다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혁명앞에 모진 시련의 고비가 닥쳐올 때마다 나는 지난날 온몸을 애국으로 불태우며 투쟁속에서 젊음을 빛내던 살틀한 동지 김혁을 생각하며 그가 너무도 일찍이 세상을 떠나간데 대하여 애석한 심경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후대들에게 김혁의 모습을 영원히 전해주려고 대성산혁명열사릉 맨 앞줄에 그의 반신상을 세웠다.

김혁이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았고 또 그때 같이 싸우던 동지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다보니 그의 얼굴 모습을 알 길이 없었다. 그래서 반신상을 세울 때 우리 조각자들이 수고를 하였는데 김혁의 얼굴 모습은 내가 알려주어 완성하게 되었다.

7. 1930년 여름

엠엘파계열의 종파분자들은 5.30폭동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1930년 8월 1일 국제반전일을 전후하여 길돈철도연선지방을 중심으로 또 다시 무모한 폭동을 일으켰다.

폭동으로 하여 우리 혁명앞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였다. 5.30폭동 후 지하에 깊숙이 들어가 있던 얼마되지 않는 조직들마저 적들앞에 노출되였다. 우리가 감옥에서 나와 사방으로 다니면서 가까스로 수습해놓았던 조직들도 재차 타격을 받고 파괴되였다. 만주각지에서 우수한 지도핵심들이 무리로 붙잡혀 처형되였다. 적들은 공산주의를 헐뜯고 공산주의운동을 탄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구실을 얻게 되였다.

이 폭동이 일제의 민족이간책동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가 하는 것은 구태여 언급할 필요가 없다. 두 차례의 폭동 때에 조선사람들이 중국사람들앞에서 그만 신용을 다 잃었다. 그 후 우리는 유격투쟁을 통하여 그 신용을 어렵게 회복하였다.

동만의 조선사람들은 8.1폭동까지 겪고 나서 좌경모험주의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점차 심각히 깨닫기 시작했으며 대중을 무모한 폭동에로 내모는 종파사대주의자들을 불신과 경계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

우리는 지체없이 폭동이 휩쓴 지역들에 공작원들을 파견하여 혁명군중이 종파분자들의 선동에 더는 속아넘어가지 않도록 하였다.



길림시가

나도 길림을 거쳐 돈화쪽에 가서 얼마동안 조직을 수습할 작정이었다.

길림에 가니 거기도 5.30폭동직후처럼 분위기가 이만저만 살벌하지 않았다.

나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변장을 해가며 조직에 관계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였다.

길림의 역과 성문, 도로교차점들이 모두 적들의 검문초소로 되고 있었다. 일본영사관 밀정들도 거리를 싸다니면서 조선혁명가들을 색출하였다. 민족주의운동이 막판으로 기울어지고 있던 시기여서 이 무렵에 와서는 안창호사건 때와 같이 독립군 영감들의 뒤를 쫓아다니지 않고 공산주의운동을 하는 청년들을 잡으려고 곳곳에 그물을 쳤다.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으로 끓어번지던 길림시내에서 오늘은 낯익은 얼굴들을 찾아보기 힘들구나하는 생각에 분하고 원통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동무들은 나와 헤어질 때 길림에 들리더라도 오래 지체하지 말고 인차 해룡이나 청원같은 곳으로 가라고 권고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길림을 쉽사리 떠날 수는 없었다. 혁명을 새롭게 개척해보겠다고 만 3년동안이나 낮에 밤을 이어가며 심혈을 바치던 생각을 하면 다른 고장으로 선뜻 발길을 돌리게 되지 않았다. 내가 길림에서 감옥살이까지 하면서 혁명을 위해 고생하지 않았다면 이 도시에 그처럼 큰 애착을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사람은 자기가 심혼을 바친 것만큼 그 고장을 사랑하는 법이다.

다행히도 공청사업을 하던 동무를 한 명 만나 몇몇 조직성원들의 행처를 알아낼 수 있었다. 그들을 한자리에 불러다놓고 적들앞에 조직성원들을 더는 노출시키지 말며 길림소년회나 유길학우회와 같은 합법적 조직들도 당분간 지하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였다.

카륜회의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하였다. 파악이 있는 동무들에게는 혁명조직을 수습할 데 대한 임무를 주어 활동지역들에 떠나보냈다.

나도 길림을 떠날 생각이었다. 내앞에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 길림의 일을 대강 수습해놓고나니 동만쪽으로 나가면서 파괴된 조직들을 복구하고 싶은 욕망이 불같이 일어났다.

나는 청원이나 해룡쪽에 가서 당분간 중국동무들의 집에 숨어있다가 적들의 피해를 많이 받은 고장들을 돌아다니며 폭동의 후과를 가셔볼 생각이었다. 해룡과 청원 방면에 가면 카륜회의가 있은 후 한번도 보지 못한 최창걸이와도 연계를 가지고 그와 함께 남만으로 가는 통로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하였다. 이 일대를 유하와 함께 최창걸의 활동구역이었다.

최창걸은 유하, 해룡, 청원일대를 왔다갔다하면서 기층당조직을 내오고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중조직들을 확대해가고 있었다. 당시 이 지역의 혁명운동은 국민부파와 반국민부파의 대결로 심한 진통을 겪고 있었다. 그런 때에 8.1폭동의 여파까지 미쳐 혁명조직들이 무더기로 파괴되었다.

해룡과 청원사이에는 내가 잘 아는 길림시절의 동창생이 한 명 있었다. 유격대초창기 우리 부대가 있다가 남만원정이 있은 후 집으로 돌아간 중국동무였다. 그 동무의 집에 얼마동안 가있으면 그 사이에 백색테러



1930년대
초엽의 길림역

선풍도 좀 가라앉을 것 같고 그러면 나도 위험한 고비를 무난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았다.

길림을 떠나는 날 몇몇 여동무들이 나를 역에서 전송하였다. 부자집따님들처럼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나와 바래다주니 나는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무난히 차에 오를 수 있었다. 군벌들은 그때까지만 하여도 신사들이 공산주의운동같은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나는 그때 길림본역으로 차를 타지 않고 적들의 경계가 덜 미치는 변두리역에서 차에 올랐다. 그런데 차칸에서 뜻밖에도 장울화를 만났다.


장울화

장울화는 심양으로 공부하러 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심양으로 가기 전에 혁명할 길이 없겠는가 의논하려고 나를 찾아 길림에 갔던 것인데 가보니 살풍경이더라는 것이었다. ≪알만한 조선사람들은 다 숨고 눈에 보이는 것은 군경이 아니면 왜놈개들뿐이더라. 성주를 만나러 갔는데 만날 수는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심양으로 가는 길이다≫하면서 나를 다짜고짜 자기가 자리잡은 1등칸으로 데리고 갔다. 그도 내가 테러를 피해 숨어 다니는 몸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따라 순사들은 승객들에 대한 단속을 심하게 하였다. 출입문은 모조리 봉쇄해놓고 차에 오르는 사람들의 신분을 일일이 조사하였으며 어떤 승객들에 대해서는 소지품고 보따리까지 사정없이 뒤져보았다. 검표원들도 그날은 다른 때보다 유달리 엄격하게 차표조사를 하였다. 8.1폭동의 후유증이 도시나 촌락 뿐 아니라 열차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장울화의 도움으로 나는 해룡역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다. 손수들이 승객들에 대한 조사를 살벌하게 하였지만 중국신사복을 쭉 뽑아입은 장울화한테는 감히 말도 걸지 못하였다. 나도 장울화와 같이 앉아있다나니 순사들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검표원들은 차표조사를 하면서도 우리한테는 차표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버렸다. 장울화의 배경 때문이였을 것이다.

내 품에는 그때 문건도 있었고 비밀자료들도 있었다. 경찰이 몸을 수색하게 되면 나도 무사할 수 없었다.

해룡역에서 도착하니 홈과 개찰구 옆에서 일본영사관 경찰들이 어마어마하게 진을 치고 있는 광경이 보였다. 나는 육감으로 나에게 어떤 위험이 닥쳐왔다는 것을 느꼈다.

해룡역에 있는 적이 일본경찰들이라고 하니 신경이 몹시 날카로와졌다. 중국의 순사나 일본순사나 다같은 순사이지만 일본순사들에게 걸려들면 더 용수가 없었다. 만주에서 조선혁명가들을 붙잡기만 하면 사정없이 국내로 압송하거나 관동도독부법원들에서 재판을 하여 여순, 대련, 길림 등지에 있는 감옥들에 마구 잡아넣을 때였다.

내가 어떻게 할 지 결심을 못하고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고 내다보고 있을 때 장울화가 특별히 바쁜 일이 없으면 자기와 같이 가자고 하였다. 같이 가서 아버지도 만나보고 자기의 장래문제도 의논해보자는 것이었다.

나는 원래 초시역에서 차를 내려 목적지까지 가려고 계획하였다. 초시역으로 가자면 다섯정거장이나 여섯정거장 더 가야 하였다. 장울화가 해룡역에서 내리게되면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지므로 뜻밖의 위험이 조성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거의 요청에 응하기로 하였다.

역에는 마침 장울화의 아버지가 나와 있었다. 영구라는 곳에 가서 인삼을 팔고 돌

아가는 길에 아들이 해룡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왔다는 것이였다. 허리에 모갑싸창을 타 수십 명의 가병들이 우리앞에 고급마차를 들이대였는데 행색이 여간 으리으리하지 않았다. 그 통에 영사관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감히 우리에게 접어들지 못하였다.

우리는 고급마차를 타고 가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보란 듯이 이 역전거리를 달리었다. 그날 나는 고급여관에 들어 장울화네와 함께 지내면서 휴식을 잘하였다.

장울화네는 보초도 자기네 가병들로 세웠다. 여관둘레에 가병들이 두겹세겹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있었다.

장울화의 아버지는 오래간만에 만나니 반갑다고 하면서 나를 특별방에 안내해주고 좋은 음식을 연방 청하였다. 원래 그는 무송시절부터 나를 보면 여간 살틀하게 대해주지 않았다. 손님들이 누구인가고 물으면 농삼아 양아들이라고 소개하였다. 처음에는 농으로 그렇게 불렀는데 나중에는 진심을 가지고 양아들, 양아들 하였다.


철주동생과 장울화

나는 장울화가 큰 부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송에 있을 때부터 그와 가깝게 지냈다. 어려서부터 지주가 착취자라는 일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장울화와의 관계에서는 그것 때문에 구속을 받지 않았다. 사람이 어질고 양심적인데다가 반일감정이 강해서 거리를 두지 않고 가깝게 지냈는데 위급한 대목에서 도움을 받고 보니 감개무량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평소에 지주의 아들이라고 장울화를 따돌리였다면 그들이 결정적인 대목에서 나를 그처럼 성실하게 보호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혁명에 참여하거나 그것을 지지하지 않아도 일평생 호강하며 살 수 있는 장울화와 같은 부자의 자식이 위급한 순간에 아버지와 힘을 합쳐 나를 도와준 것은 그가 나와의 의리를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였다.

내가 무송에서 소학교를 다닐 때부터 장울화는 자기와 나 사이에 부자와 가난한 자, 중국사람과 조선사람이라는 간격을 두지 않고 친근하게 지냈다. 그는 나라를 강탈당한 우리의 설움은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동정해주었으며 조국을 광복하려는 우리의 결의와 이상을 충심으로 지지해주었다. 장울화가 그렇게 한 것은 그 자신이 자기 조국과 중화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는 애국자였기 때문이였다. 그는 조선민족의 비운에서 중화민족의 불행을 보았다.

장울화의 아버지도 부자이지만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주장하는 지조가 강한 애국자였다. 그의 애국충정은 그가 지은 자식들의 이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는 맏아들이 태어나자 울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울중의 두 번째 글자 ≪중≫은 ≪중화민국≫이라는 중국의 국호에서 첫 글자를 따온 것이였다. 둘째한테는 울화, 셋째한테는 울민이라고 이름을 연이어 지어주었으며 넷째가 태어나면 울국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그런데 넷째는 출생하지 않았다. 네 이름의 두 번째 글자를 합치면 ≪중화민국≫이라는 국호가 된다.

장울화는 그때 나에게 명년 봄이나 가을쯤에는 일제놈들이 쳐들어올 것 같은데 일제놈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작정인가고 물었다.

나는 그에게 ≪일제놈들이 들어오면 맞받아나가 싸우려고 한다. 무장투쟁을 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해주었다.

장울화는 자기도 투쟁을 하기는 하여야겠는데 집에서 허락하겠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나는 말해주었다.

≪나라가 없어지는데 집이 다 무엇이냐. 너도 낡은 사회를 반대하여 싸우기로 마음먹었으면 혁명을 해야 한다. 인제 다른 출로라는 것은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우국지사로 공산주의에 대한 말이나 하고 집에 앉아서 책이나 보는 것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이 두 길밖에는 없다. 그러니 부모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혁명을 해야 한다. 그것이 중국을 위한 길이고 중화민족을 구원하는 길이다. 너야 다른 것이 있다. 중국사람들과도 같이 혁명을 해야지. 일제놈들이 쳐들어오면 그때에는 조선사람들 뿐만 아니라 중국사람들도 같이 들고일어날 것이다.≫

어렇게 그 여관에 2-3일동안 묵으면서 장울화에게 반일사상을 불어넣었다. 장울화는 나의 권고를 듣고 나서 학교를 마치면 자기도 혁명을 하겠노라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내가 정 바쁘면 너의 신세를 또 질 수 있으니까 심양 어디에 가 있겠는지 주소나 하나 적어달라≫고 하여 그의 심양주소를 받았다. 그런 다음 목적지까지 무사히 빠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수 없겠는가고 하였다.

장울화는 너를 돕고 보호해주는 일이라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고 하면서 나를 자기네 마차에 태워 해룡현과 청원현의 경계에 있는 중국동무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내가 찾아간 그 동무의 집도 역시 장울화네와 같이 잘 사는 집이였다. 중국혁명의 선각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적지 않았다. 나는 그래서 중국혁명이라는 것이 특이한 혁명이였다고 늘 생각하게 된다. 노동계급이나 농민과 함께 인텔리들, 돈냥이나 있는 사람들도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 많이 참가하였다.

부유한 가정출신의 사람들도 인간의 자주성과 사회발전을 억제하는 모순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혁명운동에 참가할 각오를 가질 수 있다. 자산가출신들 가운데서 근로대중의 이익을 옹호하여 싸우는 투사나 선각자들이 배출되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출신이 아니라 세계관에 있다.

인생을 하나의 도락이라고 보게 되면 혁명을 못하고 부를 누리는 것으로 그치고 말며 도락을 못누려도 사람답게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게 되면 부자도 혁명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다.

계급혁명이라고 하여 이런 선각자들을 다 따돌리게 되면 혁명 그 자체가 큰 손실을 보게 된다.

나는 중국동무의 집에서 며칠간 묵었는데 그 동무도 장울화처럼 나를 잘 대해주었다. 그 동무의 성이 왕가였던지 위가였던지 지금은 기억이 삭막하다. 그 사람을 내세워 며칠동안 최창걸을 찾아보았으나 허사였다. 최창걸은 8.1폭동이 일어난 다음 지하로 깊숙이 들어갔다고 하였다.

나는 초시부근의 공청원을 한 명 만나 해룡과 청원일대에서 파괴된 조직들을 속히 복구하고 무장투쟁준비를 적극 다그치라는 부탁이 담긴 편지를 주어 최창걸에게 전하도록 하였다.

중국동무의 집에서 며칠동안 손님대접을 받으면서 지내보니 그것도 갑갑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신변에 위험이 조성되더라도 대지를 마음껏 밟으며 자유분방한 활동에 몸을 잠그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길림에 다시 돌아가기도 어렵고 또 남만철도는 일제놈들이 주관하고 있어 기차는 타는 것도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간도에 가고 싶었으나 공산당검거선풍이 불어치는 그런 고장에 가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래도 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어떻게 하든지 동만에 나가서 무장투쟁

준비를 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나는 중국동무와 함께 해룡에서 기차를 타고 길림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기차를 타고 교하라는 곳으로 떠났다. 교하에는 우리의 영향하에 있는 조직들이 많았다. 길림시절부터 나와 친교를 맺어온 한영애와 그의 삼촌 한광도 거기에 있었다.

나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당분간 군벌의 추격을 모면할 수 있는 은신처도 꾸리고 조직을 복구정비하는 사업도 벌일 작정이었다. 한영애를 만나면 하얼빈에 있는 국제공산당산하 상급조직과의 연계도 지으려고 생각하였다.

한영애는 1929년 초에 가정사정으로 길림에서 학교를 중퇴한 후에도 교하에 들어와서 계속 우리와의 연계를 끊지 않고 있었다.



한영애

나는 누구부터 찾아가야 할지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독립군시절에 중대장을 하던 장철호한테 먼저 들리었다.

국민부가 나온 후 독립군의 상층과 결별하고 군복을 벗어던진 그는 교하에 내려와서 정미소를 차려놓고 영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내가 그를 찾아간 것은 그가 우리 아버지의 친구로서 나를 무척 사랑해주던 사람이고 믿음이 가는 애국지사였기 때문이었다. 나에게는 조직성원을 만날 때까지 임시로 몸을 붙이고 지낼 수 있는 생활거처가 필요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왔다고 몹시 반가와하면서도 집에 숨어있으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가 좀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은 눈치이기에 나도 찾아온 사유를 털어놓지 않았다. 나는 리재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발길을 돌리었다.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까지만 하여도 여관업을 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잘 후원해주던 사람이었다. 그도 역시 나를 반갑게 맞아주기는 하였지만 중국음식점에 데리고 가서 교즈 한 그릇을 사먹이고 나서는 갈라지자고 하였다.

그 당시 나에게는 한두 끼의 식사보다도 숨어있을만한 거처가 더 필요하였다. 그 사람도 내가 찾아왔으면 그런 눈치를 모를 리 없건만 하루밤 집에서 자고 가라는 말도 없이 그저 잘 가라고만 하였다. 그 사람은 벌써 자기에게 화가 치밀 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지난날의 의리나 친분관계는 다 져버리였던 것이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심각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사상적 결합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친구도 다 소용없다, 지난날의 친분관계나 인정만 가지고서는 혁명투쟁을 함께 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이 그때에 얻은 뼈저린 교훈이었다.

사상이 변하고 신념만 변하면 의리나 인정도 동시에 변하는 법이다. 지난날 죽자살자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 사이에 틈이 생기고 인간적 결렬이 생기게 되는 것도 다 어느 한쪽의 사상이 변하는데서 오는 것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장담하던 우정이나 동지적 유대도 어느 일방이 사상적으로 변질되면 금기 가기 마련이다. 사상을 고수하지 않고서는 의리나 친분관계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이 그 후 장구한 혁명투쟁과정을 통하여 내가 얻은 하나의 교훈이다.

이재순과 헤어진 나는 한광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한광은 어데 피신했을 수 있지만 한영애는 여자이기 때문에 집에 있지 않겠는가, 그가 내 형편을 알기만 하면 목숨을 내대고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들었다.

그러나 집에는 한광도 없고 한영애도 없었다. 그 옆집 아주머니에게 행처를 물어보았더니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조선청년들 중에서 운동이나 좀 한다고 하던 사람들

은 다 숨어버렸으니 이제는 찾아갈 데도 없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누가 고자질을 했는지 경찰들이 막 뒤쫓아오고 있었다. 이제는 잡혔구나하고 내 자신도 사태를 아주 절망적으로 판단한 그 순간에 한광의 옆집 여자가 그래도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변이 위험한 것 같은데 어서 부엌으로 들어오십시오≫하면서 자기가 업고 있던 아이를 재빨리 업혀주었다. 그리고는 ≪대답은 내가 다 할테니까 선생님은 가만히 앉아서 불이나 때십시오≫하고 하였다. 아마 그 당시의 내가 아이아버지처럼 위장해도 일없으리만큼 나이보다 퍼그나 숙성했던 모양이었다.

나는 등에 아이를 업은 채 부지깽이를 들고 부엌봉당에 앉아 그 여자가 시키는 역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혁명을 하면서 어려운 고비를 많이 겪어보았지만 이런 경우는 난생 처음으로 당해보았다.

경찰들은 문을 열어제끼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방금 이리로 온 청년이 어디로 갔는가?≫하고 물었다.

그 여자는 ≪청년이라니, 어떤 청년말입니까?≫하고 태연하게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 중국말로 넌지시 아무도 없으니 들어와서 밥이나 자시겠으면 자시라고 하였다.

등에 업힌 아이는 낯이 설다고 자꾸만 울었다. 그 아이를 달래기는 달래야겠는데 서투르게 달래다가는 정체가 드러날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부지깽이로 아궁이만 뒤적거렸다.

경찰이 어디로 뛰었을까, 잘못보지는 않았는가고 저희들끼리 떠벌이다가 다른 집으로 가버렸다.

그들이 사라진 다음 아주머니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경찰들이 마을에서 떠나갈 때까지 ≪주인≫노릇을 더 해 주십시오. 우리 주인이 밭에 나가있는데 들어오라고 알리겠으니 마음놓고 있다가 그이가 온 다음 함께 대책을 의논해봅시다.≫ 그리고는 나에게 밥을 차려주고 밭에 나갔다 들어왔다.

얼마후 경찰들이 다시 나타나서 나더러 심부름을 시킬 것이 있으니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쳤다. 그 아주머니는 침착하게 ≪앓는 사람이 어떻게 심부름 가겠습니까. 정 바쁘면 내가 대신 갔다오지요≫하고는 나대신 놈들이 시키는 심부름을 다 들어주고 돌아왔다.

이처럼 그 여자의 도움으로 아슬아슬한 고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소박한 촌여성이지만 기발하고 지혜가 있었다. 혁명의식도 상당히 높은 여성이였다.

나는 이름모를 여인의 모습에서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받았다. 지난날 친분관계를 믿고 찾아갔던 아버지의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생판모르는 그 아주머니가 생사를 가리지 않고 나를 도와주었다. 오로지 혁명가는 돕는다는 순수한 감정을 가지고 그처럼 희생적으로 나를 위기에서 구원해준 것이다. 사람이란 어려운 때에 진가를 알아볼 수 있다.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생명까지도 서슴지 않고 의탁할 수 있는 결백하고 견실한 의리는 역시 근로하는 인민들속에 있었다. 그러기에 나는 늘 전우들에게 혁명을 하다가 곤란한 일이 생기면 인민을 찾아가라고 하였다. 배고파도 인민을 찾아가고 물을 먹고 싶어도 인민을 찾아가며 슬픈 일이 생겨도 인민을 찾아가라고 하였다.

그 아주머니가 좋은 아주머니였다. 지금이라도 살아있으면 그에게 절을 하고 싶은 심정이다.

그 해 겨울 만주지방에서 활동하는 조선혁명군 지휘성원들과 지하조직책임자들이 오가자에 모여 회의를 할 때 나는 그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동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여튼 성주동무는 운이 좋아. 운이 좋으니까 하늘

이 도운거지≫하였다.

나는 운이 좋아서 내가 봉변을 면한 것이 아니라 인심이 좋아서 군벌에게 잡히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는 인민이 하늘이고 민심이 천심이더라고 말하였다. 그때부터 ≪교하의 아주머니≫라는 말은 슬기롭고 희생적인 우리 인민을 상징하는 하나의 대명사, 어려운 고비에서 자기를 희생시켜 혁명가를 도와주는 것이 체질로 되어있는 여성들을 상징하는 뜻깊은 대명사로 되었다.

나는 지금도 폭양에 그슬리고 피로 얼룩지던 1930년 여름을 회상할 때마다 교하를 생각하고 잊을 수 없는 교하의 아주머니를 그려보군 한다. 수십년을 두고 아무리 수소문해도 종적을 찾을 수 없는 그 여인을 회고할 때면 60년 전 그날 그 아주머니의 이름도 묻지 못하고 홀연히 교하땅을 떠난 실수를 가슴아픈 자책에 잠기군 한다.

그때 이름이라도 알아두었더라면 온 세상에 광고라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해방 후 지금까지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하여 많은 은인들이 나를 찾아왔다. 이역에서 살다가 헤어진 지 반세기만에 백발노인으로 나타난 은인들도 있었다. 어려운 때에 나를 도와준 적지 않은 은인들이 나를 만났고 해방된 조국땅에 돌아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

그런데 교하의 아주머니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그 아주머니 자신은 1930년 여름에 있었던 극적인 순간을 범상한 일로 여기고 그것을 죄다 망각해버렸는지도 모른다.

60년전의 은인은 아무런 소식도 자취도 없이 대지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좋은 옥일수록 땅속에 깊이 묻히는 법이다.

밭에 나갔던 남편이 돌아온 후에야 아주머니는 나에게서 아이를 받아내리었다. 그때의 일은 그 하나하나가 다 그대로 탐정소설 같은 이야기이다.

나는 내 이름을 제대로 대줄 수가 없어 가명을 대고 그저 혁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인과 인사를 나누었다.

주인은 자기도 혁명을 하던 사람인데 조직과의 연계가 끊어져 속수무책으로 있다고 하면서 앞집에 큰개(밀정)가 있으니 주의해야겠다고 하였다. 그의 말이 한광은 북만으로 뛰고 한영애는 탄압이 심하여 늘 피해다니는데 지금 그를 만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런 말까지 듣고나서 암담한 생각이 들었다. 앞집에 밀정이 있으면 이 집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도 없었다. 집에 숨어있다가 정세를 봐가며 다시 돈화쪽으로 가면 좋겠지만 돈화라는 곳이 일본인들이 거점을 두고 있는 고장인데다가 공산당 화요파 본부가 있던 곳이어서 수색이 심했다. 어지간한 조선사람들은 벌서 5.30폭동직후에 거의 다 검거되고 여자들밖에 없었다. 그런 고장에 가서 발을 붙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나는 어두워진 다음 그 주인의 안내로 교하시내에서 15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외딴 초막으로 갔다. 이 집 노인부처가 또한 매우 친절한 분들이었다.

이날밤 나는 우리 혁명가들이 언제나 믿고 의지할 곳은 인민들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절실히 느끼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니 잠은 오지 않고 별의별 생각이 다 났다. 만나야 할 사람은 한 명도 찾지 못하고 며칠째 줄곧 헛물만 켜고 있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꼴인가, 이런 때일수록 피동에 빠지지 말고 역경을 헤쳐나가야 한다. 수세에 빠지면 끝장이다, 그래도 활동을 해야지 이런데 숨어다니기만 해서야 무슨 일이 되겠는가, 어떤 방법을 써서든 이 고비를 잘 넘기고 동만에 나가 혁명을 추세워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날이 밝은 다음 뜻밖에도 한영애가 그 집에 나타났다. 내가 동만지방으로 나온다

는 통보를 받은 한영애는 은신처를 찾아 집을 나설 때 오른쪽 볼에 보조개가 있는 분이 오면 자기가 숨어있는 곳에 연락해달라고 어머니에게 부탁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1년만에 만나는 셈이었다.

고생 끝에 그를 만나고보니 어떻게 반가왔든지 한동안은 말도 못하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기만 하였다. 한번 웃기 시작하면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통쾌하게 깔깔거리군 하던 그의 얼굴이 한해사이에 살이 빠져 몰라보게 되였다.

한영애의 말을 들어보면 간도도 살풍경이라 하였다.

나는 한영애에게 ≪이렇게 숨어있어야 무골충이지. 그래도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소. 일제놈들이 당장 쳐들어오겠는데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그 놈들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하겠소. 조직들을 빨리 수습하고 인민들을 각성시켜야 하오. 그저 무섭다고 숨어서 떨기만 할 수야 없지 않소≫라고 하였다.

한영애는 자기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어려운 때에 그런 말을 들으니 용기가 난다고 하였다.

≪아무도 없는 여기에 앉아있어서는 방법이 없소. 조직과의 연계를 지어줄 터이니 하얼빈으로 가기요.≫

한영애는 조직과의 연계가 끊어져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헤덤비고 있었는데 마침 잘되었다고 하면서 기뻐하였다.

국제당과의 연계를 짓기 위하여 김혁을 하얼빈에 파견하였지만 나는 그가 돌아와서 활동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얼빈에 빨리 가서 국제당 사람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폭동으로 여지없이 파괴된 조직들과 계엄상태와도 같은 무시무시한 긴장감에 짓눌린 도시와 농촌마을의 풍경은 나로 하여금 좌경모험주의자들이 혁명에 끼친 해독이 얼마나 엄중한가하는 것을 다시 한번 통절히 느끼게 하였으며 그것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1930년대의 첫 출발에서부터 우리 혁명이 불가피하게 막대한 희생을 치르게 되리라는 것을 명백히 깨닫게 해주었다.

이론투쟁만으로써는 종파사대주의자들과 좌경모험주의자들의 망동을 저지시킬 수 없었다. 그들은 우리가 이치에 맞는 말을 하거나 혁명에 이로운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의 의사를 아예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5.30폭동의 연장선위에서 우리가 그처럼 우려하던 8.1폭동이 끝끝내 폭발한 것은 그들이 길동지구당 회의에서 우리가 내놓은 의견을 전면적으로 묵살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만주대지에서 거침없이 굴러가는 좌경모험주의의 수레바퀴를 멈춰세우자면 국제당의 방조가 필요하였다. 나는 폭동에 대한 국제당의 견해를 알고 싶었고 그것이 국제당의 지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사람들이 제멋대로 생각해낸 망동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만일 국제당이 그런 지령을 내렸다면 논쟁을 해서라도 그 수레바퀴를 멈춰세우고 싶었다.

우리는 적들의 경계가 심한 조건에서 둘다 중국 사람으로 변장하고 차를 타기로 하였다.

그날 한영애는 진종일 교하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들이 입고갈 신사옷과 신발을 준비하고 여비를 마련하였다. 군경들의 의심을 덜 받기 위하여 트렁크에는 화장품도 넣었다. 그의 도움으로 하얼빈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다.



하얼빈

나는 하얼빈부두가의 상부가입구에 있는 국제당연락소에 찾아가 연계를 맺고 그곳 사람들에게 한영애를 소개한 다음 5.30폭동과 8.1폭동으로 하여 동만에 조성된 사태에 대하여 통보하고 카륜회의 정형을 소개하였다.

국제당연락소에서도 두 차례의 폭동에 대해서는 모험주의라고 평가하였다. 연락소에서 나를 만나준 사람은 자기 견해로 볼 때에는 카륜회의에서 우리가 채택한 결정들이 다 조선의 실정에 맞고 혁명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대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고무적인 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카륜회의에서 새로운 당창건방침을 내놓고 그 모체로 되는 기층당조직으로 건설동지사를 내온 것에 대해서도 그는 1국1당원칙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언명하였다.


김혁

이렇게 되어 나는 국제당으로부터 우리 혁명의 생명으로 되는 자주성의 원칙, 창조성의 원칙, 우리가 내세운 모든 노선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때 국제당에서는 나에게 모스크바에 자기네가 운영하는 공산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유학을 갈 생각이 없는가고 물었다.

나는 모스크바에 그런 대학이 있다는 것과 우리 나라에서도 조선공산당의 추천을 받아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청년들이 그 대학에 가서 공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봉암, 박헌영, 김용범과 같은 사람들도 이 대학을 다녔다. 모스크바유학에 대한 동경심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 당시 만주지방 청년들속에서 ≪모스크바유학가≫라는 노래까지 불리워지고 있었다.

나는 혁명실천에서 떨어지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가고는 싶어도 지금은 갈 형편이 못된다≫고 대답하였다.

1989년에 문익환목사를 만나 여담으로 하얼빈에 대한 얘기를 꺼냈더니 그는 자기 아버지도 그 무렵에 하얼빈에서 국제당이 선발한 유학생들을 쏘련에 넘겨보내는 일을 했다고 하였다. 국제당에서는 나에게 길동지구 공청책임비서사업을 위임하였다.

김혁이 3층집에서 떨어져 감옥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우리는 국제당연락소를 통하여 입수하였다.

김혁의 체포 때문에 나와 한영애는 하얼빈에 체류하는 기간 내내 침통한 기분으로 지냈다. 김혁이 철쇄에 묶인 것이 너무도 애석하여 한번은 그가 떨어졌다는 도리의 3층집앞에 가보기까지 하였다.

도리의 상점들과 식당들에는 기름진 음식이 많았으나 우리한테는 그것이 다 그림의 떡이었다.

국제당에서는 하루용돈으로 15전을 주었는데 하얼빈생활이라 그것이 15전을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었다. 보통여관에 들면 숙박검열이 심하여 혁명가들이 배겨있을 수 없었다. 경관들이 드나들지도 않고 숙박계도 내지 않는 여관이란 백계러시아인들이 경영하는 여관밖에 없었다. 이 여관에서는 식비와 숙박비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돈많은 자본가들이나 들었지 우리같은 사람들은 명함을 들이대기도 어려운 호화여관이었다. 나는 여러 가지로 타산하던 끝에 하루 한끼씩 먹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한 고급여관에 들기로 하고 여성들에 대한 단속을 별반 하지 않는 일반여관에 한영애를 들게 하였다.

여관에 들고 보니 그 내부가 이만저만 요란하지 않았다. 여관에는 상점, 식당, 오락장, 딴스홀 같은 시설은 물론 영화관까지 있었다.

나는 돈도 없이 여관에 거처를 정했다가 딱한 경우를 여러 번 당하였다. 내가 첫

날 여관에 들어갔을 때 러시아안내원여자가 손톱을 깎으면 돈을 물어주어야 하겠으므로 나는 다 깎았다고 하였다. 안내원이 나가자 이번에는 접대원이 꼬리를 물고 따라들어와서 어떤 음식을 청하겠는가고 물었다. 궁색한대로 또 동무의 집에서 먹고 왔다고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단련을 날마다 받으면서도 돈이 없는 탓으로 여관에서는 식사를 한번도 하지 않고 자기만 하였다. 식사는 하루일을 마치다 보고 저녁에 한영애와 함께 거리에 나가 눅거리강낭지점을 한두점 사먹는 것으로 굼때었다.

언제인가 우리 나라에 온 유소기를 만나 그 사연을 얘기했더니 그는 자기도 그 해 하얼빈에 있었다고 하였다. 당원들 중에 중국사람은 없고 조선공산당원 몇 사람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국제당에 관계하지 않았는가고 하였다. 시기를 따져보면 유소기가 하얼빈에서 활동하다가 돌아간 직후에 내가 거기에 가서 국제당일군들을 만난 것 같다.

나는 한영애에게 과업을 주고 흩어진 조직성원들을 찾도록 하였다.

한영애는 길림시절부터 연계를 가지고 있던 하얼빈공청지부의 한 아무개라는 사람과 연계를 가지고 그를 통하여 지하에 숨어있는 조직성원들을 한명두명 찾아내어 카륜회의 방침을 해설하였다.

나도 김혁이 공작하던 철도와 항만에 들어가서 혁명조직의 영향밑에 있는 노동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하얼빈에서 지하조직들을 수습하고 동지들 사이에 서로 연계를 지어준 다음 한영애를 그곳에 남겨두고 혼자서 돈화로 나왔다. 분초를 다투는 때여서 한영애하고는 고맙다는 인사도 변변히 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내가 떠날 때 한영애는 함께 따라가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하얼빈 동무들이 자꾸 남겨두고 가라고 해서 그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 동만에 나온 후 그것이 늘 속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지만 지하공작규율상 편지연락을 못하게 되어 있어 서로 소식도 모르고 지냈다.

한영애의 그 후 운명에 대해서는 당역사연구소동무들이 수집한 자료를 보고 훨씬 후에야 알게 되었다.

내가 돈화로 나올 때 하얼빈의 혁명조직들에 서한을 남긴 것이 있는데 한영애는 그 서한을 통해 내가 하얼빈동무들에게 준 과업을 실행하느라고 뛰어다니다가 1930년 가을에 경찰에 체포되었다. 어지간한 여성들 같으면 집이 그리워서라도 교하로 돌아갔겠지만 한영애는 하얼빈에 그냥 남아서 밤잠도 자지 않고 내가 준 과업을 수행하였다. 말이 적고 양순한 처녀였지만 일단 혁명사업에 들어가면 이악하고 과감하게 활동하였다.

한영애는 붙잡히자마자 신의주감옥으로 끌려가 거기서 수감생활을 하였다. 그것은 이종락, 박차석을 비롯한 ≪ㅌ·ㄷ≫시절의 연고자들이 무리로 붙잡혀 감옥으로 끌려가던 시기였다. 그래서 그는 이종락이와도 한 감옥에 있게 되었다.

그 후 이종락이 한영애를 만난 자리에서 ≪나도 김성주와는 잘 아는 사이이고 너도 김성주의 지도를 받던 여자이니 우리 다같이 힘을 합쳐 그를 귀순시켜보지 않겠는가. 생각이 있으면 우리 ≪귀순공작대≫에 들어오라≫고 하였다.

한영애는 즉석에서 그에게 면박을 주었다. 그는 이종락에게 그런 행동을 하면 못쓴다, 우리가 김성주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그따위 너절한 배신행위를 하겠는가, 출두한 다음 혁명을 못하면 말았지 그따위 짓은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1938년 겨울 우리가 남패자에서 회의를 할 때 나를 ≪귀순≫시켜보라고 회의장소에 들어왔던 이종락이 이런 사연을 다 고백하였다.

그렇게 되어 나는 그 동안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한영애의 소식을 듣게 되었으며 그가 감옥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혁명가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종락이나 박차석같은 사내들은 감옥맛을 보기 바쁘게 다 전향문에 도장을 찍었지만 한영애는 여성의 몸으로 그 고초를 용감하게 이겨냈다.

≪해산사건≫이후 도처에서 혁명가들이 무리로 잡혀가고 투쟁의 길을 걷던 사람들 가운데서 배신자들이 생겨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주고 있던 때에 그런 소식을 들은 것만큼 나로서는 무척 감동도 되고 고무도 받았다.

한영애는 중국 단동시에 있는 고무공장에서 제화노동도 하였다. 그는 노동을 하면서도 동포들에게 길림시절에 부르던 혁명가요를 보급하였으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켜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내걸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도 사람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한영애는 그 후 서울에 나가 몇 해 동안 홍명희 선생의 아들집에서 처녀시절을 보냈다.

그는 조직선을 찾아 다시 만주로 들어가려고 여러 해 동안 모대기다가 늦게야 결혼하였다. 비록 머리를 쪽지고 가정에 묻히는 몸이 되기는 하였으나 우리와 함께 혁명을 하느라고 뛰어다니던 그 시절의 양심과 지조는 조금도 저버리지 않았다. 우리가 무장을 들고 백두산일대에서 적들을 한창 답새기고 있을 때 한영애는 서울에서 그 소식을 듣고 길림시절의 동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다가 마음속으로 우리의 승리를 빌었다고 한다.

그의 남편은 해방 후 남로당원으로 지하활동을 하였는데 후퇴시기 적들에게 피살되었다.

한영애도 전쟁시기 서울근처에서 여맹조직을 책임지고 전선원호사업을 잘하였다. 남편이 피살된 후에는 나를 찾아간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평양에 들어왔다. 그러나 나를 만나지 못하고 1951년 8월 14일밤 적들의 폭격에 두 아이와 함께 애석하게도 희생되었다.

나는 한영애가 일생을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한다. 그는 길림시절의 호흡과 발걸음으로 전생애를 살아왔다. 노래를 불러도 길림시절의 노래를 불렀다.

혁명을 하는 사람들은 한영애와 같이 절해고도에서도 신념을 잃지 않고 양심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나의 일생에서는 한영애도 잊을 수 없는 은인이였다. 그는 어려운 때에 나를 찾아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준 고마운 여성이였다.

해방이 되어 조국에 돌아와 한영애의 행처를 수소문하니 그는 공화국경내에 없었다.

해방 전에는 항일전쟁을 하느라고 그를 다시 만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가 나의 변장에 필요한 중국옷을 얻느라고 땀을 흘리며 무더위속을 뛰어다니던 일과 열차에서 군벌들의 조사를 받을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위험한 순간순간을 모면하면서 내 신변을 보호해주던 일, 한점의 지짐떡을 먹으면서도 매번 그것을 절반으로 갈라서는 그 중 한쪽을 내앞에 조용히 밀어놓군하던 일들은 나는 한시도 잊지 않았다.

그가 나를 위해 한 모든 봉사는 사랑이나 연정과 같은 감정을 훨씬 초월한 깨끗하고 사심없는 동지애의 산물이였다.

그가 평양까지 들어왔다가 나를 만나보지 못하고 폭격에 희생된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애석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다행히도 젊은 시절의 그의 사진이 기적적으로 보존되어 내 손에까지 들어왔다. 이 세상에 없는 은인들 생각이 가슴에 차오를 때면 나는 나의 청춘시절에 큰 자국을 남긴 한영애의 아름다운 넋을 사진에서 찾으며 마음속으로 감사를 드리군 한다.

8. 두만강을 건너



두루봉혁명사적비

우리 아버지는 간도사람들이 투쟁력이 강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였다. 나도 5.30폭동과 8.1폭동까지 겪고나서 간도지방의 조선사람들이 뛰어난 혁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다.

간도나 북부조선 일대는 일찍부터 의병들과 독립군들의 활동무대로 되어왔다.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회주의 10월혁명의 영향으로 맑스-레닌주의사조도 이 지역에 먼저 전파되였다. 간도일대에서의 공산주의운동은 지도자들속에서 나타난 소부르조아적 조급성으로 하여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인민대중의 혁명적 진출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 것만큼 나는 감옥에 있을 때부터 일단 무장투쟁을 시작하게 되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의 북부국경지대와 간도일대를 중요한 전략적 거점으로 삼을 것을 결심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도 이 일대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눈독을 들여왔다. 우리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북부국경지대와 함께 간도를 항일무장투쟁의 중요한 거점으로 삼으려고 했다면 그들은 이 일대를 만몽을 침략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삼으려고 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20세기초부터 동만에서 이러저러한 사건들을 야기시킨 것은 그런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다리를 놓자는데 있었다.

1907년 8월에 일제는 ≪조선인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연길현 용정에 군대를 침입시켜 거기에 ≪조선통감부파출소≫를 설치하였고 1909년에는 중국반동정부를 꾀여 간도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나아가서는 길회선철도공사권까지 탈취하였다. 그 후 용정의 ≪조선통감부파출소≫는 일본총영사관으로 승격되었다. 일제가 용정

에 총영사관을 설치한 것이나 그 아래에 다섯 개나 되는 영사관 분관까지 내온 것은 간도에 와있는 조선사람들을 호강시키자고 한 짓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런 영사기구에도 각지에 경찰서들을 배치하고 조선인거류민회의와 같은 주구단체들을 무수히 만들어 간도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사람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감시하였다. 동양척식회사 출장소와 금융계도 이곳에 줄을 뻗치고 있었다. 동만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완전히 일본제국주의의 조종하에 있었다.

이처럼 동만지방은 혁명과 반혁명과의 첨예한 대결장으로 되어가고 있었다.

그럴수록 내 마음속에서는 백두산수림지대와 함께 동만을 무장투쟁의 거점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8.1폭동을 겪은 후 박두하고 있는 일제의 만주침략의 징조를 이모저모에서 느끼고 있던 나는 혁명성이 강한 동만인민들을 묶어세워 한시바삐 무장투쟁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그래서 동만으로 나갔다.


돈화 거리

내가 처음 동만으로 나가겠다고 하니 우리 동무들은 만류하였다. 일제의 폭압기구와 정보망들이 거미줄처럼 늘여져 있는 곳에 가는 것은 섶을 지고 불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모험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노동자, 농민들속에 들어가 혁명할 결심을 굳게 다치고 대담하게 동만으로 나갔다.

그때까지 나의 활동은 주로 도시 청년들과 학생들속에 중심을 두고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카륜회의에서 채택된 혁명노선의 요구에 맞게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자면 우리들 자신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군중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 그들을 일제와의 항전에로 하루 빨리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였다.

국제당에서도 내가 동만으로 가는 것을 지지하였다.

나는 먼저 돈화로 향하였다. 이 일대가 8.1폭동의 피해를 제일 많이 입었기 때문이었다. 돈화는 이 폭동의 근원지였고 중심무대였다.

여기에는 일본군의 한 개 수비대본부와 길림총영사관산하의 영사관분관이 있었으며 구동북군의 677연대가 있었다. 적의 폭압역량이 이처럼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는 곳에서 8.1폭동과 같은 무모한 폭동이 일어난 것은 이 일대에서 좌경모험주의자들이 많이 활동한 사정과 관련된다. 돈화는 반석과 함께 엠엘파의 본거지였으며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의 한 개 중심이기도 하였다. 박윤세, 마건과 같은 8.1폭동의 주모자들도 바로 이 고장에 활동기지를 두고 있었다.

돈화에는 당 및 공청, 반제청년동맹을 비롯하여 우리가 꾸려놓은 여러 가지 혁명조직들이 있었고 진한장, 고재봉, 고일봉과 같은 믿음직한 동지들이 있었다.

나는 돈화에 가자 진한장의 집에 거처를 정하고 중국 산동옷을 입고 다니면서 폭동의 후과를 가시기 위한 활동을 벌이었다. 내가 길림에서 공청소조들을 도처에 꾸려놓을 때 중학교에 다니던 진한장도 돈화에서 우리 조직에 망라되어 활동하였다.

일제가 만주를 강점한 후에는 그가 오의성부대 총사령부에서 비서장으로서도 활약하고 동북항일연합군에서 사단참모장, 사장, 방면군 군장, 남만당위원회 서기 등도 역임하였지만 그때는 소박하고 조용한 공청원이었다.

진한장은 장울화와 같은 부자의 아들이었으나 혁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공청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하였다. 진한장의 아버지는 큰 부농으로서 말도 몇 백

필씩 가지고 있었고 총도 여러 자루 갖추고 있었다. 집주변에 토성까지 치고 있어 그 위풍이 간단치 않았다. 그는 농담삼아 나에게 자기네는 원래 타도대상인데 집주변이 다 제 땅이므로 남의 땅의 밟고 다니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집 땅이 딱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부자였던 것만은 사실이다.

진한장은 공산주의를 배워진 선배라고 하면서 나를 환대해주었다. 생활이 유족하다보니 그 집에서는 내가 공밥을 먹어도 아까와하지 않았다.

나는 진한장과 고재봉을 내세워 흩어진 조직들을 찾아내기 시작하였다. 낮에는 중국옷을 입고 중국말을 하면서 동무들을 찾아다니었고 밤에는 조선옷을 입고 조선말을 하면서 조직들을 복구하였다. 이렇게 폭동의 후과를 기본적으로 수습해놓은 다음 국제당에서 받은 위임대로 돈화에서 길동지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진한장

그 후 고재봉을 비롯한 몇몇 공청원들이 나에게서 두만강연안의 도시와 농촌들에 나가 대중을 혁명화하며 당조직을 꾸릴 데 대한 과업을 받아가지고 활동구역으로 떠나갔다.

나도 진한장에게 돈화중학교에 들어가서 공청활동을 하라고 과업을 주고 돈화를 떠났다.

내가 동만에 가서 맨 처음으로 들린 곳은 화룡이었다.

화룡에는 길림사범학교를 다닐 때 우리의 공청조직에 망라되어 활동하던 조아범이라는 중국동무가 있었다. 채수항과 같은 조선동무도 있었다. 이런 줄을 타고 들어가면 폭동의 후과도 수습할 수 있고 조직들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하였다. 나는 먼저 대립자라는 곳에 가서 조아범을 만났다.

조아범은 8.1폭동의 후과를 대단히 크다고 하면서 폭동 후 조선동무들이 다 어디에 숨었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아범은 감옥에 들어갔던 몇몇 동무들이 인차 석방된 것 같으니 만나보라고 하였다.

며칠후 채수항이 연락을 받고 나를 찾아왔다. 그는 원래 용정에서 동흥중학교를 다니던 사람이었다. 내가 육문중학교에 다닐 때 길림에 와서 사범학교에 적을 두고 공부를 하였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영향을 받고 혁명사업을 시작하였다. 채수항은 길림의 청년학생들속에서 축구선수로 인기가 있었다. 그 당시 여러 명의 화룡출신의 청년들이 길림에 와서 공부하였다. 김준이 용정과 온성일대에서 우리에 대한 선전을 하였다면 채수항은 화룡과 종성 지방을 왔다갔다하면서 우리의 혁명사상을 선전하였다. 그는 후에 현당서기로 사업하다가 ≪민생단≫연루자로 몰려 억울하게 학살당한 김일환동무와 함께 공청도 조직하고 반제청년동맹, 농민협회, 반일부녀회와 같은 혁명조직들을 꾸려 여기에 수많은 군중을 집결시켰다. 연길폭탄제조의 명수로 소문난 박영순동무도 연길현의 팔도구광산에서 반제청년동맹원으로 활동하였다.


채수항

그런데 모처럼 꾸려놓은 조직들이 두 차례의 폭동 때문에 풍지박산이 되었다. 많은 핵심들이 잡혀가거나 지하로 들어갔고 얼마 안남은 조직성원들마저 세련이 부족한 탓으로 불안에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이런 실태는 나로 하여금 혁명가의 신념에 대한 문제를 두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카륜을 떠난 후 길림, 해룡, 청원, 교하, 하얼빈, 돈화를 거쳐 화룡까지 오는 과정에서 반혁명의 공세앞에서 겁을 집어먹거나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리고 동요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만인을 공감시

키고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확한 혁명노선과 전략전술이 있고 자체의 혁명역량이 있다는 것을 원리적으로 체득할 때에 생기며 투쟁을 통하여 굳어지는 법이다.

그런데 폭동을 선동한 사람들은 대중이 기치로 삼을만한 강령이나 전략전술을 제기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카륜에서 채택한 혁명노선은 아직 인민들속에 널리 침투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채수항을 비롯한 몇몇 공청, 반제청년동맹 간부들과 함께 협의회를 열고 그들에게 카륜회의에서 채택된 혁명노선을 상세하게 해설해주었다.

그리고 투쟁을 통하여 검열된 신망있는 동무들로 지도핵심을 잘 꾸리며 파괴된 대중조직들을 시급히 복구하고 그 대열을 부단히 늘일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두만강연안의 매개 현들에 혁명조직구를 내올데 대한 과업도 이때 주었다.


오태희

폭동조직자들은 감옥과 교수대가 두려워 대중을 총검앞에 남겨두고 다 도피하였지만 우리는 폭동의 후과를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내가 산동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화룡의 동무들은 나를 ≪산동청년≫이라고 불렀다.

내가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왕청이었다. 내가 왕청에 들린 목적은 오중화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나에게 오중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것은 김준, 채수항 동무들이었다. 그들이 길림에 들락날락할 때부터 나를 만나기만 하면 어디에 누가 있고 어디에 가면 무슨 일을 하는 누가 있는데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게 똑똑하다는 식으로 인물소개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나는 길림에 있으면서도 간도일대의 사정을 비교적 환히 꿰뚫고 있었다.

나는 그때 그들의 말을 유심히 듣고 그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기억해두었다.

좋은 사람이 있다는 말만 들으면 그가 어디에 있건 끝까지 찾아가 기어이 손을 잡고 동지로 포섭하던 아버지의 모습은 나에게 인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 진정한 동지를 얼마만큼 많이 얻는가에 따라 혁명사업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진리를 깨우쳐주었다.

동지 한 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사흘을 굶어도 좋고 열흘을 굶어도 좋다는 것이 그 당시 나의 심정이었다. 이런 심정으로 나는 왕청에도 들리었다. 채수항이 화룡에서부터 왕청 석현까지 나와 동행하였다.

나는 석현에서 오중화도 만나고 오중흡도 만나고 오태희노인도 만나보았다.

오태희노인네 집안은 보기 드문 대가정이었다. 노인네 네 형제는 원래 함경북도 온성군 고작골이라는데서 살다가 1914년경에 왕청땅에 이사하였다. 그 네 형제의 자손들을 모두 합치면 수십 명이 되는데 그들이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왕청과 온성땅에 쭉 널려살면서 혁명사업을 하였다. 그 당시 오중화는 왕청5구 당비서로 사업하였고 오중흡은 왕청현 춘화향 원가점에서 공청사업을 하고 있었다. 오중화의 동생인 오중성은 왕청현 석현에서 공청활동을 하다가 1929년초에 온성군 풍리동으로 이사하여 보문학당 교원을 간판을 가지고 혁명사업을 하고 있었다. 오중화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화룡에 있는 사립화성학교 교원을 하였다. 나는 그때 석현에 가서 오중화동무에게 대중을 혁명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혁명가가 되고 다음에는 가족들과 마을사람들을 혁명화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오중화는 그 후 가정혁명화를 잘하였다. 그의 가까운 형제들과 친척들 가운데서 10여 명이 충실한 혁명가로 활동하다가 희생되었다. 그 가운데서 오중화, 오중성, 오중흡과 같은 훌륭한 공산주의자들이 배출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석현에서 일을 끝낸 나는 그달음으로 온정지구에 건너갈 것을 결심하였다. 서도지방에서 태어나 어린나이에 이국살이를 시작한 나에게 두만강 이남의 육읍일대에 대한 과업이 별로 없었다.

육읍일대는 이조 때 벼슬자리에서 쫓겨난 양반들이 정배살이를 하던 고장이였다. 곡식이 바르고 기후가 엄혹한데다가 우두머리들의 구박과 학대가 심해서 변방수비에 동원된 군사들이 여기에 왔다가도 인차 다른 고장으로 달아나버리군 하였다. 벼슬자리를 하는 자들도 이 일대의 관리로 가라고 하면 다들 끔찍해하였다. 그들은 임명장을 받은 다음에도 여기에 오기가 싫어서 이 구실 저 구실을 붙여가며 서울거리에서 빈둥거렸다. 봉건통치배들이 그것때문에 500년동안 내내 골머리를 앓았다고 한다.


오중화

나는 김준이 육읍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상들은 이 땅을 불모지라고 잘 돌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피땀을 바쳐 이 일대를 혁명의 요새로 만들어보자고 말하였다.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온성으로 말하면 우리의 영향밑에 1920년대말부터 김준, 채수항, 오중성과 같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시작한 고장이었다. 우리는 벌써 그때 조선혁명을 발전시키는데서 백두산지구와 온성을 비롯한 두만강연안의 육읍일대가 가지는 위치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이 일대를 항일혁명전쟁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꾸릴 계획을 품고 있었다. 국내혁명을 새롭게 앙양시킬 돌파구도 바로 여기에서 열어놓으려고 하였다. 그 당시 온성지구에서는 100−150명의 청년들이 용정에 가서 공부하였는데 그들이 방학 때마다 고향에 돌아오면 우리와의 연계가 깊은 김준, 오중성과 같은 선각자들의 지도밑에 이 일대에 길림바람을 불어넣었다. 온성에는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과 반제청년동맹의 지부들이 조직되어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국내에로 세력을 뻗칠 수 있는 좋은 발판이였다. 이 발판을 타고 온성지구에 우리의 사상이 적지 않게 흘러들어갔다.

내가 온성지구에 나오게 된 것은 국내에 당조직도 내오고 카륜회의 방침도 실현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 전반적 조선혁명을 확대발전시키자는 것이었다.

석현에서부터 우리와 동행한 오중화는 사촌동생이 먼저 우리가 간다는 것을 연락하기 위하여 오중성이 있는 풍리동으로 건너갔다.

우리는 온성군 남양대안인 희막동 어느 골안어귀에서 연락을 받고 온 오중성동무와 그밖의 조직성원들을 만났다. 오중성과는 그때 처음으로 상봉하는 셈이었다. 형인 오중화보다는 허우대가 크고 성격이 호방한 사람이었다. 오중화는 자기 동생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시도 잘 읊는다고 하였다.

우리는 밤에 배를 타고 조용히 두만강을 건넜다. 오중성은 노도 걸싸게 잘 저었다. 어둠속에 묻힌 산야를 바라보느라니 5년만에 조국땅을 다시 밟는 감격으로 가슴이 울렁거려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남양상탄에서 배를 내린 다음 오중화에게 나라를 독립하고 이 강을 건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였다.

오중화는 내 말을 긍정하며 자기도 두만강을 건널 때면 매번 그런 감정에 잠긴다고 하였다.

남양상탄마을을 지나 남양산으로 오르는 고개길에 들어선 우리는 오중성이 미리 마련해놓은 초막에 들어가 온성지구 혁명조직들의 활동정형과 군중들의 동향을 요해하였다.

온성사람들이 대중조직을 내오는데서 거둔 성과가 적지 않았다.

나는 한주일동안 국내지하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였다. 그 과정에 온성지구 혁명가들이 국내도처에 많은 조직들을 내오기는 했지만 그 조직들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심한 소극성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파악이 있는 몇몇 정수분자들로 조직을 꾸린 다음에는 문을 닫아매고 그 대열을 늘리지 않는 것이 이 일대에서는 보편적 현상으로 되고 있었다. 이런 원인으로 하여 조직들은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지 못하고 있었다.

1929년 봄에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산하조직으로 무어진 온성공청도 몇몇 안되는 성원들로 울타리를 높이 두르고 대중속에 들어가지 않고 있었다. 지방회니, 신흥회니, 신간회니, 당재건파니 하는 여러 가지 단체들과 파벌들이 경쟁적으로 청년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실정에서 나쁜 바람이 조직에 흘러드는 것만이라도 막아보려고 전전긍긍하면서 현상유지나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전장원

내가 풍리에서 만난 어떤 공청일군은 원수들의 책동이 심해지니 사람들이 통 곁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 어떤 공청일군은 청년동맹이나 신간회에 관계한 청년들을 어떻게 대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였다. 풍인동농민협회 책임자로 일하고 있던 전장원이란 사람은 자기 친척들 가운데 구장, 면장, 순사질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 줄을 타고 적들의 마수가 혁명대열에 뻗쳐올까봐 신경을 도사리면서 가까운 친척이라 해도 적의 통치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들에게는 곁을 주지 않고 있었다.

이것이 다 대중을 믿지 않는 표현이였다.

이런 폐단을 없애지 않고서는 온성지구에서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을 심화발전시킬 수 없었다.

혁명가의 일생은 대중속에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고 혁명의 실패는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고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지 않는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오중성에게 간절한 심정으로 말하였다.

출신이 좋은 몇몇 사람들만으로는 혁명을 할 수 없다. 대중을 대담하게 믿고 그들을 위해 조직의 문을 넓게 열어놓아야 한다. 형형색색의 간판을 가진 청년들이 저마다 청년들을 끌어당기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공청조직을 피동에 빠지지 말고 적극적인 공세를 벌려 많은 청년대중을 전취해야 한다. 청년동맹이나 신간회 조직들에 관여했던 청년들, 당재건분자들에게 붙어다니다가 무의식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청년들도 잘 깨우쳐주고 이끌어주어 한 사람한 사람씩 우리 편에 쟁취해야 한다.…

전장원동무들에게도 적기관 복무자들과의 사업에서 나서는 전술적 원칙들에 대하여 말해주었다.

혁명을 하는 사람은 가문에 구장, 면장, 순사가 있다고 놀라거나 축잡혀서는 안된다. 동무는 오히려 그러한 친척관계들을 타고 적통치기관에 들어가서 왜놈들의 말단통치기구를 마비시켜 놓고 판을 크게 벌일 잡도리를 해야 한다. 온성을 비롯한 육읍일대를 무장투쟁의 전략적 거점으로 꾸리자면 대중을 혁명화하는 것과 함께 적통치기관 복무자들을 대담하게 전취하여야 한다. 적기관 복무자들을 전취하는 사업에서 한번 경험을 쌓아보라.

온성에 갔을 때의 일가운데서 제일 잊혀지지 않는 것은 김준, 오중화, 오중성 동무들과 함께 마포면 월파동철도부설공사장에서 노동자들을 만나던 일이다.

일제는 1929년초부터 두만강연선에서 철도부설공사를 다그치었다. 삼남지방을

비롯한 국내각지와 간도에서 1000여명의 인부들이 모여들어 월파마을에 개풍거리라고 부르는 번잡한 주민지구를 만들어놓았다. 길회선철도부설공사장에 가있던 인부들도 이 거리에 밀려들어 벌이를 하느라고 고역을 치르었다.

나는 길림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김준을 만나 월파동에서 철도부설공사가 벌어지고 있다면 노동자들속에 뚫고 들어가 조직을 꾸려보라고 하였다.

김준동무도 한번 해볼만 한 일이라고 하면서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 후 그는 나와 약속한대로 온성에 들어가 월파동에서 노동청년회와 반제청년동맹을 조직하였다.

그때 그들은 ≪국제당파견원이 왔다≫고 하면서 내 신변을 보호해주느라고 여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들이 나에게 ≪국제당파견원≫이라는 직함까지 붙이면서 호위조직을 면밀하게 해준 것은 국내에서 혁명가들에 대한 일본경찰의 감시와 경계가 그만큼 심하였기 때문이었다.

물론 나도 조선에 나오면 매사에 조심해야 하며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노동자들속에 들어가서 당장 큰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손을 잡고 힘이 될 수 있는 말을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내가 그때까지 청년학생들과의 사업을 해온 것은 다 노동계급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다리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우리의 종국적 목적은 노동계급을 내세워 조선혁명을 개척하고 완성하자는 것이었다.

노동계급의 해방을 강령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위해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칠 것을 맹세한 그날부터 우리는 얼마나 조선의 노동계급을 그리워하였던가.

나는 공사장에 들어가 하루반동안 노동자들과 함께 자갈도 부리고 모래도 나르고 ≪함바≫(노동자숙사)밥도 먹어보았다

김준은 나를 연길에서 공부를 하다가 학비를 보태려고 온 동무라고 소개해주었다.

나는 지금도 그때 내가 노동자들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주 유익하였다고 생각한다. ≪함바≫나 공사장에서 내가 본 것은 몇 푼을 품삯을 벌기 위해 아득바득 애쓰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군상만이 아니었다. 나는 거기서 투쟁을 갈망하는 노동자들, 자기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개척해줄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찾아 헤매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은 나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내 가슴은 노동계급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싶은 열망으로 불탔다.

나는 그때 철도부설공사장에서 온성출신의 항일투사들인 최춘국, 최봉송 동무들과도 처음으로 낯을 익히었다.

최춘국은 숙사로 나를 안내하면서 자기가 남포군으로 일하는 동안 비밀리에 화약을 모아두었는데 공사가 완공되는 날 그것을 차굴을 폭파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지금 형편에서는 차굴을 폭파하는 것과 같은 모험을 하는 것보다 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노동자들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것이 더 절박하니 화약은 두었다가 앞으로 무장투쟁을 할 때 요긴하게 쓰자고 하였다.

나는 그때 노동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무장투쟁문제, 당창건문제, 반일민족통일전선문제도 내놓고 이야기해주었다. 국내에 와서 노동자들에게 카륜회의 정신만 똑똑히 심어주어도 그것은 큰 소득이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말하면 그것이 곧 열 사람에게로 번져가고 백 사람, 천 사람의 입을 거쳐 만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가면 종국적으로 우리의 사상이 국내인민들의 신념이 되고 기반이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었다.

철도공사장 노동자들은 우리의 노선을 알게 되자 그것을 적극 지지하였다.

그들이 우리의 노선에서 신심을 얻었다면 나는 그 노선을 접하고 기쁨을 금치못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신심을 얻었다.

온성에서 혁명조직을 돌아보는 과정에 나는 이 일대의 혁명가들이 비록 전략적 문제에 대한 이해에서 몇 가지 착오를 범하고 있고 군중과의 사업에서 소심성을 보이고 있지만 그들의 투쟁각오와 군중과의 준비정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으며 온성지구에 당조직을 내올 수 있는 기초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회의에 참가할 온성지구의 혁명가들은 모두 나뭇꾼차림으로 두루봉에 모이었다. 전장원은 월파동의 조직책임자에게 부탁하여 회의장 가까이에 소발구까지 끌고오게 하였다.

우리는 월파천을 옆에 끼고 있는 두루봉산상의 아늑한 공지에서 국내당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모임을 가지었다.

나는 먼저 회의참가자들에게 카륜에서 채택된 노선을 전달하고 그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업은 혁명적인 당을 건설하는 것임을 밝힌 다음 온성지구에서 새 형의 당조직을 내오게 되는 취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조직생활과 실천을 통해 검열된 우수한 선진분자들로 당대열을 부단히 확대강화할 데 대하여서와 대중을 반일투쟁에 조직동원할 데 대한 온성지구 당조직의 과업을 제기하였다.

나의 제의에 의하여 오중성, 전장원, 전창룡, 최춘국, 최봉송, 최근주 동무들이 온성지구 당조직에 가입하였다. 당조직책임자로는 오중성동무가 선거되었다.

당원의 영예를 지닌 사람들은 차례로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들의 경력을 소개하



첫 국내당 결성장소 기념비

고 간단한 결의를 하였다.

그들의 결의토론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전장원의 결의만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전장원은 자기와 같이 가정성분이 복잡한 인간을 당에 받아준 것을 백골이 진토가 되어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혁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뼈도 깎고 살도 저미고 쓸개까지도 바치겠노라고 맹세하였다. 그는 자기가 만약 이 맹세를 저버리는 용렬한 인간이 되거든 자기 육신을 난도질하여 개천에 내던져도 좋다고 하였다. 과격하고 소박한 말이었지만 솔직한 심정토로였다.



두루봉
당조직결성모임때
정면에 걸었던
깃발

전장원은 그 후 자기 결의대로 온성을 반유격구로 꾸리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원호하는데서 큰 공로를 세웠다.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임에서 토론된 문제들은 일제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그 회의에서는 창립선언문이나 취지서 같은 것도 채택하지 않았다.

모임에 참가한 온성사람들은 당조직을 내오는 역사적인 회합인데 간소하고 격식이 없이 허전하다. 형평사 같은 백정들의 조직들에서도 발기취지문이라는 것을 발표하여 세상에 내돌리는데 몇 마디 맹세로 회의가 결속되니 너무 승승한 감이 난다고 하였다.

나도 동무들이 다진 맹세가 몇 백 페이지의 선언문이나 취지서보다 훨씬 더 실속있는 것이다. 문서장이나 자꾸 만들어서는 뭘하겠는가, 소문이나 내고 이름이나 날리는 곳이 당조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소문은 내지 않으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당원들이니 동무들은 실천투쟁을 통해 당성과 애국심을 과시하라고 그들을 격려해주었다.

온성지구에 당조직이 나온 것은 국내에서 당건설의 기초를 축적하는 돌파구로 되었으니 국내인민들의 반일투쟁을 떠밀어주는데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되었다. 온성지구 당조직의 활동에 의하여 육읍일대에서는 대중의 의식화, 조직화 과정이 빠른 속도로 다그쳐지고 반일투쟁이 앙양되었다.

대중이 우리를 따르게되고 혁명이 새로운 양상을 띠고 고조되자 이 일대에 와서


두루봉

자파의 세력을 늘이려고 돌아다니던 최창익도 고향을 떠나 서울로 달아나버리었다. 해방 후 그가 그때에 있은 일을 우리에게 솔직히 실토하였다. 온성이 고향이기때문에 거기에 엠엘파가 들어간 줄 알았는데 정작 가보니 우리 세력은 없고 길림바람이 들어왔습디다, 그 바람이 어떻게나 세게 들이불었던지 온통 **김일성**동지네 판이더란 말입니다, **김일성**동지의 연세가 많은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런 것은 아니고 20대 청년인데 드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갈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최창익은 온성에 있다가 서울로 가버린 것은 우리가 종파를 싫어하며 자기네처럼 종파를 하는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나는 당조직을 결성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육읍일대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공작원들과 지하혁명조직 책임자들의 회의를 지도하고 귀로에 올랐다. 나룻배를 타고 어정나루로 해서 강을 건넜는데 오던 때보다 마음이 퍽그나 가벼웠다. 일이 뜻대로 되고 보니 하늘에라도 날아오를 것 같은 기분이였다. 사선을 헤치고 모험을 하면서 조국을 찾아온 보람이 있었다.

조국에서 보낸 한 주일은 우리가 카륜에서 제기한 혁명노선이 만민이 접수할 수 있는 옳은 노선이라는 것을 실증해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우리는 조국의 인민들에게서 우리의 노선을 판증받은 셈이였다.

그때부터 온성사람들은 줄곧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였다.

두만강을 무사히 건너간 나는 오중화의 안내로 대안의 양수전자와 장골을 거쳐 연길현 조양천에 이르렀다. 조양천은 용정과 함께 연길지방에서 우리의 영향이 제일 크게 미치던 곳이였다.

조양천에서는 역섬지구 당 및 공청비서처 성원들인 마득한과 나일 동무가 활동하고 있었다. 훗날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한 임춘추동무도 조양천에서 ≪봉춘당약방의사 임춘봉≫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혁명사업을 하였다. 연길로 오기 전에는 학생사건으로 피검되어 감옥살이를 하였다. 그는 동의사노릇을 하면서 역섬지구 당 및 공청비로서와 각 현사이의 연락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조양천에서 처음으로 임춘추동무와 만났다. 내눈에는 젊은 나이에 동의기술을 터득해낸 그가 퍽그나 인상적으로 보이었다. 그의 동의기술 때문에 항일무장투쟁 전기간 우리 유격대원들이 덕을 많이 입었다.

5.30폭동과 8.1폭동은 연길의 혁명조직들에도 많은 피해를 주었다. 여기는 돈화보다 적들의 테러가 더 심했다. 혁명을 하던 사람들은 위축되고 동요하였고 각성이 부족한 군중은 ≪공산당 때문에 망한다≫고 아우성이였다.

나는 마득한, 나일, 임춘추동무를 비롯한 당과 공청의 지도간부들을 만나 좌경모험주의적 책동의 후과를 시급히 청산하고 혁명투쟁을 더욱 확대강화할 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토의하였다.

내가 온성을 떠난 후 오가자로 곧추 가지 않고 양수천자를 거쳐 조양천에까지 굳이 들린 것은 이 일대가 장차 우리가 벌이게 될 무장투쟁마당으로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다보았기 때문이였다. 나로서는 앞으로 벌어지게 될 무장투쟁에 대처하여 온성과 왕청, 연길에서 대중적 지반을 축성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한 셈이였다.

그 후 우리가 예상했던대로 이 일대는 항일전쟁의 가장 믿음직한 근거지로 되었다.

9. 이상촌을 혁명촌으로

한때 우리 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은 ≪이상촌≫건설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애를 썼다.

≪이상촌≫이라고 하면 누구나 착취와 압박이 없고 불평등이 없으며 만사람이 다같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계(마을)를 연상할 것이다. 오랜 옛적부터 우리 민족은 이런 유토피아와 같은 세계를 꿈꾸어왔다.

민족주의자들이 제창한 ≪이상촌≫건설에 대한 주장은 만민이 유족하고 화목하고 평화롭고 오붓하게 살아가려는 조상들의 지향과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촌≫건설을 주장하고 그것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대표적인 인물은 안창호였다. ≪한일합병≫조약이 공포된 직후 중국 청도에서는 안창호, 이동휘, 신채호, 유동열 등이 모여 회담을 벌이었는데 여기에서 안창호가 내놓은 것이 바로 ≪이상촌≫건설에 대한 방안이였다. 심중한 논의 끝에 독립운동지도자들은 미국사람들이 경영하던 대동실업회사(밀산현)의 땅을 사들여 그것을 개간하고 사관학교도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기로 하였다. 이런 ≪이상촌≫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자금도 뽑고 인재도 키우면서 독립운동을 위한 인적, 물적,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이 계획이 유산된 후에도 안창호는 여러 해 동안 ≪이상촌≫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적당한 후보지를 물색하기 위해 고난에 찬 노력을 하여왔다. 그가 ≪이상촌≫건설에 이처럼 큰 심혈을 기울인 것은 ≪실력양성론≫을 물질적으로 뒤받침할 수 있는 독립운동의 기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데 있었다.

≪이상촌≫을 건설하려는 시도는 당시 독립운동에서 하나의 풍조로 되어있었던 것 같다. 황무지를 개척하여 농장을 만들고 무관학교의 설립으로 실력양성의 소박한 꿈을 실현하려고 했던 민족주의자들이 적지 않았다.

요하농촌도 그런 풍조를 타고 생겨났다.

요하농촌을 처음으로 개척한 것은 남만지방에서 활동하던 민족주의자들이었다. 송석담, 변대우(변창근), 김해산, 곽상하, 문상목을 비롯한 남만의 민족주의세력중 일부가 서부방향으로 방황하다가 요하기슭에 보짐을 풀었다. 그들은 조선의 이상촌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100여호의 동포들을 이주시킨 다음 외부세계와 담을 쌓고 별세상을 꾸리기 시작하였다. 위에서 열거한 다섯세대가 먼저 살았다고 하여 그들이 정착한 고장에 오가자라는 지명을 달았다.

그 당시 길림의 문광중학교에 다니는 동무들 가운데는 고유수와 오가자 지방에서 온 청년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들이 오가자가 좋다는 말을 많이 하였다.

그래서 나는 오가자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으며 이 마을을 혁명촌으로 개조할 결심까지 품게 되었다.

내가 동만에서 오가자로 간 것은 1930년 10월이었다. 나는 원래 동만에서 무장

투쟁준비와 관련된 큰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정세로 보아 그곳이 회의장소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장소를 오가자로 변경시키였다. 몇 달 동안 오가자에 물러앉아 회의준비를 하면서 겸하여 혁명화도 다그치자고 결심하였다. 가보니 듣던대로 풍속도 좋고 인심도 좋았다.

이 고장에서는 바람이 심하여 지붕에 기와를 올리지 못하고 진흙을 발랐다. 염분이 섞인 진흙을 바르면 비가 새지 않았다. 오가자 사람들은 담장도 흙으로 규모있게 쌓았다. 진흙을 파서 메로 두드리다가 돌처럼 굳어졌을 때 일정한 규격으로 잘라가지고 담장을 쌓았는데 그렇게 만들어낸 토피는 총알도 뚫지 못한다고 그 고장 농민들이 장담하였다.

오가자를 개척한 유지들은 자기들의 이념이나 주의주장과 맞지 않는 이색적인 사상조류가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농민들과 합심하여 진펄을 논으로 개간하고 마을에 학교도 세웠다. 농우회니, 청소년회니, 소년학우회니 하는 대중조직도 내오고 촌공회라고 부르는 자치기관도 내왔다. 일본이 ≪한일합병≫을 선포한 8월 29일이 오면 마을의 주민들을 모여놓고 ≪국치일가≫를 부르게 하였다. 일본군경들과 중국반동군벌의 마수가 잘 미치지 못하는 자기네 고장을 오가자 사람들이 ≪천국≫으로 여기게 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가자의 주민구성에서 대다수를 이루는 것은 평안도 사람들과 경상도 사람들이었다. 경상도 사람들은 남만청총계통의 엠엘파의 영향밑에 있었고 평안도 사람들은 주로 정의부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나는 평안남도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오가자에 가서도 카륜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상도 사람들의 집에 자주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상도 사람들이 신경을 쓸 수 있었다.

우리는 카륜에 있을 때 조선혁명군 대원들을 공작원으로 몇 명 파견하였지만 그들이 오가자에 와서 크게 맥을 추지 못하였다. 고집이 세고 지반도 확고한 마을의



혁명촌으로 꾸려졌던 오가자

유지들을 설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가 동무들의 소개로 그 해 겨울을 보냈다. 한두 주일도 아니고 몇 달 동안이나 한 고장에 그처럼 오래 붙박혀 있은 것은 우리가 오가자를 그만큼 중시하였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오가자를 중부만주일대에서의 민족주의세력의 마지막 보루로 보았다. 여기에서 사업을 잘하면 오가자를 농촌혁명화의 본보기로 만들 수 있었으며 그 경험에 토대하여 만주전역과 북부국경일대에서 농촌마을들을 우리의 영향하에 둘 수 있었다.


변대우

우리가 혁명의 기본동력을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로 보고 그중에서도 특히 농민의 혁명화에 많은 힘을 기울인 것은 우리 나라 계급구성에서 농민이 차지하는 위치와 관련된다. 농민은 우리 나라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간도지방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인구의 80% 이상이 조선사람이라면 그 중 90% 정도는 농민이었다. 군벌들의 박해와 지주, 고리대금업자들에 의한 가혹한 수탈로 하여 그들은 최악의 빈궁과 무권리속에서 살고 있었으며 지대를 통한 착취와 함께 노비라든가 노예들에게 가해지는 것과 같은 경제외적 착취에 의해 사정없이 혹사당하였다.

국내에 사는 농민들의 처지도 이와 비슷하였다. 이것은 농민대중이야말로 노동계급과 더불어 혁명에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계급이며 우리 혁명에서는 농민이 노동자와 같이 주력군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농촌의 혁명화는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축성하는 사업에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고리였다.

공작원들의 활동으로 청년들속에서 우리의 지향을 따르려는 열망이 급속히 높아지게 되자 오가자의 유지들은 대통을 휘두르며 요새 젊은것들의 머리에 딴물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요하벌에 사회주의를 끌어들이는 놈팽이들은 뼈가 성하지 못할줄 알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간도는 공산당 때문에 다 망했다는데 그 미친 바람이 오가자에까지 들어오면 요하농촌도 무사치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유지들도 있었다.

서뿔리 서두르다가는 유지들의 대통에 얻어맞을 수 있었다.

청년들속에서는 동요가 일어났다. 공산주의행진곡에 발을 맞추어야겠는데 영감들의 눈에 날 것 같아서 망설이었다. 줏대가 좀 있는 청년들은 유지들과 엇서나갔다.

나는 공작원들의 보고를 듣고 오가자를 혁명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무엇보다도 유지들과의 사업을 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유지들의 사고방식을 돌려세우지 않고서는 오가자를 ≪이상촌≫ 건설의 허황한 꿈에서 건져낼 수 없었으며 요하농촌을 중부만주의 본보기농촌으로 만들어보려는 우리의 구상도 실현할 수 없었다. 유지들만 돌려세우면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가 할 탓이었다.

그런데 우리 공작원들은 석 달째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슬금슬금 변두리만 돌고 있었다. 오가자의 유지들이 그만큼 간단치 않았다. 독립운동의 전적에다가 학식과 이론을 겸비한 영감들이어서 보통수완을 가지고서는 그들에게 말도 붙일 수 없었다. 이 유지들의 집단이 마을을 쥐락펴락하였다.

존공회를 뒤에서 조종하고 마을의 대소사를 총찰하는 사람은 변대우라는 노인이

었다. 그가 마을의 실권자로서 유지들을 조종하였다. 마을에서는 그를 ≪변트로츠키≫영감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이 그런 별명을 붙인 것인 그가 트로츠키에 대한 말을 자주 하였기 때문이다.

변노인은 일찍부터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국내와 만주각지를 떠돌아다니었다. 초기에는 고향 한천(평안남도)과 자성, 도청거우(임강현) 등지에서 학교들을 세우고 교육활동을 하였다. 그가 무장활동에 관여한 것은 1918년 임강의 모아산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독립군부대에 들어가 있을 때부터였다. 그때 그는 나의 아버지와 연계를 가지느라고 임강의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변노인이 오지 못할 때에는 강진석 외삼촌이 그와 아버지의 연계를 지어주었다.


변달환

대한독립단 선전부장과 민족독립군 부총재, 광복군 군법부장 겸 제1영장직을 거쳐 통의부의 실업부장직까지 차지하고 독립운동을 추켜세우려고 동분서주하던 그는 1926년부터 군직에서 물러나 ≪이상촌≫건설에 몰두하였다.

이 노인이 한때는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면서 쏘련의 원동지방에도 드나들었다. 그에게는 고려공산당에 관여했을 때 받았다는 푸른 뚜껑의 당증도 있었다.

변대우노인을 돌려세우지 않고서는 완고한 유지집단을 돌려세울 수 없었으며 마을을 혁명화할 수 없었다.

내가 오가자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농우회사업을 책임지고 있던 변노인의 아들 변달환이 나한테로 왔다. 그는 나에게 민족주의자들을 제끼고 오가자를 ≪이상촌≫으로부터 혁명촌으로 만들어야겠는데 자기 아버지를 비롯한 마을의 유지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김선생이 왔으니 이제는 완고하고 쓸모없는 영감들을 타도하자고 하였다.

≪타도라니? 그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변달환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었다.

≪영감들이 뭐라건말건 우린 우리끼지 조직을 내오고 딴 가마밥을 먹으면서 오가자를 사회주의동네로 만들자는거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오가자가 둘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노선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소. 오가자를 저 낙후한 영감들에게 맡길 수는 없구.≫

≪문제는 유지들이 우리를 지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회장선생네 아버지와의 사업을 좀 해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달환은 그 누가 접근해도 소용없다고 하였다. 그 동안 국민부에서도 오고 상해임시정부에서도 오고 엠엘계의 공산당재건위원회의 인물들도 와서 저마다 오가자에 발을 붙이려고 애를 썼지만 모두 아버지한테서 냉대를 받고 돌아갔다. 어지간한 사람은 만나주지도 않고 설사 상대가 녹록치 않은 민족주의 거두라고 해도 훈계를 해서 돌려보냈다고 한다.

≪회장선생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와 친분관계가 있고 또 회장선생과 나도 구면이니 생판모르는 남남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고 했더니 변달환은 벽창호같은 자기 아버지한테는 연고관계도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몹시 난처해하였다. 변달환은 10년 전에 우리 아버지에게 보내는 변노인의 편지를 가지고 임강에 온 적이 있었다.

나는 마을의 유지들이 늘 모여앉군하는 변달환이네 집에서 여러 날 ≪번뜨르쯔끼≫ 영감과 담화를 하였다.

첫날에는 주로 변대우노인이 말을 많이 하였다. 올방자를 틀고앉아 대통을 연방 두드려대는데 기상이 아주 도도하였다. 김선생의 아들이 와서 반갑다고는 하면서도 나를 어린아이 대하듯하였다. 말끝마다 ≪너희들, 너희들≫하면서 훈시만 하였다. 인물이 잘나고 기상이 칼칼한데다 이론수준도 상당해서 처음부터 위압을 느끼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변노인이 내 나이를 묻자 다섯 살 불쿠어 스물세 살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나이를 불쿠지 않고 열여덟 살이라고 하면 그가 더욱 애송이처럼 대할수 있었다. 내가 나이에 비해 조숙했던 것만큼 스물세 살이라고 해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 당시 나는 어디에 가나 나이를 물으면 스물세 살 아니면 스물네 살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유지들과의 사업에서도 유리하고 청년들과의 사업에서도 유리하였다.

나는 변노인이 이치에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경우에도 반박하거나 중단시키지 않고 예절을 차리면서 참을성있게 들어주었다.

노인은 요새 젊은이들은 남이 열 마디를 하면 한 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고 봉건이요, 뭐요 하면서 트집만 잡는데 성주와는 말할 재미가 있다고 하였다.

하루는 그 노인이 저녁을 차려놓고 나를 청하였다. 김형직선생이 생존해 계실 때 자기는 임강에서 식사대접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자기가 변변치 않은 음식이지만 한 상 차렸다고 하였다.

노인은 나와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불쑥 이런 질문을 하였다.

≪너희들이 우리 ≪이상촌≫을 허물어버리려고 왔다는데 그게 정말이냐?≫

자기 아버지가 공산주의자들을 제일 경계한다고 하던 변달환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이상촌≫을 허물다니요. 우리가 도와드리진 못할망정 노인님들이 공을 들여 꾸려놓은 ≪이상촌≫을 왜 허물어버리겠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힘도 없습니다.≫



오가자 마을

≪음, 그런가. 그런데 우리 달환이를 필두로 해서 오가자의 젊은 녀석들이 밤낮 ≪이상촌≫이 어쩌구저쩌구하면서 늙은 것들을 타도하고 우리 동네에 붉은기를 날릴 생각만 하고 있지. 소문을 들어보면 오가자의 청년들을 움직이는 지도자가 성주라는데 길림청년들도 그 녀석들처럼 ≪이상촌≫이라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지 어디 한 번 우리 ≪이상촌≫에 대한 견해를 솔직히 터놓아 보아라.≫

≪나는 ≪이상촌≫을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국에 쫓겨와서 방황하던 조선동포들을 한 곳에 모여놓고 오붓이 살아보자고 꾸린 것이 ≪이상촌≫이겠는데 왜 나쁘다고 보겠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 요하진펄에 이런 정도의 조선동네를 만들어 놓은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노인님들이 마을을 꾸리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변노인은 그 말을 듣자 흡족해서 콧수염을 쓰다듬었다. 말투도 ≪너희≫로부터 ≪자네≫로 변하였다.

≪그러면 그렇겠지. 자네도 이제 알겠지만 우리 마을에는 경찰도 없고 감옥도 없고 관청도 없네. 촌공회라는 자치기관을 통해서 조선사람들끼리 만사를 민주주의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단 말일세. 이런 이상적인 동네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

나는 이때야말로 ≪이상촌≫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할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노인님, 자치기관을 꾸려놓고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조선사람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는 마을을 건설한 것은 애국적인 소행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마을을 건설하는 방법으로 나라를 독립할 수 있겠습니까?≫

올방자를 틀고앉아 대통을 연방 두드리며 위엄을 뽐던 노인은 한참동안 입을 다물고 눈썹만 씰룩거렸다. 그러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독립은 못해. 자네가 내 아픈 곳을 면바루 건드렸네. ≪이상촌≫이라고 만들어는 놓았지만 독립운동에 보탬은 못주고 있지. 그래서 나도 고민하고 있네. ≪이상촌≫을 건설해서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나.≫

나는 때를 놓치지 않고 ≪이상촌≫ 건설의 허황성을 논증하였다.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 이국땅에다가 ≪이상촌≫을 건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노인님들의 노력으로 오가자가 다른 고장에 있는 조선인부락보다 더 살기가 편한 동네로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조선사람들의 이상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 민족의 이상은 왜놈도 없고 지주도 없고 자본가도 없는 독립된 조국에서 착취와 압박을 모르고 살았으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주한테 빚을 지고 살면서 이상적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는가, 왜놈들이 만주로 쳐들어오면 오가자도 무사치 못할 것이다. 일제가 만주를 먹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왜놈들은 조선민족이 이상적으로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니 ≪이상촌≫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라는건가?≫

변노인은 초조하게 나의 대답을 기다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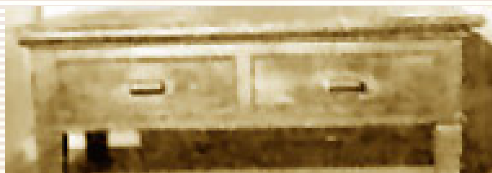
≪우리는 이 마을을 현상유지나 하면서 조용히 살아가는 마을이 아니라 조국광복을 위해서 싸우는 마을로, 혁명하는 마을로 개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가자에 사회주의를 퍼뜨리겠단 말이지. 그건 안되네. 난 사회주의라면 질색이야. 기미년 여름에 관전에서 자네 아버지가 공산주의운동에도 방향전환를 해야 한다고 말씀했을 때 우리는 다같이 그 뜻을 지지했네. 그런데 그 후 고려공산당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이라는게 말짱 미친놈들뿐이더란 말일세. 그놈들이 하는 짓을 보면 전부 종파질이야. 그 다음부터는 공산주의라는 말만

들어도 오한이 나더군.≫
변대우노인이 고려공산당에서 받은 푸른 당증을 꺼내보인 것이 이때였다.
≪성주가 혁명을 하느라고 아무리 애를 쓰며 돌아다녀두 이런 당증이야 없겠지?≫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나를 넌지시 쳐다보았다.
나는 그 당증을 펼쳐보다가 양복주머니에 얼른 집어넣었다.
뜻밖에 그런 일을 당한 노인은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를 쳐다보기만 하였다.
≪종파질을 하다가 망한 고려공산당 당증인데 좀 두고보겠습니다.≫
노인이 당증을 돌려달라고 할 것 같았는데 그러지는 않았다.
그는 자네들이 오가자를 혁명하는 마을로 개조하겠다고 하는데 특별한 방략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였다.
나는 강동, 신안툰, 내도산, 카륜, 고유수 등의 마을들을 어떻게 혁명화하였는가 하는데 대해서 장시간 이야기하였다.
노인은 이야기를 매우 주의 깊게 들었다. 그는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듣더니 ≪자네들이 말하는 것을 다 들어보면 스탈린주의자들인데 나는 반대 안하네. 그러나 스탈린만 스탈린이라고 해서는 안돼. 트로츠키의 말에도 일리가 있네≫라고 하면서 트로츠키의 이론을 풀었다.
그렇다고 그가 맑스-레닌주의를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가 트로츠키에 대하여 아주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공산주의이론에 정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상대하였지만 트로츠키를 그처럼 두둔하는 사람은 처음보았다.
나는 그것이 너무도 이상하여 변노인에게 물었다.
≪노인님께서는 트로츠키를 그처럼 숭배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는 사실 트로츠키를 숭배하지 않네. 지금 청년들이 덮어놓고 큰 나라 사람들을 숭배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는거네. 트로츠키면 트로츠키고 스탈린이면 스탈린이지 지금 젊은것들은 쩍하는 큰 나라 사람들의 명제를 끄집어내놓고 무엇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그게 무슨 그리 대단한 것인가. 스탈린의 명제가 어떻게 트로츠키의 말이 어떻다는 것이야 러시아 사람들이나 할 말이지 조선사람이야 조선의 얼을 가지고 제 나라 혁명을 잘하기 위한 말을 해야할 게 아닌가.≫
노인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며칠동안 ≪변트로츠키≫영감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나는 그가 보통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처음에 혹시 이 노인이 트로츠키파가 아니겠는가하는 의혹도 가지었다. 트로츠키파는 아닌데 종파싸움에 신물이 나서 청년들에게 한번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너희들은 맹목적으로 이것도 숭배하고 저것도 숭배하는 식으로 살아가서는 안된다, 무엇 때문에 러시아가 어떻소, 스탈린이 어떻소 하면서 남의 나라의 말만 하는가, 매사에 러시아의 본을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은가, 노인이 우리한테 말하자고 하는 사상은 분명 이런 것이었다. 요컨대 제 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었다.
≪나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에 상관하지 않네. 내 아들의 일에 대해서도 상관하지 않네. 우리 달환이가 무엇을 하건 그것은 자기에게 달렸지.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자기 얼도 없이 남들의 명제를 맹목적으로 외워가지고 다니며 거들먹거리는 것과는 기어코 해보겠네.≫

나는 노인의 이 말을 듣고 종파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시종일관 반대해온 우리의 입장이 옳았고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 인민의 힘으로 혁명투쟁을 해나가야 한다는 우리의 견해가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다음날은 변대우노인보다 내가 더 많은 말을 하였다. 나는 카륜회의에서 우리가 채택한 노선을 두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었다. 새 형의 당과 군대를 내오고 사상과 신앙, 재산정도, 남녀노소의 차이를 뛰어넘어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반일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고 2천만의 항전으로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나의 말에 노인은 강한 충격은 받은 것 같았다. 노인이 반일민족통일전선을 무으려는 우리의 의향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어 특별히 환영하였다.


오가자에서 쓰던 책상

변달환이네 부자는 둘 다 안해가 없었다. 노인의 딸이 살림을 하느라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가정에 배어있는 쓸쓸하고 궁색스러운 공기를 가셔버릴 수 없었다.

나는 알맞은 배우자를 수소문하느라고 동무들과 의논을 거듭하던 끝에 오가자 근방 농촌에서 심씨성을 가진 여자를 물색하여 변달환과 짝을 무어주고 우리 사람들을 동원해서 혼례까지 치르어 주었다. 총각의 몸으로 나많은 사람들의 중매를 서자니 주제넘는 일 같기도 하고 좀 쑥스럽게도 생각되었지만 정작 그들의 혼사를 치르고 나서 동네에서도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큰 일을 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일로 해서 우리는 마을 유지들의 신임을 더 받게 되었다.

어느 날 변달환은 나를 찾아와 자기 아버지의 동향을 전해주었다. 아버지가 마을 유지들앞에서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상촌≫을 맡아줄 임자가 나타났다. 성주네가 그 임자이다. 그들이 하는 식이 사회주의라면 우리도 마음놓고 받아들일 수 있다. 성주를 나어린 청년으로만 봐서는 안되겠다. 우리들은 늙었고 시대에도 뒤떨어진 고물딱지들이니 젊은것들에게 오가자를 통채로 떠맡기고 성주네가 하는 일을 힘껏 돕기나 하자≫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다른 유지들도 우리의 주장이 다 옳다고 하면서 탄복하더라고 하였다.

이런 동향을 듣고 나서 나는 변노인을 다시 찾아갔다.

≪고려공산당 당증을 돌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라고 말하니 노인은 그 당증을 거들떠보지고 않고 자기한테는 그따위 물건짝이 필요없다고 하였다.

필요없다니 돌려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야단이었다.

그 후 당증은 우리 동무들 손에서 돌아갔다.

조국이 해방된 다음해인 1946년에 평양으로 찾아온 변대우노인에게 그때 일을 이야기했더니 노인은 깊은 감회에 잠긴 채 쓸쓸하게 웃었다. 그는 북조선전체가 하나의 이상촌, 이상천국으로 된 것을 보니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면서 오가자에서 우리가 만나던 때를 회고 하였다. 그때가 노인이 67살 되는 해였다. 나를 만난 그 해에 노인이 길림시 이통현에서 별세하였는데 그 슬픈 소식을 나는 퍽 후에야 들었다.

변노인의 아들 변달환은 오가자에서 농민동맹 책임자로 활약하였다. 그는 우리의 지도밑에 반일투쟁을 하였다는 ≪죄≫로 1931년부터 여러 해 동안 신의주형무소에서 감옥살이를 하였다.

오가자의 혁명화를 위한 돌파구는 이렇게 열리었다.

유지들이 그 다음부터는 마을에 와 있는 조선혁명군 공작원들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다. 색다른 음식을 해놓고는 경쟁적으로 우리를 청하였다.

나는 오가자를 혁명화할 때 중국사람들을 쟁취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었다. 중국인 유지들을 쟁취하지 못하면 우리가 중부만주지방에 맘놓고 발을 붙일 수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설사 지주라고 하여도 포섭할 여지가 있으면 서슴없이 포섭하고 이용하였다.

그 당시 오가자근방에는 조가봉이라는 지주가 살고 있었다. 그가 한번은 땅 때문에 다른 고장의 지주와 싸우다가 그 지주를 재판에 걸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조가봉은 고소장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 애를 먹고 있었다. 그 지주의 아들이 도회지에 가서 중학교를 졸업하였는데 그도 고소장을 쓸 줄 몰랐다. 아마 그가 중학교에 다니었다고는 하지만 건달을 부리며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조가봉은 오가자에서 한의노릇을 하던 김해산에게 고소장을 써줄 인물을 한 명 물색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부탁을 받은 김해산이 하루는 나를 찾아와 고소장을 쓸줄 아는가고 물었다.

우리가 지하혁명활동을 하던 그 당시 중국에서는 일반주민들과 학생들의 편리를 위하여 편지, 제문, 고소장 같은 것을 쓰는 방법을 서술한 참고서들을 찍어냈다.

김해산을 따라 조가봉의 집에 가니 지주는 중국음식을 차려놓고 나를 잘 대접해주면서 땅 때문에 재판을 걸게 된 사연을 장시간 이야기하였다.

나는 지주에게 중어로 소송문건을 써주고 현에까지 따라나가 그가 재판에서 이기도록 배후에서 조종하였다. 조가봉은 그 소송문건을 가지고 재판에서 이기었다. 그때 그가 재판에서 졌더라면 몇 십정보의 땅을 떼였을 것이다.

그 후부터 조가봉은 김선생이 공산당패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김선생은 공산당패가 아니라 아주 좋은 사람이다, 김교사가 아니었더라면 재판에서 질뻔했다고 하면서 나를 절대적으로 옹호하였다. 그 지주는 명절 때마다 나를 초청하여 좋은 음식을 대접하군 하였다.

나는 조가봉의 집에 갈 때마다 거기에 찾아오는 많은 중국인 유지들과 낯을 익히고 그들에게 반제국주의 교양을 하였다.

그때부터 오가자에서의 나의 혁명활동이 합법화되고 조선인학교의 운영이 합법화되었으며 이 일대에서의 우리의 혁명투쟁지반이 공고화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유지들을 돌려세운 다음 대중단체들을 혁명적으로 개편하는 사업에 달라붙었다.

먼저 청년회를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하였다. 청년회도 처음에는 민족주의영향하에 있었다. 조선혁명군 소조가 오가자에 간 후 청년회의 핵심성원들이 좀 개명하였지만 아직 모든 면에서 민족주의적인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선 투쟁목적과 과업이 명백치 않았다. 회원수도 적거니와 사업방법도 옳게 서있지 않았다. 활동은 없고 간판만 있는 유명무실한 조직으로서 청년대중을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은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오가자지구는 10리, 20리, 지어는 60리 떨어져있는 마을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청년회는 어느 한 마을에도 지부를 두고 있지 않았다. 이런 사정으로 하여 청년조직이 대중속에 발을 붙일 수 없었고 청년대중을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일부 사람들은 청년회를 당장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하자고 하였다. 많은 청년

들이 아직 민족주의자들의 영향하에 있고 또 청년회에도 일정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실정에서 그들의 정치사상적 준비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기성조직을 새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었다.

조선혁명군 대원들은 청년회 간부들과 함께 여러 부락들에 나가 반제청년동맹을 내오기 위한 사상동원사업을 하였다. 그 과정을 통하여 자연히 우리의 혁명노선이 청년군중속에 침투되어갔다. 나도 매일같이 청년들과 담화를 하였다.

이런 준비단계를 거쳐 우리는 삼성학교 교실에서 오가자반제청년동맹을 결성하였다. 동맹은 각 부락들에 지부를 두었다. 동맹위원장으로는 최일천, 조직부장으로는 문조양이 선거되었다.

그 후에 농우회가 농민동맹으로 개편되고 소년학우회가 소년탐험대로 개편되었으며 남만여자교육연합회 오가자지부가 부녀회로 개편되어 오가자대중단체들의 사업에서는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개편 후 각 조직들은 새 성원들을 많이 받아들이었다. 오가자의 거의 모든 주민들이 해당은 대중조직들에 망라되어 정치생활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방자치행정기관인 촌공회도 혁명적인 자치위원회로 개편하였다. 오가자의 선각자들이 촌공회를 내온 것은 1920년대 전반기였다. 촌공회는 경제교육사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중국관헌들과 상시적인 연계를 맺고 산하에 공주영도자판매소와 같은 기관을 두어 농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해주었다.

오가자 사람들은 촌공회일군들이 군중성이 없으며 청백하지 못하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하였다.

나는 농민들과의 담화과정에 촌공회일군들이 공주영도자판매소로부터 들어오는 일부 식료품들과 생활필수품들을 농민들에게 골고루 배정해주지 않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면서 뒤로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여부를 확인하려고 공주령에 사람을 보냈더니 그도 돌아와서 촌공회가 썩었다고 하였다. 촌공회일군들이 농민들한테서 모은 돈을 남용하여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였다.

촌공회사업은 그의 촌장 혼자서 주관주의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독단이 많이 작용하였고 대중의 의사도 무시되었다. 대중이 참견하지 못하다보니 촌공회안에 무슨 허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사람도 생활도 일본새도 다 혁명적으로 개편되고 있는 형편에서 종래의 조직기구와 고루한 사업방법을 가지고서는 촌공회가 대중의 요구에 맞게 사업할 수 없었다.

우리는 촌공회간부들과 각 부락 촌장들, 농민동맹 위원장들이 참가하는 협의회를 열고 촌공회사업을 총화하였다. 그 협의회에서는 촌공회를 자치위원회로 개편하였다.

자치위원회는 우리의 의도대로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민주주의를 최대한 발양시키는 방향에서 일을 잘 해 나갔다.

우리는 자치위원회산하에 있는 공주영도자판매사업에도 큰 관심을 돌리었다. 오가자 농민들이 쌀을 팔자면 마차나 소달구지를 끌리 100리밖에 있는 공주령에까지 가야 하였다. 쌀값이 떨어질 때에는 적당한 장소에 쌀을 보관해두었다가 값이 오를 때 파는 것이 경제적이었다. 그런데 공주령에는 오가자의 농민들이 쌀을 맡길만한 장소가 없었다. 보관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값을 따지지 않고 아무데나 망탕 쌀을 팔아버리군 하였다. 이런 폐단을 없애려고 오가자의 농민들은 1927년 가을 공주령에 도자판매소를 설치하였다.

우리는 오가자의 대중조직성원들 중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사람들을 도자판매소에 파견하였다. 조선혁명군 대원들 가운데서는 계영춘, 박근원, 김원우와 같은 사람들이 판매소 사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공주령에 파견되였다. 우리가 도자판매소를 장악한 후 이 판매소는 농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해주는 합법적 상업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함께 혁명조직들과의 연계를 보장해주고 조선혁명군에 활동자료를 대주는 공개되지 않은 사명까지 감당하였다.

우리가 촌공회를 자치위원회로 개편하고 그 산하에 공주영도자판매사와 같이 혁명을 돕는 합법적 상업기관을 내온 것은 1930년대 초의 혁명투쟁에서 하나의 경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오가자에 있을 때 만주의 여러 지역에 공작원들을 파견하여 조직들을 확대하고 활동판도를 넓혀나갔다. 그때 공작원들은 카이루(개로) 지방에도 여러 명 파견되였다. ≪ㅌ · ㄷ≫출신이고 화성의숙 졸업생인 박근원도 그 일대에 가서 얼마동안 활동하였다.

카이루지방에는 몽골족도 많이 살았다.

문명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카이루사람들은 병이 나도 치료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신에게 빌기만 하였다. 그래서 우리 동무들은 그곳에 갈 때마다 약을 가지고 가서 병난 사람들에게 주군 하였는데 효과가 아주 좋았다. 그 후부터 카이루지방에서는 조선사람들이 가면 대우를 잘해주었다.

우리는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각 조직의 책임자들과 핵심성원들을 망라하는 강습을 조직하였다.

나는 차광수, 계영춘 동무들과 함께 매일밤 두세 시간씩 엇바꾸어가며 카륜회의에서 제시된 주체적인 혁명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 군중속에서의 정치사업방법, 조직을 확대하고 질적으로 강화하는 방법, 조직성원들에 대한 교양사업방법과 그들의 조직생활을 지도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우리는 강습이 끝난후에도 조직책임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조직을 내오는 방법, 핵심을 육성하는 방법, 분공을 주고 총화하는 방법,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 담화를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사업방법을 배워주었다.

오가자의 지휘성원들은 신심을 가지고 군중속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오가자인민들을 계몽하고 교양하는데도 많은 힘을 기울이었다.

우선 교육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돌리었다.

우리는 조선혁명군 대원들과 지하조직성원들 가운데서 유능한 청년들을 선발하여 삼성학교에 교원으로 배치하고 그들이 주동이 되어 학교의 교육내용을 혁명적으로 개편하게 하였다. 민족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을 설교하는 낡은 학과목들이 폐지되고 정치과목으로 새롭게 선정된 것도 우리가 직접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한 다음부터였다. 삼성학교에서 월사금이 폐지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학교의 유지비는 자취위원회에서 대주었다. 취학연령에 해당하는 오가자의 모든 아이들이 그 해 겨울부터 월사금을 내지 않고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우리가 훗날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에 의무적인 면비교육에 대한 조항을 하나 넣기는 하였지만 사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무료교육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실천에 옮긴 것은 고유수, 카륜, 오가자에서였다. 오가자의 삼성학교는 카륜의 진명학교, 고유수의 삼광학교와 더불어 우리 나라 교육역사에서 첫 면비교육이 실시된 의의 깊은 교육기관이었다.

우리는 학교교육을 받지못하는 청장년들과 부녀자들을 위해서 야학에도 힘을

넣었다.

나는 중심부락 뿐만 아니라 주변부락들에도 야학을 내오고 거기에 모든 청년들을 다 망라시키었다.

우리는 카륜에서 ≪볼쉐위크≫를 발간하던 경험을 살려 오가자에서도 ≪농우≫라는 잡지를 만들어냈다. ≪농우≫는 농민동맹기관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볼쉐위크≫가 좀 이해하기 어렵게 씌여졌다면 ≪농위≫에 실린 글들은 농민들이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체도 간결하고 평이하였다. ≪농우≫도 ≪볼쉐위크≫와 마찬가지로 간도에까지 배포되었다.

우리는 그 때 학생들을 통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혁명적인 노래를 많이 보급하였다. ≪적기가≫나 ≪혁명가≫와 같은 노래도 학교에 가서 한번만 배워주면 그날로 온 마을에 펴지곤 하였다.

오가자에서는 우리가 무어준 연예대가 있었다. 이 연예대가 계영춘의 지도를 받으면서 삼성학교를 거점으로 활동을 잘하였다. 나도 길림시절부터 쓰기 시작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 파는 처녀

애절하게

mp A♭ Fm E♭ D♭

1.꽃사시 오 꽃 사시 오 어 —여 쁜 빨간꽃 향기롭고

B♭m7 A♭ E♭ A♭ Fm

빛갈고운 아름다운 빨간꽃 앓는엄마 약구하려 정성담아

E♭ D♭ B♭m7 A♭ E♭ A♭

가꾼꽃 꽃사시오 꽃사시 오 이꽃이 꽃 빨간꽃

2.산기슭에 곱게 피는 아름다운 진달래
산기슭에 피여 나는 연분홍빛 살구꽃
꽃 사시오 꽃 사시오 이 꽃을 사시면
설음 많은 가슴에도 새 봄빛이 안겨요

시험적으로 몇 차례 연습까지 해본 ≪꽃파는 처녀≫의 대본완성작업에 달라붙었다. 대본이 완성되자 계영춘이 삼성학교에 조직되어있는 연극조 성원들을 데리고 형상작업을 시작하였다.

우리는 10월 혁명 13돐기념일에 삼성학교 강당에서 이 가극을 공연하였다.

이 가극은 해방 후 오랫동안 파묻혀있다가 1970년 초에 이르러 조직비서의 지도밑에 우리 작가 예술인들에 의하여 영화와 가극, 소설로 각각 완성되어 세상에 공개되었다. 조직비서가 이 때 수고를 많이 하였다.

우리는 오가자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성원속에서 짧은 기간에 요하농촌을 조선혁명군의 믿음직한 활동기지로 꾸려놓았다. 우리가 길림주변에서도 농민들과의 사업을 하고 장춘근방에서도 농민들과의 사업을 하였지만 오가자에서와 같이 그렇게 철저히 농촌을 혁명화해본 적은 일찍이 없었다.

우리가 오가자에서 해놓은 모든 일에 대해서는 국제당 연락원 김광열도 경이적인 눈으로 보았다.

우리가 독창적인 혁명노선을 내세우고 자주적인 방법으로 혁명을 개척해나가다나니 국제당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주시하였다. 국제당 동방부에서 그 당시 우리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한 것 같다. 조선에 종래의 공산주의자들과는 전혀 다른 새 세대의 혁명가들이 나타났다. 어느 파에도 소속되지 않고 소문도 내지 않으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세력인데 군중지반도 좋다고 한다. 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아마 호기심에서 연락원까지 보낸 것 같다.

김광열은 하얼빈연락소에 갔다가 오가자에 와서 우리 동무들도 만나보고 혁명조직책임자들도 만나고 유지들도 만나보았다. 많은 사람들과 담화한 후 나와도 만났는데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고무적인 말을 많이 하였다. 그는 조선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운동과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경험을 쌓아올렸다고 하면서 우리가 내놓은 혁명노선과 방침을 적극 지지찬동한다고 하였다.

그는 우리의 반일민족통일전선노선에 대하여 아주 놀랍게 생각하였다. 연락원은 지금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는 혁명의 지지자, 동정자를 규정하는데서 심각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당신들은 완고한 민족주의세력들, 종교인 지어는 자산층들과도 손을 잡으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고 물었다.

나는 연락원에게 소수 공산주의자들이나 노동자, 빈고농의 힘만으로는 혁명을 할 수 없다. 일제를 타도하자면 중간세력까지도 다 동원해야 한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조선에서는 대다수의 민족자본가들과 종교인들까지도 다 외세를 반대하고 있다. 혁명을 달과와하지 않는 세력은 한 줌도 못되는 지주, 예속 자본가들과 친일파, 민족반역자들뿐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동원하여 거족적인 항쟁을 조직하자는 것이다. 조선사람의 힘으로 조선을 독립하는 비결은 반일을 하는 모든 세력을 다 쟁취하는데 있다고 말해주었다.

연락원은 그 설명까지 듣고나서 ≪당신은 고전에 구애되지 않고 만사를 독창적으로 처리하는데 나는 그것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나에게 모스크바 유학을 권고하였다.

≪당신은 전도가 양양한 사람인데 실천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해야겠소.≫

그때 김광열은 나에게 양복과 와이셔츠, 넥타이, 구두가 들어있는 트렁크까지 열어보이며 국제당에서 당신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재삼 권고하는 것인데 그 권고에 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아마 그는 국제당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나를 설복하여

모스크바에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온 것 같았다.

나는 김광열에게 ≪당신들에 나에게 관심을 돌려주어 대단히 고맙지만 나는 동만에 나가 인민들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쏘련에 들어가서 흘레브를 먹게되면 러시아파가 될 수도 있겠는데 나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조선에 엠엘파요, 화요파요, 서울파요 하는 파가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가슴아픈데 나까지 그런 사람들의 전철을 밟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맑스-레닌주의는 책을 보고 공부할 작정입니다.≫하고 대답하였다.

차광수와 박소심을 비롯한 나의 동무들도 토로즈에서 유학에 필요한 생활필수품들을 다 꾸려놓고 나에게 모스크바에 가라는 권고를 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 해 12월 하순 오가자에서 조선혁명군 지휘성원들과 혁명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소집하였다. 우리가 그 회의를 소집한 목적은 카륜회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경험과 교훈을 총화하고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려는데 있었다.

일본은 군국주의쇠몽둥이를 휘두르며 국력을 총동원하여 새로운 식민지를 확보하고 영토를 팽창하기 위한 침략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길에서 자애로 된다고 인정되는 것은 가차없이 소멸하였다.

우리는 일본이 만주를 치기 전에 동만에 나가서 진지를 차지하고 침략에 맞설 준비를 하려고 하였다. 동만으로 나가자면 중부만주지방에서의 활동을 총화하고 무장투쟁준비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하였다. 그렇게 되어 소집한 것이 오가자회의였다.

이 회의에 조선혁명군의 핵심성원들과 혁명조직책임자들이 다 참가하였다. 간도와 온성, 종성 지구에서 채수항을 비롯한 많은 혁명조직책임자들이 령하 30도의 혹한을 무릅쓰고 오가자로 찾아왔다. 서로 얼굴을 모르고 지내던 숱한 청년혁명가들이 이 회의를 계기로 면목도 익히고 정도 나누면서 조선혁명의 장래를 두고 진지한 토론을 하였다. 회의에서 초점을 두고 논의된 것은 동만에서의 활동을 결정적으로 강화할 데 대한 문제였다. 투쟁의 기본무대를 동만으로 옮기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지향이었다. 그것은 혁명앞에 도래한 정세를 보아도 미룰 수 없는 문제였다. 내가 오가자에 있으면서도 동만을 잊지 않고 동만으로 나갈 날을 초조하게 고대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나는 회의에서 항일무장투쟁준비를 다그칠 데 대한 과업과 국제혁명역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할 데 대한 과업도 제기하였다. 회의의 전과정은 청년학생운동과 농촌지하운동으로부터 무장투쟁단계에로 이행하여 적들에게 결정적 공세를 가하려는 우리의 결심을 확고히 보여주었다. 카륜회의가 무장으로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을 광복하려는 조선민족의 의사를 집대성하였다면 오가자회의는 그 의사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항일대전의 마당에로 가는 지름길을 밝혀주었다.

오가자회의는 카륜회의로부터 1931년 봄 명월구회의와 송강회의, 겨울 명월구회의를 거쳐 우리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일제와의 결전장으로 가는 다리를 놓아주었다.

우리의 청년학생운동은 1930년에 이르러 마침내 무장투쟁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었다. 오가자는 여기에서 하나의 도약대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내가 오가자를 떠날 때 문조양이 10리밖에까지 따라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바래주었다.

10.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카스트로동지와 함께 인민대학습당을 참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나는 언제인가 평양에서 카스트로동지를 만났을 때 그와 함께 항일혁명시기의 투쟁을 두고 장시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때 카스트로동지는 나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는데 그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무장투쟁을 하면서 식량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하는 것이였다. 나는 그에게 적의 식량을 빼앗아 해결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인민이 시종일관 우리에게 식량을 대주었다고 하였다. 청년학생운동과 지하활동을 할 때에도 인민이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고 잠자리를 마련해주었다. 상해임시정부나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와 같은 독립군 단체들은 저마다 법을 만들어내어 동무들에게서 의연금도 받아내고 군자금도 모집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혁명활동에 돈이 필요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세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법을 제정할 수 없었다. 인민을 그 어떤 법이나 규정에 얽매어놓고 장부책을 끼고 다니며 누구네 집에는 얼마, 누구네 집에는 몇 원 하는 식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원래 우리의 이념에 맞지 않았다. 인민이 주면 먹고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였다. 하지만 인민은 어떤 정황에서나 생사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었다. 인민이 각성되고 동원되어 언제나 혁명가들을 자기의 친자식처럼 돌보아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인민을 믿었다. 인민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끼니를 굶어본 적이 한번도 없었다. 우리가 빈주먹을 들고 영으로부터 투쟁을 시작하여 승리를 거둡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인민이 우리를 지지하고 성원한 데 있었다. 고유수의 현정경, 김보안, 승춘학, 카륜의 유영선, 유춘경, 황순신, 정행정, 오가자의 변대우, 곽상하, 변달환, 문시준, 문조양, 김해산, 이몽린, 최일천 등은 남만과 중부만주 지방에서 우리를 충심으로 도와준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인민들은 자기들이 죽을 먹을 때에도 우리에게만은 밥을 해먹이면서 극진하게 대우해주었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송구스러워 어떤 때에는 일이 바빠 밤을 밝힌다는 핑계를 대고 학교숙직실에서 자기도 하였다. 카륜에서 진명학교 교실이 우리의 숙소로 이용되었다면 고유수와 오가자에서는 삼광학교, 삼성학교 교실이 우리의 숙박소 구실을 하였다.

내가 삼광학교 교실에서 목침을 베고 잘 때면 현균이 찾아와 성을 내면서 내 팔을 잡아끌었다. ≪ㅌ·ㄷ≫의 성원이며 조선혁명군 대원인 현균은 똑똑하고 대바르고 인정이 깊은 사람이였다. 현균의 형 현화균은 고유수에서 농민동맹사업을 하였는데 우리 일을 많이 도와주었다.

두 형제가 다 우리의 조직에 망라되어 일하는 사람들인데다가 아버지까지 독립운동을 하는 분이어서 그 집에서는 우리를 각별히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현균의 아버지 현하죽은 독립운동자들속에서 상당한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다. 하죽이란 호이고 그의 본명은 현정경이었다. 고유수사람들은 본명대신 그를 하죽선생이라고 불렀다. 그 당시 현하죽선생이라고 하면 만주지방에 살고 있는 조선동포들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 아버지도 생전에 현하죽선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였고 또 그와 깊은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단순한 친구로서가 아니라 독립운동에 뜻을 같이한 동지로서 자주 접촉하고 의사소통을 하였으며 뜨거운 우애심을 가지고 서로 존경하고 받들면서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현하죽선생은 통의부시절의 중앙법무위원장이었고 정의부시절의 중앙위원이었으며 국민부시절에는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유일당이라고 부르던 조선혁명당의 정치부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는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도 깊었고 일상생활에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청년들을 동정하였으며 그들과 잘 어울리었다.


현하죽(현정경)

김혁, 차광수, 박소심 동무들이 유하지방에서 사회과학연구회를 내오고 곳곳에 반제청년동맹조직을 꾸리고 있을 때 그는 청년들의 계몽을 위해 강사로 자주 출연하였다. 왕청문 학원시절과 화흥중학교 시절에 현하죽선생의 강의를 받아본 사람들이 그 후 그를 자주 회상하였다.

내가 고유수에 갈 때마다 현하죽선생은 나를 자기 집에서 재우곤 하였다.

≪큰아버지네 집에 온셈치고 마음 푹 놓게.≫

선생이 나에게 늘 하는 말이었다. 선생의 나이가 우리 아버지보다는 여라문살 우였다. 나는 그 집에서 열흘이나 스무날, 지어는 한 달 이상씩 묵으면서 군중들과의 사업을 하였다. 어느 해 던가는 고유수에서 현하죽선생의 가족들과 함께 5월 단오까지 쇠였다.

사실 그때 형편에서 손님을 하루도 아니고 몇 주일씩 재우며 밥을 해먹인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농사를 지어 지주에게 소작료를 바치고 얼마 안되는 식량을 가지고 혁명가들에게 밥을 해먹이고 나면 집안사람들은 죽물도 변변히 먹을 수 없었다. 현하죽선생의 집에서는 그때 나에게 입맛이 당기는 음식을 만들어주느라고 있는 성의를 다하였다. 어떤 때에는 닭을 잡아주고 두부와 비지도 만들어주고 근대국도 끓여주었다.

그 집안 여자들이 두부를 앗느라고 망질을 할 때면 나도 팔을 걷어올리고 달려들어 망돌을 돌리었다. 우리가 망돌앞에 앉아 일을 거들어줄 때마다 스물두세 살쯤 나보이는 현하균의 아내 김순옥이 몹시 수줍어하면서 얼굴을 쳐들지 못하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김순옥

현하죽선생은 민족주의단체인 국민부에 소속되어있으면서도 자기가 국민부내의 혁신파라는 것은 숨기지 않았으며 장차 공산주의운동을 하겠다는 것까지도 드러내놓고 말하였다.

내가 고유수를 떠난 다음 현하죽선생이 국민부내부에서 벌어진 집안싸움을 피해 서안으로 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장학량의 군대가 그곳으로 가니 선생도 그에게 기대를 걸고 따라간 것 같았다. 장학량이 배일감정이 강하였기 때문에 그의 우산밑에서 반일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만주사변을 전후하여 동3성 일대에서 활동하던 조선의 많은 독립운동자들이 상해나 서안, 장사 같은 곳으로 활동무대를 옮기였다.





추억이 깃든
밥그릇(우)과 망(아래)

조국이 해방된 후 외국방문의 길에 올라 열차나 비행기를 타고 중국동북지방을 지나갈 때마다 나는 만주의 낯익은 산천을 바라보며 고유수를 생각하고 현하죽선생을 생각하고 선생의 후손들을 생각하였다. 사람이 신세를 지기는 쉬워도 갚기는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1990년 봄에 뜻밖에도 현하죽선생의 후손들과 감격적인 해후를 하였다. 현하죽선생의 맏며느리 김순옥여성은 내가 자기 집에 가서 식사할 때 사용하던 놋그릇과 나에게 두부를 만들어줄 때 돌리던 망돌을 60년동안이나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혁명박물관에 보내주었다. 그 사연을 담은 글이 길림에서 조선사람들이 발간하는 ≪도라지≫라는 잡지에 실리였는데 우리 ≪노동신문≫이 그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였다.

60년동안 소식을 모르던 은인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으니 나로서는 감회를 억제할 수 없었다. 어느 때든지 나라가 독립되면 고유수에서 진 빚을 단단히 갚으려고 하였는데 만나서 내 손으로 소박한 음식상도 차리고 회포도 나누고 싶은 심정이 간절하였다. 김순옥도 죽기 전에 나를 만나봤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1990년 3월에 나의 명의로 김순옥을 초청하였다. 막상 만나고보니 그는 80고령으로 아쉽게도 노환이 심하여 걸음 제대로 옮기지 못하였다. 김순옥이 우리 나라로 나올 때 그의 후손들이 여섯 명 따라왔는데 나에게는 다 서름서름한 초면의 얼굴들이었다. 내가 그들을 만나는 자리에는 현균의 아들도 참가하였다. 그의 입모양이 아버지의 입모양과 신통히도 비슷하였다. 입모양이라도 비슷하니 이미 고인이 된 현균이 다시 살아서 나를 찾아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김순옥일행을 외국귀빈들이 이용할 숙소로 지어놓은 초대소에 들게 하고 한 달가량 머무르면서 고국편답을 하게 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김순옥여성이 귀가 어두워서 남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었다. 발음도 똑똑치 못하고 기억력도 상당한 정도로 나빴다. 그처럼 생사를 몰라 궁금해하던 은인들 중 한 사람을 60년만에 기적적으로 만났으나 나는 그 은인과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보충해주고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보충해주며 장시간 고유수시절을 회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기대가 허물어지니 아쉬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그의 후대들도 현하죽선생의 운명과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현하죽선생이 조선독립을 위해 어떻게 싸웠으며 우리의 혁명사업을 어떻게 도와주었는가 하는데 대하여 상세히 이야기해주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생의 경력을 잘 알고 있는 나의 의무이기도 하였다. 같은 피줄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선열들의 투쟁업적을 잘 알고 그것을 진심으로 귀중히 여길 줄 아는 후대들만이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세대들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이어갈 수 있다.

나는 김순옥을 만나는 자리에서 공국옥과 오가자에서 우리의 혁명활동을 많이 도와준 문조양, 문숙곤도 함께 만나보았다.

공국옥은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를 대신하여 3년동안 베감투를 쓰고 몽상을 입은 공영의 딸이다. 어느 해였던지 길림 육문중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방학이 되어 무송에 들리니 얼굴이 흠집이 생겼다고 남편한테서 소박을 당하던 공영의 안해가 아이를 업고 우리 집에 와 있었다. 그 아이가 바로 공국옥이다.

나는 해방 직후 평양에서 농민동맹회의를 지도하다가 그 회의에 대표로 참가한 벽동사람을 만나 그에게 공영의 유가족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가고 물었다. 공영이 벽동출신이었기 때문에 그의 미망인과 딸이 고향에 있을 수 있다는 짐작이 들

어서였다.

그 대표는 벽동에 공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만은 사실이지만 공영의 가족이 살아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나는 그 대답을 듣고 몹시 낙심하였다. 다른 유가족들은 나타나는데 공영의 유가족만은 행방조차 알 수 없으니 마음이 허전했다.

그 당시 우리는 만경대에다가 혁명자 유가족학원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양공설운동장에서 시민들과 개선인사를 나누고 20년만에 조부모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고향집에 돌아오니 소학교시절의 동창생들이 찾아와서 한 때 우리 아버지가 교사로 일하던 순화학교자리에 나의 이름을 딴 중학교를 하나 세우자고 제기하였다. 만경대는 김장군이 태어난 유명한 고장인데 학교를 하나 큼직하게 짓고 장군의 이름을 붙여 ≪**김일성**중학교≫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면서 나를 설복하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나의 향촌에는 중학교가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지난날 수많은 애국자들이 나와 함께 손에 무장을 잡고 산에서 싸우다 희생되었다. 그들이 눈을 감으면서 앞으로 조선이 독립되면 자기네 아들딸들을 공부시켜 훌륭한 혁명가로 키워달라고 나에게 부탁하였다. 나는 그때부터 그들의 유언대로 조선이 독립되면 꼭 동지들이 남겨놓고 간 자제들을 공부시켜 자기 부모의 뜻을 잇도록 해야겠다고 늘 생각해왔다. 조국을 찾고보니 그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만경대에는 중학교가 아니라 혁명가의 유자녀들을 키우는 학원을 세워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동네사람들은 혁명가유가족이 얼마나 되는가, 무슨 유자녀가 그렇게 많아서 학원까지 세우겠는가고 하였다. 당, 행정의 중요직책에서 일하는 간부들 가운데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열사들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희생되었는지 가늠조차 못하고 있었다. 이국의 산야와 강하에 전우들의 시신을 수없이 묻어온 나로서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토지개혁 후 첫 수확을 해서 농민들이 나라에 바친 애국미를 밑천으로 삼가 만경대에 혁명자유자녀학원을 세웠다. 학원에서 공부할 유자녀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수많은 일군들이 국내각지와 중국 동북지방에 파견되었다. 그때 수백 명의 유자녀들이 중국에서 나왔다. 지금 우리 당 중앙위원회에서 정치국성원으로 사업하고 있는 일부 동무들도 그 무렵에 임춘추동무를 따라 조국에 나왔다. 어떤 유자녀들은 물감장사나 담배장사 같은 것을 하며 살다가 만경대에 혁명학원이 설립된다는 소식을 듣고 제 발로 걸어서 우리를 찾아왔다. 그런 아이들 가운데는 독립군의 후손들도 있었고 로조나 농조와 같은 조직들에서 반일투쟁을 하다가 희생된 애국자들의 자제들도 있었다. 그런데 공국옥이만은 어데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평안북도 지방에 내려갈 때마다 공영의 유가족들의 행처를 수소문하였으며 그곳 일군들에게 그들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원아들과 같이 명절을 쇠려고 학원에 내려가 그들이 명랑하게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볼 때면 산나물보따리를 이고 짚신을 끌면서 소남문거리의 우리 집으로 찾아오군 하던 공영의 안해의 얼굴과 어머니의 등에 업혀 주먹을 빨던 공국옥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짜릿한 심회를 금할 수 없었다.

나는 1967년에야 공국옥을 찾아냈다. 그때는 이미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였다. **김일성**이 김성주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공국옥의 어머니가 인차 나를 찾아왔을 것이다. 그 여인이 **김일성**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다가 공산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자기 남편은 독립군이었으니 다르게 보지 않을가 하여 자식들에게도 아버지가 무슨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공국옥을 찾은 다음 그를 고급당학교에 보냈다. 공국옥은 그 학교를 졸업

하고 평양시당과 철도부사적관에서 일하였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아 년로보장을 받으며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고유수의 김보안도 현하죽선생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의 친구였다. 그는 독립군에서 중대장까지 한 사람이다. 김보안은 내가 현하죽선생의 집에만 가고 자기 집에는 한번도 들리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였다. 우리 동무들이 집에 찾아가면 그는 자기와 김형직은 보통사이가 아니고 또 자기도 성주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지 않는데 어째서 그 사람은 자기 집에 한번도 찾아오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런 말을 들은 다음부터 나는 고유수에 가면 김보안의 집에 꼭꼭 들리군 하였다. 김보안은 약국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얼마간의 돈을 우리가 운영하는 삼광학교 후원비로 내군 하였다. 그는 교육열이 높은 사람으로서 청소년들을 계몽시키는 사업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삼광학교에 나와 강연을 해달라고 초청하면 그 초청에 기꺼이 응하였다.



독립군중대장
김보안

김보안은 고유수사람들이 돈계산을 할 줄 모르니 이런 까막눈들을 가지고 조선독립을 어떻게 하겠는가고 개탄하였다. 지금 사람들은 어른들이 돈계산을 하지 못했다면 잘 믿지 않겠지만 그 당시 중국사람들과 길림에서 살고 있던 조선의 이주민들 중에는 돈계산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성에서 발행되는 돈이 다르고 현에서 유통되는 돈이 서로 다른데다가 길림관채니, 봉천다양이니, 길림소다양이나, 은다양이니 하는 여러 가지 돈들이 저마끔식 달라서 글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장거리에 가도 돈계산을 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야학에 농민들을 불러다놓고 산수시간에 돈계산법을 배워주었다. 돈계산도 할 줄 모르는 까막눈들이라고 흘겨보던 사람들이 가감승제까지 척척하는 것을 보고 김보안은 ≪아무렴 그렇겠지. 조선사람이 원래 머리야 명석하지≫하고 흡족해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무식자로부터 유식자로 되는 과정을 보는 것이 재미난다.≫고 하면서 야학도 참관하고 삼광학교에 나와서 수업참관도 하였다. 삼광학교의 고등학생들은 하나같이 지혜롭고 총명하였다. 그 학생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인상깊게 남아있는 인물은 유춘경과 황순신이다.

그들은 둘 다 카륜의 혁명조직들에서 추천되어온 학생들이였다. 유춘경의 아버지 유영신은 진명학교 교원으로 일하면서 우리의 혁명사업을 많이 도와주었다. 그 당시 유춘경, 황순신 동무들의 나이는 14−15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는 고유수에 갔다가 카륜이나 길림으로 돌아갈 때 그들에게 무기운반을 부탁하군 하였다. 군벌들이 여자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덜하였다. 유춘경와 황순신은 언제나 그 부탁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그들은 치마밑에 무기를 감추고 50미터쯤 떨어져서 우리의 뒤를 따르군 하였는데 길가에서 군벌들이 우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조사를 하였지만 그들에게는 주의를 돌리지 않고 무심히 통과시켜주군 하였다.

황순신은 해방 후 조국에 돌아와 고향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는 삼광학교시절의 소년탐험대원답게 일을 본때있게 하여 다수확농민으로 이름을 날리며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속에서 한 생을 값있게 살아왔다. 전후시기에는 한동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도 활약하였다.

유춘경은 만주에서 여러 지방으로 떠돌아다니며 살다가 이관린처럼 인생말년을 조국에서 보내고 싶다고 하면서 1979년에 귀국하였다.



황순신

황순신처럼 젊은 나이에 귀국했더라면 그도 이름있는 여성활

동가가 되어 사회와 인민을 위해 좀더 활력있는 후반생을 보냈을 것이다. 삼광학교 시절의 유춘경은 여학생들 중에서 글도 제일 잘 쓰고 연설도 제일 잘하고 두뇌도 제일 명석한 전도가 촉망되는 소녀였다.

우리가 안도에서 유격대창건준비사업을 하고 있을 때 그는 나에게 편지를 보내어 내가 있는 곳에 와서 투쟁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시하였다. 그때가 무장투쟁을 시작하려고 서두르던 시기이고 또 일단 무장투쟁을 시작하게 되면 여자들이 남자들을 따라다니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안도에 오라는 연락을 보내지 못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무장투쟁에는 적합치 않다고 여기였다. 귀국당시 유춘경의 나이가 50살 정도만 되어도 우리는 그를 공부시켜 사회활동에 참가시키였을 것이다.


유춘경

우리는 지난날 혁명투쟁에 직접 참가했거나 관여한 사람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나이가 좀 들어도 그들을 공부시키고 알맞은 자리에 배치하여 정치활동을 시키는 원칙을 세웠다. 아무리 총명하고 쓸모있는 사람도 오래동안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에 파묻혀있으면서 사고능력이 감퇴하고 세상물정에 어두워지며 인생관에 녹이 쓰는 법이다.

해방 후 적지 않은 투사들과 혁명투쟁연고자들이 적재적소에 등용되지 못하고 파묻혀있었다. 종파분자들은 항일투사들이 경력은 좋지만 무식해서 쓸모가 없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그들을 간부로 등용시키지 않았다. 무식하면 공부를 시켜서라도 제구실을 똑똑히 할 수 있도록 강심을 먹고 키워야겠는데 배척하고 외면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혁명유자녀들이나 혁명투쟁연구자들을 찾아내면 그들을 고급당학교나 인민경제대학 같은데서 공부시켜 그들의 준비정도에 따라 간부로 등용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공부를 하지 않고 조직생활을 하지 않으면 혁명을 오래 한 투사들도 시대의 낙오자가 되고 만다.

수많은 투사들과 그들의 유자녀들, 항일혁명투쟁방조자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당과 국가의 유능한 지휘성원으로, 저명한 사회활동가로 자라났다.

오가자의 문조양도 그런 사람이었다. 문조양은 오가자에서 반제청년동맹 조직부장으로 활동할 때 변달환, 최일천, 이몽린, 김해산과 함께 우리 일을 많이 도와준 사람이다. 그는 우리와 함께 글도 쓰고 연설도 많이 하고 대중조직들을 꾸리는 사업에도 정열적으로 참가하였다. 아마 회의도 그의 집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것 같다.

나는 오가자에 가있을 때 문조양의 형 문시준과 최일천이네 집신세를 많이 졌다. 문시준은 마음씨가 후한 사람이었다. 그는 몇 달씩이나 돈받지 않고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었다. 우리가 오가자에서 활동할 때 문시준이 우리 일행을 위해 돼지까지 잡아주며 아무쪼록 나라를 기어이 독립시켜달라고 부탁하던 일이 어제일 같다. 나는 그 집에서도 오래동안 침식을 하였다. 문시준이네 집에서는 식사를 할 때마다 밥상에 마늘짠지를 놓아주군 했는데 그 짠지맛이 별맛이었다. 그 마늘짠지 맛이 얼마나 독특했던지 해방 후 문시준의 딸 문숙곤을 만나니 그 생각부터 났다. 그래서 그를 초청해다가 마늘짠지 만드는 방법을 배워주게 하였다.

내가 지방에 내려갈 때마다 우리 사람들이 마늘짠지를 만들어 밥상에 놓아주지만 어려운 때 오가자에서 조밥을 물에 말아먹으며 달게 먹던 그 짠지맛에는 비길 수가 없다.

얼마전에 문조양은 생일 80돐을 쇠였다. 나는 그때 오가자시절을 생각하며 그에

게 꽃다발을 보내주고 팔갑상을 차려주었다. 나는 오가자에서 반제청년동맹위원장이며 ≪농무≫의 주인이었던 최일천의 집에서도 몇 주일씩 유숙하였다.

그 당시에는 그를 최천, 최찬선이라고도 불렀다.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에 찍혀진 최형우라는 이름은 해방 직후 서울에서 저술사업을 할 때 사용한 그의 필명이다.

오가자에서는 그가 제일 개명한 사람이였다. 그는 김혁처럼 시는 짓지 않았지만 뛰어난 산문가의 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권유로 여러 해 동안 장춘에 나가 비밀공작원활동을 하면서 ≪동아일보≫지국장의 일을 맡아보았다. 그 과정에 우리에 대한 자료도 많이 수집하고 좋은 글을 써서 투고도 자주 하였다.


최일천

최일천은 일본정보계통이 주목하는 ≪요시찰인≫이였다. 그가 맡아보는 ≪동아일보≫지국의 출입문밖에는 매일같이 일본헌병들과 밀정들이 와서 그를 감시하느라고 당번을 섰다. 적들이 최일천을 주목하게 된 것은 그가 장춘에 나와서도 청년들과의 사업을 계속하였기 때문이며 국내애국인사들과의 밀접한 연계밑에 우리에 대한 선전을 많이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동만에서 무장투쟁을 시작한 다음 그는 반제청년동맹조직을 통하여 직접 육성한 여러 명의 핵심청년들을 항일유격대에 보내주었다.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에 반영된 재만조선인들의 민족해방투쟁 실상과 그것을 유감없이 구사한 활달하고도 격정적인 필자는 바로 이상과 같은 혁명실천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수련된 것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최일천은 심양과 베이징에 있을 때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에 나와 국내의 저명인사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항일무장투쟁의 전과를 소개하였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고 그 정신에 따라 민족문화와 민족의 얼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최일천은 일본관헌들의 박해와 감시가 심해지자 ≪동아일보지국의 일을 할 때 만주각지를 돌아다니며 손수 수집해놓았던 우리의 투쟁자료들과 독립운동자료들을 가지고 서울에까지 나와 당시 조선어학회를 책임지고 있던 이극로선생에게 그 자료들을 모조리 넘겨주었다. 그 자료들속에는 우리가 오가자에서 발간한 ≪농우≫잡지 묶음도 있었다.

≪이것은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입니다. 적의 감시와 추적속에서 사는 나에게는 이 자료들을 간수할 힘이 없습니다. 나라가 독립되면 이 자료들로 역사서술을 하려고 하는데 리선생이 어떻게 하나 그때까지 잘 보관해주기 바랍니다.≫

그때 최일천은 이런 부탁을 맏기고 만주로 다시 들어갔다.

그는 해방 직후 이극로선생이 자기의 부탁을 받고 소중히 보관해온 자료들을 넘겨받아가지고 단숨에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를 써냈다. 그 책은 파지를 모아 제조한 모래알까지 섞인 재생지에 인쇄된 것이였으나 구독자들이 너무 많아 역사와 문학을 전공하는 젊은 지식인들이 백지에 전문을 베껴가지고 다니면서까지 탐독하는 인기도서로 되었다.

최일천은 해방 직후 미군정이 반공반북을 이남땅의 ≪국책≫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총검으로 떠받들어주는 살벌한 환경속에서 반일투쟁만화도 찍어내며 청소년들에게 반제반일정신을 고취시켰다.

해방 후 정치적 혼잡과 무질서가 지배하던 서울장안에서 그가 온갖 정신력을 다 동원하여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와 같이 무게있는 글을 써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최일천은 해방 후 남조선정계에 진출하여 조선혁명당 정치부장, 신진당 중앙위원회부장, **김일성**장군환영위원회 위원, 민족자주연맹 집행위원 등 주요직책을 역

임하면서 여운형, 홍명희, 김규식 등의 인물들과 손을 잡고 민주역량의 집결과 남북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는데 조국해방 전쟁시기 서울에서 반동들에게 피살되었다.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는 최일천의 미완성작이다. 그는 원래 2집을 낸 다음 계속하여 다음 권을 쓰려고 하였으나 해방 후 복잡한 남조선정치무대에 발을 들이민 후 시간을 내지 못하여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 책은 다음권에서 필자는 우리의 혁명활동을 전면적으로 서술할 계획이였다고 한다.

최일천이 살아있었더라면 우리의 혁명역사와 관련된 흥미있는 사료들도 더 나왔을 것이다.

세월이 많이 흐르다보니 항일혁명투쟁시기를 회상할 수 있는 인물들 가운데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의 초기활동을 회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구나 적다. 나의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다. 잊어버린 사연들도 많고 어떤 일은 삭막해서 날자와 인문들을 정확히 회고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남만과 중부만주 일대에서 우리의 활동을 도와준 인물들 가운데서 김리갑의 애인 전경숙은 특별히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김리갑은 ≪금강관≫사건의 주인공으로서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에도 소개된 사람이다. 중국사람으로 변장한 일본영사관 경찰들은 1930년 봄 길림시내 복흥가에 있는 오상헌의 집에서 김리갑의 입을 틀어막고 팔다리를 결박하여 그를 장춘으로 연행해갔다.

그 후 그는 재판에서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지고 대련감옥에 끌려갔다.

전경숙의 부모들은 딸이 김리갑과 같은 혁명가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나 그 여자는 부모들의 뜻을 단호히 거역하고 탈가하여 애인을 따라 대련에 갔다. 그때 그의 나이가 열여덟인가 열아홉인가였다. 그는 방직공장에 들어가 공청책임을 지고 활동하면서 김리갑의 옥바라지를 성의있게 하였다.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동만특위서기로 사업하던 동장영이였다. 그는 자기가 대련에서 지하당 사업을 할 때 전경숙을 만난 일이 있다고 하면서 그의 열렬하고 진실한 사랑에 감동되어 ≪그 여자를 만나보고 나서 조선여성의 절개와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전경숙의 고결한 풍모에 탄복하였다. 나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만청총대회에 참가하려고 왕청문에 갔을 때 나에게 저녁을 지어주고 국민부의 테러계획까지 귀띔해주던 그의 모습을 새삼스럽게 그려보았다.

그리고 김리갑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만주대지를 뛰어다닐 때 우리에게 밥을 지어주고 푼전을 모아 학비와 노자를 쥐여주던 그 많은 은인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다.

그런 은인들 중에서 아직도 생사와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이제라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마음속에 맺혀있는 한이 다 풀릴 것 같다. 그 사람들에게 밥이라도 한끼 대접하고 한자리에 앉아 수십 년동안 쌓이고 쌓여온 회포를 나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지난날 그들이 나에게 바친 그 노고와 지성을 죄다 보상할 수 있겠는가. 인민을 더 잘 살게 하고 우리 인민에게 더 큰 복리를 마련해주며 인민의 지지성원속에서 개척한 혁명을 완성하는 것이 그들에게 바치는 최대의 보상이며 선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인민에게 이런 보상을 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공산주의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제5장



무장한 인민

수난당한 대지
9.18사변
무장에는 무장에로
혈전의 준비
새 무장력의 탄생

■ 시기 : 1931. 1 ~ 1932. 4

1. 수난당한 대지



선전화
≪구렝이≫

5.30폭동과 8.1폭동을 계기로 시작된 백색테러의 회오리바람은 1931년에 들어서면서 더 심하게 만주대지를 휩쓸었다. 적들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이 여러 해 동안 품을 들여 키워온 혁명역량을 뿌리채 뽑아던지려고 도처에서 피비린내나는 폭압소동을 벌이었다.

동만에 나와보니 남만이나 중부만주 일대보다 공기가 더 팽팽했다. 폭동의 후과도 더 참혹하고 파괴적이였다. 돈화남문에서 장대기에 걸려있는 폭동자의 머리를 보고 나는 혁명세력에 대한 적의 공세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짐작하였다.

교조주의와 소부르조아영웅주의에 인이 박힌 종파사대주의자들은 5.30폭동과 8.1폭동을 치른 후에도 국치일, 10월혁명기념일, 광주폭동기념일을 비롯한 여러 기념일들을 계기로 기념폭동, 수확폭동, 공포폭동의 명목밑에 연속적인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회수는 실로 수백 회에 달하였다. 적들의 테러선풍이 해를 넘기면서 계속된 것은 그 때문이였다.

그 과정에 간도의 혁명조직들은 거의 다 파괴되였다. 전열에서 싸우던 핵심들은 말할 것도 없고 폭동대열을 따라다니며 밥을 날라주던 사람들까지도 모조리 잡혀가거나 처형되였다. 한해 전에 우리가 두만강연안으로 나가면서 복구해놓았던 조직들도 적지 않은 손실을 당하였다.

폭동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적들에게 자수하거나 혁명조직에서 떨어져나갔다.

지하로 들어간 조직선을 찾으려고 마을에 가면 슬금슬금 눈치만 살피면서 곁을 주지 않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어떤 사람들은 ≪간도는 공산당 때문에 녹았다.≫, ≪공산당의 망동 때문에 온 간도천지가 피바다, 불바다로 되였다.≫, ≪공산당장단에 춤을 추다가는 일가멸족한다.≫고 하면서 공산주의자의 간판을 가진 사람이면 소속과 계열에 관계없이 덮어놓고 외면하거나 경원시하였다.

내가 명월구에 갔을 때 옹구당위원회 위원 이청산은 폭동 후 자기가 겪어온 고충을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이런 하소연을 하였다.

≪상급에서는 자꾸 군중속에 들어가 조직을 복구확대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볼 재미도 없고 용기도 나지 않소. 나를 혁명가라고 존대하

던 사람들도 그렇고 지난날 내 보증으로 조직에 흡수된 사람들까지도 몇 달째 나만 보면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고 있으니 이거야 어디 서러워서 혁명을 하겠소. 폭동바람이 몇 번 불어대더니 간도의 민심이 아주 고약해졌단 말이요. 이렇게 냉대를 받으면서 살아갈 바엔 차라리 혁명을 그만두고 어디 가서 밥벌이나 하면 마음이라도 편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일어날 때도 있소. 그러나 말이 쉽지 혁명가가 피를 물고 품었던 초지를 어떻게 그처럼 헐하게야 내던지겠소. 아무튼 무슨 방책이 있어야겠는데 나로서는 궁리가 제대로 떠오르지 않으니 소란스러운 시국만 원망할 뿐이요.≫이것은 이청산의 고충인 동시에 나의 고충이기도 하였다. 간도의 모든 혁명가들이 1930년과 1931년 당시에는 이런 고충을 겪었다. 오죽이나 사태가 험악하고 암담했으면 이청산과 같이 성실하고 과묵한 노혁명가가 이런 고백을 했겠는가.

물론 이청산은 혁명을 중도반단하지 않았다.

나는 그 후 안도에 가서 이청산을 다시 만났다. 내가 두만강연안의 여러 현들을 돌아다니는 사이 그는 안도구당에 조동되었다고 하였다. 옹성라자에 있을 때보다는 신수가 별로 멀끔해보였다.


안도

이청산은 새 부임지에서의 일이 잘되어간다고 하면서 몹시 만족해하였다.

≪악몽같은 시절은 지나갔소.≫

그는 이 한마디 말로 자기의 생활에서 일어나 변화를 간단히 표현하였다. 사람들이 속을 잘 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던 때의 그 비참하고 침울한 표정은 그의 얼굴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옹성라자에서 이청산을 만날 때까지만 해도 만주지방의 혁명가들은 백색테러의 쓴맛을 보면서 인민들이 곁을 주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다.

나도 역시 그런 고민을 안고 모대기었다. 내가 희멀건 강냉죽에 갓김치를 먹으면서 밤이면 찬바람이 스며드는 남의 집 웃방에 목침을 베고 드러누워 시장기와 싸우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다. 그 당시 우리를 가장 괴롭히던 고통중의 하나가 다름 아닌 시장기였다. 실로 우리는 그때 간도에 나가서 추운 고생, 배고픈 고생을 많이 하였다.

나는 솜옷도 없이 양복차림으로 겨울을 나군 하였기 때문에 남들보다 늘 춥게 지냈다. 덮을 것이 없는 집에 갔을 때에는 밤에 양복을 벗지 않고 그대로 누워 잠을 청하군 하였다. 이청산의 집에 가니 그 집에도 이불과 베개가 없었다. 그래서 양복차림으로 하루밤을 잤는데 너무 추워 잠을 자지 못하였다.

어떻게나 혼났던지 후날 안도에 가서도 그날밤에 겪은 이야기를 하였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며칠사이에 달구지군들이 입고다니는 저고리같은 솜저고리를 하나 큼직하게 지어주었다. 나는 그 솜저고리를 입고 다니다가 이불이 없는 집에서 잠을 잘 때마다 목침에 손수건을 감아베고 솜저고리를 덮고 새우잠을 자군 하였다.

그러나 그런 고초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해 봄 나는 간도에 나가서 어느 하루도 발편잠을 자본 적이 없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춥고 배고파서 잠이 잘 오지 않는데다가 학살당한 동지들에 대한 생각과 파괴된 조직들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인민들의 냉대를 받는데서 오는 절망과 고독감이 또한 나를 괴롭혔다. 곁을 주지 않는 군중을 보고 돌아와 찬방에 팔베개를 하고 누우면 사람들의 불신을 당하던 풍경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사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간도지방에 큰 기대를 걸어왔었다. 연길에는 종파가 많이 들어갔지만 그밖의 간도지방들에는 종파의 물이 그닥 심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 지방들에서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빠른 속도로 자라나 새로운 방식으로 혁명을 전개해나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우리 동무들은 여러 해 동안 꾸준한 노력과 고심으로 이 일대에서 항일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승화시키기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왔다.

그런데 두차례의 폭동바람에 모처럼 쌓아올린 공든 탑이 크게 손상되었다. 좌경은 초혁명적인 언사와 구호로 대중을 일시적으로 현혹시켰지만 그 해독성은 이처럼 유해롭고 파괴적인 것이었다. 좌경을 뒤집어놓은 우경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무리한 규정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만사를 제껴놓고 그토록 총총히 간도로 나온 것은 바로 이 좌경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메꾸고 무장투쟁에로 한시바삐 이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을 다그치자는데 있었다.

큰 기대를 걸고 찾아온 간도의 파괴상이 이처럼 예상외로 참혹한데다가 인민이 또한 혁명가들을 불신하고 멀리하는 사태까지 목격하게 되니 괴로와서 견딜 수 없었다.

인민을 위해 싸우는 투사들이 자기를 낳아준 인민에게서 버림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는가. 단 하루라도 인민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인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 혁명가의 생명은 산목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대중이 계열을 가리지 않고 혁명가 일반을 냉대할 때 우리가 그토록 가슴아프게 생각한 것은 폭동을 계기로 하여 공산주의자들의 권위가 훼손된 데 대한 안타까움, 군중이 자기 지도자들을 믿지 않고 조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데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으며 조중인민들 사이에 불신과 오해의 벽이 생긴데 대한 안타까움이었다.

이런 것들이 당시로서는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하지만 우리는 고민하고 괴로와하고 모대기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혁명가는 투쟁항로에 난관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상 혁명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혁명가는 이런 때일수록 의지를 가다듬고 신심에 넘쳐 완강하게 시련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1931년에도 간도일대에서 5.30폭동의 후과를 청산하기 위한 작업을 근기있게 해나갔다. 카륜회의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첫째가는 장애가 바로 이 폭동의 후유증이였다. 이 장애를 시급히 제거하고 혁명대오를 재정비하지 않는다면 위기에 처한 혁명을 건질 수도 없었고 심화 발전시킬 수도 없었다.



만화 ≪조중인민들은 일제의 기만선전에 속지말라!≫

오가자회의를 끝낸 후 동만으로 나가면서 나는 내 자신과 동지들앞에 두 가지 과제를 내세웠다.

하나의 과제는 5.30폭동의 후과를 총화하는 것이었다. 폭동을 설계하고 지휘한 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 폭동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과학적으로 정확히 분석총화할 필요를 느끼었다.

폭동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

지만 동만에는 아직도 광신적인 테러주의자들과 이립삼노선의 신봉자들이 남아 무모한 폭력투쟁에로 대중을 부추기고 있었다.

5.30폭동을 총화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몽상에서 깨여날 수 있었다.

우리는 5.30폭동총화를 통하여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출세주의와 공명주의, 소부르조아적 영웅주의에 경종을 울리기로 결심하였다.

폭동의 총화는 또한 만주지방의 혁명가들에게 과학적인 전략전술과 대중영도방법을 체득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다른 하나의 과제는 광범한 군중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묶어 세울 수 있는 올바른 조직노선을 제기하고 그 노선으로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을 무장시키는 것이었다.


朝鮮○○軍
男女三名被捉
武器도押收되엇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체포사건을 보도한
동아일보 1931년
3월 26일분

간도지방의 공산주의자들에게는 파괴된 조직들을 복구정비하고 그것을 확대강화해 나가는데서 지침으로 삼아야할 똑똑한 조직노선이 없었다.

동만지방에서 활동하던 종파사대주의자들은 대중을 조직화하는 사업에서도 혹심한 좌경적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그들은 ≪계급혁명론≫을 부르짖으면서 빈고농들과 노동자들만을 조직에 받아들였다. 그밖의 계층에 대해서는 다 혁명과는 인연이 없는 대상으로 보았다 그래서 조직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공산주의란 바로 저런 물건짝이구나, 쌀에 뉘만큼만 홀잠뱅이들만 모여서 쑥덕거리고 나머지는 따돌리는 것이 공산주의로구나 하는 말까지 돌리며 분개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폐쇄적 경향을 타파하고 각계각층의 애국역량을 하나로 묶어 세우자면 고전의 명제나 다른 나라의 경험에만 매달리려는 사대주의, 교조주의적 경향을 극복하고 그 모든 애국역량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포섭하고 수용할 수 있는 올바른 조직노선을 찾아내고 그것을 한시바삐 관철해야 하였다.

나는 이러한 과제를 간도노정의 첫 단계 사업목표로 정하고 동만으로 가는 걸음을 다그쳤다. 그런데 천만뜻밖에도 고유수에서 대중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고 유봉화, 최득영과 함께장춘쪽으로 나가다가 밀정의 고발로 반동군벌당국에 체포되었다. 그 당시 군벌당국은 우리의 활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도 일본경찰에 짝지지 않는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무장투쟁준비를 하기 위하여 동만으로 나간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

고유수가 중부 만주지방에서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주요한 활동기지라는 것을 간파한 군벌당국은 이통현 현공서를 발동시켜 이 마을에 독찰원을 파견하고 우리의 일거일동을 검질기게 감시하였다.

고유수에는 현공서에서 파견된 독찰원과 연계를 가지고 우리의 활동을 은밀히 내탐하던 이출류라는 중국인지주가 있었다.

우리가 고유수를 떠나 장춘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독찰원들에게 밀고한 자가 바로 이 리가 였다. 우리는 다난툰이라는 곳에서 독찰원의 연락을 받고 긴급 출동한 보위 단원들에게 체포되어 현공서 감방에서 며칠동안 심문을 받다가 장춘으로 호송되어 거기서 20일가량 감옥생활을 하였다. 내 생애에서의 세 번째 감옥살이었다.

그때 장춘에는 길림육문중학교의 이광한 교장선생과 하선생이 와있었다 그들은 내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벌당국에 찾아가 ≪김성주는 길림감옥에서 무죄로 석방된 사람인데 왜 또 잡아가두는가? 김성주는 우리가 보증한다≫고 하면서 강력한 항의를 들이댔다. 그들의 도움으로 나는 다행히 감옥에서 풀려나올 수 있었다.

두 은사가 다 공산주의를 이해하는 연공주의자들이였기 때문에 어려운 대목에서 주저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지난날과 다름없이 나를 진심으로 동정하고 보호해주며 우리의 위업을 변함없이 이해해주는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평생을 두고 지울 수 없는 크나큰 감명을 받았다.

동만에 나와서 우리가 벌여놓은 첫 사업은 조선혁명군 대원들과 혁명조직핵심 성원들을 위한 돈화 강습이였다.

이 강습에서는 무장투쟁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과업과 그 실천방도, 기층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과 분산된 혁명군중을 조직적으로 결속하는 문제들을 취급하였다. 이 해 12월에 열린 겨울명월구회의의 예비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강습이였다.


유격대창건을 준비하던 시기 비밀아지트로 쓰던 집

이 강습이 있은 다음에는 안도, 연길, 화룡, 왕청, 종성, 온성 일대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였다.

산도와 두만강연안 육읍 일대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한데 기초하여 우리는 1931년 5월 중순 옹성라자에 있는 이청산의 집에서 당 및 공청간부회의를 열었다. 역사에서는 이 회의를 ≪봄명월구회의≫라고도 한다.

옹성라자란 옹기소리나는 바위라는 뜻이다. 일본이 만주를 강점하기 전까지는 명월구를 옹성라자라고도 불렀다. 일본사람들이 만주를 먹은 다음 철도역을 내오면서 옹성라자를 명월구라고 표기하였는데 그것이 그대로 고착되어 후세사람들도 옹성라자를 명월구라고 부르게 되었다.

지금은 명월구가 안도현 소재지로 되었지만 우리가 회의를 하던 당시까지만 해도 그 고장은 연길현에 속해있었다.

≪봄명월구회의≫는 당, 공청, 간부들과 조선혁명군 성원들, 지하공작원들이 수십 명 참가하였다. 간도지방의 새 세대공산주의자들 중에서 백창헌을 비롯하여 한다하는 혁명가들은 이 회의에 다 참가했다고 생각된다.

≪좌경모험주의노선을 배격하고 혁명적 조직노선을 관철하자≫는 이 회의에서 내가 한 연설을 정리한 것이다. 이 연설에서 내가 동만으로 나오면서 세워놓았던 두 가지 과제가 다 포함되어 있었다.

이미 계획했던대로 우리는 이 회의에서 5.30폭동의 본질을 심각하게 분석총화하였으며 기본군중을 튼튼히 결속하고 그 주위에 각계각층 반일역량을 굳게 단결시켜 전민족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단합시킬 데 대한 혁명적 조직노선을 제기하였다.

회의에서는 이런 조직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과업으로 지도핵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자립적 역할을 높일 데 대한 문제, 파괴된 대중단체들을 복구정비하고 거기에 각계각층의 군중을 받아들일 데 대한 문제, 실천투쟁속에서 대중을 단련시킬 데 대한 문제, 조중인민들 사이의 공동투쟁과 친선단결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가 논의되고 작은 규모의 투쟁으로부터 큰 규모의 투쟁에로, 경제투쟁으로부터 점차 정치투쟁에로 발전시켜나가며 합법적 투쟁과 비합법적 투쟁을 능숙하게 연결시켜 나갈 데 대한 전술적 원칙들을 규정하면서 좌경모험주의적 경향을 철저히 극복할 데 대한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1931년 5월의 ≪봄명월구회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대중전취를 위한 회합이였다고 말할 수 있다. 대중을 전취하는데서 제일 큰 장애물이 바로 좌경모험주의노선이였다. 그래서 우리는 용단을 내려 그 노선을 때리였다.

우리가 좌경을 치고 광폭적인 조직노선을 내놓자 회의참가자들은 그것을 전폭적으로 환영하였다.

그 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설하였는데 연설들이 다 혁명적이였다. 연설자들은 한결같이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는 것은 시간문제인만큼 준비를 잘했다가 때가 되면 결사전을 벌이자고 부르짖었다. 노숙한 혁명가들이 많이 모인 회합이니 들을 소리도 많고 참고할 것도 많았다.



명월구회의가 진행된 곳

나는 이 회의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다.

회의가 끝난 다음 간도 전지역과 국내로 공작원들이 연이어 떠나갔다.

나는 명월구에서 얼마동안 이 일대의 당조직과 대중단체들에 대한 사업을 지도하다가 안도로 향하였다. 안도를 활동거점으로 삼고 당분간 간도와 국내의 혁명사업을 추켜세우자는 것이였다.

안도는 철도와 대도로, 도시들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지대여서 일제의 영향이 덜 미치고 주변이 온통 험한 산악과 밀림으로 에워싸여 있어 연길, 화룡, 훈춘지구와 무송, 돈화, 화전 지구는 물론 육읍일대를 비롯한 국내의 조직들과도 연계를 가지기 유리하였고 유격대를 조직하고 훈련시키며 당조직건설사업을 추진시켜나가는데서도 매우 편리한 고장이였다. 주민구성도 대단히 좋았다.

더욱이 조종의 산 백두산이 가까이에 있으므로 조국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우리로서는 그 숭엄하고도 장중한 모습에서 크나큰 정신적 위안과 고무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화창하게 개인 날이면 멀리 서남쪽하늘가에 백두영봉의 은회색 파도가 바라보이였는데 그 은은한 원경이 시야에 안겨올 때면 무장을 들고 조국을 한시바삐 찾고싶은 충동으로 가슴이 세차게 고동치군 하였다. 비록 조국을 떠나 이역에서 무장투쟁을 시작하지만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항일의 총성을 울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공통된 심정이였다.

나는 돈화강습을 끝내고 4월에 이미 안도에 가서 대중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 적이 있었다.

그 때 어머니는 신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 의술이 낙후한 때여서 무슨 병이라는 진단도 못받고 그저 ≪적≫이 요동치는 것 같다는 말씀만 하면서 탕약을 끓여 잡숫군 하였다.

자신의 병이 얼마나 위중한가 하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푼전 한 잎 없이 늘 객지로 떠돌아다니는 나를 걱정하면서 부녀회사업에 있는 심혈을 다 바치었다.

두 달만에 안도로 다시 찾아가는 내 심중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안도에 도착한 나는 예상보다 몹시 밝은 어머니의 얼굴빛을 보고 마음을 놓았다. 집생각을 하지 말고 나라를 찾는 일에 전념하라고 노상 타이르면서도 내가 나타나면 반가움을 참지 못하고 얼굴의 병색마저 감추는 어머니였다.

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만경대할머니가 버선발로 달려나와 나를 얼싸안았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그 해에 만주로 온 할머니는 그 동안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

고 내내 무송에서 어머니와 함께 조반석죽의 가난한 가계를 연명해왔다. 우리 일가가 무송에서 안도로 자리를 옮길 때 할머니도 어머니를 따라 안도에 왔었다. 안도에 와서는 흥륭촌에 있는 영실이네 외가에 거처를 잡고 사돈집과 우리 집에서 엇갈아 가며 침식을 하였다.

영실이란 형권삼촌의 외동딸이다.

형권삼촌이 감옥에 잡혀간 다음부터 우리 숙모(채연옥)는 심한 우울증에 걸리었다. 금방 시집을 와서 첫 아이를 낳고 살만한 때에 남편이 불행하게도 감옥행을 하였으니 신경이 약해질만도 하였다.


할머니 이보익

나는 형권삼촌이 징역 15년의 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시작한 후 숙모에게 아이는 다른데 주어서 키우게 하고 재가하라고 권하는 편지를 써보냈다. 숙모는 그런 편지를 받고도 재가하지 않았다. 남편이 없는 형님도 재가하지 않고 온갖 고생을 다하며 세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남편이 퍼렇게 살아있는 내가 어떻게 시집을 다시 간단 말인가, 내가 재가하면 영실이 아버지가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상심하겠는가, 설사 영실이를 남들에게 주고 다른 남자를 만나 새 살림을 시작한들 내가 발편잠을 자며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겠는가고 하면서 그런 말은 두 번 다시 입밖에 내지 말라고 하였다. 그 숙모가 아주 친숙하고 대가 있는 분이었다.

어머니는 안도에 오신 후 기분전환이라도 하라고 하면서 같이 데리고 있던 숙모를 흥륭촌에 있던 친정집으로 보내었다.

우리 할머니가 영실이네 외가에 가 계시면서 며느리의 뒤시중도 하고 말동무도 해주었다. 그러다가도 병중에 있는 맏며느리의 생각이 나면 우리 어머니한테로 뛰어와 탕약도 끓이고 동자질도 하였다. 병약한 두 며느리를 돌보느라고 할머니가 그대 말없이 속을 많이 태웠다.

할머니가 고향으로 쉬이 돌아가지 못하고 이역에서 몇 해를 보낸 것은 외로운 처지에 빠진 두 며느리의 처지를 가엾게 여기는 애틋하고 다심한 어머니의 사랑이였다고 생각한다.

내가 안도에 도착한 그날밤 할머니는 내곁에서 주무시였다.

깊은 밤중에 잠을 깨여보니 내 머리가 할머니의 팔에 안겨있었다. 내가 잠든 다음 할머니가 베개를 슬그머니 밀어내고 내 머리를 안고계신 것 같았다. 나는 할머니의 심정이 가슴에 미쳐와 차마 머리를 옮겨놓지 못하였다.

할머니는 쉬지 않고 있다가 나에게 조용히 물었다.

≪고향이랑 잊은 게 아니냐?≫

≪할머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나는 한시도 만경대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고향에 계시는 일가친척들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나는 사실 여기 식솔들을 다 데려가자구 만주에 왔댔다. 너는 못 데려가도 너희 어머니랑 동생들이랑은 다 데려가자구 생각했댔다. 그런데 너희 어머니가 통 말을 듣지 않는구나. 나라를 찾기 전에는 다시 압록강을 건너지 않기로 맹세하고 떠난 걸음인데 성주 아버지가 떠났다고 한번 내친걸음을 어떻게 훌쩍 되돌려세우겠는가구 하면서 말이다. 어찌나 모질게 마음을 먹었는지 무송을 떠날 때 한번도 돌아보지 않더라. 그래서 고향으로 가자는 말을 더 붙이지 못했다. 여기서 사는 게 조선독립에 더 이롭다면 나는 너희들을 더 잡아끌지 않고 혼자서 만경대로 돌아가겠다. 고향생각이 나구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

구싶거든 이따금씩 편지나 해다구. 그러면 너희들을 본듯이 생각하겠다. 나야 여기로 자주 다닐 수 없지 않니.≫그 후 나는 할머니의 이 부탁을 한번도 이행하지 못하였다.

조국의 신문들에 자주 실리는 내 이름과 항일유격대의 전과보도가 내 소식을 대신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구태여 편지를 쓰지 않았다.

할머니는 네가 일을 많이 하자면 너희 어머니가 앓지 말아야겠는데 병이 점점 심해지는데다가 일에 너무도 극성이니 야단이라고 하면서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 말을 들으니 어머니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 가정살림을 떠메고나가야 할 맏아들로서, 만경대가문의 장손으로서 생각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였다.

그 당시 우리와 같이 혁명을 한 청년들속에서는 싸움의 길에 나선 남아대장부하면 가정쯤 잊어야 한다는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유행하고 있었다. 가정을 생각하는 사람은 대사를 치르지 못한다는 것이 청년혁명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나는 일찍부터 그런 경향을 비판하면서 가정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조국도 혁명도 참되게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나 자신은 자기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고 보살폈던가. 혁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신하는 것이야말로 가정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 당시 내가 일상적으로 품고 있던 효성관이였다. 나는 혁명과 분리된 순수한 효성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가정의 운명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였다. 나라가 편안해야 가정도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다. 나라의 비운은 곧 그것을 이루는 수백만의 가정들에도 어김없이 미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자면 나라를 지켜야 하고 나라를 지키자면 각자가 자기앞에 부과된 공민적 의무를 책임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김정룡

그런 혁명을 한다고 가정을 망각할 수는 없다. 가정에 대한 사랑은 곧 혁명가를 투쟁에로 추동하는 하나의 원동력이다. 가정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혁명가의 투쟁열도 동시에 식어진다.

나는 가정과 혁명 사이의 이런 상호관계를 원리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일신을 혁명에 바친 혁명가의 경우에 가정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아직 명백한 일가견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아침에 깨여나 집안팎을 돌아보니 남자의 손이 가야할 구석이 여러 군데 있었다. 땔나무도 예비가 별로 없었다.

나는 이번 걸음에 어머니를 도와 틈틈이 가정일에도 손을 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날은 만사를 젖혀놓고 철주와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 땔나무를 해오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챘는지 우물터에 갔던 어머니가 또아리와 낫을 들고 우리를 따라왔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다.

≪내가 일손이나 덜자구 너희들을 따라가는게 아니다. 산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자구 그런다. 어제야 할머니가 장밤 너를 붙들구 말을 시키지 않았니.≫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며 밝게 웃었다.

그제야 나는 어머니의 심정이 이해되었다. 집에서는 사실 할머니가 나를 독차지하군 하였다. 할머니가 물러앉으면 동생들이 나를 붙안고 놓아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나무를 하는 동안 노상 내곁에 있으면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주야, 너 최동화라는 사람을 알겠니?≫

≪알지요, 최동화야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며칠전에 우리 집에 들렸더라. 네가 언제쯤 안도로 올 것 같은가, 오면 알려달라구 하면서 너하구 한바탕 입씨름을 해보구싶다지 않겠니.≫ ≪그래요? 그 사람이 왜 나하구 입씨름을 할 생각을 했답니까?≫ ≪네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5.30폭동이 잘못된 폭동이라구 선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다더라. 상급에서도 다 지지하고 밀어준 폭동인데 성주와 같이 지각있는 사람이 왜 그걸 그렇게 나무라는지 모르겠다구 하면서 머리를 흔들더구나. 네가 혹시 사람들의 눈에 나는게 아니냐?≫ ≪눈에 날수도 있겠지요. 내 주장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디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야 뭐 세상물정을 아니. 그저 사람들이 무리로 죽고 잡혀가지 야단이라구 생각했다. 알맹이들이 다 없어지면 혁명은 누가 한다더냐.≫나는 소박하면서도 단순명료한 어머니의 지론이 퍼그나 마음에 들었다. 인민의 눈은 언제나 정확하였다. 인민이 판단하지 못할 사회현상이란 있을 수 없는 법이다.


강반석여사의 안도현 소사하 집

≪어머니가 옳게 생각했습니다. 그 최동화라는 사람보다는 어머니가 공명정대하게 문제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혁명은 폭동의 피해를 계속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를 수습해보려고 나는 이번에 안도에 왔습니다. ≫≪네가 그럼 또 지난봄처럼 바삐 뛰어다녀야겠구나. 오늘처럼 다시는 집살림에 마음을 쓰지 말고 네 할 일을 직심스레 하거라.≫ 어머니가 나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의 요점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 말씀을 하려고 그날 어머니는 내앞에서 최동화의 이야기도 꺼냈을 것이다.

나는 그 후부터 어머니의 염원대로 조직을 꾸리는 일에 전념하였다.

안도도 5.30폭동의 피해를 많이 입은 고장이었다. 그런데다가 이 지구에서는 대중을 조직화하기 위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안도를 혁명화하자면 무엇보다도 이 일대에서 당조직을 확대하고 당대열을 늘이며 당조직지도체계를 똑똑히 세워놓아야 하였다.

우리는 1931년 6월 중순 김정룡, 김일룡과 그밖의 핵심분자들로 안도현 소사하구 당위원회를 조직하고 구당위원회앞에 이도백하, 삼도백하, 사도백하, 대전자, 푸르허, 처창즈 방향에 공작원들을 파견하여 기층당조직들을 내올 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구당위원회를 내온 다음에는 유수하, 소사하, 대사하, 안도 등지에 공청조직을 확대하고 농민협회, 반제동맹, 혁명호제회, 소년탐험대와 같은 반일단체들을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그 해 여름 안도지방에서는 대중을 조직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완료되었다. 조직이 들어가지 않은 마을은 없었다.

안도를 혁명화하는데서 제일 큰 난관은 혁명대오가 사분오열되어 있은 것이었다.


흥룡촌 전경

안도는 강을 가운데 두고 물남, 물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마을들에 청년조직들이 따로따로 들어가 있었다. 물북의 청년조직은 정의부의 후예들이 주관하는 것이였고 물남의 청년회는 심용준과 같은 참의부의 인물들이 관할하는 것이였다. 이 두 조직이 서로 눈을 흘기고 삿대질을 하며 지내는데다가 최동화가 지도하는 엠엘계의 청년조직까지 줄을 늘이고 있어 청년운동내부가 매우 복잡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청년조직들을 원상복구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시키는 방향에서 청년들을 교양하고 인도해나갔다. 우리가 청년운동을 분열시키려는 사소한 시도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비판하고 경계하였기 때문에 최동화와 같이 파쟁에 인이 박힌 사람도 안도지구에 통일적인 청년조직을 내와야 한다는 우리의 견해를 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안도를 혁명화하는 과정에는 적대분자들의 방해책동이 또한 매우 심했다.

카륜이나 오가자 같은데서는 촌장들이 모두 우리 영향하에 있었지만 흥륭촌에서는 촌장이 악질지주 무한장에게 붙어 염탐군노릇을 하였다. 그자는 마을사람들의 동향과 대중단체들의 움직임을 수시로 내탐해가지고는 곧장 성시에 찾아가군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흥륭촌의 남녀노소 전부가 참가하는 성토모임을 열고 촌장을 마을에서 쫓아버리었다.

며칠후 무한장은 나를 찾아와서 이런 흥정을 들이댔다.

≪나는 김성주선생이 공산주의자라는 걸 미리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늘 구안도에 가있고 여기에는 내 보위단만 있으니 참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저 철없는 것들이 김선생의 정체를 알고 해치는 날에는 나는 전체 공산주의자들의 원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처럼 그냥 지내기도 딱하단 말입니다. 일본사람들이 알면 당장 내 목부터 칠텐데. 그러니 우리 서로 좋도록 합시다. 김선생이 여기를 아주 떠나주시오. 여비가 필요하다면 내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나는 그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고 나서 이렇게 응대했다.

≪당신이 염려할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지주이기는 하지만 중국사람으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중국을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일제를 미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반대하거나 해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다른 중국청년들인 보위단원들에 대해서도 달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졸렬한 인간이라면 이렇게 터놓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염려하는 것보다 우선 당신자신이 일본놈의 ≪개≫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무한장은 그 말을 듣자 더 길게 이야기를 끌지 않고 흥륭촌을 떠나갔다.

그 후 무한장과 그의 보위단은 대체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우리를 신중하게 대하였고 새로 임명되어온 촌장도 우리 눈치를 보아가며 꼭 필요한 행정임무만 조심스럽게 수행하였다.

만일 우리가 안도에서 대중을 조직화할 데 대한 방침을 제때에 관철하지 않았더라면 백색테러가 휩쓸고 지나간 황량한 간도대지에서 무한장과 같은 큰 지주를 굴복시킬 수 없었을 것이며 그를 감히 중립화하여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지 못하였을 것이다.

조직된 대중의 힘은 참으로 무궁무진하며 그 힘앞에서는 불가능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다.

흥륭촌과 그 일대의 혁명조직은 활기에 넘쳐 자기의 역량을 확대해나갔다.

2. 9.18사변


918사변 –
피바다에 잠긴 동북

나는 안도의 혁명조직들이 자기 궤도에 들어서서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 성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1931년 여름과 초가을 화룡, 연길, 왕청 일대의 지방조직들에 나가 5.30폭동 후 흩어졌던 대중을 묶어세우는 사업을 하였다.

내가 돈화를 활동거점으로 삼고 안도, 용정, 화룡, 유수하, 대전자, 명월구 등지와 연계를 맺으면서 사업을 한창 전개해나가고 있을 때 9.18사변이 터졌다. 나는 그때 돈화근처의 한 농촌마을에서 공청열성자들과의 사업을 하고 있었다.

9월 19일 이른 아침에 진한장이 내가 머무르고 있던 마을로 뛰어와 관동군이 봉천을 공격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전쟁이요! 왜놈들이 끝내 불집을 일쿠었소!≫

그는 무거운 짐을 걸머진 사람처럼 신음소리를 숨가쁘게 내지르며 토방 우에 맥없이 주저앉았다. 전쟁이라는 그 한마디의 말은 진한장의 입에서 눈물겹도록 비장하게 울리었다.

오래 전부터 이미 예견했던 사변이고 또 사변이 발발한 시기도 대체로 예상과 비슷이 맞아떨어졌지만 나는 조선민족과 수억만 중국민족이 당하게 될 재난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도 거대한 전환이 오리라는 예감 때문에 가슴을 떠박지르는 것 같은 충격을 걷잡지 못하였다.

그 후 우리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사태발전의 진상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1931년 9월 18일밤 심양 북대영 서쪽 유조구에서 일본만철회사 소유의 철도가 폭파되었다. 일제는 장학량군이 철도를 폭파하고 일본수비대를 공격했다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내걸고 불의의 침공을 개시하여 일거에 북대영을 점령하였으며 19일 아침에는 봉천비행장까지 차지하였다.

심양에 뒤이어 안동, 영구, 장춘, 봉성, 길림, 돈화와 같은 동북지방의 대도시들이 관동군과 압록강을 넘어온 조선주둔군에 의하여 연달아 점령되었다. 닷새도 못되는 사이에 일본침략군은 요녕, 길림 두 성의 광대한 지역을 거의 다 강점하였으며 전역을 계속 넓혀가면서 금주방향으로 육박하였다.

문자 그대로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진상을 오도하며 중국 측에 사건의 책임을 전가시켰지만 세상사람들은 누구도 그들이 내돌리는 여론을 믿지 않았다. 잔꾀가 많은 일제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후날 사건을 조작한 당사자들도 인정하였지만 만철회사소속의 철도를 폭파하고 9.18사변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 장본인은 관동군 특무기관이였다. 우리는 그 당시 출판물들에 글을 내여 유조구사건은 만주를

먹기 위한 일제의 모략이며 간계라고 폭로하였다.

관동군이 만주사변을 앞두고 대기상태에 있던 1931년 9월 18일 아침 이 사건의 조작자의 한 사람인 도히하라겐지대좌(심양 특무기관장)가 갑자기 서울에 나타났다. 그는 조선주둔사령부 고급참모 간다 마사다네를 찾아가서 신문기자들이 시끄러워 군에게 찾아왔다고 자기의 조선방문 이유를 에둘러 설명하였다. 만주사변이 터지면 숱한 기자들이 자기에게 달려들어 성화를 먹이겠는데 그 성화가 싫어서 미리 조선으로 도피해왔다는 소리였다.

같은 시각 일본항공본부장 와다나베 죠따로대장은 서울을 방문하여 조선주둔군 사령관인 하야시 센쥬로 대장과 함께 백운장이라는 큰 술집에서 연회를 차리고 휴식을 하였다고 한다. 만주사변과 같이 어마어마한 불집을 마련한 사람들의 행차치고는 너무나도 안온하고 여유작작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역사기록을 읽게되면 어째서인지 조선전쟁이 발발하던 때에 트루만이 별장에 가서 지내던 일을 상기하게 된다. 우리가 9.18사변과 조선전쟁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전쟁에서 일맥상통한 점을 찾아보게 되는 것은 두 전쟁 다 선전포고 없이 돌발적으로 개시되었다는 거기에만 있지 않다. 그 두 사변을 도발한 인간들의 면모에서 제국주의들에게 고유한 교활성과 파렴치성,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성과 지배주의적 본성을 다같이 찾아보게 되기 때문이다.

역사를 비반복적인 사건들의 누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개개의 사건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과 공통적인 경향성을 우리는 또한 전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일본이 9.18사변과 같은 사변을 도발하여 만주를 먹어치우리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확고한 기정사실로 되어왔었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장작림폭사사건을 조작했을 때에도 그것을 예감하였으며 ≪농학사≫의 신분을 가지고 간첩활동에 종사하던 관동군 참모본부 소속의 나까무라대위의 ≪실종≫사건이 꾸며졌을 때에도 그것을 예감하였다.

나는 특히 만보산사건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만보산은 장춘에서 서북쪽으로 70-80리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자그마한 농촌마을이다. 만보산사건이란 바로 이 마을에서 수로문제를 둘러싸고 조선이주민들과 중국 원주민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말한다. 조선이주민들이 논을 풀려고 이통하 물을 끌기 위한 물길을 팠는데 그것이 그만 중국원주민들의 밭을 침범하게 되었다. 이통하를 막으면 장마철에 또한 강물이 범람할 수 있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 공사를 반대해 나서게 되었다.

이런 때에 일본인들이 공사를 강행하도록 조선농민들을 사족함으로써 분쟁은 확대되고 조선 국내에까지 파급되어 인명과 재산 피해까지 내는 결과를 빚어냈다. 농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지방적인 분쟁을 민족이간책에 솜씨있게 이용한 것이다.

만일 그때 일본사람들이 이간질을 하지 않았거나 조중농민들 중에 선각자가 있어 이성적인 사고를 조금이라도 하였더라면 분쟁은 간단한 언쟁으로 그치고 그 이상 확대되어 서로 마스고 두들겨 패는 것과 같은 양상으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으로 하여 조중인민들 사이에는 더 큰 오해와 불신이 생기고 반감이 조성되었다.

그때 나는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 때문에 비슷한 불행을 겪고 있는 두 나라 인민



만주에서 군사행동을 벌이고 있는 일제관동군

들이 무엇 때문에 서로 주먹질을 하면서 피투성이 싸움을 해야하는가, 항일이라는 대전제밑에 두 나라 민족이 손을 굳게 잡고 공동투쟁에 나서야 할 때 물길 하나를 놓고 서로 악에 받쳐 ≪골육상쟁≫을 하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꼴인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참사가 빚어졌는가, 과연 이것이 누구한테 이롭고 누구한테 해로운 일인가 하고 거듭 생각하였다.

나에게는 문득 이 사건이 미리 꾸며진 연극으로, 박두해 오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변의 전주곡으로 느껴졌다. 무엇보다도 장춘영사관들이 농민들의 우발적인 충돌에 끼여들어 조선사람들의 이권을 ≪옹호≫해 나선 것부터가 미심쩍었다. ≪토지조사령≫과 같은 약탈적인 법령으로 조선의 농토들을 빼앗고 살인적인 농정을 실시해 온 자들이 갑자기 보호자로 둔갑하여 우리 농민들을 ≪옹호≫해 나선 것은 사실상 세상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정치만화였다. 장춘의 ≪경성일보≫ 지국이 본사에 서둘러 만보산의 분쟁을 통지한 일도 그렇고 국내에서 신문호외를 찍어 조급하게 배포한 것도 모두 수상하게 여겨졌다.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을 이간시키기 위하여 일제의 영악한 두뇌들이 지방적인 자그마한 분쟁을 민첩하게 악용하여 엄청난 모략을 꾸몄는데 그것이 성공한 것이 아닐가. 그렇다면 놈들한테는 무엇 때문에 그런 모략이 필요했는가.

우리가 간도 오가자에서 혁명조직들을 재정비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분명 무엇인가를 다급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만보산사건의 여파가 채 가셔지지도 않은 그 해 여름의 나까무라대위≪실종≫사건은 중일관계를 전쟁첩경에로 이끌어나갔다. 이 사건과 때를 같이하여 일본본토에서는 연일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도꾜의 청년장교들이 야스구니신사에 모여 나까무라의 위령제를 지내고 자기들의 피를 뽑아 일장기를 그렸는가하면 그것을 신사나무에 높이 띄워놓고 국민들의 전쟁열을 고취시키었다. 형형색색의 만주관계단체들은 만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귀가 아프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나는 그때 일제의 만주침략은 시간상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그렇게 확정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한두 가지가 아니였다.

조선을 먹은 다음에는 만몽을 먹고 만몽을 먹은 다음에는 중국을 먹으며 중국을 먹은 다음에는 아세아를 제패하려는 것은 ≪다나까상주서≫에도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기본국책이였다. 동아의 맹주가 되려는 야망에 사로잡힌 군국주의 일본의 강철바퀴는 이 국책에 따라 거침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나까무라대위의 ≪실종≫사건을 구실로 삼아 관동군병력을 심양에 집결시키고 공격태세를 갖추었다.

진한장은 그때 일본군대가 당장 만주를 먹겠는데 우리는 모두 적수공권이나 다름없으니 어쩌면 좋은가고 하면서 몹시 불안해하고 안타까와하였다. 그는 국민당의 장학량군벌에 일정한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들이 지금까지는 우유부단했지만 일단 국권을 건드리는 사태가 벌어지면 중화민족앞에서의 체면유지와 수억만 민중의 압력 때문에 저항해 나서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였다.

나는 진한장에게 국민당 군벌이 저항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망상이라고 말했다.

장작림의 폭사사건 때를 상기해보라. 관동군의 모략이라는 것이 명백하고 엄연한 증거도 나타났지만 동북군벌은 그때 진상규명도 하지 않았고 관동군에 한마디의 책임추궁조차 하지 않았다. 지어는 일본조객들까지 고인의 영전에 받아들이였다. 이것은 그



이다가키세이시로
– 9.18사변의 주모자

어떤 신중성이나 취약성, 우유부단성으로만 보겠는가. 국민당은 공산당의 박멸과 노농홍군에 대한 ≪토벌≫에 광분하여 수십만 대군을 강서중앙쏘비에트구에 투입하고 있다. 일제에게 국토의 일부를 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공산당과 노농홍군을 박멸하자는 것이 국민당의 속셈이다. 외적으로 치기 전에 공산주의 세력을 숙청하고 국내의 정국부터 평정하자는 것이 국민당의 노선이다. 자기 선친이 폭사한 다음 국민당 쪽에 아주 기울어진 장학량은 그 저주로운 노선에 맹종하고 있다. 때문에 저항은 없을 것이며 거기에 기대를 거는 것은 허황한 일이다.

진한장은 신중하게 내 말을 들었으나 공감을 표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장학량군벌이 아무리 국민당 노선에 추종한다하여도 자기 군벌의 정치, 군사, 경제적 지반인 동북땅을 완전히 잃게 되는 마당에 이르러서까지도 침략자들에게 저항해 나서지 않겠는가고 하면서 종시 군벌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였다.


진한장

이런 때에 9.8사변이 터지고 수십만을 헤아리는 장학량군대가 아무 저항도 없이 심양을 내주었으니 진한장도 주먹을 부르쥐고 사색이 되어 나한테로 뛰어오지 않을 수 없었다.

≪성주 동무, 나는 몽상가였고 철부지였소≫

진한장은 이렇게 말하면서 온몸을 부르 떨었다. 그런 다음 흥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를 계속 타매하였다.

≪장학량과 같은 사람이 동북땅을 지켜주리라고 생각했으니 나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었소. 장학량은 중화민족의 신의를 버리고 항일을 포기한 겁쟁이고 패전장군이요. 전에 심양에 가보니 온 도시에 군벌군이 모래알처럼 쭉 깔려있더구만. 골목마다 신식총을 멘 군대가 씨글씨글했소. 그런데 그 많던 군대가 총 한방 쏘지 않고 퇴각하였으니 이런 분한 일이 어디 있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오?≫매사에 침착하고 온화하던 진한장도 그날 아침만은 감정을 다잡지 목하고 목청을 돋구어 연방 고함을 질렀다.

장학량이 후에는 항일을 주장하고 국공합작에도 기여했지만 만주사변 때에는 그에 대한 평판이 좋지 못하였다.

나는 진한장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조용히 그를 달래였다.

≪진동무, 진정하오. 일본군이 만주를 침공하리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미부터 예견했던 바가 아니었소. 그런데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떠드오? 우리는 이제부터 사태발전을 냉철하게 주시하면서 그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하오.≫

≪물론 그래야지. 그러나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그러오. 내가 장학량이라는 사람한테 너무 큰 기대를 걸었던 것 같소. 나는 온밤 잠을 이루지 못했소. 한잠도 못자고 고통에 시달리다가 곧장 이리로 달려왔소.

성주동무, 장학량이 통솔하는 동북군의 수효가 얼마인지 아오? 자그마치 30만이나 된다오. 30만! 30만이란게 간단한 숫자요? 그런데 그 30만이 총 한방 쏴보지 않고 하루밤 사이에 심양을 내주었으니. 아, 우리 중화민족이 그래 이렇게도 용렬하고 무력하단 말인가! 공자와 제갈량과 두보와 손중산의 조국이 이렇게도 망해간단 말인가!≫

진한장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그의 눈에서는 피방울 같은 눈물을 쏟아내리고 있었다.

그가 자기 민족앞에 닥쳐온 비운을 생각하며 그토록 분해하고 슬퍼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었다. 그것은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순결한 감정이며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었다.

나도 언젠가는 고행의 다박솔밑에서 왜적에게 짓밟힌 조국을 생각하며 남모르게

눈물을 흘린 것이 있었다. 그것은 성안에 갔다가 일본경찰의 구두발에 만신창이가 되어 꿈틀거리던 어떤 노인의 모습을 보고 돌아와 진종일 분을 삭이지 못하고 만경봉에서 하루해를 보내던 어느 일요일의 석양에 있은 일이었다.

나는 그날 진한장처럼 우리 나라 역사가 자그마치 5천년이라는데 그토록 자랑스러운 역사국이 어떻게 되어 하루아침에 망국의 수치를 당한단 말인가, 이 수치를 무엇으로 씻는단 말인가 하고 비분에 넘쳐 생각하였다.

그러고보면 나나 진한장은 똑같은 수치를 체험한 셈이다. 이전에는 이념의 공통성이 우리를 접근시켰다면 그날부터는 처지의 공통성이 우리의 우정을 배가해 주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람들은 불행한 때일수록 더 친밀해지고 우의와 사랑도 깊어진다고 볼 수 있다. 지난날 조중인민들과 공산주의자들이 그토록 친형제와 같이 쉽게 가까와질 수 있은 것은 바로 처지의 공통성, 목적의 공통성, 위업의 공통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국주의자들이 이윤을 위해서 서로 일시적으로 결탁한다면 공산주의자들은 공동의 투쟁목표로 되는 인간의 해방과 복리를 위해 공고한 국제주의단결을 이룩해간다. 나는 진한장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받아들이였으며 중화민족의 수난을 조선민족의 수난으로 받아들이였다.

만일 수십수백만 대군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장개석과 장학량을 비롯한 정계, 군부의 우두머리들에게 돈화의 한 청년한테 있는 애국심이나 통찰력만이라도 있었더라면 사태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들이 민족의 운명을 자기자신이나 자기들의 당파적 이해관계 우에 놓고 반공이 아니라 연공을 하면 전체 민중과 무장력을 항전에로 불러일으켰다면 일제의 침략을 그 첫 걸음에서 좌절시키고 영토와 인민을 영예롭게 지켜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조국도 민족도 안중에 두지 않았다.

일본이 만주를 치기 전에 벌써 장개석이 장학량의 동북군에 ≪일본군측으로부터 도전이 있을 경우에는 신중성을 견지하며 백방으로 충돌을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용의 명령서를 하달하여 군의 저항을 사전에 억제한 사실은 그 후 수억만 중국인민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9.18사변이 폭발한 후에도 장개석의 남경정부는 중국인민과 중국군대는 일본군에 저항하지 말고 평정과 인내성을 발휘할 데 대한 투항주의적인 성명을 발표하여 군대와 국민의 사기를 저락시키였다. 만주의 운명은 벌써 9.18사변 전에 결정된 셈이였다. 지어 그들은 대표를 동경에 파견하여 일본정부와 비밀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이 교섭과정에 장개석은 일본이 중국의 다른 지역들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쏘중접경지대를 일본제국주의들에게 양도하는데 동의하는 것과 같은 매국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였다.

장개석은 수억만 인구와 수백만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으로 자랑하는 나라의 주석이라는 자존심마저 줴버리고 일본사람들에게 국토의 한 부분을 큼직하게 떼주는 것과 같은 망동을 거리낌없이 자행한 것은 그가 일본의 대포보다 지주, 매판자본가와 국민당관료들을 반대하는 국내인민의 총구를 더 두려워한데 있다.


장개석과 부인, 미군사령관 조셉 스틸웰

그리하여 동북변방군의 30만 대군은 자기 무장력의 25분의 1도 못되는 관동군에게 밀려 무진장한 자연부원을 가지고 있는 광대한 만주땅 전체를 버리고 패주하게 되었다.

나는 망국의 비분에 젖어 통곡하는 진한장에게 말했다.

≪이제는 그 어떤 당파나 군벌이나 정치세력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소. 오직 자기 자신의 힘만을 믿어야 하오. 대세는 우리들 자신이 민중을 무장시켜 반일전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소. 살길은 무장을 잡는데 있소.≫ 진한장은 말없이 나의 두 손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나는 그날 진한장의 기분을 돌려세우려고 온정일 그와 함께 보냈다. 망국의 설움으로 말하면 사실 진한장보다도 내가 더 많았다. 진한장은 조국의 일부를 떼운 사람이였지만 나는 하나의 옹근 조국을 송두리채 잃어버린 망국민의 아들이였다.

진한장이 자기 집으로 가자고 간청하는 바람에 나는 다음날 그를 따라 돈화로 향하였다.

9.18사변은 조선과 중국 뿐 아니라 온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다. 일본이 조선을 삼킬 때 경악을 금치 못했던 세계가 9.18의 포성에 다시한번 비명을 질렀다. 인류는 그것을 세계대전의 시작으로 보았다.

일본이 이 사변을 중일간의 교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방적인 돌발사건으로 묘사했지만 세상사람들은 그것을 곧이 듣지 않았다. 공정한 세계여론은 일본의 만주에 대한 공격을 주권국가에 대한 난폭한 침략행위로 규탄하였으며 일본이 강점지역에서 철병할 것을 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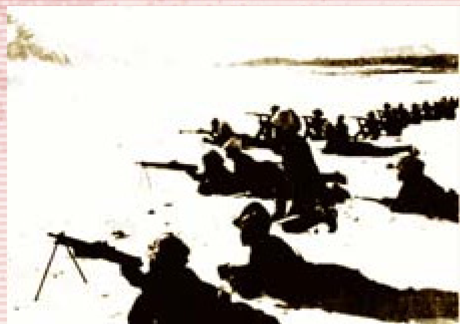
그러나 미제를 선두로 한 제국주의자들은 일본의 창끝이 쏘련으로 돌려지기를 은근히 기대하면서 일제의 침략행위에 대하여 동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국제연맹이 만주에 릿튼조사단을 파견하였으나 그 조사단도 정의의 편에 서서 흑백을 똑똑히 갈라내지 못하고 모호한 입장을 취하였으며 일본을 침략자로 규정하지 못하였다.

전쟁의 포성이 대륙을 뒤흔들고 일본군의 맹공격에 장학량군벌의 막강한 대군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져 총퇴각한 사실은 수억만 사람들의 의기를 꺾어놓았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리에서 ≪무적황군≫에 대한 신화는 한갓 신화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되었다. 피눈물나는 분노와 함께 공포의 파도가 조선과 만주는 물론, 온 아세아를 휩쓸었다. 그 공포의 파도속에서 모든 무장력과 정치세력, 혁명단체, 형형색색의 우국지사들과 저명인사들이 자기의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9.18사변의 폭발은 붕괴상태에 있던 독립군 잔여세력의 대부분을 산간오지로 몰아넣었으며 실력배양을 고창하던 사람들을 일제의 품으로 밀어던지였다. 독립군들이 손때묻은 총을 땅에 묻고 어깨를 움츠리며 고향으로 돌아갈 때 민족개량주의자들은 친일을 부르짖었다. 독립선언을 연발하며 구국항쟁을 웨치던 우국지사들이 ≪망향가≫를 부르며 황황히 해외로 망명하였다. 이전 날의 활동거점들을 버리고 퇴각하는 장학량군의 뒤를 따라 금주로, 장사로, 서안으로 달아나는 독립운동가들도 있었다.

애국과 매국, 반일과 친일, 자기희생과 보신을 가리는 착잡한 분해과정이 9.18의 포성과 함께 민족내부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각자가 자기의 인생관에 따라 양극에도 가붙고 음극에도 가붙었다. 만주사변은 민족의 매 성원들의 동향과 본심을 식별하는 하나의 시금석과도 같은 작용을 하였다.

우리는 그때 돈화에서 진한장과 함께 며칠을 두고 9.18사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였다. 우리도 처음에는 몹시 당황하였다. 무장을 들 때가 되었다는 판단은 쉽게 하였으나 일본군이 사태처럼 쓸어드는


9.18사변 - 일제의 국경경비대

정국에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였다. 그러나 침착성을 인차 회복하고 사태발전을 냉철하게 주시하였다.

그 당시 나는 일제의 만주침략이 조선혁명에 끼치는 영향을 두고 많은 생각을 하였다.

일본군의 만주출병이 현실로 되고 만주점령이 기정사실로 됨으로써 우리는 자기 곁에 적을 주게 되었다. ≪미쯔야협약≫과 같은 것을 턱에 걸고 일본관헌들이 몇 해 동안 중국반동군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선 독립운동자들과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을 심하게 하였지만 조선땅에 있는 군경들이 월경하여 만주에 들어오는 실례는 드물었다. 중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일본군경들이 넘어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만주지방에서 조선혁명가들을 색출하고 잡아가는 것은 대체로 이 일대에 와있는 일본영사관 경찰들이 하였다.

만주사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일대에 조선강점군이 들어오지 못하였다. 러시아공민전쟁 당시 시베리아를 들이쳤다가 철수할 때 중국측의 양해를 얻어 훈춘에 떨어진 두 개 중대역량이 동북지방에 주둔하고 있는 조선강점군의 전부였다.

그러나 9.18사변과 함께 만주는 일본군대의 난무장으로 전변되었다. 조선에서도 상해에서도 일본에서도 수만 명의 일본군대가 떼를 지어 만주땅으로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만주대륙은 적아가 한데 엉켜돌아가는 최전선으로 되었다. 조선과 만주를 갈라놓고 있는 국경은 사실상 일본군의 침공과 함께 제거된 셈이었다.

일본군에 의한 만주강점은 의심할 바 없이 이 일대를 활동거점으로 삼아온 우리들의 투쟁에 험악한 난국으로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일본이 만주를 침공한 본심의 하나가 이 일대에서 앙양되는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교살하고 조선국내의 치안유지를 용이하게 하자는데 있는 것만큼 우리는 금후 자기의 활동에서 여러 모로 일본군경들의 위협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각오해야만 하였다.

조선국내에서 적용되던 ≪신 치안유지법≫의 쇠몽둥이는 만주지방 조선사람들의 머리 우에서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일본이 만주에 괴뢰국가를 세우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것도 하나의 커다란 장벽이 될 수 있었다. 실지로 그 후 일본이 조작해낸 ≪만주국≫의 존재는 우리의 활동에서 막대한 장애로 되었다. 일본의 만주강점은 이 일대에 울짱을 박고 살아온 수십만을 헤아리는 조선사람들의 생활을 도탄에로 몰아넣을 것이었다. 왜적이 없는 고장에서 총독정치의 멍에를 쓰지 않아도 되었던 조선이주민들의 자유는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인정풍토가 생소한 이역에 삶의 터전을 옮긴 유랑민들의 이향은 무의미한 것으로 될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9.18사변을 두고 불리한 것만을 생각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불리한 저들만큼 따져보면서 비관과 영탄에 빠졌더라면 일어서지도 못하고 절망에 짓눌려 주저앉았을 것이다.


9.18사변후 봉천에 배치된 관동군 29련대

나는 그때 어째서인지 ≪범의 굴에 가야 범을 잡는다.≫는 조선속담을 생각하였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년을 두고 터득하고 정식화해놓은 그 인생철학이 나에게 심오한 진리를 귀띔해주었다.

(만주는 범의 굴로 되었다. 이 굴에서 일본제국주의라는 범을 잡아야 한다. 이제는 무장을 들고 투쟁할 때가 되었다. 이런 때에 싸워서 결판을 짓지 못하면 영영 사람구실을 못한다.)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일어서야겠다고 단단히 결심하였다.

일제는 전쟁승리를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 식민지통치를 강화하고 전쟁물자보급을 위한 경제적 수탈에 미쳐날뛸 것이다. 민족적 모순과 계급적 모순은 극한점에 달할 것이며 조선민족의 반일기운은 고조될 것이다. 우리가 무장대오를 조직하고 항일전쟁을 시작하면 인민대중이 물심양면으로 우리를 적극 지지성원해줄 것이다.

중국의 수억만 인민대중도 거족적인 반일항전에 떨쳐나설 것이다.

오늘의 만주침공이 내일에는 중국본토에 대한 침략으로 이어질 것이며 중국대륙은 순식간에 전면전쟁의 화염속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자주정신이 강한 중국인민들이 자기 조국앞에 닥쳐온 위험을 수수방관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우리의 곁에는 제국주의의 침략을 용허하지 않으며 민족적 자주권을 수호할 일념에 불타는 중국의 수많은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 자유와 독립을 사랑하는 수억만 중국의 형제들이 있다. 어제날 조선사람들을 망국민이라고 불쌍하게 여기던 그들이 내일은 단순한 동정자로부터 믿음직한 동맹자가 되어 한 전호에서 같은 과녁을 향해 총을 겨누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익측에는 언제나 중국인민이라는 위대한 동맹자, 동맹군이 있게 될 것이다.

일본이 중국관내에로 전쟁을 확대하게 되면 구미열강들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새로운 세계대전에로 가는 도화선으로 될 것이다. 중일전쟁이 장기화되고 일본이 세계대전에 말려들게 되면 인적, 물적 자원의 결핍과 고갈로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일본이 만주를 먹는다는 것은 그들이 통치구역을 더 넓힌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치구역의 확대는 불피코 통치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일본은 식민지를 통치하는데서 종전의 밀도를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온 세계가 일본제국주의를 침략자로 규탄하게 될 것이며 일본은 국제적으로 고립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혁명에 전략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게 될 것이라고 타산하였다.

장학량군이 총퇴각을 시작하고 일제침략군이 물밀듯이 쳐들어오자 우리 눈앞에서는 놀라운 사태들이 벌어졌다. 관공서의 관리들과 공안국의 경찰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버리었다. 며칠 사이에 군벌통치의 지방기관들이 모두 문을 닫아걸었다.

장학량의 패주와 함께 군벌통치체제가 마비된 것이다.

일제침략군은 전과를 확대하기에 급급하여 치안유지에 힘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만주지방에서는 한동안 무정부상태가 지속되었다. 우리는 일제가 대륙에 자기들의 통치체제를 세울 때까지 얼마간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리라고 타산하였다. 이 공백상태야말로 우리들이 마음놓고 무장대오를 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 호기를 놓쳐서는 안되었다.

혁명은 바야흐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조선혁명앞에 부과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분골쇄신할 때가 온 것이다.

9.18사변은 중국인민들에 대한 침략인 동시에 곧 이 일대에서 살고 있는 조선인민들과 조선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침공이기도 하였다. 우리는 조선의 공산주의로서 이에 응당한 대답을 해야 하였다.

나는 무장대오의 조직을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하였다.

3. 무장에는 무장에로


무장투쟁노선을 확정한 명월구회의 장소

9.18사변으로 하여 우리에게는 항일전쟁을 시급히 개시해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게 되었다. 새로운 세계대전을 예고하는 부정의의 포성으로 대답할 절호의 기회가 닥쳐온 것이다. 일제가 만주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혁명가들은 모두 지하에서 나와 자기진지를 차지하였다. 대륙을 뒤흔드는 포성에 만주지방사람들은 그해 가을 단단히 정신이 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포성은 사람들을 위축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성시키고 분발시키었다. 적의 폭압으로 초토화되었던 만주지대에는 또다시 새로운 투쟁기운이 태동하였다.

우리는 군중을 투쟁속에서 단련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솔직히 말하여 그 당시 만주지방사람들은 폭동의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 때문에 누구나 고민하였다. 혁명을 다음단계에로 상승시키자면 그들에게 신심을 줄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격문이나 뿌리고 빈말공부나 해가지고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다. 실패에 습관된 군중에게 힘을 주고 신심을 주자면 새로운 투쟁에로 그들을 궐기시키고 그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결속지어야만 하였다. 대중을 투쟁속에서 단련시키지 않고서는 설사 몇몇 선각자들이 무장투쟁을 시작한다고 하여도 크게 은을 낼 수 없었다.

9.18사변의 발발은 동만지방인민들이 다시한번 투쟁에 일떠설 수 있는 계기를 지어주었다. 국내인민들의 폭동진출이 또한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국내에서는 농민들이 소작쟁의와 반일폭동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었다. 공원동척농장 소작쟁의, 용천불이농장 소작쟁의, 김제다목농장 소작쟁의가 그 대표적인 실례였다. 용천지구에서는 1929년 이후에도 농민들의 투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 그때 그곳 조직들이 우리와 연계를 가지고 투쟁을 잘하였다. 용천땅에는 우리 공작원들이 많이 나가있었다. 영흥의 3000여명의 농민들과 삼척의 2000여명 농민들은 9.18사변후 ≪비상시국≫을 표방하며 파쑈적인 폭압과 약탈을 강화하고 있는 일제를 반대하여 큰 규모의 폭동을 일으켰다. 이런 때 우리는 간도지방에서 추수투쟁을 조직하였다. 각지의 투쟁위원회는 자기 산하에 선전대, 규찰대를 두고 삐라와 격문을 찍어내며 투쟁구호를 제정하는 등 준비작업을 빈틈없이 한 다음 혁명조직구별로 추수투쟁에 들어섰다. 초기의 투쟁은 소작료를 낮추기 위한 합법적인 경제투쟁이었다. 한때 어떤 역사가들은 이 투쟁에 ≪추수폭동≫이라는 이름을 붙이었는데 나는 그런 명명을 적중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추수투쟁은 5.30폭동의 모방이 아니고

재판도 아니었다. 이 투쟁은 이립삼의 좌경망동적인 사상여독을 완전히 청산한 기초 우에서 새로운 전술적 원칙에 의하여 전개한 승리한 대중투쟁이였다. 5.30폭동에서는 종파분자들이 주역을 놀았지만 추수투쟁에서는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키를 잡고 군중을 지휘하였다.

추수투쟁은 폭력을 기본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5.30폭동이 변전소와 교육기관에 불을 지르고 지주 자산가 일반을 타도하면서 방화와 살인도 서슴지 않았다면 추수투쟁참가자들은 소작료의 3.7제, 4.6제와 같은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투쟁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인접과의 보조를 맞추면서 질서정연하게 행동하였다. 소작료를 낮추라는 요구는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농민들의 처지로 볼 때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였다. 그 요구가 정당하기 때문에 길림성정부도 소작료를 3.7-4.6제로 한다는 것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농민들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지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폭력이 사용되지 않았다. 폭력이 발동된 것은 투쟁위원회의 요구를 완강히 거부해나서는 악질지주들과 농민들의 투쟁을 총검으로 탄압하는 군경들에 한해서였다.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완고한 지주들에 대해서는 양곡을 밭에서 3.7제나 4.6제의 비율로 소작인의 몫을 실어가거나 창고를 해치고 나누어가졌다.

약탈적인 동척금융부와 고리대금업자들, 일제의 통치를 협조하는 조선인거류민회와 같은 반동단체들도 투쟁의 과녁이 되었다. 내가 연길지방에서 추수투쟁을 지도하고 안도로 돌아온 어느 날이었다. 5.30폭동 후 일제의 수사를 피해 숨어다니던 최동화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추수투쟁이 점점 폭력적인 성격을 띠여가는데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였다.

안도지구에서 5.30폭동을 선동한 장본인이고 또 후에는 그 폭동을 좌경맹동이라고 규정한 우리의 입장에 의견을 가지고 논쟁까지 하겠다고 하던 그가 돌변하여 폭력의 유해설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성주동무! 어떻게 된 일이요? 5.30폭동을 좌경맹동이라고 비난하던 동무네가 순수한 경제투쟁에서 폭력을 끌어들이고 있으니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오?≫

최동화는 이런 질문을 하고 나서 팔짱을 지르고 내 주위를 빙글빙글 돌아갔다. 아마 정통을 찔렀다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흐뭇해하는 것 같았다.

≪선생님은 뭔가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5.30때 제창한 ≪붉은 폭력≫과 우리가 추수투쟁에서 사용하고 있는 폭력이 같다고 생각하시는게 아닙니까?≫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는 것이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것을 따져볼 사이도 없이 나는 그만 이렇게 되묻고 말았다.

≪물론 미세한 차이야 있겠지. 그러나 폭력이야 이렇든 저렇든 폭력이 아니겠소.≫

≪우리는 정당한 이유로 타당성이 있을 때에만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주가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완력으로 쌀창고를 헤쳤습니다. 군경들이 사람들을 잡아갈



선전화 ≪반동지주들의 창고를 헤쳐 곡식을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자≫

때면 실력행사로 동지들을 탈환하기 위한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 놈들이 폭력을 휘둘러 투쟁을 탄압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선정을 베풀어야 합니까?≫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야 한다는 맑스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내가 몰라서 동무네를 시비하는 게 아니요. 지금은 그렇게 1대1로 완력을 행사할 때가 아니라는 거요. 5.30폭동은 벌써 아득한 옛말로 되었소. 우리 혁명은 불행하게도 퇴조기에 들어섰소.≫

≪퇴조기라구요?≫

≪그렇소. 퇴조기요. 이보퇴각의 시기요. 쓰똘리삔반동기도 아마 지금보다는 더 암담하지 않았을 거요. 관동군이 일거에 전 만주를 강점한 것을 보지 못하오? 장학량의 30만 대군도 퇴각했소. 이런 때에 혁명역량을 노출시키지 말구 보존해야 한단 말이요. 적을 서뿔리 건드리다가는 동만땅에서 경신년의 대토벌과 같은 참사가 재연될 수 있소.≫

최동화는 추수투쟁이 폭력투쟁으로 번져가는 것을 막고 무장을 드는 것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우리의 무장투쟁구상에 대해서도 시기상조이고 사상누각이라고 하면서 반대하였다. 사실 그와의 논쟁은 힘에 부친 것이었다. 최동화란 사람이 원래 두뇌도 명석하고 공산주의의식도 높은 지식인이어서 웬만한 말은 이가 들지 않았다. 그는 말끝마다 고전의 명제를 끌어내여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논증하군 했는데 다 아귀가 맞았다. 최동화를 납득시킨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의 주장은 결곡 혁명이 퇴조기에 들어갔다는데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그는 일제의 대대적인 무장공세나 장학량군의 패주나 독립군의 와해와 같은 불리한 징후들은 보면서도 국내와 동만 인민들의 폭동적 진출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다. 내 앞에는 분명히 눈을 뜨고도 현실을 보지 못하는 청맹과니가 있었다. 반혁명의 공세와 비겁한 무리들의 패주가 곧 혁명의 퇴조기로 될 수는 없었다. 문제는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동향에 달려있었다.

최동화는 전 세대 공산주의자들이 다 그러했듯이 인민대중의 힘에 대하여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었다.

그는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보지 못하였으며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고 과소평가하였다.

나는 그때 혁명의 퇴조기를 운운하는 최동화의 모습을 통하여 전 세대 공산주의자들과 우리와의 근본 적 차이를 느끼었다. 그들과 우리와의 모든 차이는 결국 인민대중을 어떻게 보는가하는데서부터 산생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같은 이상과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우리와 그들이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하고 남남처럼 지낸 것을 바로 그 차이 때문이었다. 나는 최동화에게 말하였다.

≪역설이라고 판단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인민대중이 일제의 침략에 굴복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혁명의 고조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고조기를 놓치지 않고 추수투쟁을 끝낸 다음에는 대중을 더욱 각성시키고 조직화해서 항일투쟁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대세가 어떻게 되어가든 이 결심은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최동화는 더 말을 못하고 쓴 입을 다시며 돌아갔다.

최동화와 같은 사람들이 혁명적 폭력의 불리성을 운운하면서 우리에게 제동을 걸었지만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 주로를 조금도 이탈하지 않고 신심에 넘쳐 추수투쟁을 지휘하였다. 10여만명의 간도농민들은 1931년 9월부터 그 해말까지 일본군경들과 반동군벌의 야만적인 탄압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피어린 투쟁을 벌이었다. 이 투쟁과정에 조선민족의 영웅적 기개를 보여주는 전설적인 일화들이 수많이 창

조되었다. 개구지방 인민들이 시위도중 두만강얼음 우에서 일만군경들과 벌인 육박전에 대한 이야기는 한동안 만주지방사람들의 심혼을 흔들어놓은 화제거리가 되어 돌아갔다. 여성투사 김순희의 극적인 최후에 대한 일화도 추수, 춘황투쟁의 불길속에서 태어났다. 김순희는 약수동의 적위대원이었고 추수투쟁위원회의 위원이었다. 약수동에 나타난 토벌대놈들은 만삭이 된 그의 배를 총끝으로 쿡쿡 찌르며 배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고 물었다. 김순희는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일본수비대원들과 영사관경찰들을 쏘아보면서 ≪잘 낳으면 임금이구 못낳아도 대문전거리를 지나다니는 너 같은 것들이다≫라는 유명한 대답을 하여 적들을 놀라게 하였다. 나중에는 조직의 비밀을 고수하기 위해 자기의 혀까지 끊어버리었다. 그는 적들이 싸지른 불속에서 22살의 아까운 꽃나이를 마치었다. 추수투쟁은 농민들의 승리로 끝났다.

이 투쟁을 통하여 동만지방 인민들은 신심을 얻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투쟁의 승패가 대중자신의 불굴의 의지와 지도방법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고 추수투쟁을 승리에로 인도한 새 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을 경이적인 시선으로 쳐다보면서 그들의 주위에 굳게 결속되었다.

대중은 추수투쟁의 승리를 통하여 5.30폭동을 실패한 원인을 스스로 찾아냈으며 폭력의 량이 결코 투쟁전과를 결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확고히 믿게 되었다. 5.30폭동이 실패한 원인이 폭력을 적게 투하한 데 있지 않았던 것처럼 추수투쟁이 승리한 요인 역시 폭력이 많이 투하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모두다 잘 알게 되었다. 폭력은 결코 만능이 아니였다. 그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였다.

정의로운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정당하고 분별있는 시기적절한 폭력만이 그것을 틀어쥔 사람들에게 승리를 기약해줄 수 있다. 오직 그런 폭력만이 사회를 개조하고 역사발전을 추동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만 이런 폭력만을 지지할 뿐이다.

문제는 대중을 어떻게 동원하고 조직하며 지휘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은 하나의 모범을 창조해놓은 셈이였다. 추수투쟁은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평화적 방법과 폭력적 방법을 적절하게 배합하면서 시종일관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을 피동에 몰아넣은 독특한 투쟁이었다. 다음해 봄에 있은 춘황투쟁도 이런 투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추수투쟁을 통하여 조중인민들의 단결이 강화되고 조중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유대가 공고화되었다. 추수투쟁은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단련시키는 훌륭한 계기로 되었다. 이 투쟁대오에서 소박한 보통사람들이 투사로, 혁명가로 자라났다. 동만의 혁명조직들은 추수투쟁에서 훈련된 수많은 핵심들로써 자기의 대오를 튼튼히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핵심들이 마련된 것은 미구에 도래하게 될 무장투쟁을 위해서도 다행한 일이었다. 추수투쟁과정에서 배출된 수많은 청년혁명가들이 훗날 동만의 각 현들에 조직된 유격대의 골간으로 되었다. 나는 추수투쟁을 지도하면서 무장투쟁에 대한 구상을 계속 심화시켜나갔다. 투쟁속에서 발현되고 있던 동만인민들의 대중적 영웅주의와 불굴의 투쟁정신은 새로운 단계의 혁명노선을 모색하고 있던 나를 무한히 고무해주었으며 우리가 일단 무장을 잡고 일제와의 혈전을 벌이게 되면 대중이 반드시 우리를 지지성원해나서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추수투쟁의 불길이 온 동만땅에 번져가고 있던 1931년 10월에 나는 함경북도 종성지방에 잠깐 다녀왔다. 내가 종성에 나가게 된 것은 국내동무들을 만나 무장투쟁문제를 논의하고 육읍일대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공작원들을 소환하여 그들에게 무장투쟁과 관련된 중요한 임무를 주자는데 있었다. 나를 종성까지 안내한 것은 채수항과 오빈이었다. 종성은 채수항의 고향이었으며 거기에는 그의 처자가 있었다. 그의 선친

들은 구한국말기까지 거기서 살았다. 증조할아버지는 종성좌수의 벼슬을 지냈다. 채수항이네 일가가 조국을 떠나 화룡현 금곡땅으로 이주한 것은 ≪한일합병≫직후였다. 채수항은 간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였으나 항상 어린 시절의 꿈이 묻혀있는 고향땅을 그리워하였다. 그는 나와 함께 종성으로 건너갈 때마다 기쁨을 걷잡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기분상태가 별로 침울해 보였다. 나는 추수투쟁의 파도가 채수항의 집 낟가리도 헐어간 모양이라고 생각하면서 넌지시 물었다.

≪채동무네도 수탈의 대상이 된게 아니요?≫

채수항이네 집은 부유한 지주가정이였다.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곱지 않게 보는 덕신사 사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채수항

≪수탈은 무슨 수탈, 우리는 농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3.7제의 비율로 밭에서 지방 곡식을 나누어주었소.≫

≪현당서기네 가정이 다르긴 달라. 그런데 왜 얼굴빛이 그렇게 어둡소?≫

≪일부 사람들이 나더러 아버지를 설복하여 사장직을 그만두게 하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만.≫

채수항은 자기 아버지가 혁명조직의 위임을 받고 덕신사사장의 자리를 맡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규율이 규율이니만치 아버지는 그 내막을 아들에게 까밝힐 수 없었다. 그러니 채수항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 민망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였다. 듣고보니 채수항이 머리를 썩일만도 하였다. 그 당시 상급당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일군들 중에는 혁명의 이익에 배치되는 극단적인 요구를 마구 내리먹여 아래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좌경분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채수항에게 아버지와의 계급적 ≪계선≫을 가르지 못했다는 ≪과오≫를 뒤집어씌워 그를 현당서기의 직책에서 해임시켰다가 다시 복직시키기까지 하였다. 나는 채수항의 울적한 기분을 돌려세우려고 무장투쟁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었다. 그러자 채수항은 농조로 이제 우리 군대가 조직되면 선참으로 입대하여 기관총수로 되겠다고 하였다.

≪무관은 어울리지 않아. 채동무한테야 문관이 천분이지.≫

나도 웃으면서 농을 하였다. 그렇지만 그 농속에는 진심이 담겨있었다. 나는 그를 타고난 정치일군이라고 생각하였다. 채수항이 만일 살아남아서 혁명군에 입대하였더라면 틀림없이 연대나 사단급의 정치일군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유격대를 창건하고 무장투쟁을 한창 벌이고 있을 때 그는 대립자부근에서 일본 토벌대 놈들에게 학살되었다. 오빈은 용정동흥중학교 시절부터 체육선수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다. 그는 훈춘현 운동대회에서 씨름에 1등을 하여 황소까지 탄 일이 있는 소탈하고 쾌활하고 날파람있는 동무였다. 나는 오빈이야말로 혁명군대의 맹장이 될 수 있는 무관형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였다. 사람을 사귀면 이 사람은 혁명군대에서 어떤 직무를 담당할 수 있겠는가 하고 가늠해보는 나의 버릇은 이 무렵부터 생겼다고 할 수 있다. 항일전쟁을 목전에 둔 당시의 긴박한 정세가 나를 그러한 타산가로 만들었던 것 같다. 선견평나루에서 배를 타고 두만강을 건너간 우리는 동관진의 두량조합 콩정선장에 들리었다. 이 조합에서는 일제가 만주에서 약탈해오는 콩을 등급별로 나누어 계량하고 그것을 마대에 넣어 일본으로 실어보내는 일을 하였다. 우리는 간도에서 품을 팔러 나온 인부로 가장하고 노동자들이 일손을 도와주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간도에서 나왔다는 말을 듣고 노동자들은 추수투쟁에 대한 화제를 꺼냈다. 추수투쟁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대체로 비관적이였다. 왜놈들이 만주를 강점하기 전에도 간도에서 숱한 폭동들이 일어났다

가 실패했는데 하물며 그놈들이 만주를 침략하고 있는 때에 추수투쟁 같은 것이나 벌여가지고 무슨 승산이 있겠는가. 이 투쟁도 결국은 5.30폭동들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은 어떤 투쟁을 벌려도 소용이 없다. 보라. 일본군이 승승장구하고 있고 게다가 강대국들이 모여있는 국제기구에서도 그놈들의 편역을 드니 약소민족이 바라볼 데가 더는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그 때 노동자들이 우리에게 한말을 듣고 나는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충격을 받았는바 하나는 혁명가가 민심을 잘 알려면 항상 대중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장투쟁을 시작하려면 무엇보다도 대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조직화하는 사업을 더 다그쳐야 하겠다는 것이었으며 또 다른 하나의 충격은 그 어떤 형태의 투쟁도 대중이 그 의의를 충분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동원되기 전에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노동자들의 허무주의적이고 자포자기적인 견해를 들으면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무장투쟁을 한시라도 빨리 시작하여 우리 민족에게 재생의 희망, 독립의 희망을 안겨주어야겠다는 것을 더욱 절감하였다.


오빈

그날 우리는 광명촌청년회 회장으로 사업하고 있던 최성훈의 집에서 국내정치공작원들과 지하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열고 무장투쟁과 관련된 국내혁명조직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나는 회의참가자들에게 9.18사변 후의 급변한 정세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역사적 교훈은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벌일 것을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 있다는 것과 무장투쟁을 개시하는 것은 우리 혁명투쟁의 합법칙적인 요구이며 질적인 비약이라고 강조하고 나서 두 가지 큰 과업 즉 군사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는 과업과 함께 무장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축성해야 할 과업을 제기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조직적인 무장투쟁이라는 격동적인 사변앞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으며 무장대오의 조직을 돕기 위한 창발적인 의견들을 내놓고 열변을 토하였다.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한 혁명역량준비문제는 1931년 5월의 공수덕회의에서 이미 논의되고 확정되었다. 이런데 기초하여 광명촌회의는 무장투쟁이라는 새 사변을 앞두고 국내혁명조직들앞에 나서는 실천적 과제를 토의한 셈이었다. 이 회의는 국내 인민들과 혁명가들에게 보내는 무장투쟁의 예령이었고 사전신호였다. 회의과정에 표현된 무장투쟁에 대한 국내혁명가들의 적극적인 공명은 나에게 큰 힘을 주었다. 나는 종성에서 하루를 묵고 인차 간도로 돌아와 채수항, 오빈과 헤어졌다. 우리는 12월 중순경에 명월구에 다시 모여 무장투쟁준비사업을 총화하고 무장투쟁의 구체적인 방도와 전략전술문제를 토의하기로 하였다. 그 후의 나의 모든 일정은 명월구회의에 바쳐졌다.

회의준비라고 하면 보고서나 결정서와 같은 문건들을 먼저 염두에 둘 수 있는데 그때의 회의준비란 노선문제를 구상하고 전략전술을 규정하는 모색과정을 의미하였다. 사상을 성문화하는 것은 부차적인 공정이었다.

나는 특히 무장투쟁의 형식을 선택하기 위한 사색에 많은 시간을 바치었다. 맑스-레닌주의 이론에서도 무장투쟁의 의의를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형식으로 무장투쟁을 해야 한다는 공식규정은 없었다. 어느 시대에서 다 들어맞고 또 어떤 나라에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처방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무장투쟁의 형식을 모색하는데서고 교조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나는 무장투쟁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정세에 대처할 과업을 토론해야겠다는 결심을 내리고 동장영을 만나기 위해 동만특위로 찾아갔다. 만주땅에서 무장력을 창건하고 항일전쟁을 시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중국공산주의자들과의 협조를 무시할

수 없었다. 무장투쟁문제는 만주지방의 중국공산주의자들속에서도 일정에 오르고 있었다. 중국공산당과 중국의 노농홍군은 9,18사변 후 군중을 조직하여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며 무장으로써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자고 호소하였다. 같은 과녁을 향해 함께 총구를 겨누어야 할 조중공산주의자들앞에는 그 어떤 철퇴로써도 깨뜨릴 수 없는 튼튼한 공동전선을 맺고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지지해야 할 절박한 과제가 제기되었다.


이광

특위서기로 임명된 동장영도 일본군대의 토벌에 죽을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용정시가지에 들어와 있으면서 나를 만나려고 하였다. 밀정들이 우글거리는 용정시가지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였으므로 나는 그를 명월구로 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동만특위에서는 아직 간도실정에 어두운 동장영이 특위가 이동된 것도 모르고 그 행방을 수소문하느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밀정들에게 걸려들어 감방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 뜻밖의 소식은 나를 실망케 하였다. 만주성당 서기 나등현과 성당군사위원회 서기 양림은 9.18사변 후 심양을 떠나 행처를 감추고 있었고 양정우는 아직 감옥에 갇혀있는 몸이어서 의논할 사람이 없었다. 나는 어떤 수단을 쓰든지 동장영을 구원해야겠다는 결심을 내리고 동지들과 함께 그 방도를 의논하였다.


김일환

이런 때에 고보배라는 사람이 자기가 동장영을 구원해보겠다고 자청해나섰다. 요술가처럼 손놀림이 빠른 그는 ≪쓰리≫를 잘했다. 마주앉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주머니에 꽂혀있는 만년필도 눈깜빡할 사이면 뽑아내군 하였다. 고보배가 이런 장난을 잘하기 때문에 그가 가는 장소에서는 매번 물건이 잃어지는 소동이 일어나군 하였다. 이 사람이 용정시내에 가서 쓰리를 한번하고 우정 경찰에 잡혀들어가 감방에 있는 동장영을 만났다. 고보배가 감방에 들어가서 경찰들을 어떻게나 구슬려놓았던지 특위서기는 그 후 구류장에서 인차 풀려나왔다. 그렇게 되어 그가 명월구회의에도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1931년 12월 중순경에 명월구에서 당 및 공청간부회의를 소집하였다. 우리가 편의상 ≪겨울명월구회의≫라고 부르는 회의였다. 이 회의에는 차광수, 이광, 채수항, 김일환, 양성룡, 오빈, 오중화, 오중성, 구봉운, 김철, 김중권, 이청산, 김일룡, 김정룡, 한일광, 김해산을 비롯하여 헌신적인 투쟁을 통해서 대중의 총애와 인망을 받고 있던 40여명의 청년투사들이 참가하였다. 그 때 나는 명월구에서 영채김치라는 것을 처음으로 먹어보았다. 내가 명월구 뒤골 안에 도착한 날 저녁 이청산이네가 땅콩을 넣은 강냉이죽과 영채김치를 들여왔는데 그것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른다. 영채김치는 함경북도의 길주, 명천사람들이 잘 담근다. 지금은 이 김치가 국가연회상에도 오르고 있다. 명월구회의 때 이광이 어디서인가 꿩 다섯 마리를 잡아가지고 왔다. 회의를 하는 동안 대표들이 강낭죽에 조밥만 먹는 것이 가슴아파서 공청열성자들과 함께 꿩사냥을 한 것 같았다.


오중화

그날 저녁 이청산은 좋은 꾸미감이 생겼다고 하면서 국수를 눌렀다. 명월구골 안에 흰쌀은 귀했지만 농마가루는 있었다. 그런데 국수라면 오금을 못쓰는 차광수가 덜렁거리면서 이광에게 ≪이것보라구, 왕청아즈

바이, 꿩 다섯 마리를 가지고야 어느 코에 바르겠나.≫하고 집적거리었다. 그는 위탈이 심하여 끼니때면 밥을 먹는둥 마는둥 하면서도 청년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늘 허기증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대식가연하였다.

≪저 길림양반은 강냉죽 한 사발도 못제끼는 주제에 큰소리만 탕탕 치는군. 이보라구 차털렁이, 그 꿩 다섯 마리두 쌀짐우에 덧지고 오느라고 녹초가 됐네.≫


구봉운

이광은 웃으면서 차광수의 말에 농으로 대답하였다.

차광수는 꿩 다섯 마리면 고기가 얼마 되지 않으므로 대표들을 두 방에 가르고 한 방에서는 꿩고기를 놓은 국수를 먹게 하고 다른 한방에서는 닭고기를 놓은 국수를 먹게 하자고 열이 나서 떠들었다.

그러나 대표들은 모두 그의 제의를 반대하였다. 우리는 그날저녁 꿩고기와 닭고기를 한데 섞어서 꾸미를 만들게 하고 한방에 다같이 모여 앉아 사이좋게 국수를 먹었다. 식성이 좋은 박훈은 세 그릇이나 곱배기를 하여 ≪국수대감≫이라는 별명을 벌었다. 회의를 실속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본회의에서 앞서 이청산의 집에서 예비회의를 하였다. 그 모임에서는 회의안건과 회의참가자, 회의순서문제 등이 토론되었다. 예비회의를 끝낸 다음 10일동안 집행된 본회의에서는 무장투쟁을 하되 어떤 형식의 무장투쟁을 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낙착되어야 무장조직의 형식과 근거지의 형태 문제 같은 이여의 문제점들이 동시에 결정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가가 없으니 정규군에 의한 항쟁은 바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여 당장 전민이 동원되어 무장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도 성숙되지 못하였다. 이런 형편에서 나의 마음은 자연히 유격전으로 끌리지 않을 수 없었다. 레닌은 유격전을 대중운동이 이미 실지로 폭동에 이르렀을 때나 또는 국내전쟁에서 대전투와 대전투 사이에 얼마간 중간기가 닥쳐오고 있을 때 불가피적으로 나타나는 보조적인 투쟁형태로 규정하였다. 레닌이 유격전을 기본전투형태로 보지 않고 일시적이며 보조적인 투쟁형태로 본 데 대하여 나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 흥미를 가지고 탐구에 탐구를 거듭한 것은 정규전이 아니라 유격전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상비적인 혁명무력에 의한 유격전을 우리가 수행해야 할 무장투쟁의 기본형식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투쟁형태가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하겠는가 적합치 않겠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많은 생각을 하여보았다. 그 과정에 손자병법도 보고 삼국지도 다시 보았다. 우리 나라 병서들 가운데서는 동국병감이나 병학지남과 같은 것을 보았다.


김중권

유격전의 시원이 기원 400년대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유격전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서는 알 도리가 없었다.

맑스와 엥겔스가 제일 흥미를 가지고 연구한 유격전은 1812년 러불전쟁시기의 러시아농민무장부대의 활동이었다. 러불전쟁이 낳은 빨치산영웅 제니쓰 다위도브, 정규부대와 빨치산의 연합작전을 능숙하게 지휘한 꾸뚜조브장군의 이야기는 유격전에로 끌리는 나의 호기심을 더욱 부채질해주었다. 유격전을 기본형식으로 규정하는데 있어서 임진조국전쟁은


김정룡

나에게 많은 것은 시사해주었다. 나는 임진조국전쟁을 승리로 장식한 의병들의 투쟁을 유격전의 역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하나의 모범이라고 간주하였다. 곽재우, 신돌석, 김응서, 정문부, 서산대사 그리고 최익현, 유인석 등 의병출신 명장들이 발휘한 용감성과 다양한 전투방법은 나를 완전히 매혹시키었다. 유격전이라는 말은 발톱까지 무장한 일본제국주의자들과의 대전을 눈앞에 둔 나의 심혼을 온통 틀어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국가적 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이 있어야만 유격전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야단이였다. 맑스-레닌주의 고전가들이 명시해놓은 이런 부대조건은 나로 하여금 무장투쟁형태를 선택하는데서 복잡한 탐구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후방으로 될 국가도 없고 정규군도 없는 조선의 실정에서도 유격전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미지수로 남아있었다. 이것이 우리들사이에서는 심각한 논쟁거리로 되었다. 우리 주변에서는 혁명을 추동하는 극적인 사변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장개석과 장학량의 투항주의에 불만을 품은 구동북군의 애국적인 장병들속에서 병변이 연이어 일어났다. 왕덕림도 당취오도 이두도 장학량을 따라가지 않고 모두 반변하여 구동북군에서 떨어져나왔다. 마점산과 같은 장군도 병변을 일으킨 다음 무장을 들고 항일을 부르짖고 있었다. 이런 인물들을 주축으로 하여 만주각지에서 반일부대들이 조직되고 구국군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런 사태는 무장투쟁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을 지어주었다. 나는 무장투쟁형태가운데는 역사적으로 정규전과 유격전이 있었는데 정규전은 주도적인 것이였으며 유격전은 보조적인 것이였다는 것, 우리는 이 두 가지 형태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택하여야 하는데 나 개인의 견해의 견해로 볼 때에는 유격전이 우리 나라 실정에 더 적합할 것 같다는 것, 정규전이 불가능한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는 기존관례에 구애됨이 없이 유격전이 주도적인 투쟁형태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변화무쌍한 유격전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본무장 투쟁형식이다. 국가가 없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정규전으로 일제와 대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군사기술적으로나 양적으로 열등한 무력으로 강대한 일제침략군과 맞서싸워야 하는 것만큼 변화무쌍한 유격전을 해야 한다. 이외에 다른 출로란 있을 수 없다.≫

장학량의 군벌군대나 독립군이나 일본군대밖에 보지 못한 청년들한테는 유격대에 대한 표상이 전혀 없었다. 나는 정규군과 유격대의 차이를 설명하여 주고 강대한 일본침략군과 싸워이기자면 소부대와 대부대의 영활한 배합작전, 기습전, 매복전, 정치활동, 정치공작, 생산활동 등 군사, 정치, 경제 활동을 다 벌려야 하며 그러자면 자유자재로 분산과 집중을 거듭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유격대를 조직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몇몇 동무들이 나의 말을 듣고 나서 그런 형식의 무장투쟁으로 적을 타승할 수 있겠는가. 탱크와 대포, 비행기와 같은 현대적인 정예무기로 장비된 수백만대군을 국가적 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그것도 남의 나라 영토에서 유격대와 같은 비정규적인 무력으로 이겨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표시하였다. 그들이 그런 의문을 표시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내 자신도 사실 그런 가능성 여부를 여러 번 저울질해보았다.

우리가 몇 자루의 총을 가지고 일본과 같은 군사강국에 감히 대항해나선다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의병도 독립군도 장학량의 30만대군도 모두 일본군대의 위력앞에서 풍전등화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그들을 타승하려고 하는가. 우리에게 국권이 있는가. 영토가 있는가. 재부가 있는가?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국권도 영토도 자원도 다 빼앗긴 망국노의 아들들이다. 지금은 남의 나

라 땅에 결방살이를 하는 적수공권의 청년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주저없이 도전해나섰다. 무엇을 믿고? 인민을 믿고 항일전쟁을 시작하려고 결심하였다. 인민이 국가이고 인민이 후방이고 인민이 정규군이다. 싸움이 시작되면 전민이 병사가 되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벌이게 될 유격전은 인민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장시간의 논쟁을 거쳐 유격전을 기본으로 하여 무장투쟁을 조직할 데 대한 문제에서 완전한 의견합치를 보았다.

유격전은 자체의 역량을 보존하면서도 적에게 커다란 정치군사적 타격을 줄 수 있고 적은 역량을 가지고도 능히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을 소멸할 수 있는 무장투쟁방법이다. 우리는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성원과 유리한 자연지리적 조건에 의거하면서 유격전의 방법으로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한다면 종국적으로 적을 타승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남들이 다 유격전을 정규전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본적인 투쟁형식으로 확정하고 방침으로 채택한 것은 우리의 실정에 부합되는 과학적이면서도 창조적인 결단이었다. 유격전을 기본으로 하여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벌일 데 대한 회의가 끝나자 우리는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방도를 협의하였다. 먼저 혁명무력건설문제가 상정되었다. 우리는 그 때 처음에는 지방마다 소규모의 유격대를 조직하고 그를 무장시키기 위한 투쟁을 하가면서 점차 그것을 대부대의 혁명무력으로 발전시키되 첫단계에서는 대대를 건설하였다가 그것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인민혁명군으로까지 발전시키자고 토의하였다. 뒤이어 무장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도 토론되었다.

유격대 조직에 관한 논의는 근거지에 대한 화제에 자리를 내주었다. 반일유격대가 조직되면 활동기지를 어디에다 두겠는가. 산에 두겠는가. 도시에 두겠는가. 농촌부락에 두겠는가 그리고 조선도 만주도 일제의 강점하에 있는 형편에서 유격전의 기지를 국내에 두겠는가. 만주에 두겠는가 하는 문제를 설정하고 의견들을 진지하게 교환하였다. 어떤 군대에나 지탱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소학생도 알 수 있는 간단한 상식이다. 우리 무장력이 국가적 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싸우는 것만큼 전투가 끝난 다음 안전하게 휴식하면서 대열도 정비하고 무기와 탄약도 보충하고 군사훈련도 하고 부상자도 치료할 수 있는 근거지가 있어야 유격전쟁을 장기간에 걸쳐 끈기있게 해나갈 수 있었다. 때문에 우리는 유격대를 조직하는 동시에 자체의 힘으로 근거지도 꾸려야 하였다,.

우리는 활발한 논의 끝에 군중토대가 좋고 물질적 보장조건도 괜찮으며 지형이 유리한 간도의 산간지대들에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넓은 면적을 가진 만주대륙은 조선보다 적들의 통치밀도가 희박한 것만큼 간도에 먼저 기지를 정하고 때가 오면 국내에도 나가 백두산 대수림지대와 낭림산줄기를 타고 앉자고 하였다.

근거지는 적들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해방지구형태가 기본으로 되어야 하며 국내작전을 하는데서나 조국인민들의 지원을 받는데서 다같이 편리한 두만강연안의 산간지대들에 반드시 꾸려야 하였다. 두만강연안에는 물질적 보장조건이 좋고 적들이 공격하기에는 불리하나 우리가 방어하기에는 유리한 지형이 산간마을들이 적지 않았다.

근거지로 꾸릴 구체적인 대상지들을 선정하기 시작하자 이광, 오빈, 김일환을 비롯한 여러 동지들이 앞을 다투어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놓았다. 그들의 제의에 따라 어랑촌, 우복동, 왕우구, 해란구, 석인구, 삼도만, 소왕청, 가야허, 요영구, 대황구, 영통라자와 같은 천험의 요새들에 근거지를 꾸리기로 하였다. 그 지역들에는 추수

폭동 후 일제의 토벌을 피하여 들어온 혁명군중들이 집결되어 있었으며 이미 적위대까지 조직되어 혁명조직들과 인민들을 지키고 있었다.

논의가 심화되고 구체화될수록 근거지를 장기간 운영하고 유지하는 문제 즉, 농업생산과 경제운영은 어떻게 하며 무기수리소와 병원은 어떻게 꾸리며 주민행정사업은 누가 맡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복잡한 실무적 문제들이 끝없이 제기되었다.

우리는 본회의에서 무장투쟁을 위한 대중적 지반을 축성하는 문제와 조중인민의 반일공동전선을 형성할 데 대한 문제, 당조직사업과 공청사업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도 토의하였다. 이 모든 것은 유격전을 기본으로 하는 무장투쟁을 벌이는데서 반드시 해결을 요하는 중요한 문제들이였다.

회의에서는 이 모든 문제가 방침으로 정식화되었다. 그것은 참으로 거대하고도 심원한 창조적 사업이였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유격전사를 들추어보아도 우리나라 혁명실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표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자기 머리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근거지를 꾸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은 국가적 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이 없는 역사상 유례없이 간고한 조건에서 유격전을 벌이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리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피할 길 없는 숙명적인 과제였다. 이 과제해결에서 만일 우리가 정규군의 지원을 전제로 하여 그와의 배합으로 유격전을 벌인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교조적으로 모방하였더라면 만회할 수 없는 엄중한 실패를 당하였을 것이다. 어느 해인가 라틴아메리카 항쟁운동자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 유격전쟁의 경험을 들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나는 항일전쟁시기의 경험을 몇 가지 들려주고 나서 유격전에는 만능의 공식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의 창조적인 지혜가 가장 높이 발휘되어야 하는 거창한 창조적 투쟁이다, 우리의 경험이 당신들에게 일정한 도움으로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절대화하고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나라마다 실정이 다른 것만큼 당신들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투쟁방법과 형식을 창조하고 활용해보라. 거기에 바로 승리의 비결이 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그 항쟁운동지도자는 내 말을 듣고 한참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자기네 나라에는 산악지대가 많은데 지금까지 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유격전에 치우쳐왔다. 그래서인지 성과는 적고 손실이 많았다. 앞으로는 실정에 맞게 산을 끼고 농촌유격전을 기본으로 항쟁운동을 해나가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본회의를 끝내고 활동지역들에 돌아가면 곧 유격대조직에 착수하기로 하고 토의를 끝내였다. 일제침략자들의 유혈적인 탄압과 토벌에 혈육들을 잃고 동지들을 잃을 때마다 가슴을 치며 그렇게도 갈구하던 우리 군대, 우리 무장력의 탄생을 가까운 내일의 일로 바라보게 된 청년들은 일제히 일어나 ≪혁명가≫와 ≪인터내셔날≫노래를 부르며 그 장중하고 우렁찬 선율로 사랑하는 조국과 혁명앞에 드리는 선서를 하였다. 명월구회의에는 동장영을 비롯한 중국공산주의자들도 여러 명 참가하였다. 그들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주민들이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는 동만의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이 일대에서의 조중인민의 친선과 조중공산주의자들의 합작을 처음부터 매우 중시한 선견지명이 있는 혁명가들이였다.

동장영은 동만에서 오래동안 투쟁해왔고 경험도 많이 축적인 조선동지들이 중요한 발언을 하여달라고 거듭 요청하였다. 나는 회의에서 거론된 문제들을 골자로 하여 무장대오 조직과 무장투쟁에 대한 우리의 구상을 두고 중국말과 조선말을 엇바꾸어가며 선동적인 연설을 하였다.

중국동지들도 그 구상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유격전쟁의 형식문제, 유격대조직문제, 유격근거지 문제를 비롯하여 어느 문제에서나 그들은 우리와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때로부터 공동의 원쑤 일제를 반대하는 조중인민의 무장투쟁은 대륙을 진감시켰고 위대한 조중친선의 전통은 혈전속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1931년 겨울명월구회의는 항일무장투쟁의 시초를 열어놓은 회의이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역사적인 회의였다.

카륜회의에서 제시되였던 무장투쟁노선은 이 회의를 통하여 심화발전되였다. 카륜에서 반일민족해방운동을 그 최고단계인 무장투쟁에로 이행시키려는 조선민족의 의지가 확인되였다면 명월구에서는 그 의지가 거듭 확인되고 ≪무장에는 무장에로, 반혁명적 폭력에는 혁명적 폭력으로!≫라는 구호밑에 일제를 격멸하기 위한 항일전쟁이 정식으로 선포되였다. 바로 이 회의에서 유격전의 방향을 규정해주는 전략과 전술적 원칙의 골자가 마련되였으며 그것을 기초로 하여 비상히 풍부하고 변화무쌍한 무장투쟁의 전법들이 창조되였다.



선전화 - ≪조중인민은 단결하여 일제를 타도하자!≫

명월구회의가 끝난 다음 나는 백바위밑에서 동장영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대련감옥에 갇혀있는 김리갑과 방직공장에 적을 두고 공청사업을 하면서 그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전경숙에 대한 이야기를 동장영한테서 들은 것이 그때였다고 생각된다.

동장영은 주민구성 뿐 아니라 동만당조직들의 당원구성을 분석해보아도 그 대다수가 조선동지들이라고 하면서 나더러 그들을 대표하여 자기 사업을 잘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동만에서 혁명투쟁의 주력군은 조선사람들입니다. 조선족 주민들에 의거해야 유격전쟁을 승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이간질을 해도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적 편견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위는 앞으로 조선동지들과의 사업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려고 하는데 많은 방조를 바랍니다. 나는 **김일성**동지를 믿겠습니다.≫

나는 그의 당부를 뜨겁게 받아들이였다.

≪두 민족간의 단결에 대해서는 우리도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으니 마음을 놓으십시오. 조중인민들 사이에 생긴 일시적인 불신은 유격전쟁의 총성이 다 제거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웃으면서 서로 굳게 손을 틀어잡았다.

그 후 나와 동장영은 이날을 자주 회상하였다.

주은래총리는 내가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연회연설이나 회담들에서 1930년대초 항일유격대의 창건과 일제를 반대하는 조중무장력의 공동투쟁을 통하여 조중친선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다고 하면서 그 친선의 뿌리깊은 전통에 대하여 감동적인 말을 많이 하였다.

그때마다 나는 조중친선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던 명월구의 회의장을 생각했고 우리와 함께 포연탄우 속을 헤쳐온 위증민, 동장영, 진한장, 왕덕태, 장울화, 양정우, 주보중, 호진민을 비롯한 중국의 친근한 공산주의자들을 목메이게 기억하군하였다. 친선의 정도 인간감정인 것만큼 구체적인 인간관계를 통하여 맺어져야 공고한 것으로 되며 또 그렇게 맺어진 정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식을 줄 모르는 것 같다.

4. 혈전의 준비

명월구회의에서는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할 데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이 사업에서 선구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첫시작은 **김일성**이 떼라. 무슨 일이나 표본이 있고 시범이 있는 법이 아니냐.≫

동무들은 이런 말로 나와의 작별인사를 대신하였다.

나는 회의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다 떠날 때까지 명월구에 남아있다가 동장영과 헤어져 안도에 갔다. 유격전을 하자면 어느모로 보나 안도와 같은 고장이 좋았다.

12월 명월구회의에서도 논의된 바이지만 우리는 무장대를 조직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는 9.18사변 후 만주각지에서 조직된 중국의 반일무장력인 구국군과의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조직의 기본역량을 안도와 왕청에 두기로 하였다. 안도와 왕청은 구국군의 집결중심지였다.

홍룡촌에 돌아온 나는 가족들과 함께 마춘옥이네 집에 얼마간 가 있다가 소사하 토기점골 갈말부락으로 이사하여 반일인민유격대 창건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소사하는 조직화된 부락이어서 홍룡촌보다 주변환경을 대단히 좋았다. 지하조직이 든든하게 들어박힌 이 마을에는 밀정들이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였다. 주구들이 쏠라닥거리지 않으니 군경들도 소사하에는 별로 ≪토벌≫을 오지 않았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처음부터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난관에 부닥치였다. 사람문제, 무기문제, 식량문제, 군중적 토대문제, 구국군의 관계문제를 비롯하여 군사정치적으로 많은 난문제들이 제기되어 해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장대오를 꾸리는데서 사람과 무기를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필수적 요소로 보았다. 물론 우리한테는 이 두 가지가 다 부족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군사정치적으로 준비된 인간을 말한다. 우리한테는 정치를 알고 군사를 아는 사람,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장기간 무장을 들고 싸울 준비가 되어있는 그런 청년들이 필요하였다.

우리는 한 해 반 사이에 조선혁명군의 골간들을 거의 다 잃어버렸다. 김혁, 김형권, 최효일, 공영, 이제우, 박차석과 같은 혁명군의 주력이 한해 사이에 모두 전사하거나 감옥행을 한데다가 1931년 1월에는 중대장으로 활약하던 이종락이마저 조선혁명군과 관련된 소책자를 가지고 무기공작을 하러 가다가 김광열, 장소봉, 박병화와 함께 일본영사관 경찰에 체포되었다. 군사물계에 밝은 김리갑도 감옥에 끌려갔고 백신한은 전사하였다. 최창걸과 김원우는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조차 알길이 없었다.

혁명군의 나머지 역량가운데 군사경험이 있다는 대원들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였는데 얼마안되는 그 대원들마저도 군중정치공작에 돌리다보니 무장대오에 망라시킬 수 없었다. 내가 안도에서 유격대를 내오느라고 바쁘게 뛰어다날 때 내곁에 있는 조선혁명군 출신의 청년은 차광수 한 사람 뿐이었다.

국가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 동원령이나 의무병역제와 같은 법으로 필

요한 군사인원들을 손쉽게 충당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집할 수 없었다. 법적 장치나 물리적 힘으로써는 대중을 혁명에 동원시키지 못한다. 한 때 상해임시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납세와 병역징발에 응할 의무를 지닌다는 조문을 헌법에 박아넣었지만 국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남의 나라 조계지 한 구석에 앉아 국권을 행사하는 망명정부의 법이나 지령이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이다.

식민지 민족해방혁명에서는 동원령이나 의무병역제 같은 법적 수단으로 사람들에게 총을 메울 수 없다. 이 혁명에서는 혁명을 영도하는 수령과 선각자들의 호소가 법을 대신하며 매개 사람들의 정치도덕적 자각과 전투적 열정이 참군을 결정하게 된다. 대중은 그 누구의 요구나 지령이 없어도 자기 자신의 해방을 위하여 스스로 총을 멘다. 이것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있는 인민대중의 본성적 행위이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신데 대한 자료

우리는 이런 원리에 기초하여 안도와 그 주변에서 유격대에 망라시킬 대상들을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적위대, 소년선봉대, 노동자규찰대, 지방돌격대와 같은 반군사조직들에는 참군을 요구하는 끌끌한 청년들이 많았다. 추수, 춘황 투쟁의 폭풍속에서 반군사조직들은 급속히 확대되고 그 폭풍의 한복판에서 청년들도 몰라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대중이 참군을 요청한다고 하여 그 준비정도도 고려해 보지 않고 아무 사람이나 망탕 유격대에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동만의 청장년들은 아직 군사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유격대의 인적 원천을 확보하자면 적위대와 소년선봉대를 비롯한 반군사조직들에서 청년들에 대한 정치군사훈련을 강화해야 하였다.

그런데 내 곁에는 교련을 맡아볼 수 있는 인재가 한 명도 없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안도지구의 청년들을 모조리 군사화할 수 없었다. 내 자신도 화성의숙의 물을 좀 먹었다고는 하지만 새 형의 군대, 유격대를 움직이기 위한 군사실천면에서는 백지상태나 다름없었다. 책상물림인 차광수는 나보다도 군사를 더 몰랐다. 이종락이 마저 감옥에 잡혀가니 이제는 기대를 가지고 쳐다볼 인물도 없게 되었다. 이종락과 같은 사람만 있으면 그에게 군사를 일임하고 나는 정치사업에 전적으로 시간을 바칠 수 있으련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안타깝기만 하였다.

어려운 고비에 처할 때마다 나는 이상하게도 매번 동지의 부족을 느끼곤 하였다.

우리가 고충을 겪고 있을 때 박훈이라고 부르는 황포군관학교 출신의 유망한 인물이 우리를 찾아왔다. 황포군관학교의 교장은 장개석이가 하였고 정치부주임은 주은래가 하였다 그 학교에 조선청년들이 많았다. 중국사람들이 광주폭동을 ≪3일 쏘비에트≫라고도 하는데, 이 폭동에서 주동적 역할을 담당한 것이 바로 황포군관학교 학생들이었다.

박훈과 안봉은 광주폭동에 참가하였다가 폭동이 실패하자 관내에서 도망쳐나와 만주로 탈출해 온 사람들이었다. 박훈은 체격도 건장하고 언행이나 몸가짐도 무인답게 활달하였다 그는 조선말보다 중국말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조선옷보다 중국옷을 더 자주 입고 다니었다. 이 사람이 바로 나의 ≪군사고문≫이었다.

장개석이 혁명을 배반(4월12일사변)한 것으로 하여 국공합작이 파괴되고 제1차 국내전쟁혁명이 실패로 막을 내린 후 남방지방으로 양림, 최용건, 오성륜(전광), 장지락, 박훈을 비롯하여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혁명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장개석의 테러를 피해 만주지방으로 많이 들어왔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그 때 황포군관학교라는 교명을 듣고 박훈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박훈은 전투장에서 권총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쏘는 특기를 가지고 있었다. 사격솜씨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는 총을 정말 ≪귀신≫같이 쏘았다.


선전화
≪무기탈취≫

그가 가지고 있는 특기는 구령을 잘 치는 것이었다. 박훈은 만명이나 이만명쯤 되는 대열도 마이크가 없이 육성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희한한 목소리를 가진 교관이었다. 그가 토기점골등판에서 소리를 한마디 지르면 온 동네가 다 들었다.

안도의 청년들은 모두 그 구령소리에 반해서 박훈을 황홀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소리가 저쯤되면 동경판에 앉아있는 일본천황도 듣겠구만. 어디서 저런 복덩이가 굴러들었을까!≫

적위대원들의 교련을 지도하는 박훈의 모습을 보고 차광수는 이렇게 탄복하였다. 박훈에게 제일 반해서 돌아간 것이 바로 차광수였다. 두 사람은 이론투쟁을 많이 하면서도 매우 친근하게 지냈다.

박훈이 안도에서 훈련을 잘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한 부대는 훗날 왕청에 가서도 ≪대학생부대≫라는 평판을 들었다. 우리 부대의 유격대원들은 항일전쟁의 전행정에서 언제나 질서가 있고 규율이 째이고 언행이 점잖고 옷차림이 단정한 사람들로 존경을 받았다. 양정우도 늘 우리 혁명군의 절도있고 생기발랄하고 문화적인 면모에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때마다 나는 박훈을 생각했고 토기점골등판에서 울리던 그의 구령소리를 생각하였다.

교관으로서의 그의 자질 가운데서 다음으로 이채를 띠는 것은 훈련생들에 대한 엄격한 요구성이었다. 그 비상한 요구성 때문에 훈련생들이 빠른 속도로 군사지식을 터득해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박훈은 이따금씩 대원들에게 체벌을 적용하곤 하였다. 제식동작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거나 규율을 어기는 훈련생들이 있으면 눈알을 굴리며 욕설을 퍼붓든가, 발길질을 하던가, 벌을 세우든가 하였다. 혁명군대내에서 체벌을 금물이라고 아무리 말해주어도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날 나는 훈련 끝에 목이 쉬어서 쇡쇡하는 박훈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물었다.

≪박훈동무한테서는 어쩐지 군벌냄새가 나는구만. 어디서 그런 군벌기를 배웠소?≫

박훈은 군벌냄새라는 말에 웃음을 지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우리를 가르쳐준 교관이 아주 엄하고 독한 사람이었소. 그 독일인이 나에게 그걸 유산으로 넘겨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소. 똑똑한 군인이 되자면 어쨌든 채찍 맛을

많이 봐야지.≫

독일식군사교육의 흔적은 박훈에게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그의 이론강의 중에서 제일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이 바로 프러시아군대에 대한 이야기였다. 박훈은 영국병사의 용감성과 프랑스병사의 신속성, 독일병사의 정확성과 러시아병사의 완강성에 대해 많은 말을 하였는데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훈련생들에게 그 모든 자질을 다 소유한 만능의 군대가 되자고 호소하였다. 그가 집행하는 훈련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던 유격전의 특성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나폴레옹식 종대대형과 영국식 일선형서열이 무엇인가를 납득시키고 스무 명이 되나마나한 훈련생들로써 그런 대형을 지어보려고 무진 애를 썼다.

교련을 참관하던 나는 휴식시간이 되자 박훈에게 조용히 말했다.

≪박훈동무, 동무가 방금 집행한 그 영국식 일선형 서열훈련은 간단히 설명으로 굼때고 생략해버리는게 어떻소? 우리가 여기서 워털루격전과 같은 전쟁을 한다면 몰라도 산악을 끼고 대포와 기관총으로 무장한 적과 당장 유격전쟁을 해야 할 판인데 그런 구시대의 병법을 배운다고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하는 거요.≫

≪전쟁을 하자면 어쨌던 그런 정도의 군사지식을 알아둬야 하지 않을가.≫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낸 일반적인 군사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장 써먹을 것부터 선택해서 배워주어야 하오. 무관학교에서 배운 것을 통채로 소화시킬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소.≫

그날 박훈에게 내가 한 말은 훈련에서 교조주의를 경계하라고 한 말이었다.

박훈에게 적위대원을 여라문명 맡기면서 사격훈련을 시키라고 했더니 하루종일 평지에다 말뚝을 세워놓고 적이 나타나면 중심하부를 쏘라는 소리만 되풀이하였다.

나는 박훈에게 보고훈련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밀어던지고 유격전쟁에 필요한 것부터 먼저 배워주어야겠다. 특히 산악전이 요구하는 훈련을 선행시켜야겠다. 우리한테 맞지 않는 것은 대담하게 뜯어고치고 교본에 없는 병법은 우리끼리 지혜를 합쳐서 하나하나 만들어내자고 하였다.

박훈은 내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였다.

그 후부터 우리는 유격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기본으로 하여 훈련을 진행하였다. 초보적인 제식동작이나 무기조작법은 말할 것도 없고 위장법, 신호법, 창사용법, 적정탐지법, 산길을 타는 법, 곤봉을 다루는 법, 무기를 탈취하는 법, 야간전투시에 적아를 식별하는 법 등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군사지식부터 배워주었다. 박훈은 처음에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저것 배워주다가 나중에는 과정안을 짜가지고 계획적으로 훈련을 시키었다. 박훈은 훗날 이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자기가 황포군관학교에서 배운 군사는 모두 세계 5개 군사강국에 속하는 나라들의 것이었다. 그것은 동서고금의 병법을 집대성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군사지식이었다. 나는 현대 중국의 군사교육의 전당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유명한 황포군관학교에서 이런 지식을 배운데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으며 동만에 와서 그것을 보급하게 되면 모두가 나에게 박수갈채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오산이었다. 나는 박수갈채가 아니라 냉담한 반응에 부닥쳤다. 청년들은 나의 강의를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상식으로만 받아들이었지 사활적인 것,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지난 몇 해 동안 내가 섭취한 군사가 비록 세계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유격전을 위해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반편짜리 지식임을 통간하고는 그것을 무슨 만능의 법전처럼 절대시한 자기자신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었으며 유격전이 요구하는 군사론을 새롭게 창조해야 할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다. 나는 그때부터 교조에서 벗어나 조선혁명에 적응한 우리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안도

지구의 훈련도감들 가운데서 박훈 다음으로 이채를 띤 인물은 김일룡이였다. 그는 박훈과 같이 현대전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었으나 독립군에서 싸울 때 터득한 실전경험을 가지고 대원들을 꾸준히 훈련시키였다. 적위대와 소년선봉대, 소년탐험대를 비롯한 반군사조직들의 훈련을 강화하고 대열을 확대하는 과정을 통하여 정치군사적으로 준비된 견실한 청년들이 우리의 주위에 수십 명 집결되였다. 우리는 두만강연안의 여러 현들에 나가서 사업하던 동지들과 추수, 춘황투쟁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청년들을 선발하여 안도로 모이게 하였다. 안도, 돈화를 비롯한 동만각지에서 많은 청년들이 우리한테로 찾아왔다. 우리는 그런 청년들 가운데서 차광수, 김일룡, 박훈, 김철(김철희), 이영배를 비롯한 18명의 핵심을 골라 그들로써 먼저 유격대소조를 조직하였다. 이와 함께 연길, 왕청, 화룡, 훈춘 지방에서도 같은 형태의 무장대오를 꾸리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현마다 10-20명 안팎의 인원으로 되는 무장대들이 꼬리를 물고 태어나게 되었다. 적은 인원으로 무장대를 꾸려가지고 대열을 늘이다가 일단 조건이 성숙되면 매개 현별로 대규모의 무장대오를 꾸리자는 것이 명월구회의에서 토의결정된 방침이였다.


아버지가 물려준 권총

유격대소조를 내오는 과정은 무장을 해결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을 동반하였다.

곤란하다 곤란하다 하여도 무기를 해결하는 일처럼 그렇게 큰 난관은 없었다.

일제침략군은 본토의 군수산업이 계열식으로 생산해내는 현대적인 무기와 장비들로 육해공군의 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무기를 대줄 국가적 후방도 없었고 총도 한 자루 사올 돈도 없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포도 아니였고 탱크도 아니였다. 당장은 보총이나 권총, 수류탄과 같은 경무기만 있으면 되였다. 국내에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으면 노동계급의 힘을 빌어서라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우리 나라에는 그런 공장이 없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자신을 무장하는데서 자기 나라 공업의 덕을 하나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 ≪적의 무기를 빼앗아 자체를 무장하자!≫는 비장한 구호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안도에 돌아오자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맡겼던 두 자루의 권총을 땅속에서 파냈다. 그 두 자루를 쳐들고 동무들에게 말했다.

≪자,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유산이다. 아버지는 의병도 아니고 독립군도 아니였지만 세상을 떠나시는 날까지 이 총을 가지고 있었다. 왜? 무장투쟁이야말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수 있는 최고의 투쟁형태라고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총적인 지향은 무장투쟁을 하자는 것이였다. 나는 이 두 자루의 권총을 물려받을 때 아버지가 지향했던 것을 내가 대신하여 실현시키고야 말리라는 결심을 굳게 다지였다. 이제는 때가 되였다. 이 두자를 밑천으로 삼아 독립행군을 시작해보자. 지금은 이 두 자루가 전부이지만 이것이 새끼를 치고 또 쳐서 200자루, 2000자루, 20000자루로 될 날을 생각해보라. 총 2000자루만 있으면 능히 나라를 해방할 수 있다. 밑천이 있으니 이것을 자꾸 굴려 2000자루가 20000자루가 되게 하자!≫

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나도 일찍이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 생각에 목이 메여 더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무기를 얻는 문제가 일정에 오르자 박훈은 나에게 소문을 들으니 무송에서 어떤 부자집 자식이 당신네한테 총 수십 자루를 희사한 일이 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였는가고 물었다. 그가 말하는 무송의 부잣집 자식이란

장울화를 말한다. 우리가 오가자에서 활동할 대 그는 자기 집 가병들의 총 40자루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우리는 그때 그 총을 조선혁명군 대원들에게 모조리 나누어주었다. 박훈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몹시 아쉬워하면서 출로는 돈에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가 꾸려놓은 혁명촌들을 돌아다니며 농민들에게 호소하여 돈을 모아보자고 제기하였다. 우리는 그의 제의를 따르지 않았다. 부자들에게 호소하여 자금을 뽑아낸다면 몰라도 가난한 노동자, 농민의 주머니를 털어 무기를 산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목숨을 내대고 총을 탈취하는 것보다 돈을 모으는 일이 훨씬 쉬울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을 택하였다. 나는 돈을 주고 총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인정하였지만 그것을 그닥 장려하지는 않았다. 농민들에게 돈을 내라고 손을 내미는 것은 독립군의 식이었지 우리 식이 아니었다. 설사 돈을 모았대야 그것은 큰 밑천으로 될 수도 없었다. 언제인가 최현동무는 산림터에 가서 기관총 한 자루를 1500원에 사온 일이 있다. 소 한 짝에 50원씩 하던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셈하면 소 30마리정도 팔아야 기관총 한 자루를 살 수 있다는 답이 나온다. 우리는 이 숫자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토론을 거듭하던 끝에 내도산쪽에 가서 독립군들이 묻어놓은 총을 몇 자루 파왔다. 다른 현들에서도 독립군들이 사용하던 무기를 경쟁적으로 회수하였다. 홍범도 휘하의 독립군은 청산리전투 후 많은 양의 총과 탄알을 대감자 일대에 묻어버리고 쏘만국경으로 퇴각하였다. 밀정을 통하여 이 사실을 내탐한 일본수비대가 자동차 수십 대를 가지고 와서 그 총과 탄알들을 무데기로 실어갔다. 명월구회의가 있은 다음 왕청동무들은 대감자에 사람들을 파견하여 일본수비대원들이 파헤치고 갔던 자리에서 근 5만발의 탄알을 회수하였다. 수중에 몇 자루의 총이 생기자 우리는 그것을 밑천으로 하여 적의 무장을 탈취하기 위한 직접적인 전투행동에로 넘어갔다.


반일인민유격대 무기류

첫 공격목표로 쌍변준이라는 지주의 집이 선정되었다. 그의 수하에는 40명 가량되는 보위단이 있었다. 단장은 훗날 ≪신선대≫대장으로 악명을 떨치다가 최현동무네 부대에 녹아난 이도선이라는 자였다. 보위단병실은 지주집 토성 안에도 있고 토성 밖에도 있었다. 우리는 사전정찰을 진행한 데 기초하여 유격대소조성원들과 적위대원들로 습격조를 편성하고 소사하 본 부락에 있는 쌍병준이네 집을 불의에 기습하여 10여 자루의 총을 탈취하였다. 무장을 탈취하기 위한 투쟁은 두만강연안의 모든 곳에서 군중적 운동으로 힘차게 벌어졌다. 혁명군중은 ≪무기는 우리의 생명이다. 무장에는 무장에로!≫라는 구호를 들고 유격대소조성원들과 적위대원들, 소년선봉대원들, 지방돌격대원들을 선두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떨쳐일어나 일제침략군대와 일만경찰들, 친일지주들과 반동관료배들의 무기를 빼앗은 투쟁을 결사적으로 벌이었다.

≪요창부요밍!≫이란 그때에 나온 말이다. 이것을 조선말로 번역하면 총만 필요하고 목숨은 필요없다는 뜻이 된다. 세관이나 보위단이나 공안국이나 지주집같은 데 가서 총을 내들고 ≪요창부요밍!≫하고 소리치면 겁많은 관리나부랭이들과 반동지주들, 경찰관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있는 무기를 다 내놓았다.

≪요창부요밍!≫이란 말은 동만의 모든 혁명조직구들에서 하나의 유행어로 널리 사용되고 전파되었다. 오중화의 아버지와 삼촌도 밥상다리로 만든 가짜 권총을 들고 ≪요창부요밍!≫으로 경찰과 자위단원들을 위협한 다음 그들의 무기를 빼앗아 적위대에 보내주었다. 그 소문이 안도에까지 퍼져왔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노인들의 기지와 대담성에 탄복하였다. 훗날 왕청에서 오태희노인을 만나 ≪어떻

게 되어 그런 멋있는 궁리를 하시였습니까?≫하고 물으니 노인은 웃으면서 ≪밤에 보니 밥상다리도 권총 같습디다. 우리한테야 총이 있습니까, 작탄이 있습니까, 그래서 밥상다리를 꺼내들었지요. 급하니까 그런 궁리도 납디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의 말이 과연 옳았다. 정말 우리는 그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무기를 탈취하는 싸움에 과감하게 몸은 내던지였다. 그것은 최대한의 창발성과 지혜를 요구하는 힘겨운 싸움이였다. 동만의 혁명가들과 혁명적 인민들은 때로는 헌병으로, 때로는 구국군부대 군인으로, 때로는 일본영사관 관리나 대부호, 무역상 같은 것으로 변화무쌍하게 자기를 위장하고 정황에 맞게 임기응변하면서 무기를 탈취하였다. 어떤 고장에서는 여성들이 빨래망치나 곤봉으로 군경들을 때려눕히고 무기를 탈취하였다.


박영순

무장을 얻기 위한 투쟁은 전민항쟁의 개시를 위한 서막이였고 예비적인 싸움이였다.

이 싸움에는 모든 혁명조직들이 다 발동되였고 전민이 다 동원되였다. 혁명이 무기를 요구하는 시기가 도래하자 군중은 서슴지 않고 이 싸움에 떨쳐나섰다.

그 과정에 그들은 각성되였다. 자기자신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자각한 것이다. 자기 무기를 자기가 해결하라고 한 우리의 구호는 도처에서 큰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물론 이러한 투쟁행정에서 우리는 많은 혁명동지들을 잃었다. 그때 우리가 마련한 한자루한자루의 총에는 혁명동지들의 뜨거운 피가 스며있었고 그들의 불타는 애국심이 깃들어 있었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구호를 들고 무기를 자체로 만들기 위한 투쟁도 동시에 벌이였다. 처음에는 야장간에서 쇠를 달구어 칼이나 창과 같은 도창무기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는 권총과 작탄을 만들어냈다. 그런 권총 가운데서 제일 정교하고 쓸모있게 만들어진 것은 왕청현 남구반제청년 동맹원들이 제작해낸 ≪비지깨권총≫이였다. 함경북도 지방 사람들은 러시아식으로 성냥을 ≪비지깨≫라고 하였다. 그 권총을 ≪비지깨권총≫이라고 한 것은 딱성냥으로 총알화약을 만들어 약통실에 넣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총신도 양철로 자작 만들었다. 동만의 병기창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으로 화룡현 금곡에 있던 신성덕수리바위굴병기창과 왕청현 남구병기창, 연길현 의란구 남양촌의 주가골병기창들을 들 수 있다. 수리바위골에 있던 병기창에서는 연길현 팔도구광산의 혁명조직을 통해 얻은 폭약으로 폭탄까지 만들어냈다. 처음에는 소리폭탄이라는 폭탄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이 폭탄은 소리만 요란했지 살상력이 별로 없었다. 그 약점을 퇴치하려고 만든 것이 고추폭탄이였다. 소리폭탄보다야 효과가 좋았지만 이 폭탄도 역시 냄새만 지독했지 살상력은 거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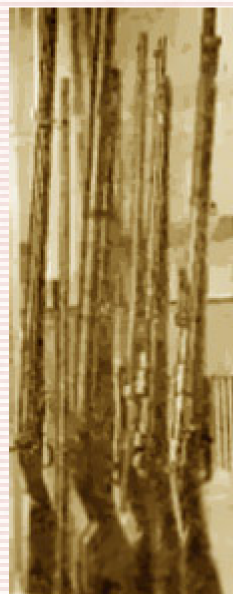
화룡동무들은 그 후 고춧가루 대신 쇠쪼각을 넣어 살상도가 높은 폭탄을 만들었다. 그 폭탄이 바로 유명한 연길폭탄이다. 연길폭탄이 세상에 나온 다음 우리는 화룡에 있는 박영순을 데려다가 소왕청 대방자에서 이틀동안 작탄강습회를 조직하였다. 동만각지에 작탄제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였다. 이 강습회에는 간도 여러 현


연길폭탄

들에서 온 병기창 성원들과 유격대지휘관들이 참가하였다. 나는 첫날 강습에 출연하여 화약제조방법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그 당시 유격대의 병기창들에서는 작탄을 만들 때 쓰는 화약을 광산에서 비밀리에 구입해오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적들이 화약에 대한 통제를 엄격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 방법은 항상 위험을 동반하였다. 우리는 민가에서 자체로 쉽게 화약원료들을 채취하여 그것으로 폭약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강습회에서는 그 비결을 전습시키고 각 지방에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박영순은 작탄 제조법과 그 사용법, 보관취급법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그들이 화룡에서 자력갱생하여 개발해낸 폭탄제조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강습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찬탄을 자아냈다. 수리바위굴병기창을 주관한 박영순, 손원금 동무들이 아주 재간있는 동무들이었다. 훗날 이 병기창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믿음직한 무기제조기지, 수리기지로 되어 항일전쟁에서 큰 공헌을 하였다. 만일 어느 문필가가 무장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발휘한 무비의 희생성과 대담성, 임기응변의 기지와 비상한 창발성에 대한 일화들을 종합하여 형상적 화폭으로 펼친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의 장엄한 서사시로 엮어질 것이다. 수천수만 년 역사밖에 값싼 노동력으로 밀려나 무지와 몽매속에서 헤매이던 인민대중, 망국민의 서러운 신세에 이를 갈고 피눈물을 뿌리면서도 그것이 숙명으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던 소박한 인민대중이 마침내 자기 운명을 자기자신의 힘으로 개척하기 위한 성스러운 해방투쟁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지방조직들에서 노획했거나 제작해낸 무기를 볼 때마다 나는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 힘에 의거하여 조선혁명을 개척하려고 한 우리의 결의가 얼마나 정당하였는가 하는 것을 재삼 자랑스럽게 확인하군 하였다.

우리는 상비적인 혁명무력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치면서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축성하는 사업에도 특별한 관심을 돌리었다. 인민대중을 실천투쟁속에서 끊임없이 각성시키고 단련시켜 그들을 항일전쟁에 튼튼히 준비시키는 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필수적 요구였으며 광범한 대중이 자각적으로, 거족적으로 동원되는 바로 최후승리의 담보가 있었다.

1930년의 전례없는 흉작과 그에 따르는 혹심한 기근은 우리가 동만에서 추수투쟁에 이어 새로운 대중투쟁을 벌일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다. 우리는 추수투쟁을 통하여 앙양된 군중의 투쟁기세를 늦추지 않고 일제와 친일지주들을 반대하는 새로운 춘황투쟁을 벌이도록 하였다. 춘황투쟁은 지주에게 쌀을 꾸어달라는 차량투쟁으로 시작되어 일제와 친일지주들의 양곡을 몰수하는 탈량투쟁으로, 일제의 앞잡이들을 청산하는 폭력투쟁으로 급격히 발전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 무기류

춘황투쟁의 불길속에서 동만지방 인민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은 새로운 높이에로 발전하였다. 혁명에 대한 반혁명의 공세가 그처럼 악랄해지고 있는 환경속에서도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인내성있게 그들을 계몽하고 교양하였다. 대중단체들은 관문주의의 틀을 마스고 문을 활짝 열어놓았으며 대중을 실천투쟁속에서 부단히 단련시키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어디서나 순풍에 돛단 것처럼 그렇게 헐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한 마을을 혁명화하는 과정에 여러 명의 혁명가들이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참기 어려운 수모와 불신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혁명가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었다. 내가 푸르허마을에서 겪은 체험도 바로 이런 경우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푸르허는 안도에서 돈화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중요한 동네였다. 이 동네를 거치지 않고서는 돈화지방이나 남만일대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었으며 이 마을을 혁명화하지 않고서는 소사하, 대사하, 유수하를 비롯한 인접마을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다. 조직에서 유능한 공작원들을 여러 명 파견하였으나 가는 족족 다 실패하였다. 거기에 조직을 당장 박아넣어야 하겠는데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다 잡혀서 목숨을 잃으니 묘책을 찾을 수가 없었다. 김정룡은 푸르허를 반동동네라고 하면서 그 마을에 스파이나 무슨 백색조직이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정체를 밝혀낼 수 없다고 분해하였다. 이 동네에 대한 말만 들으면 나도 이상한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

푸르허에 송씨성을 가진 조직원이 한 명 있었으나 그 동무의 힘만 가지고서는 반동분자를 색출해낼 수도 없었고 동네를 혁명화할 수도 없었다. 누구든지 목숨을 내대고 들어가서 잡아낼 것은 잡아내고 조직할 것은 조직하여 이 마을을 반동동네로부터 혁명동네로 개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렇게 되어 내가 푸르허에 가겠다고 자원해나섰다.

나는 소사하에 송동무를 불러다놓고 미리 약속을 하였다.

≪이제 마을에 들어가면 동무네 집에 일손이 달려서 머슴군 총각을 하나 얻어온다고 소문을 퍼뜨리오. 그러면 내가 동무네 집에 가서 머슴군노릇을 하겠소.≫

송동무는 눈이 휘둥그레서 반동이 심한 마을인데 어떻게 그런 모험을 하겠는가, 게다가 머슴꾼 노릇을 하겠다니 말이나 되는가고 하면서 도리를 흔들었다. 내가 푸르허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직에서도 반대하였다. 나는 반대를 무릅쓰고 송동무와 함께 소발구에 앉아 푸르허마을로 들어갔다. 세수도 하지 않고 이발도 하지 않고 일부러 반편같은 용모를 해가지고 반동소굴에 침투하였다.

몇 시간 후 내가 송동무와 같이 저녁식사를 하고 있을 때 난데없는 기마경찰대가 먼지를 일쿠면서 이 마을에 들이닥쳤다.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연락이 닿았는지 벌써 안도에서 경찰을 급파한 것이다. 밖에서 놀던 아이들이 기마대가 온다고 아우성치지 나는 마당에 나가 도끼를 들고 나무를 패기 시작했다. 교하의 이름모를 여인네집에서 겪은 것과 비슷한 정황이라고 할가. 기마경찰들은 나를 가리키며 누구인가고 물었다. 그러자 송동무가 자기 집 머슴이라고 대답하였다. 한 기마경찰이 ≪공산당간부 한 사람이 이 마을에 지도를 내려왔다고 하던데≫하면서 기웃거리었다. 양복이나 쪽 뽑아입고 번듯하게 차려입은 간부를 염두에 두고 달려왔는데 허줄한 덧저고리를 입고 얼굴에 검댕이 가지 묻은 나를 보고는 헛걸음을 했다고 실망한 모양이었다. 나는 그때 우리 대열내에 혹시 적과 내통하는 불순분자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까지 품었다. 내가 푸르허에 침투하는 것은 몇몇 책임일군밖에 몰랐기 때문이었다.

기마경찰들이 돌아간 다음 송동무를 돌아보니 얼굴이 싸가매지고 이마에 식은땀이 베여있었다.

나는 다음날부터 이른새벽에 일어나 주인집의 물도 긷고 나무도 패고 마당도 쓸고 소여물도 끓이었다. 그리고는 송동무와 함께 소발구를 타고 매일 산으로 갔다. 산에 가서는 문건도 보고 나무도 하고 사업토론도 하면서 송동무에게 한가지한가지씩 일거리를 주었다.

나는 착실한 머슴군으로 동네에 소문났다. 그때 푸르허 사람들은 나를 어리무둔한 머슴군으로만 알았다. 우물터에서 얼음이 얼면 동네아낙네들이 나보고 손을 까닥까닥 흔들어 얼른 여기와서 얼음을 까달라고 부탁하였다. 나는 그런 부탁도 달게 받아들이었다. 마을사람들이 나에게 일을 많이 시킬 수록 내 몸에는 머슴의 체취가 깊이 배일 것이고 내가 그들의 청탁을 성실하게 들어줄수록 밀정들은 나에게 혁명가의 표정을 쉽사리 찾아낼 수 없게 되겠기 때문이었다.

하루는 송동무네 맞은편 집에서 잔치가 있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이 밀려와서 나

더러 떡을 쳐달라고 부탁하였다. 내가 머슴으로 일하는 사람이니 의례히 그런 일은 본때있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농사로 한 생을 늙어온 우리 할아버지는 보삽질, 작두질, 떡메질 세 가지를 다할 줄 알아야 진짜배기 농사군이라고 늘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한번도 떡을 쳐본 일이 없었다. 우리 집 살림살이는 떡을 쳐 먹으면서 호강하리만큼 풍족하지 못하였다. 마을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자니 내 정체가 드러날 것 같아 걱정되었고 그 청을 거절하자니 머슴답지 않은 처사인 것 같아 주저하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집일이 바빠 가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여러 번 찾아와서 자꾸 독촉하는 바람에 더 버티여낼 수가 없었다. 내가 잔치마당에 나타나자 집주인들은 일손을 덜게 되었다고 기뻐하였다. 그들은 몸집이 강마른 앞집 중노인의 손에서 떡메를 빼앗아 내 손에 쥐어주며 ≪이 사람, 오늘 떡맛은 임자의 솜씨에 달렸으니 한번 본때를 보이게.≫라고 하였다.

남의 속내도 모르고 방금 찐 떡쌀을 함지박에 담아내오라고 수선을 떠는 안주인의 거동을 보니 우습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였다. 마을사람들은 머슴의 솜씨를 보겠다고 내 량 옆에 진을 치고 서 있었다. 농촌에서는 떡치는 솜씨를 구경하는 것도 하나의 멋이고 생활이었다.

나는 떡메를 쥔 손에 침을 바르며속으로 에라, 될 대로 되어라. 힘자라는 껏 떡메를 휘둘러보자. 이놈의 일도 사람이 하는 노릇이겠지, 머슴이라고 만사를 통달하는 법이야 없지 않겠는가. 기껏해서 솜씨가 서투르다는 비난이나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 때 내 심증을 알아차린 송동무가 나를 딱한 처지에서 구원해주었다. 그는 ≪이 사람, 그 팔을 가지고 어떻게 떡을 친다고 그래? 내가 팔을 잘 건사하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든가.≫하면서 일부러 위엄을 풍기며 나를 핀잔한 다음 잔치집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어제 나무하러 갔다가 팔을 상해서 떡을 치지 못해요. 이웃집 경사인데 내가 대신 쳐주지요.≫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마을여자들은 그날 손님들에게 떡을 나누어줄 때에도 머슴군 대접을 하였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그릇에 떡을 담아주면서도 나에게만은 그저 손에다 쥐어주었다. 나는 마을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수모하는데 대하여 나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푸르허를 혁명화하는 과정이 이처럼 간단치 않았다. 오가자를 혁명화하는 과정에 고초가 많았다고 하지만 이 고장의 혁명화과정에 비하면 식은 죽먹기였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마을에 달반가량 있으면서 조직을 꾸리고 핵심청년들을 발동시켜 밀정도 청산하였다. 소사하에 돌아온 다음 동무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 배를 그러쥐고 웃었다. 나는 그때 동무들에게 ≪어데든지 혁명가들이 배기지 못할 곳은 없다. 지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신사식으로 혁명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한 후 나는 부대를 데리고 푸르허에 간 적이 있었다. 빨치산대장이 되어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그 마을에 들려 군중대회를 열고 연설을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나에게 얼음을 까달라고 손목을 까닥거리며 불러대던 젊은 여인이 연설을 마치고 말안장에 올라앉은 나를 보고 너무 놀라 ≪에구,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던 머슴군총각이 아니요? 저이가 혁명군대장이 됐구려.≫라면서 어쩔 바를 몰라했다.

우리앞에 가로놓였던 난관은 이렇게 극복되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난문제는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었다. 그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많은 유혈을 가져다주었던 구국군부대와의 사업이었다.

5. 새 무장력의 탄생


무장대오를 조직하던 때 (1932년)

1932년 봄은 세계를 뒤흔드는 사변들로 하여 매우 소란스러웠다. 만주대륙을 강점한 일제는 손중산의 국민혁명에 의하여 밀려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부의를 내세워 괴뢰만주국을 조작해냈다. 일본의 어용선전기관들과 중국, 만주의 친일적인 출판물들은 때를 같이하여 ≪오족협화≫, ≪왕도락토≫건설을 부르짖으며 만주국을 찬양하였고 아세아와 세계의 진보적인 여론은 이를 강력히 반대배격하였다.

세계의 이목은 9.18사변의 발발원인과 그 책임을 해명할 사명을 지니고 방금 일본에 도착한 국제연맹조사단의 활동에 쏠리고 있었다.

영국 추밀원고문과 릿든경을 단장으로 하고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열강대표들로 구성된 조사단은 일본천황의 접견을 받고 수상, 육군상, 외상까지 만난 다음 중국에 건너와 장개석, 장학량과 회견하는가하면 만주에 나타난 관동군사령관 혼죠중장도 만나고 9.18사변 발발현장에 대한 시찰도 진행하였다. 일본측과 중국측에서는 서로 릿든조사단을 자기편에 끌려고 접대, 환영 경쟁에 열을 올리었다. 조사단이 진상을 밝혀내고 국제연맹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일본이 만주에서 철병할 지도 모른다는 억측이 정계, 사회계와 보도계는 물론, 정치에 민감해진 소학생들과 마실방 늙은이들의 입에서까지 오르내리였다.

그러나 안도지구에서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있던 우리는 그런 억측이나 뜬소문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군사훈련에만 열중하였다. 소사하부녀회원들이 매일같이 점심밥을 함지에 담아 이고 토기점골등판으로 올라왔다.

우리는 3월 중순경에 안도에서 동만의 여러 현들에 조직된 유격대소조의 지휘성원들을 위한 단기훈련을 조직하였다. 지방들에서 20명 가까운 지휘성원들이 소사하 토기점골로 모여들었다.

단기훈련은 2일간 진행되었는데 첫날에는 이론강의를 하였고 다음날에는 동작훈련을 하였다. 나는 조선혁명의 노선과 방침문제를 가지고 정치학습에 출연하는 한편 유격대의 생활규범과 활동준칙에 대한 강의도 하였다. 군사훈련은 주로 박훈이 맡아 지도하였다. 우리는 그때 그 강습에서 대련동작이나 무기분해결합법과 같은 초보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습격, 매복조직과 같은 전술적 문제에로 훈련을 점차 심화시켜나갔다.

안도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활동본부로, 중심으로 되였다. 두만강연안의 여러 현들에서 공작원들과 통신원들이 우리와의 연계를 지으려고 소사하로 자주 찾아왔다. 우리가 안도에서 유격대를 조직한다는 소문이 한입건너 두입건너 국내에까지 퍼져나갔다.

그 소문을 듣고 조선과 만주각지에서 20살 안팎의 열혈청년들이 사선을 헤치며 안도에 모여와 참군을 요청하였다.

변달환이 입대는 지망하는 오가자의 청년들을 8명이나 데리고 안도로 나오다가 일본군경들에게 체포되어 감옥으로 끌려간 것도 바로 이 무렵이였다. 해방 직후 나를 찾아왔던 변대우노인은 아들이 참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해 동안 속절없는 감옥살이를 한데 대하여 몹시 아쉬워하였다.

간도 여러 현들 중에서도 특히 연길지방사람들이 우리를 제일 많이 찾아왔다. 연길지방에는 적의 통치기관들과 폭압수단들이 집중되어 있었고 밀정망이 발달되어 있었다. 1932년 4월초에는 나남 19사단 소속의 38여단 75연대를 기간으로 하고 포병, 공병, 통신병으로 증강된 이께다 대좌휘하의 간도임시파견대가 동만지방 토벌을 목적으로 두만강을 건너 연길을 비롯한 간도일대에 쓸어들었다.

이런 실정으로부터 그 고장 지하조직에서는 참군을 요청하는 청년들을 안도로 많이 보내주었다. 조직의 추천과는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청년들도 많았다.

돈화의 진한장도 호진민이라는 중국청년을 데리고 내앞에 나타났다. 호진민은 화룡에서 사범학교 교원을 하던 사람이다. 어떤 날에는 청년들이 한꺼번에 10여명씩 무리를 지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였다. 그런데 구국군이 도중에 그들을 붙잡아다가 무리로 학살하였다. 당시 중국 동북지방에는 동북자위군, 반길림군, 항일구국군, 항일의용군, 산림대, 대도회, 홍창회와 같은 형형색색의 반일부대들이 많았다. 반일부대라는 것은 일제가 만주를 강점한 후 항일구국의 기치를 들고 구동북군에서 떨어져나온 애국적인 군인들과 관리들 그리고 농민들로 이루어진 민족주의군대를 말한다. 이 부대들을 통틀어 구국군이라고도 불렀다.

만주지방의 반일부대 가운데서 유명한 것으로는 왕덕림, 당취오, 왕봉각, 소병문, 마점산, 정초, 이의 부대들을 들 수 있다.

동만에서 제일 큰 반일부대는 왕덕림부대였다. 왕덕림은 한 때 목룡과 수분하일대의 밀림속에서 아무런 주의주장도 없이 ≪녹림호걸≫의 토비생활로 청년시절을 보내다가 부하들을 이끌고 장작상 예하의 길림군에 편입되어 정규군의 외모를 갖춘 장교로 된 사람이다. 그는 9.18사변전까지 구길림군에서 3여단 7연대 3대대장으로 복무하였다. 민간에서는 그의 대대를 ≪구3대대≫라고 불렀다. 일본군대가 만주를 침공한 후 그의 상관이였던 여단장 길홍이 투항하여 관동군 사령관을 만났다. 그는 일본제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길림경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자기 상관의 반역행위에 분개한 왕덕림은 즉시에 반변하여 항일구국을 선언하였다. 그는 500여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산속에 들어가 중국 국민구국군을 조직한 다음 오의성을 전장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일본제국주의침략군대에 대한 항전을 개시하였다. 나자구일대를 활동거점으로 삼고 간도지방의 적을 견제하면서 훗날 우리 유격대와도 피의 인연을 맺은 오의성, 사충항, 채세영, 공헌영은 모두 왕덕림의 충실한 부하들이였다.

남만의 산간지대들에서는 당취오의 자위군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흑룡강성 일대에서는 마점산부대가 북상하는 일본군에 저항하고 있었다. 안도의 산간오지로 밀려든 것은 오의성의 위하에 있는 우사령부대였다. 이 부대의 드살이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일제의 앞잡이로 보았으며 조선사람

들이 만주대륙에 일제침략군을 끌어들인 장본인이라고 생각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쐐기를 박느라고 이간질을 계속하는데다가 5.30폭동과 만보산사건에서 받은 조선사람들에 대한 나쁜 인상이 그때까지도 중국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구국군의 완고한 상층은 조선민족과 중화민족은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에 의하여 꼭같은 재난과 불행을 강요당하고 있는 피압박민족이며 중국사람들이 일제의 앞잡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조선사람들도 중국인민의 원쑤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만한 정치적 판단력과 통찰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맹목적으로 적대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구국군의 상층부가 대부분 자산계급출신들로 이루어져 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구국군의 상층부는 조선사람은 공산당이며 공산당은 파쟁군이며 파쟁군은 일제의 앞잡이라는 제나름의 공식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조선의 청장년들을 가차없이 박해하고 학살하였다. 도시들과 벌방지대에서는 일본침략군이 살벌하게 돌아치고 일본군이 채 점령하지 못한 농촌들과 산간지대들에서는 수천수만 명이나 되는 구국군들이 길목을 지키고 서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였다. 구국군의 적대행동은 청소한 우리 유격대의 존재자체를 위협하는 엄중한 난관으로 되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물론, 산림대와 독립군까지도 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그대로 사면초가의 고립무원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반일부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우리 유격대의 존재와 활동을 합법화할 수 없었다. 유격대를 합법화하지 않고서는 대오를 확대할 수 없었고 공개적인 군사활동도 할 수 없었다.

부대는 조직했지만 합법화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모두 뒤골방에 배겨있는 신세가 되었다. 세상에 나타나야 빛을 보겠는데 나타날 수 없었다. 군복도 없이 모두 사복을 입고 남의 집 뒤골방에서 모쩰이나 주무르며 이렇게 해 가지고야 어떻게 항일을 하겠는가고 통탄만 하였다. 그것도 조선부락에나 숨어있을 뿐 다른 데는 얼씬거리지도 못하고 밤에만 몇 사람씩 비밀리에 나다니는 형편이었다.

초기에 우리가 유격대를 비밀유격대라고 부른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우리는 그때 일본군대들 뿐 아니라 구국군과 만주군 패잔병까지도 피해다녀야 했으며 공산주의자들을 적대시하는 조선의 일부 민족주의자들과 반동분자들도 경계하면서 다니었다. 합법적으로 나타나기만 하면 공산당이라고 막 쏘고 행패질을 하는 것이어서 정말 문제거리였다. 연길, 화룡, 왕청, 훈춘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하여 공산주의자들이 사는 집만 골라다닐 수도 없었다. 본래 어렵게 살던 사람들인데 몇 십 명씩 무리를 지어가서 다 털어먹고 나면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이니 그것도 야단이었다.

유격대를 합법화하여 대낮에 다니면서 노래도 부르고 군중들로부터 환영도 받고 선전도 해야 일이 되고 싸울 맛도 나련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였다.

우리는 모여앉기만 하면 유격대를 어떻게 합법화하겠는가. 반일부대들과의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풀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거듭하였다.

제일 심각하게 논의된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중국의 민족주의자들과 손을 잡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하는 문제였다. 구국군은 그 상층부가 자산계급출신들로 이루어져있고 자주, 자본가, 관료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군대인데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그들과 손을 잡는 것은 계급적 원칙의 포기이고 타협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품는 동무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들은 구국군과 일시적으로 관계를 개선할 수는 있어도 동맹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들의 적대적 행동에 대하여서는 실

력으로 눌러놓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을 실로 위험천만한 주장이었다. 우리는 구국군이 비록 여러 가지 제한성은 있어도 투쟁목적과 처지의 공통성으로부터 항일전쟁에서 우리의 전략적인 동맹자로 될 수 있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구국군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그들과 연합전선까지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상과 이념이 다른 두 무장력의 연합전선에 대한 문제는 당시까지만 하여도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복잡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반일부대들과의 연합전선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동만특위에서는 일찍부터 왕덕림부대에 주의를 돌리고 7-8명의 우수한 공산당원들을 파견하여 구국군과의 공작을 하게 하였다. 우리도 이광을 비롯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을 구국군부대들에 파견하였다. 나는 통신원들을 통하여 동산호부대에 파견된 이광이 구국군공작에 부심하고 있는 정형을 여러 번 보고받았다.

구국군의 행패가 심해지자 우리 동무들은 연합전선은 공상이나 우리도 이제는 맞불질을 해서 희생된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자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겨우 설복시켜놓았다. 구국군을 적으로 삼고 그들에게 1대1로 보복을 가한다는 것은 반일이라는 대의와 도리에도 맞지 않고 청소한 우리 유격대를 자멸에로 이끌어갈 수 있는 무분별한 짓이기도 하였다. 간도는 물론, 만주전역의 공산주의자들과 유격대원들이 구국군 때문에 고심하고 있었다. 당시 각 현에 있는 유격대라고 해야 얼마 안되었다. 한 개 현에 몇십 명 정도밖에 없었다. 그것마저도 구국군한테 잡히기만 하면 모조리 죽는 판이니 부대를 늘일 욕심이 있어도 도무지 늘일 수가 없었다. 이런 형편에서 나는 우리 유격대가 당분간 우사령부대에 들어가서 별동대로 활동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사령부대에 들어가면 구국군의 간판을 가지게 되니 피해를 입을 염려가 없고 무기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영향만 잘 주면 그들을 공산주의화하여 안전한 동맹자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동무들의 토론에 붙이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당조직의 본부가 있는 소사하 김정룡의 집에서 하루종일 회의를 하였다. 그 모임을 지금은 소사하회의라고 한다. 그 회의가 아주 격렬하였다. 구국군부대안에서 별동대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를 걸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목이 아프게 논쟁을 하였다. 애연가들은 물론, 담배를 피울 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마라초를 꼬나들고 쉴새없이 연기를 뿜어대는 바람에 눈이 쓰리고 숨이 막혀서 혼나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결국 별동대에 관한 나의 착상은 동무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회의에서는 구국군과의 담판을 위하여 우사령부대에 대표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적임자로 내가 선발되었다. 동무들이 나를 선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가겠다고 자청해 나섰다.

당시 우리한테는 군사외교를 해본 인물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누구를 대표로 보내겠는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었다. 대표는 선출해서 보낸다 하더라도 상대측이 접근이나 시키겠는지, 정작 담판을 하게 되면 그들이 무리한 요구를 내대고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지 않겠는지 그리고 수틀리면 우리 대표를 사살하지는 않겠는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대표로는 이 모든 정황에 능숙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야 한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강조되었다.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기준에 적합한 인재가 없었다. 우사령과 마주앉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발해야겠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는 박훈, 김일룡, 호진민 뿐이었다. 김일룡은 나이가 나보다 10여살이 이상 되는 사람이었지만 중국말을 잘 몰

랐다. 그 나머지는 다 조아범처럼 학교를 갓 나온 18-20살 내기들이었다.

나는 동무들한테 나를 보내줄 것을 제기하였다.

동무들은 그 제의를 반대하였다. 성주동무는 대장인데 우사령이 공산당이라고 잡아제끼면 곤란하다. 그러니 진한장이나 조아범이나 호진민같은 중국동무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외교에 능한 사람이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동무들에게 우사령이 내가 가면 무엇 때문에 죽이겠는가고 물었다. 동무들은 그것 어떻게 알겠는가. 들어갔다고 ≪꼬리빵즈≫하고 죽이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들이 다 죽는데 너라고 못죽일게 뭔가, 왕청 관부대사건 때문에 요즈음은 구국군이 조선청년들이라면 더 눈을 밝힌다는데 너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관부대사건이란 왕청에 있는 이광동무의 비밀유격대가 관부대란 반일부대의 무장을 해제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하여 유격대와 구국군사이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유격대의 활동에 더 어려운 국면이 조성되게 되었다. 왕청에서 온 통신원은 자기네 고장에서 관부대사건이 있을 다음 그 보복으로 여러 명의 유격대원들이 구국군에 붙잡혀 총살당하였다고 하였다. 김책동무가 북만에서 산림대에 붙잡혀 죽을 뻔한 것도 이와 비슷한 시기였다. 나는 그냥 내가 가야한다고 고집하였다. 내가 그렇게 고집한 것은 남들보다 뛰어난 외교술을 가지고 있거나 우사령을 굽혀낼 특별한 처방이라고 있어서가 아니었다. 유격대의 존망이 우사령과의 담판에 달려있고 우리의 성패도 그들과의 관계를 조정하는데 달려있다는 것과 구국군을 동맹자로 만들지 않고서는 우리가 동만땅에서 유격전은 고사하고 문전출입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로 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고비를 잘 넘기고 무장투쟁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조선의 남아로서 살 보람도 없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면 혁명을 하지 못한다. 내가 중국말을 잘하고 청년운동시기에 풍랑도 여러 차례 겪어본 것만큼 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사령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가야 한다고 동무들을 설복하였다. 그런 다음 박훈, 진한장, 호진민 그밖의 중국청년 한 명을 더 데리고 우사령을 찾아 떠났다. 아무런 신변안전 담보도 없는 모험의 길이었다. 상대측의 사령부는 양강구에 자리잡고 있었다. 구국군이 우리더러 어디에서 왔는가고 물으면 우리는 안도에서 왔다고 하지 말고 길림에서 왔다고 대답하기로 약속하였다. 구국군들앞에서 유격대의 주둔지역인 동만의 지명을 대는 것은 재미가 없었다. 우리는 대사하로 가는 길에서 우사령부대와 맞닥들였다. 수백 명의 대오가 ≪삼국지≫에 나오듯이 ≪우사령≫이라고 쓴 기발을 날리며 위풍당당하게 행군해오고 있었다. 우사령부대가 남호두에서 일본군대를 소탕하고 기관총까지 노획한 후여서 그들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날 때였다.

≪피하지 않소?≫

포진민이 불안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아니, 맞받아나가자구!≫하면서 그냥앞으로 걸어나갔다. 나머지 네 사람도 나의 량 옆에 가지런히 서서 보조를 맞추어 걸어나갔다. 구국군은 우리를 보자 ≪꼬리빵즈, 오라!≫하고 호령하였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우리를 체포하려고 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도 당신들처럼 항일을 하는데 왜 붙잡으려하는가고 중국말로 항의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조선사람이 아닌가고 되물었다. 나는 떳떳하게 조선사람이라고 대답한 다음 진한장, 호진민 동무들을 가리키며 이 사람들은 중국사람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급히 상의할 문제가 있어 당신네 사령한테로 찾아가는 길이요. 우리를 사령한테로 안내하시오!≫

내가 이렇게 위엄을 풍기며 요구하자 그들은 좀 수그러들면서 자기네를 따라오라고 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따라 얼마쯤 갔을 때 구동북군방교차림의 지휘관이 점

심식사지령을 내리고 우리를 어떤 농가에 구금하였다. 그런데 이때 뜻밖에도 길림 육문중학교시절의 나의 스승이었던 유본초선생이 그 집으로 들어왔다. 유본초선생은 육문중학교에서 얼마동안 한문을 가르친 적이 있고 그 후 문광중학교와 돈화중학교에서도 교편을 잡을 사람이었다. 그는 상월선생과도 친교가 깊었고 진한장과도 잘 아는 사이였다. 선생이 호인이고 지식이 해박한데다 좋은 책들도 많이 알선해주고 훌륭한 시들을 지어 학생들 앞에서 즐겨 읊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척 그를 따르고 존경하였다. 나와 진한장은 유본초선생을 알아본 순간 탄성을 내지르며 선생의 앞으로 뛰어갔다. 역경에 처했을 때 선생을 만나니 더 반가운 생각이 들었다. 유본초선생도 기쁨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우리에게 연방 질문을 던지였다. 너 김성주, 어째서 여기 있느냐? 어떻게 되어 여기에 왔느냐? 어데로 가다가 이렇게 붙잡혔느냐? 내가 사연을 간단히 설명하자 선생은 자기 부하들에게 ≪이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 나도 여기서 점심을 함께 먹겠다. 잘 차려오라.≫하고 큰 소리로 지시하였다. 알고 보니 그는 일본군대가 만주로 쳐들어오자 교단을 떠나 우사령부대에 들어와 참모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유본초선생은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어 군복을 입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부하들을 데리고 싸우자니 속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면서 같이 가서 자기네와 함께 일하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우리가 그 의견을 동의하고나서 우사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자 그는 양강구에 있던 우사령이 지금 안동성시에 들어가니 자기와 함께 가면 만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선생에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들도 조선사람부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제놈들에 대한 원한이야 중국사람들보다 조선사람들이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일부대에서는 왜 조선사람이 항일을 못하게 자꾸 행패를 부리고 잡아죽입니까?≫

≪아, 그러게 말야. 나는 그러지 말라고 자꾸 말리는데두 그 모양이거든. 공산당이 뭔지두 알지 못하는 무지막지한 것들이. 공산당이 일제를 반대하는데 무엇이 나쁜가?≫

유본초선생도 분개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이제는 됐다. 살길이 나졌다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즉석에서 박훈을 소사하에 보내어 그곳 동무들에게 우리가 무사하다는 것과 우사령부대의 참모장이 우리를 진심으로 후원해주었기 때문에 유격대를 합법화할 수 있는 전망이 보인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였다. 우리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유본초선생을 따라 안동성시로 떠났다. 유본초에게는 전용군마가 한필 있었다. 우리가 선생에게 말을 타라고 권고하였으나 그는 ≪너희들이 걸어가는데 내가 말을 타구 가다니 될말이냐.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나 하자.≫고 하였다. 그리고는 성시에 가닿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줄곧 도보행군을 하였다.

반일부대병사들은 거의 모두 팔에 완장을 두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하나같이 ≪부파스 부요민≫이라는 글이 씌여있었다. 그것은 죽기를 겁내지 말며 인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뜻이다. 군졸들에게서 풍기는 험상궂은 인상과는 달리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좌우명은 매우 건전하고 전투적이였다. 그 글이 나에게 우사령과의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의 기대를 품게 하였다.

그날 우리는 유본초선생의 안내로 거침없이 우사령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참모장의 체면을 생각해서인지 우리를 예절있게 맞이하고 대우도 높은 급으로 잘해주었다. 우리 모두가 중학교졸업생으로서 연설도 할 줄 알고 격문도 쓸 줄 알고 무기도 다룰 줄 아는 한창나이의 젊은이들이라


양강구

는 것을 내탐하고 자기네 곁에 붙잡아 두고 싶은 욕심이 나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내 짐작과 같이 우사령은 정말로 우리를 자기네 부대에 들어오라고 하였다. 나보고는 사령부선전대 대장을 하라고 요구하였다.

나의 속심은 자기 군대를 만들어 그것을 합법화하자는 것인데 사령이 나더러 선전대 대장을 하라고 하니 나로서는 참으로 난처하였다. 내가 거절하면 우사령이 노염을 탈 것은 분명한 일이였고 유본초선생의 입장이 딱해질 수 있었다.

나는 일이 싱겁게 되기는 하였지만 우사령의 신임만 얻으면 운이 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령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의 제의를 수락하였다. 우사령은 몹시 흡족해하였다. 그는 즉석에서 부하에게 임명장을 쓰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나는 사령부선전대장으로 되였다. 호진민은 부참모로 되고 진한장은 비서로 임명되였다. 소원밖의 황당한 결과였지만 우리로서는 어차피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사닥다리였었다. 사실 이 벼락감투가 유격대를 합법화하는데서 큰 은을 내였다.

나는 남의 집 뒤골방에 배겨있을 때의 우리 처지와 유본초선생의 알선으로 우사령부대의 심장부에 깊숙이 침투하게 된 오늘의 처지를 대비해보면서 마음속으로 인제는 됐다고 쾌재를 울리었다. 그런데 그날저녁 우리는 뜻하지 않은 일에 부닥치게 되였다. 구국군이 연길에서 푸르허로 넘어오는 조선청년들을 70-80명이나 붙잡아 성시로 끌어왔던 것이다.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끌려온 청년들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던 나는 유본초선생한테로 뛰어갔다.

≪선생님, 이거 야단났습니다. 선생님네 사병들이 조선사람을 또 무리로 잡아왔습니다. 저 사람들속에 무슨 친일파가 있겠습니까. 왜놈의 앞잡이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보고 처리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유본초는 나의 말을 듣고나서 ≪성주, 네가 나가봐라. 우리는 너를 믿는다≫고 하였다.

≪선생님, 나 혼자서는 곤란합니다. 선생님께서 같이 나가셔야 합니다. 원래 선생님은 연설을 잘하시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연설을 하시면 왜놈의 개라도 다 감화될 것입니다. 감화시켜서 왜놈들과 싸움시킬 생각을 해야지 거 친일파도 아닌데 자꾸 죽여서 뭘하겠습니까.≫

≪성주가 연설을 잘하는데 나까지 무슨 연설을 하겠나. 혼자 나가보라구.≫

유본초선생은 손을 내저으면서 한사코 사양하였다.

선생의 말처럼 내가 학생시절에 연설을 많이 한 것만은 사실이다. 길림, 돈화, 안도, 무송, 장춘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일제의 만주침략야망을 폭로하고 조중인민의 단결을 호소하는 연설을 많이 하였다. 유본초선생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선생님, 내가 조선말로 연설하면 선생님네 부대 어른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혹시 내가 나쁜 선전이라도 하는가 하고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유본초선생은 나의 말을 듣자 또 손을 내저으면서 어서 나가보라고 재촉하였다.

≪성주가 기껏해서 공산당 선전을 하겠는데 일없어. 내가 보증할테니 마음놓고 연설을 하라니까.≫

이 선생이 벌써 내가 공산당에 관계하고 있으며 공산주의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공산당선전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야지요. 그것이 뭐 나쁠 게 있습니까.≫

서로 믿지 않는 처지이면 그때 내가 유본초선생앞에서 감히 이런 말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나도 공산당이고 일제의 앞잡이라고 잡아제끼면 그만이지 딴

방도가 없었다. 그러나 선생이 나와 각별히 친근한 관계에 있었던 것만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와 유본초선생은 육문중학교시절부터 서로 격의없이 지냈다. 내가 길림에서 학교를 다닐 때 류선생은 따뜻한 심정으로 나를 극진히 돌보아주었다.

내가 유본초선생과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우사령이 참모부로 들어왔다. 그는 붙잡혀온 청년들을 내다보며 또 공산당원들을 잡아온 모양이라고 하면서 공산당이 만주땅에다가 어느새 저렇게 많은 새끼를 쳤는지 모르겠다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때 유본초선생이 얼른 나에게 선전대장이 빨리 나가서 저 사람들과 담화를 해보라. 조선사람들이 다 공산당일 수 없고 또 공산당원이 다 일제의 앞잡이로 될 수 없지 않는가고 하면서 끔뻑 눈짓을 해 보이었다.

우사령은 참모장의 말을 듣고 대노하여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니, 폭동을 일으키고 땅을 빼앗으려 하다가 일본놈들까지 끌여들었는데 그래두 공산당이 일본놈의 앞잡이가 아니야?≫

우사령은 참모장의 말을 듣고 대노하여 버럭 소리를 질렀다.

조선사람들에 대한 우사령의 편견은 예상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맹목적이었다.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오해도 그만 못지않게 집요하였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우사령을 설복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리고 당돌하게 들이댔다.

≪사령님께서는 공산당이 나쁘다는 것을 책을 보고 아십니까? 말을 듣고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공산당원들을 나쁘다고 하십니까?≫

≪책은 무슨 책, 말을 듣구 알지. 입을 가진 사람이면 모두 공산당원들을 나쁘다구 해. 그래서 나두 나쁜 줄로 알구 있는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아연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됐다!≫하고 마음을 놓았다. 체험에 기초한 견해가 아니고 소문을 듣고 생긴 오해이니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던 것이다.

≪사령님이 자기 주견도 없이 남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면 큰일을 어떻게 합니까?≫

주위에 있던 진한장과 호진민도 공산주의자들이고 참모장까지 우리를 지지해주고보니 우사령은 결국 우리들에게 포위된 셈이었다.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 나는 설복을 계속했다.

≪사령님, 아까운 청년들을 자꾸 죽여선 뭘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에게 총은 당장 줄 수 없겠지만 창이나 하나씩 주어서 한번 돌격대로 써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놈들하구 잘 싸우는가 어쩌는가를 시험해보잔 말입니다. 잘 싸우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죽여버릴거야 없지 않습니까≫

우사령은 내 말을 한참동안 듣고 있더니 ≪음, 그건 그래. 그럼 선전대장이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보게.≫하고 말하였다.

나는 붙잡혀온 청년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 쪽지 한 장을 써서 그들속에 은밀히 들리었다. 당신들은 증거가 없는 한 공산당원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 당신들의 몸을 수색할 때 나온 ≪반일병사들에게 고함≫이라는 삐라는 어데서 주었다고 대답하라는 내용의 쪽지였다. 그 사람들은 이 쪽지가 어떻게 되어 자기들의 손에까지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다. 내가 나타나자 잡혀온 청년들은 모두 분노에 찬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았다. 나를 우사령한테 와서 그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나부랭이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의 적의에 찬 시선을 몸에 받으면서 이렇게 물었다.

≪동무들 가운데서 김성주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물음 한마디에 얼음장같은 긴장감은 깨지고 장내에는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퍼져갔다. 김성주라는 이름을 들었다고 대답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듣지 못했다고 대답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내가 바로 김성주올시다. 나는 지금 여기 우사령부대에서 선전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사령은 방금 나에게 당신들이 구국군에 합세하여 싸울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걸 알아보라는 과업을 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싸워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있다고 말해주십시오.≫

온 장내가 ≪싸우겠습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치었다.

나는 우사령을 찾아가서 청년들의 동향을 그대로 전달한 다음 우리가 그들을 흡수해서 일본군대와 싸움을 시켜보는 것이 어떤가고 제기하였다. 우사령이 그 제의에 선뜻 응해나섬으로써 청년들의 생사와 운명 문제는 우리의 요구대로 결정되었다. 우리앞에는 반일연합전선을 실현할 수 있는 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유격대를 합법화할 수 있는 문어귀에 거의 도달했을 때 우사령의 뒤에서 그를 조종하고 있는 조선인고문이 말썽을 부리었다. 그는 김좌진파에 속한 오랜 민족주의자였는데 남호두에 와서 농사를 하다가 9.18사변이 일어나자 구국군에 합류한 사람이었다. 그는 지식이 있고 두뇌가 명석하였기 때문에 우사령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다.

이 사람이 우사령을 사촉하여 공산주의자들을 박해하게 하는 모사였다. 그는 70-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조사도 해보지 않고 부대에 받아들이는 것은 경거망동이라고 하면서 그들 중에는 친일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떠들었다. 이 사람을 눌러앉히지 않고서는 우리의 활동에 또다시 엄중한 난관이 조성될 수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우사령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거 부대에 조선사람이 한 명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왜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까?≫

우사령은 아니, 아직도 못 만나봤는가고 하면서 부하들을 시켜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다.

만나보니 키가 무척 크고 체격이 건장한 사나이였다.

나는 ≪인사합시다. 선생님이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으시겠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무 것도 모르니 많은 편달을 주기바랍니다.≫하고 먼저 인사를 건네었다.

그도 자기 소개를 하였다. 그는 사령부에 중국말을 잘하는 조선청년이 새로 들어와 선전대장이 되어 우사령을 보좌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자기는 그 소식을 듣고 같은 조선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했었노라고 하였다. 그가 감히 조선사람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민족에 대해 운운하기 때문에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들이댔다.

≪그러면 반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많이 모집해야지 어째서 자꾸 죽입니까? 사상이 다르다고 죽이면 됩니까? 조선사람이 제 나라 땅에서 살지 못하는 것만 해도 분한 일인데 여기 만주에 쫓겨와서 구국군들한테까지 잡혀죽으니 이 이상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산주의를 했건 민족주의를 했건 주의를 가리지 말고 단결시켜서 일제와 싸우게 해야지 자꾸 배척하고 잡아제껴서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선전대장의 말이 옳다하면서 나를 유



유격대창건을 선포한
소사하 무주툰전경

심히 바라보았다. 이렇게 되어 두 번째 장벽이 허물어졌다.

우사령은 우리의 담화가 호의적인 분위기속에서 결속되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나는 우사령에게 사령께서 나를 믿으신다면 선전대장자리는 호진민같은 사람들에게 겸직으로 주고 나에게는 차라리 조선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투쟁할 대장책임을 하나 줄 수 없느냐고 제기하였다.

유본초선생도 지당한 말이라고 하면서 나를 지지해주었다. 우사령은 조선사람으로 부대를 따로 뭇는다면 총은 어떻게 해결하겠는가고 물었다. 나는 ≪총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령님보고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적의 총을 빼앗아서 부대를 무장시키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우사령은 그 대답을 듣고나서 몹시 만족해하였다.

≪그럼 부대를 뭇게. 그런데 자네네한테 무기를 주었다가 후에 그 총부리를 돌려대면 어쩐다?≫

≪그건 염려마십시오. 그런 배신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설사 총부리를 돌린다해도 사령님네 부대와 같이 큰 부대가 우리같은 햇내기들을 못 당해내겠습니까?≫

우사령은 손을 내흔들며 오히려 제편에서 대장이 농담을 진담으로 들은게 아닌가고 하면서 너털웃음을 지었다. 나는 처음부터 구국군에서 떨어져나오겠다고 하면 우사령의 노여움을 살 것 같아서 그에게 사령의 명의로 부대의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고 요구하였다.


김철

옆에 있던 유본초선생이 ≪그럼 별동대라고 하지. 조선인별동대라고 하는 것이 좋겠소.≫하고 말하였다.

유본초선생의 제안에 우사령도 찬성하고 나도 찬성하였다.

비밀유격대를 합법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은 별동대의 탄생과 함께 성과적으로 종결되었다. 우리는 이 별동대 안에 안도에 있는 비밀유격대성원들과 우사령부대에 억류되었던 70-80명을 다 포함시켜 유격대를 합법화하였다.

나는 진한장과 호진민의 손을 양손에 하나씩 갈라쥐고 사령의 방을 나섰다. 우리는 ≪승리요!≫ ≪대성공이요!≫하면서 온밤 성시의 둘레를 거닐었다.

호진민은 나에게 가치담배 한 대를 권하면서 한번 연기를 삼켜보라고 하였다. 오늘같이 경사스러운 날에는 술에 취하든가 술이 없으면 담배연기에라도 취해보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나는 처음으로 가치담배를 물고 삼키다가 숨이 막혀 오랫동안 재채기를 하였다.

그 바람에 호진민도 웃고 진한장도 웃고 나도 웃었다.

≪원참, 담배연기도 삼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빨치산대장을 하나.≫

호진민은 이런 농까지 하였다.

소사하에 돌아와 담판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하니 뒤골방에 배겨있던 동무들이 나를 목마에 태워가지고 밖으로 우르르 쓸어나갔다. 그리고는 온 동네가 다 듣게 만세삼창을 하였다.

명창으로 소문난 김일룡은 ≪아리랑≫까지 불렀다. 흥겹고 생기발랄한 원무곡이나 씩씩한 행진곡을 불러야 할 그런 축제의 날에 강쇠같은 남아대장부 김일룡이 ≪아리랑≫과 같은 비가를 부른 것은 상식밖의 일이었다.

김철이 김일룡의 팔을 흔들면서 물었다.

≪일룡형님, 이 좋은 날 하필 그런 노래는 왜 불러요?≫

≪모르겠다 모르겠어. 나두 모르게 아리랑이 쏟아져나왔구나. 어쨌든 우리는 술한 고비를 넘지 않았니.≫

김일룡은 노래를 그치고 눈물이 글썽해서 김철을 돌아보았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숙연한 생각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말과 같이 우리는 이날을 위해 실로 얼마나 험한 시련의 고개들을 넘어왔던가. 김일룡의 한 생은 그대로 그 시련의 축도라고 할 수 있었다. 그는 독립군으로서 민족주의운동도 해보고 공산주의운동도 해본 사람이었다. 조선에서도 살아보고 만주에서도 살아보고 연해주에서도 살아본 풍운아였다. 한숨도 쉬고 눈물도 많이 흘린 수난에 찬 생애였다.

≪아리랑≫은 그 생애를 집약한 것이다. 한숨을 웃음으로 바꾸고 좌절에서 돌격에서 넘어가야 할 그 역사의 분기점에서 김일룡은 ≪아리랑≫으로써 곡절많은 과거를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의 기쁨을 푸른 하늘밑에서 마음껏 노래한 것이었다.

그때 노상에서 유본초선생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고 유격대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가. 나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미 고인이 된 선생에게 말없는 감사를 드리군한다.

우사령부대에서 담판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기뻐한 사람이 바로 유본초선생이었다. 그는 우리가 성시를 떠날 때 멀리 군영밖에까지 따라나와 이제는 서로 적이 아니라 형제로, 우군으로 되었다고 기뻐하면서 손을 굳게 잡고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때려부시자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선생이 세상을 떠나시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안도성시에서의 잊지못할 담판의 나날과 육문중학교 시절을 회상하면서 슬프게 울었다.

우리는 우사령과의 담판에 성공함으로써 유격대의 존재와 활동을 합법화하고 우리와 연합하여 일제와의 항전을 벌일 수 있는 동맹군을 가지게 되었다. 담판의 성공은 또한 우리에게 애국애족의 대의를 내세운다면 사상과 이념이 서로 다른 타국의 민족주의자들과도 통일전선을 뭇고 공동투쟁을 벌일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하였다.

그 신심은 그 이후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나의 정치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였다고 생각된다.

나는 사상과 이념이 다른 민족주의자들이나 복잡한 생활경력을 가진 자산계급출신의 각계각층 인사들을 포섭하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주저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행동하는 일군들을 만나게 되면 우사령과 담판하던 경험을 상기하면서 그들의 도량을 넓혀주군 하였다.

소사하에 돌아온 나는 왕청지구에서 구국군공작에 고심하고 있는 이광에게 우사령과의 담판내용과 조선인별동대가 조직되게 된 경위를 상세히 통보해주고 안도의 경험을 참작하여 왕청에서도 지체없이 별동대를 하나 조직할 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그때까지도 이광은 지하활동을 하고 있었다. 나는 한 개 중대의 인원을 이광에게 보내어 거기에서도 별동대를 조직해가지고 지하활동으로부터 합법적인 활동으로 넘어가게 하였다.

별동대라는 것은 조선사람으로 조직된 특별부대라는 말이다. 조선사람으로 조직된 부대가 구국군들과의 관계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한 것은 우리와 이광이네밖에 없었다.

그때 우리가 별동대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우리 유격대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며 구국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그들과의 반일연합전선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적 조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별동대는 내온 다음 그것을 확대하고 재편성하여





당시 쓰던 놋바리(우),
말안장(아래)

빠른 시일안에 반일인민유격대를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을 활기있게 다그치였다.

대오를 편성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 논쟁을 동반하였다. 그때 어떤 동무들은 유격대대열내에 노동자성분이 적은 것을 가지고 몹시 우려하였다. 100여명이나 되는 입대대상자들을 조사해보니 대부분이 학생출신과 농민출신들이었다. 이 실태에 놀란 몇몇 동무들이 노동자성분이 적은 것은 혁명군대를 조직하는데서 맑스-레닌주의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가. 그것은 또한 장차 혁명군의 변질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나는 그런 견해에 대해 노동계급이 혁명군의 주구성성분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맑스-레닌주의군사학의 일반적 원리이다. 그러나 이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농민이 주민의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노동계급은 농민에 비해 수적으로 적은 상태에 있다. 그렇다고 노동계급의 수자가 많아질 때까지 유격대창건을 뒤로 미루고 기다릴 수는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농민이나 학생출신도 다 노동계급 못지 않게 혁명의식이 높고 민족성이 강하다. 출신이 달라도 노동계급의 사상을 가지고 싸우면 된다. 농민이나 인텔리 출신이 많은 것이 혁명군이 변질될 요소로는 되지 않는다고 진지하게 깨우쳐주었다.



첫 유격대오가 들었던 기발

우리는 지휘체계를 세우는데서고 기존공식을 절대시하지 않고 유격전쟁의 특성와 요구에 맞게 구령을 치는 사람보다 구령을 집행하는 싸움군이 많이 내는 방향으로 대오를 짜고 편제를 결정하였다. 말하자면 지휘체계를 고도로 단순화하였다. 그러므로 부대에 후방부서나 그것을 주관하는 지휘관도 따로 두지 않았다. 모두가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싸움도 하며 때에 따라서는 정치공작도 할 수 있게끔 준비시켰다.

그 때 우리에게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과 같은 책이라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은 계시를 받았겠는가. 당시의 우리 수준이란 그저 부대편성에서의 3.3제는 나폴레옹이 창시한 것이라는 정도의 상식에 머무르고 있었다. 클라우제비츠에 대해서는 이름이나 알 정도였다.

나는 2차세계대전때에야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처음으로 입수하였다. 지휘체계를 단순화하여 싸움군을 많이 대도록 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나를 쉽게 공감시킬 수 있었다.

반일인민유격대는 중대를 기본전투단위로 하여 조직되었다. 나는 대장 겸 정치위원으로 선거되었다. 유격대의 군복은 가둑나무물을 들인 녹색천으로 지었다. 왼쪽가슴에는 다섯모가 난 붉은 천을 오려붙이고 거기에 중대번호를 써넣었다. 군모에는 붉은 별을 달리고 하였으며 다리에는 흰 행전을 치기로 하였다. 유격대 창건의 마지막 세부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복장제도를 하나하나 마무리지어나가기란 참으로 가슴흐뭇한 일이었다.

우리가 진지하게 토의하고 결정한 복장제도에 따라 부녀회원들이 떨쳐나서 군복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때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으면서도 부녀회원들과 함께 온갖 정성을 기울려 군복을 마르기도 하고 재봉침을 돌리기도 하였다.

우리는 1932년 4월 하순 안도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하기 위한 최종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입대지망자들에 대한 마지막 심사와 함께


반일인민유격대 군복

유격대결성식 날짜와 장소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는데 당면한 활동지역을 확정하고 유격대의 활동과 관련된 전반적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회의 후 입대지망자들은 3도백하의 입구인 유가분방에 모였다가 소사하에 집결하였다. 입대지망자는 100여명이었는데 그들 중 지금까지 이름이 기억되는 것은 차광수, 박훈, 김일룡, 조덕화, 곰보, 조명화, 이명수, 김철, 김봉구, 이영배, 이봉구, 방인현, 김종환, 이학용, 김동진, 박명손, 안태범, 한창훈밖에 없다.

1932년 4월 25일 아침.

우리는 토기점골 등판에서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식을 가지였다.

이깔나무숲으로 둘러싸인 등판의 공지에 새 군복을 떨쳐입고 무기를 휴대한 대원들이 구분대단위로 정렬하고 그 공지의 한쪽변두리에 소사하와 홍륭촌 일대의 인민들이 모여서서 술렁대고 있었다.

대원들의 생신하고 늠름한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는 내 눈앞에는 가지가지의 회억들이 구름처럼 떠올랐다. 이 무장대오의 결성을 위하여 우리의 동지들이 길은 얼마나 걸었고 모임은 얼마나 가졌고 연설은 얼마나 하였고 준령은 얼마나 넘었으며 그 과정에 가슴아픈 희생은 얼마나 당하였던가. 반일인민유격대는 수많은 동지들의 눈물겨운 노고와 피어린 투쟁과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진 우리 혁명의 고귀한 산아였다.

나는 이날을 보지 못하고 희생된 동지들과 고인들을 토기점골등판에 불러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가슴에 차넘치는 격정을 터뜨려 연설을 시작하였다.

내가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을 선포하자 대원들은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인민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만국노동계급의 전투적 명절은 5월 1일 우리 반일인민유격대는 붉은기를 앞세



혁명영화 ≪조선의 별≫



반일인민유격대 대오를 돌아보시는 강반석여사

우고 안도현성에 입성하여 나팔을 불고 북을 두드리면서 보무당당히 열병행진을 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의 지휘관으로 임명된 김일룡이 이날의 행진에서 노래선창을 담당하였다. 그날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반일부대 장교들과 병사들까지 거리에 떨쳐나와 엄지손가락을 흔들며 환영의 인사를 보내고 축하의 박수를 쳐주었다.

무력시위를 끝낸 대오가 토기점골로 돌아왔을 때 차광수와 김일룡이 우리 집으로 달려가 몸져누워있는 어머니를 데려왔다.

병고에 시달린 얼굴, 미간에 생긴 주름살, 머리의 흰오리, 그러나 어머니의 눈은 고요히 웃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영배의 곁에 다가와 총이며 탄띠며 오각별을 오래오래 만져보았다. 그 다음 김철, 조덕화, 김일룡, 방인현, 차광수의 앞을 거닐면서 이 총도 쓸어보고 저 총도 쓸어보고 이 어깨도 만져보고 저 어깨도 만져보고.

미구에 어머니의 눈이 서서히 젖어들었다.

≪정말 장하구나. 우리 군대가 생겼으니 이제는 됐다. 왜놈들을 치고 나라를 꼭 찾아야 한다!≫

음성도 퍽그나 젖어있었다. 어머니는 분명 우리에게 바친 자신의 지성은 까마득하게 잊고 조국광복을 기원하며 먼저 떠나간 아버지와 애국지사들의 노고에 대하여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 후 연길, 훈춘, 화룡을 비롯한 동만의 다른 지방들에서도 유격대들이 연이어 조직되었다. 김책, 최용건, 이홍광, 이동광 등 조선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북만과 남만에서도 유격부대들이 연이어 태어나 적들에게 포문을 열었다.

1932년 봄은 항일대전의 총성속에서 무르익어갔다.



반일인민유격대 창설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



조국해방전쟁시기 ≪진격의 길에≫



조국해방전쟁시기 ≪진펄을 헤치고≫



≪장군님의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리≫ (금강산발전소 건설현장)



≪인민군대의 총창우에 사회주의운명과 부강한 조국이 있다!≫



조선인민군 분열행진



조선인민군 분열행진

제6장



시련의 해

남만으로
마지막 모습
기쁨과 슬픔
합작은 불가능한가?
단합의 이념아래
구국군과 함께
소사하의 가을
나자구등판에서

■ ½Ãâ : 1932. 5 ~ 1933. 2

1. 남만으로



유격대활동의 합법화가 실현되고 항일유격대가 정식 창건된 다음 우리 동무들속에서는 그 활동의 첫 시작을 어떻게 떼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었다.

성시에 가서 열병행진을 하고 소사하에 다시 돌아온 우리는 농촌집 웃방에 대원들을 3-4명씩 분숙시킨 다음 그들을 며칠동안 휴식시키면서 유격대의 행동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토의를 가졌다. 이 토의과정도 역시 카륜이나 명월구에서처럼 격렬한 논쟁을 동반하였다.

모여서 입씨름을 하는 광경을 보면 그야말로 개개명창이었다.

유격전에 대한 개념도 각이하였거니와 그 전술에 대한 주장이나 해석도 십인십색이었다. 지식정도와 생활경로, 소속단체가 서로 다른 100여명의 청년들이 모인 집단인 것만큼 목소리도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었다.

그 목소리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류의 주장은 소조론이었다. 소조론이란 중대요, 대대요, 연대요, 사단

이요 하는 판에 박힌 부대편성방법을 따르지 말고 간편하고 기동성이 높은 무장소조들을 많이 조직하여 끊임없는 소모전으로 적들을 타승하자는 주장이었다. 삼삼오오의 소조로 유격대역량을 세분하여 참모부의 유일작전에 따라 수십수백의 소조가 도처에서 활동하게 되면 능히 일본제국주의자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였다.

이 논리의 제창자들은 무장소조를 기본단위로 하는 유격전이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형식을 하나 창조해내는 과정으로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돈화와 연길에서 온 청년들 가운데 특히 이 소조론을 주장하는 동무들이 많았다. 이 두 고장의 청년들은 이립삼의 좌경적인 모험주의노선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온 사람들이었다. 그 여독이 아직도 그들의 사고방식에 남아있었다.

차광수는 이 무장소조론에 대하여 현대판 프랑끼주의라고 혹독하게 비판하였다. 차광수의 견해에 대해서는 나도 동감이었다.

일제의 군사력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대부대에 의한 전면적인 무장대결은 피하고 몇 사람씩 패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나석주나 강우규처럼 적의 우두머리들에게 폭탄도 던지고 통치기관들에 방화도 하고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에게 철추도 내리자는 것이 무장소조논의 본질이었다.

무장소조론은 유격전의 외피를 쓴 테러주의의 변종이었다.

이 주장대로만 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대부대에 의한 유격전을 포기하는 것으로 된다. 이것은 투쟁방법에서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런 후퇴를 묵인할 수 없었다.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을 전후한 시기 일본과 중국에서는 우리 나라 애국자들에 의하여 두 가지 감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 중 하나는 도꾜 궁성 앵전문밖에서 일본천황이 탄 쌍두마차를 향하여 폭발탄을 던진 이봉창 열사가 단행한 폭탄투척사건이다. 이봉창은 폭탄의 불명중으로 천황을 처단하려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윤봉길은 거사에 성공하여 상해주둔 일본사령관 시라가와대장과 무라이 상해총영사, 가와하시 거류민단장을 즉사시키고 주중공사, 제9사단장, 해군대장을 비롯하여 천황의 생일을 기념하려고 홍구공원에 모여온 여러 명의 두목급군정요인들에게 중상을 입힘으로써 내외에 큰 파문을 던지였다.

이봉창이 천황행렬에 폭탄을 던지고 체포된 다음날은 1932년 1월 9일 중국 국민당기관지 ≪국민일보≫는 특호활자로 ≪한일 이봉창 저격 일본천황 불행부중≫이라는 글을 실었으며 그밖의 여러 신문들도 이봉창의 의거를 특종기사로 널리 소개하였다. 이 보도가 얼마나 큰 자극을 주었던지 현지의 일본 군대와 경찰은 ≪국민일보≫ 신문사를 습격하고 파괴하기까지 하였다. 불행(不幸)자를 쓴 신문사들은 모조리 폐쇄되었다.

윤봉길의 의거에 대해서도 조중인민들은 다같이 격찬하였다. 홍구공원사건이 있은 후 중국사회계의 명사들이 연이어 이 사건의 조직자이며 배후조종자인 김구에게 면회를 청하였다. 일본의 침략에 투항주의로 대처하고 있던 중국국민당 반동정부의 우두머리들까지도 조선민족의 투철한 저항정신과 영웅성에 감동되며 재중조선인들에 대한 경제협력을 약속하였다.

이봉창과 윤봉길은 다같이 김구의 부하들이었으며 김구가 주관한 한인 애국단의 성원들이었다. 한인 애국단의 기본적인 항일투쟁방법은 테러였다.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에 뒤이어 대련에서는 김구가 파견한 애국단원들이 관동군사령관 암살미수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들은 국제연맹 릿든조사단이 봉천으로부터 대련에 도착할 때 일본군정요원들이 역으로 나오는 기회를 타서 관동군사령관과 만철총재, 신임 와사부장을 암살하려고 하였다. 김구는 부하들

을 파견하여 조선총독까지 처단하려고 하였다.

이등박문을 격살한 안중근이 민족적 영웅으로 찬양되고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로 국내는 물론 미주, 연해주, 만주 등지에 산재한 온 교포사회가 법석 끓고 있던 시대적 분위기를 타고 테러주의는 적개심에 불타는 조선의 많은 청년들을 현혹시켰다. 이런 시기에 무장소조론과 같은 주장이 대두하여 반일인민유격대의 활동방향을 결정하는 논의에까지 상정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무장소조논의 제창자들은 조선과 일본, 중국각지에서 윤봉길의 거사와 같은 의거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일제통치의 아성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도꾜로 출발하기 전 맹세를 다지는 이봉창열사

다른 하나의 부류는 전면적인 무장공격에로 당장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이였다. 김일룡과 같은 사람들이 무장소조론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면 박훈, 김철(김철회)과 같은 사람들은 즉시적인 무장대결론에 미련을 갖고 있었다. 대도시에서 수천수만 명의 정규군과 폭동군중이 와와 소리를 지르며 밀려다니는 광경만을 보아온 박훈이 무장소조론을 시답지않게 대하면서 전면적인 무장공격을 즉시에 개시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남의 집에서 데릴사위로 있던 김철이 그 고분고분한 성미에 어울리지 않게 처음부터 판을 크게 벌려야 한다고 열변을 토할 때에는 참으로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면적 무장공격에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일정한 논거는 가지고 있었다. 일본은 9.18 사변으로 만주강점의 목적을 손쉽게 달성하려고 상해를 비롯한 관내의 여러 요충지들을 점령하였다, 동3성에는 ≪만주국≫이라는 괴뢰국가가 새로 태어나 깃발을 걸었다, 다음 목표는 어디인가? 중국본토와 쏘련이다. 지금 일본군대가 정세의 추이를 관망하면서 공격속도를 늦추고 있지만 무슨 트집을 또 하나 잡아서 중국을 들이치고 쏘련을 공격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때문에 현재 조직된 무장부대들로 전면적인 군사작전을 개시하는 것은 전쟁의 수렁창에 깊이 끌려들어가고 있는 일제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것으로 될 것이다, 우리 유격대가 적극적 공격자세를 취하는 것은 역사가 부르는 명령이다, 이것이 그들의 논거였다.

김일룡은 이 급진적인 주장에 대하여 ≪이불깃을 보고 발을 펴라≫는 속담으로 간단히 무시해버렸다. 사실 그것은 반일인민유격대의 준비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모하고 주관적인 견해였다.

물론 우리가 카륜에서 제기한 무장투쟁노선은 일제와의 전면적 무장대결을 예견한 것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의 기본양상이 조직적이고 전면적인 무장대결로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었다. 그러나 첫 걸음은 뗀데 불과한 유격대가 아무런 자체준비도 없이 처음부터 그런 길을 걷는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이외에 다른 부류의 견해가 또 하나 있었다. 그것은 적을 알고 자기도 알면 백전백승이요, 적도 자기도 다 모르면 백전백패한다는 이치를 내대는 신중론이었다.

신중논의 제창자들은 말하였다. 우리의 적은 강적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수에 있어서나 질이 있어서나 갓 태어난 어린 싹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막강해지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지만 지금은 은밀히 활동하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힘을 꾸준히 키워야 한다. 우리의 투쟁이 장기성을 띠는 만큼 끈기있게 역량을 축적했다가 적이 약해지는 기회를 노려 일격에 쳐서 꺼꾸러뜨려야 한다고.

이 견해는 매우 미온 적이고 시간을 가늠할 수 없는 막연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우리는 이런 논의를 소사하에서 처음 한 것이 아니었다. 고유수에서 혁명군을 조

직할 때에도 그와 유사한 논의를 한 적이 있었고 카륜에서 무장투쟁노선을 확정하고 명월구회의 조직적인 유격전쟁을 전개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할 때에도 그와 비슷한 논의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미전부터 우리와 조직생활을 같이해온 동무들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의도를 원만히 파악할 수 없었다.

대오안에서 중요한 노선상 문제를 놓고 이처럼 각이한 목소리가 울려나온 것은 반일인민유격대의 청소한 면모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부대는 직업과 지식정도, 출신지역과 출신조직이 각이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같은 출판물들과 중학강의록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받아보면서 꾸준히 눈을 틔워온 청년들이 있는가하면 장광자의 ≪소년방랑자≫나 최서해의 ≪탈출기≫와 같은 소설작품들을 읽고 사회개조의 푸른 꿈을 키워오다가 유격대에 입대한 청년들도 있었으며 학교물은 조금도 먹어보지 못했지만 적위대나 소년선봉대와 같은 혁명조직들에서 몇 해 동안 정치적 수련을 쌓아오다가 총을 한 자루씩 얻어가지고 무장대오에 들어온 청년들도 있었다. 그러므로 사물현상을 이해하는데서 자연히 수준상 층하가 생기기 마련이었다.


윤봉길

이런 실태는 우리로 하여금 부대내에서 사상의 유일성, 행동의 일치성, 관습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첫 공정으로 유격대의 전술적 원칙과 중요한 노선상 문제에 대한 이해에서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과 이 공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갓 태어난 반일인민유격대가 첫 걸음에서부터 조난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나는 차광수와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우리의 전술적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동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무장소조론은 안중근의 전철을 밟겠다는 사상이다. 테러로써 일제를 굴복시키겠다는 것은 망상이다. 이등박문은 죽었지만 일본의 통치는 그대로 살아서 오히려 ≪만주국≫의 조작까지 보고 지금은 중국 본토에까지 촉수를 뻗치고 있지 않은가. 경우에 따라서 반일인민유격대가 소조활동을 할 때도 있겠지만 소조가 기본적인 전투단위로 되어서는 안된다.≫≪전면적 무장공격으로 즉시에 이행하자는 주장도 비현실적이다. 100명 남짓한 부대를 가지고 수십수백만을 헤아리는 일본의 대군과 정면으로 맞붙어 싸우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100명의 돌격전으로 수십 만 대군을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경솔한 판단이겠는가. 동무들, 제발 적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당분간은 중대를 기본단위로 하여 유격전을 벌이자. 소조단위로 활동해가지고서는 큰일을 치르지 못한다. 앞으로 부대가 커지면 더 큰 단위로 활동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중대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처음부터 대부대를 모을 형편이 못된다는 것이야 동무들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항일전쟁은 몇 번의 전투로 끝나는 단기전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적은 역량으로 시작을 땐 다음 전쟁과정에 무력을 끊임없이 축적하고 확대하였다가 때가 되면 전인민적 무장봉기와 배합된 결전으로써 최후승리를 달성해야 한다. 우리는 경편한 무장을 갖추고 영활하게 기동하면서 집중된 적을 분산시키고 분산된 적은 각개격파하며 큰 적은 피하고 작은 적은 먹어치우는 방법으로 시종일관 대방에 대한 전략전술적 우세를 보장하며 부단한 소모전으로 일제를 타승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유격전이며 여기에 바로 유격전의 묘미가 있다. 싸움은 하지 않고 역량만 살금살금 축적하면서 때를 기다렸다가 일격에 적을 때려부시

자고 주장하는 신중론자 동무들, 투쟁과 희생이 없이 그리고 유혈이 없이 때가 저절로 온다고 생각하는가. 그 누구도 우리에게 독립할 기회를 선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기회는 우리가 투쟁으로써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나는 이런 말로써 대원들에게 우리의 의도를 납득시키었다.

물론 모든 대원들이 즉석에서 내 말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였다. 개중에는 자기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완강하게 고집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나는 실천투쟁만이 십인십색으로 벌어지는 우리의 논쟁에 아퀴를 짓고 진리가 어느쪽에 있는가를 판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유격대의 활동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에 시간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항일전쟁의 길에 나선 우리 부대앞에는 그 당시 아래와 같은 과업들이 제기되고 있었다. 첫째로, 반일인민유격대를 실천투쟁속에서 단련시켜야 하였다. 둘째로, 부대를 질량적으로 급속히 확대강화해야 하였다. 셋째로, 혁명군대가 의거할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축성하고 유격대의 주위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워야 하였다.

우리는 이상의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남만원정에서 찾고 그것을 1932년 한해 동안의 주되는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우리가 안도에서 조직한 무장부대는 다른 현이나 구에서 조직한 무장부대들과는 다른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현의 유격대가 해당 현의 유격대가 해당 현의 출신들로 조직되었다면 안도유격대는 동만, 남만의 여러 현에서 선발된 전위분자들과 국내에서 들어온 선각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른 지방의 유격대가 자기 지방에 정착하여 활동한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면 우리 부대는 판도를 한 두 고장에 국한시키지 않고 백두산 지구와 압록강, 두만강 연안의 전반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안도는 지역적으로 볼 때 유격전에 매우 유리한 고장이였지만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방금 껍질을 터치고 태어난 우리 유격대는 광활한 대지에 나가 비바람을 맞으면서 줄기와 가지를 자래우고 인민들속에 뿌리를 내려야 하였다. 성급하게 투쟁일면에만 치우치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자기 보존만을 생각하면서 한자리에 앉아 어물어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용납할 수 없었다.

우리가 반일인민유격대의 첫 출발을 원정으로 선택한 하나의 중요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남만원정의 주되는 당면목적은 압록강연안에서 활동에서 독립군부대들과의 연계를 맺는 것이였다. 남만의 통화지방에는 양세봉사령이 지휘하는 독립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들과 공동전선을 맺으려고 하였다.

양세봉의 관할하에 있는 독립군역량이 수백 명이나 되었다. 그 부대를 조선혁명군이라고도 하였다.

안도에서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되던 당시는 양세봉이 당취오의 자위군과 합작하여 일본군과 만주국군을 성과적으로 타승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 전과보도가 소사하골짜기에까지 날아와 우리를 기쁘게 해주었다.

박훈은 양세봉이 반공이 골수에까지 사무친 국민부계통의 민족주의자인데 공산주의자들과 합작을 달가와하겠는가 하고 머리를 기웃거렸지만 나는 중국의 구국군과도 공동전선을 맺었는데 반일이라는 공동의 경륜을 두고 한 핏줄을 가진 사람들끼리야 손을 잡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고 하면서 독립군부대와의 통일전선을 어떻게 하나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내가 양세봉과의 합작이 성공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은 그가 우리 아버지와 깊은 친교관계를 맺어온 사람으로서 나를 몹시 사랑해주었다는 지난날의 정의와 인맥관

계를 중시한데도 있었다. 김시우와 양세봉이 화전에서 우리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고 사진까지 찍었다는 말을 나는 벌써 어린 시절에 들었다. 양사령과 우리 아버지 사이의 친분이 이만저만 두텁지 않았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그가 나를 위해 화성의숙에 보내는 소개서신도 써주지 않았을 것이며 길림에 나타날 때마다 육문중학교에 찾아와 내 손에 돈도 쥐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학비난 때문에 남들이 사먹는 호떡조차 입에 넣어보지 못하고 푼전을 아껴가던 그 시절에 그가 준 돈을 얼마나 요긴하게 썼는지 모른다.

왕청문 사건이 있은 후 국민부일반에 대한 환멸로 하여 양세봉과의 관계도 자연히 소원해졌지만 나는 그에 대한 고마운 정을 마음속에서 조금도 지우지 않고 있었다. 유격대를 창건해놓고도 그 출로를 찾지 못해 안타깝게 모대길 때 양세봉을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맨 처음으로 떠오른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통일전선도 통일전선이지만 여러 해 동안의 실전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서 필요한 조언도 듣고 고무도 받고 싶은 욕망이 그만 못지않게 간절하였다.


이홍광

총알맛을 한번도 보지 못하고 출정의 기쁨에 들떠있던 우리들에 비하면 양세봉사령은 백전로장이라고 할 수 있었다. 우리가 민족주의자들 앞에서 독립군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겠다는 결의를 여러 차례 표명하였지만 그것은 인민의 힘에 의거하지 않는 나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지 그들의 군사경험이나 기술까지도 무시해버리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왕청문에서 국민부에 의한 백색테러를 체험할 때 다시는 독립군영감들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피눈물을 머금고 결심하였지만 민족해방의 공동성업이라는 경륜을 앞에 두고 우리는 과거의 허물을 들추지 않기로 하였다. 과거를 계산하게 되면 합작을 이룩할 수 없었다.

남만에는 양세봉부대외에도 이홍광, 이동광과 같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지도하는 항일무장부대들이 있었다. 이홍광이 1932년 5월에 조직한 유격대를 반석공농의용군이라고 하였다. 이 부대는 후날 중국공농홍군 제 32군 남만유격대로,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으로 개편되었다.

이홍광이 유명한 인물로 된 것은 그가 뛰어난 지략과 영군술을 가지고 부대를 능숙하게 지휘한데도 있지만 관동군신문, 만주국신문과 같은 적의 출판물들이 그를 ≪여장군≫이라고 오보한데도 있었다.

이홍광이 ≪여장군≫으로 불리워지게 된데는 만사람의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희극적인 사연이 있었다. 동흥습격전투를 끝내고 근거지로 돌아온 후 이홍광은 자기의 휘하에 있던 한 여성유격대원을 시켜 포로들을 심문하게 하였다. 그 여대원은 심문에 앞서 ≪나는 이홍광이다≫하고 자신을 소개한 다음 포로들에게 경찰의 병력배치와 ≪토벌≫계획을 전술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포로들이 돌아가서 ≪이홍광은 20살쯤 난 미인이더라≫는 소문을 퍼뜨려놓았다. 이렇게 되어 일본군인들속에서는 이홍광이 ≪여장군≫이라는 말이 떠돌기 시작하였다. 이홍광이 무장투쟁을 통하여 군사가로서의 기지와 담력을 남김없이 발휘한 사람이라면 이동광은 당건설과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데서 특출한 솜씨를 보여준 유능한 정치일군이었다. 그의 이름은 벌써 1920년대 후반기부터 동만지방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나에게 이동광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준 사람은 김준, 서철, 송무선이었다. 이동광은 용정에서 동흥중학교를 다닐 때부터 벌써 학생운동의 지도자로 두각을 나타내

기 시작하였다. 용정에서 이동광이 제1차 간도공산당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감옥에서 탈출하였다는 소식이 길림에까지 날아왔다.

나는 1930년대 하얼빈에서 서철동무를 만난 일이 있는데 그가 지나가는 말로 얼핏 이동광이 나를 알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안창호 선생이 길림에 와서 강연을 할 때 나를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서철에게 이동광을 만나면 우리의 투쟁전략을 전하라는 것과 언제인가는 서로 만나 인사도 나누고 같은 전호에서 손잡고 싸우게 될 것이라는 나의 말도 전하도록 하였다.


이동광

후에는 이동광이 남만특위서기, 동남만성위 조직부장을 역임하였지만 우리가 남만원정을 준비하던 당시는 반석현에서 구위서기로 활동하고 있었다.

동만과 마찬가지고 남만지방에서도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항일무장역량의 골간을 이루고 있었다.

우리는 남만에 나가면 그들과도 연계를 가지려고 하였다. 유년기에 있는 부대들이 서로 만나 경험도 나누고 투쟁대책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것은 반일인민유격대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나는 간주하였다. 실지로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의 전 행정에서 남만지방의 유격부대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활동하였다. 그런 과정에 나는 이홍광, 이동광, 양정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었다.

유하, 홍경, 반석을 비롯한 남만일대는 우리의 조직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 우리는 중부 만주일대에서 활동할 때 이 지역들에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의 우수한 일군들을 많이 파견하여 조직공장을 시키었다. 최창걸과 김원우도 거기에 보냈다. 그런데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 태어난 조직들이 9.18사변 후 혹심하게 파괴되었다.

우리가 남만에 나가면 이런 조직들을 복구하고 위축된 혁명가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데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었다.


김정룡

어떤 역사가들은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된 다음 우리의 모든 활동이 아무런 장애와 곡절이 없이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진행된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데 혁명이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방금 창건된 유격대의 첫 노정을 남만원정으로 잡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까지에는 실로 많은 심리적 고충과 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는 1932년 5월에 구당본부가 자리잡고 있는 김정룡의 집에서 동만의 각 현들에서 활동하는 당과 공청의 지도핵심들이 참가하는 회의를 열고 남만원정문제와 근거지 창설문제를 토의하였다. 우리가 제기한 남만원정안은 회의참가자들의 일치한 지지찬동을 받았다. 부대안에서 두세갈래로 갈라져 격렬한 논쟁을 벌이던 청년들도 이 원정방침을 흔연히 받아들이었다.

우리가 원정준비에 열을 올리던 어느 날 부대 참모장으로 임명된 차광수가 문득 심각한 얼굴로 내앞에 나타나 이런 말을 하였다.

≪대장동무, 원정을 갈 바엔 며칠안으로 이 소사하를 빨리 뜨는 것이 어떻겠소? 근처엔 신작로가 있어 적수송대가 자꾸 지나다니는 것도 재미없구, 식량사정두 매우 곤란한 형편이오. 농가는 40호 정도밖에 안되는데 100명이 넘는 식솔이 모여서 먹어대니 소사하가 아무리 인심후한 동네라고 한들 어떻게 견디어 내겠소.≫봄부터 기근이 들어 춘황폭동을 일으켰던 실정이기 때문에 식량사정에 대한 하소연은



그의 설명이상으로 나를 충분히 설득시키었다.

그러나 적수송대의 내왕이 잦기 때문에 빨리 소사하를 떠나야 한다는 문제설정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나는 안도땅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리자는 차광수의 제의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참모장 동무, 기왕 우리가 총을 들고일어난 이상 한 번 싸워보는 것이 어떻소?≫≪전투를 하자는 거요?≫

≪그렇소, 부대를 무었으니 이제는 싸움을 시작해야지. 적이 코앞에서 왔다갔다하는데 팔짱을 지르고 구경만 하고 있을 멋이야 없지 않소. 떠날 때는 떠나더라도 안도땅에서 한번 총소리를 내 봅시다. 전투가 없이야 대원들을 단련시킨다고 말할 수 없지. 잘만 하면 원정에 필요한 물자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소.≫ 차광수는 그 제의에 쾌히 동의하였다. 그날로 그는 박훈을 데리고 신작로에 나가 지형정찰을 해왔다. 매복전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한 정찰이었다. 그들은 소영자령에서 길

목을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는 수송대를 들이치자는 안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내놓은 안은 나의 구상과 일치하였다. 나는 유격대의 전투형식중에서 가장 적합하고 보편적인 형식을 매복전이라고 간주하고 있었다.

소영자령은 안도에서 명월구로 넘어가는 중간지점에 있었다. 대전자에서 대사하로 빠지는 지름길인데 소사하에서는 직선거리로 약 40리 남짓하였다. 산세가 험하지는 않지만 골짜기를 따라 우마차길이 오불꼬불 나 있어 매복전투를 하기에는 아주 적당한 고장이였다. 적들은 이 도로를 이용하여 안도지구에 투입된 병력들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보급하고 있었다.

때마침 무기와 후방물자를 실은 위만군의 마차수송대가 명월구에서 안도방향으로 떠났다는 지방조직의 통보가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나는 남만에 가기로 예정되어있는 대원들을 데리고 신속한 야간행군으로 소영자령에 도착한 다음 그들을 길목 양쪽에 매복시키었다.

야간에 매복전을 하는 것은 원래 합리적인 전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적아를 잘 구별할 수 없는 야간에는 매복전보다도 습격전을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었다. 항일전쟁의 전기간을 걸쳐 우리가 밤중에 매복전을 한 실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초행길에 방금 오른 우리로서는 그때 이런 이치를 타산할 수 없었다. 다행히도 보름달이 환히 밝아서 아군끼리 혼전을 벌이는 것과 같은 불상사는 피할 수 있었다.

수송대는 밤이 깊어갈 무렵에야 소영자령에 나타났다. 100미터 전방에 매복한 제1진의 대원들이 적이 출현했다는 신호를 보냈다. 적의 수송대는 모두 12대의 말파리로 편성되어 있었다.

나는 자기 심장의 박동을 느낄 수 있으리만치 몹시 긴장되고 흥분되었다. 처음으로 닥치는 일이란 무엇이나 큰 충격과 불안과 위구를 자아낸다는 것을 나는 그때 절실히 체험하였다. 옆에 엎드린 박훈을 보니 그도 어지간히 긴장되어 있었다.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초연맛까지 본 그가 이런 형편이니 다른 대원들의 경우는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매복조는 마치행렬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그 행렬이 두 번째 매복조 앞으로 한절반 들어섰을 때 나는 바위우에 올라서면서 권총을 발사하였다. 골짜기가 깨져나갈듯이 총소리가 울리고 함성이 터졌다.

우리는 팔에 흰수건을 감아서 적아를 쉽게 구별하였지만 급습을 당한 수송대원들은 적아를 가려보지 못하고 눈먼 총질을 하였다. 10여명의 호송병들이 마차에 의지하여 발악적인 응전을 하였다. 시간을 더 끌면 정황이 우리에게 불리해질 수 있었다.

우리는 10분쯤 사격을 계속하다가 돌격에로 이행하여 전투를 단숨에 결속지었다. 적들은 1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투항하였다. 포로된 인원수도 사상자만큼 되었다. 전부가 위만군병사들이었는데 그 중 하나가 일본하사관이었다.

나는 투항한 적들앞에서 짤막한 반일연설을 하였다.

그날밤 우리는 10대의 마차에 전리품을 싣고 무주(목조)툰으로 돌아왔다. 보총 17정과 권총 1정, 그밖에 100여명이 한 달가량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의 밀가루와 천, 군화… 첫 전리품으로는 대단히 푸짐한 양이었다.

밤 12시가 넘어 우등불을 피워놓고 마당에 빙 둘러앉아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국을 먹었다. 첫 전투의 승리를 축하하는 소박한 연회였다.

나는 수제비국을 먹으면서도 후둑후둑 뛰는 심장의 고동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음식맛도 좋았지만 기분상태는 그보다 더 좋았다. 나는 그날밤에 체험했던 첫 전승의 희열과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던 흥분을 6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생생히 간직하

고 있다.

근시경밑으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우등불을 들여다보고 있던 차광수는 갑자기 내 손을 덥석 틀어잡고 목멘 소리로 말했다.

≪이것 보오, 성주! 겪어보니 별게 아니구만.≫

이것이 첫 전투에 대한 참모장의 소감이였다.

나의 소감도 한마디로 집약하면 그런 것이였다. 싸움이란게 별 게 아니다. 총이 있고 담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적은 결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처럼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다, 보라, 그들이 우리앞에 손을 들고 투항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신심을 가지고 더 큰 싸움을 준비하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하는 것이 나의 심정이였다.


차광수

≪이런 때에 김혁이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김혁이만 있으면 벌써 즉흥시가 쏟아져나오는건데. 사람두 그렇게 빨리 가다니. 김혁이, 신한이, 제우, 공영이, 모두 어디에 가고 없단 말인가!≫ 차광수는 넋두리라도 하듯 혼자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뺨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다. 그는 반일인민유격대의 초석을 닦다가 희생된 동지들을 생각하였다. 이날을 보지 못하고 돌아간 전우들의 얼굴이 삼삼히 떠올라 애달픈 심회를 달내일 수 없었다. 그들이 모두 살아있다면 우리의 대오는 얼마나 강하겠는가.

차광수는 안경을 벗어들고 손세를 써가며 우등불앞에서 연설을 하였다.

≪동무들! 우리는 첫 걸음을 떼었소. 우리는 첫 승리를 쟁취하였소. 누구들이 하였는가.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이요.≫그는 두 팔을 벌려 대원들을 한아름으로 안아올리는 시늉을 하였다.

≪총을 들었으며 그 총은 발사되어야 하고 총이 발사되었으면 승리해야 하오. 안 그렇소? 오늘 저녁에 우리는 마차수송대를 하나 소멸하였소. 이것은 하나의 작은 사건에 지나지 않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위업의 시작이오. 자그마한 내물이 심산유곡을 떠나 망망대해를 향해 첫 흐름을 시작했단 말이오.≫나는 차광수가 이렇게 흥분한 것을 처음으로 보았다.

그날밤 그는 참으로 훌륭한 연설을 하였다. 내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가며 적어내려가는 이 글의 기록보다도 그의 연설은 훨씬 더 생동하고 호소적이였다. 그 연설을 여기에 그대로 재생시키지 못하는 것이 유감스럽다.

≪동무들, 싸우니까 얼마나 좋은가. 총이 생기고 식량이 생기고 피복과 신발이 생기고 나는 오늘 저녁에 위대하고 심오한 변증법을 배웠소. 이제 우리는 노획한 총을 나누어 가집시다. 그래서 그 총으로 또 새 적을 쏴눕힙시다. 그러면 더 많은 총이 생길 것이고 식량이 생길 것이오. 기관총과 대포도 생길 것이오. 노획한 양식으로 미대를 채웁시다. 그것을 먹으면서 기운차게 행군해갑시다. 일제가 완전히 소멸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늘처럼 무기와 식량을 그들에게서 받아냅시다. 이것이 우리의 생존방식이고 투쟁방식이 아니겠소.≫그가 연설을 끝내자 나는 맨 선참으로 박수를 쳐주었다. 온 장내가 열렬한 박수갈채로써 그의 연설에 대답하였다.

그 다음 누구인가 일어나서 노래를 불렀다. 조덕화였던지, 박훈이였든지 기억이 삭막하지만 아주 감흥이 넘치는 노래였다.

우리는 이렇게 신심에 넘쳐 첫 걸음을 내 짚었다.

2. 마지막 모습


강반석여사

우리 부대가 원정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던 어느 날 철주동생이 나를 만나려고 소사하에 찾아왔다. 반일인민유격대가 소영자령에서 일본지도관이 인솔하는 위만군수송대를 들이쳤다는 소문이 안도경내를 넘어 돈화와 연길지방에까지 파다하게 퍼져 어디 가나 그 전승담으로 술렁거릴 때였다. 송강, 대전자, 류수하자의 혁명조직들에서는 소영자령전투의 진상을 알려고 소사하에 일부로 사람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나는 처음에 동생도 그런 사명을 띠고 나타난 것이라고만 짐작하면서 심상하게 대하였다.

그런데 내 짐작과는 달리 철주는 소영자령매복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저 입을 꾹 다물고 대원들이 제식훈련을 하는 모습을 구경하거나 지휘부 옆방에서 원정대에 망라된 대원들과 힘께 짚신삼이로 하루해를 보내는 것이었다. 지휘부가 제정한 원정준비품들의 항목에는 짚신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짐작을 바꾸어 철주가 소사하에 나타난 목적은 원정대의 출발준비를 거들어주려는데 있을 것이라는 제나름대로의 판단을 하였다. 저녁시간이 다되었을 때 철주는 마을의 농민조직 책임자를 만나보고 지휘부로 돌아오는 나를 기다렸다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다. 왔던 김에 저녁이나 같이 나누고 가라고 하였지만 그 청도 사양하면서 그냥 돌아가겠다고만 하였다. 동생은 무슨 말을 할듯말듯하면서도 종시 그것을 입밖에 내지 않고 좀 유다른 표정으로 나의 얼굴을 불안스럽게 살펴보시는 것이었다.

나는 육감적으로 동생이 원정준비나 거들어주자고 소사하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과 나를 찾아온 것을 보면 필경 무슨 사연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였다. 나에게 터놓지 않으면 안될 사연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어머니나 동생자신의 신상에 생긴 어떤 곡절일 것이었다.

나는 지휘부에 들리지 않고 마을어귀까지 철주를 바래다주면서 동생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혹시 토기점골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게 아니냐?≫

내가 토기점골이라고 한 것은 집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집이라는 말은 어쩐지 입에 올리기가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아니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철주는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였다. 연극을 잘하는데다가 해학이 풍부한 동생이어서 내 눈을 속일 수 있는 웃음쯤은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었

다. 그러나 그때의 웃음은 서글픈 빛을 띠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쪽 귀퉁이가 인차 이그러져버렸다. 동생은 내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나의 어깨너머로 먼 허공을 응시하였다.

≪무슨 곡절이 있으면 있다구 실토를 해야지 말을 안하구 그대루 가버리면 나는 나대루 걱정이 될게 아니냐. 이것저것 재지 말구 어서 말해라.≫ 철주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더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어머니의 병세가 더 위독해지신 것 같아요. 이틀째나 밥 한 숟가락 드시지 않았어요.≫동생의 그 말은 뇌성벽력처럼 내 고막을 두드렸다. 나는 어머니가 음식을 전폐하였다는 말에 정신이 아찔해졌다. 어머니가 지금까지 중병으로 시름시름 앓아오셨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처음에 그런 편지를 받고 어머니가 혹시 수토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고도 생각하였다. 무송지방의 주민들가운데는 토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다. 이 병에 걸리면 손이 까드라들고 손가락 매듭이 굵어지며 목병이 나서 노동능력을 상실당할뿐만 아니라 30살을 넘기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다고 하였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오동진이 무송에 와서 우리 어머니에게 길림으로 이사하라고 권고한 동기의 하나도 바로 이 수토병의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자는데 있었다.

어머니는 안도에 오신 후부터 가슴앓이로 고생하였다. 그 당시는 가슴앓이를 ≪적≫이라고 하였다. 가슴속에서 큼직한 무엇이 치밀어오르는 것 같다는 것이 어머니의 호소였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위암이 아니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의사들은 ≪적≫이라고 진단은 내리였지만 치료대책을 세우지 못하였다. 어머니의 병에는 백약이 무효였다. 그저 가슴이 치미면 침상에 눕거나 끼니를 건느거나 미음을 묽게 쒀서 몇 술 뜨는 것이 유일한 치병방법이였다.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리려고 그때 나의 동무들이 여러 모로 애를 많이 썼다. 나의 친구로서 공청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약을 보내주곤 하였다. 신문지상에 나는 광고를 보고 어머니의 병에 좋은 약이라고 짐작되면 값을 따지지 않고 사서 소포로 부치었다. 그런 소포는 길림서도 오고 심양서도 오고 하얼빈이나 용정같은 고장에서도 오군 하였다.

안도지구의 한의들도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대사하에 있는 한의들은 돈도 받지 않고 어머니를 치료해주었다.

나는 철주의 충혈된 눈빛과 침울한 얼굴표정을 보고 어머니의 병세가 이제는 막다른 대목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에 쌀이 있는가고 동생에게 물으니 그것도 바닥났다고 대답하는 것이였다.

나는 다음날 소사하에 동무들이 주는 돈으로 좁쌀 한말(대두 한말)을 사가지고 토기점골로 향하였다. 쌀 한말이면 세 식구(어머니, 철주, 영주)가 한달동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하였다.

대두에 쌀 한말은 15키로그램가량 되었다. 죽도 변변히 먹지 못하는 그때의 우리 집 형편에서 쌀 15키로그램이면 잔치도 치를 수 있는 대단한 양이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한말의 좁쌀이 도무지 성차 보이지 않았다. 멜빵이 어깨를 아프게 파고들었지만 나는 도무지 그 쌀짐이 무겁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다. 어머니가 나에게 기울인 사랑에 비하면 오히려 솜털같이 가볍다는 생각만 들었다.

나는 전에 아버지한테서 13도창의대장으로 추대된 과정을 보면 아주 극적이고 교훈적인 데가 있었다. 관동의 병장들이 이인영을 자기네 의병부대의 지도자로 추대하려고 찾아갔을 때 그는 임종직전에 이른 노부의 곁에서 병시중을 들고 있었다. 이인영은 그때 의병은 다른 사람이 지휘할 수 있으나 부모는 한번 돌아가면 다시 만나뵐 수 없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노부를 두고 내가 어떻게 감히 집을 떠난단

말인가, 나는 불효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그 청을 사양하였다. 그러다가 나흘째되는 날에야 그들의 청을 받아들였다.

전국의 의병들은 앞을 다투어 이인영의 휘하에 모여들었는데 그 수는 무력 8,000명에 달하였다. 얼마후에는 허위, 이강년의 부대까지 합세하여 창의군의 역량은 8,000명으로부터 1만명으로 불어났다. 소총으로 무장한 3,000명의 구한국군도 이에 합류하였다.

전국의 의병장들은 이인영을 13도창의대장으로 추대하고 그의 진두지휘에 따라 서울로 진격하였다. 서울로 쳐들어가서 일거에 통감부를 격파하고 보호조약을 폐기하자는 것이 의병의 궁극적인 목적이였다.

이 작전계획에 따라 의병부대들이 서울로 육박하고 있을 때 부친상을 당한 이인영은 지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홀연히 고향으로 내려가고 말았다. 그의 귀향은 선발대로 나섰던 허위의 패배와 함께 의병의 사기를 저락시키고 부대를 와해에로 몰아넣는 비참한 결과를 빚어내게 하였다.

나는 학생운동을 할 때 길림에서 유길학우회에 망라된 성원들과 함께 부친상을 당한 이인영이 고향에 내려간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많은 동무들이 이인영을 쓸개빠진 의병장이라고 비난하였다. 1만 명을 통솔하는 의병대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서울진공이라는 대업을 앞두고 부친상을 당했다고 집으로 돌아갔으니 그게 무슨 사나이이고 애국자인가고 하면서 막 기염을 토하였다.

하지만 모두가 이인영을 비판만한 것은 아니었다. 개중에는 그를 두둔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부친상을 당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 상제의 구실을 하는거야 응당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고 하면서 그를 효자라고 추어올리기까지 하였다.

지금은 나라에도 충실하고 부모에게도 효성을 다하는 사람을 효자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는 부모들에게 효도를 다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효자라고 하였다.

나는 이인영의 행동은 참된 효자의 표본이 되지 못한다고 논박하였다.

≪나라와 가정을 다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참다운 효자라고 할 수 있다. 가정만을 중시하고 나라의 환난을 경시한다면 그런 사람을 어찌 효자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이제는 우리도 효성에 대한 유교적 가치관을 바로잡을 때가 되었다. 이인영이 만일 자기 책임을 다하여 목적을 성취하고 나서 부친의 묘소를 찾아 술이라도 붓고 분향재배하였다면 그의 이름은 후손들앞에 더 빛을 냈을 것이다.≫이것은 봉건도덕과 유교적 효성관이 골수에까지 깊숙이 배겨있던 사람들의 낡은 사상에 대고 던진 폭탄과 같은 선언이였다.

유길학우회 성원들은 두 패로 갈라져 성주의 말은 참고할 가치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면서 치열한 논전을 벌이였다.

지금 우리 사로청원들이나 소년단원들에게 있어서는 논쟁할 여지가 없는 단순명백한 문제이지만 그때로서는 어느 것이 옳다거나 또 어느 것이 그르다고 판정하기 어려운 상당히 까다로운 논쟁거리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나라와 가정을 다같이 사랑하는 것이 진짜배기 효성이라는 것을 온 나라 인민이 한 사람처럼 깨닫고 그것을 신념으로 받아들이기까지에는 실로 수십 년의 역사가 필요하였고 피눈물로 얼룩진 체험이 필요하였다.

쌀짐을 지고 토기점골의 집으로 찾아갈 때 나는 새삼스럽게 이인영의 이 일화를 생각하였다. 어째서인지 그 창의대장의 행실이 옳은 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 지난날 쓸개빠진 의병장이라고 입을 모아 비난했던 그 사람의 행위에서 내가 약간의 정의나마 발견하고 마음속으로나마 그를 동정하고 그에게 약간의 이해를 표시하게 된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였다.

사람이 혁명을 한다고 가정을 망각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며 그것은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혁명도 인간을 위한 것인데 혁명가들이 어떻게 가정을 무시하고 부모처자의 운명에 무심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항상 가정의 행복과 나라의 운명을 하나의 맥락에서 보아왔다. 나라가 역경에 처하면 가정도 편안할 수 없으며 가정에 그늘이 지면 동시의 나라의 표정도 어두워진다는 것이 우리의 지론이였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전사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적구에 한 개 연대의 병력을 파견하는 전쟁사상 유례없는 조치도 서슴없이 취할 수 있었다. 이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만이 지킬 수 있는 의리이고 도덕이였다.


어머니가 부녀회사업을 지도하시던 집

나도 초기에는 이 도덕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다. 감옥에서 나와 동만땅으로 활동무대를 옮긴 다음에는 돈화와 안도를 중심으로 하여 여기저기를 왔다갔다하면서 집에도 종종 들리고 어머니의 병에 도움이 될만한 약재도 뻔질나게 구해드렸다.

그런데 그것이 그만 어머니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다. 내가 집에 드나드는 회수가 잦아지게 되자 어머니는 어느 날 나를 앉혀놓고 이렇게 타이르는 것이였다.

≪네가 혁명을 하려거든 혁명에 전심하고 세간살이를 하려거든 세간살이에 전심하고 양자간에 어느 하나를 택하거라. 내 생각같아서는 집에 철주도 있고 우리들끼리 벌어먹을 수 있으니 너는 집근심일랑 하지 말고 혁명에만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나는 이런 말을 들은 다음부터 집으로 다니는 회수를 줄이였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한 후에는 거의나 집에 드나들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후회되였다. 어머니가 경계하더라도 나로서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했어야 했을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아팠다. 가정에도 충실하고 나라에도 충실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였다.

토기점골이 가까워질수록 내 걸음은 어쩔 수없이 빨라졌다. 그 대신 마음은 각일각으로 무거워졌다. 중환에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뵙게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산란해졌다.

물웅뎅이에는 갈대가 벌써 퍼그나 자라 바람에 흐느적이고 있었다. 갈이 많아서 이 고장을 갈밭마을이라고 했었는데 아래촌에 사는 김병일네가 몇 해전부터 토기를 구워 팔면서부터 이 한적한 심심벽촌도 천지개벽을 하여 토기점골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통나무를 가로질러놓은 다리를 건너 웃마을로 올라갔다. 낯익은 초가가 어느새 내 눈에 비쳐들었다. 엉성한 싸리바자도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볏짚 이영도 제때에 갈지를 않아 폐가와 같이 한산해보이는 집, 그것이 바로 몇 해째 남정의 손이 닿아본 적이 없는 우리 집이였다.

삽짝문을 열고 뜨락에 들어설듯말듯하는데 방문이 급하게 벌떡 열리였다.

≪어머니!≫

나는 문설주에 기대앉아 웃고 계시는 어머니앞으로 총총히 다가서며 소리쳐 불렀다.

≪글쎄 내 아무래두 발자국소리가 귀에 익다 했지.≫

어머니는 토방위에 벗어놓은 쌀자루의 멜빵을 만지며 반가와서 어쩔줄 몰라하였다. 집출입이 잦다고 꾸중을 하시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도 그런 나무람은 없었다.

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얼마동안 문안이야기가 오락가락하였다. 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어머니의 안색이며 음성이며 몸가짐이며를 순간순간마다 살피면서 건강상태를 가늠해보려고 애썼다. 외형으로 보아서는 지난 겨울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는데 기력은 흠뻑 줄어들었다는 것이 알리었다. 팽팽하던 가슴도 홀쭉해지고 목도 가늘해지고 귀밑머리에는 흰오리마저 눈에 뜨일만치 섞여있어 어쩌면 세월이 이렇게도 일찍 우리 어머니의 모습에 눈물겨운 흔적을 낼 수 있을까하는 서글픈 마음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나는 그날밤 어머니와 함께 자정이 넘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본군대가 어데까지 들어왔는가, 유격대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양세봉선생과는 어떻게 손을 잡으려고 하는가, 근거지에서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두서없이 주고받은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어머니는 화제를 자꾸만 정치문제로만 유도하였다. 집안 살림이나 자신의 병세가 화제에 오르면 얼른 매듭을 지어버리고 다른 문제를 꺼내어 내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아들에게 병을 숨긴다는 것은 어머니 자신이 그만큼 중태에 빠져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나는 판단하였다. 어머니의 앞날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육감적인 판단은 나로 하여금 등골에 찬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전율을 느끼게 하였으며 남모르는 눈물을 삼키게 하였다.

다음날 나는 아침밥을 일찍 해먹고 철주동생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 나무를 하려는 것이었다. 집둘레를 돌아보니 땔나무도 한두 단밖에 보이지 않았다. 집에 들린 기회에 나무라도 몇 짐 해놓고 가면 마음이 좀 가벼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욕심같아서는 손을 댄 김에 몇 달 분의 화목을 해놓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산이 깊지 않다보니 강대도 칠 것이 없어 부득불 쉬나무를 베지 않으면 안되였다.

≪철주야, 이런 것 말구 더 분한이 있는게 없겠니?≫

내가 이렇게 묻자 동생은 무명잠뱅이를 추어올리며 대답하였다.

≪아무거나 한 짐 해가지고 내려가지요. 어머니가 알면 꾸중하시겠어요.≫겉보기에는 철부지같았는데 벌써 철이 다 들었다.

철주는 낫질을 하면서도 연송 초조하게 마을쪽을 내려다보았다.

어머니몰래 나무를 하러왔는데 낌새를 채면 어쩌나 하는 눈치였다. 내가 집안일에 잔신경을 쓰면 어머니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나는 쉬나무가지를 휘여잡으며 손에서 불이 일게 낫질을 하였다.

우리는 해가 질 무렵에야 지게에 나무단을 올려놓고 마을로 내려왔다. 갈밭이 내려다보이는 굽인돌이에 나서자 마당끝에 서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띄웠다.

나는 작시미를 짚고 산길을 내리면서도 줄곧 무거운 상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였다. 중환에 계시는 어머니를 두고 원정을 떠나게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여질 것 같았고 앞길이 막막해보였다. 우리는 원정의 기한을 한두 달로 정하였지만 그 한두 달사이에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되고 부대의 행로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이전처럼 몇 해 더 지하투쟁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서 몇 달에 한번씩 집에 들려 가정사도 의논하고 어머니를 위로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한뉘 고생속에서 살아오시었고 남달리 심적 고통도 많이 겪어오신 어머니를 위해 내가 자식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아니겠는가, 할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신 지 얼마안되는 때에 나마저 이 안도땅을 훌쩍 떠나고 나면 허전하고 의지할 데가 없어 병약한 어머니가 어떻게 견디어내시겠는가, 그렇다고 하

여 나 일개인 가정문제 때문에 유격대의 한해 활동방침으로 이미 설정해놓은 남만원정계획을 취소할 수도 없지 않은가.

≪아니, 이 산에서 땔나무가 없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느냐?≫ 사립문가에서 우리를 기다리던 어머니가 문득 언짢은 목소리로 나에게 물었다.

나는 대답대신 웃음을 짓고 땀을 씻으며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차츰 네가 이상해진다. 무송에 있을 때두 그렇지 않았구 저너머 흥륭촌에 있을 적에두 그럴줄 몰랐는데 요새는 집걱정이 늘어났으니 말이다.≫어머니의 음성이 갈려있었다.

≪오래간만에 풀냄새를 맡으니 가슴이 후련해지는구만요.≫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못들은 체하고 천연스럽게 뜨락으로 걸어들어갔다.

그날저녁 우리는 오래간만에 네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았다. 접시위에는 버들치구이도 놓여있었다. 그 버들치구이가 별맛이었다. 어데서 생긴 찬이냐구 물었더니 어머니는 막내동생이 형이 오면 상에 놓은 찌게가 없어 야단이라구 걱정하던 끝에 낚시질을 해서 처마끝에 꿰미채로 걸어 말린 것이라고 하였다.

손가락만큼한 것이 한 접시였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아 다 없애지 못하고 몇 마리 남기였다.



철주동생이
공청사업을 하던
아지트

막내동생이 잠든 다음 어머니는 비스듬히 벽에 기대였던 상체를 일으켜세우고 심각한 어조로 나에게 말씀하였다.

≪내가 보니 너는 이전보다 좀 달라졌다. 네가 쌀자루까지 지고 다니며 어머니를 부양하게 될 줄은 몰랐다. 앓고 있는 것은 이 애미 걱정 때문이겠지. 너의 효성이 지극하니 고맙기는 하다만 그만한 것으로 위안을 받을 내가 아니다. 부녀회를 늘이려고 무송에서랑 네 손목을 잡고 험한 영을 넘어다닐 때에 오늘 이런 위안이나 받자고 그랬겠느냐? 너에게는 더 큰 일이 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야 하지 않겠니.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조선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내 걱정은 말구 어서 네 갈길이나 빨리 가거라.≫어머니의 말마디들은 격정으로 떨리였다.

내가 고개를 쳐들었을 때 어머니는 입술을 사려문 채 다음 말을 잇지 못하였다. 어머니의 인생관이 마디마디 집약되어 그것이 나의 온 심혼을 폭풍처럼 흔들어놓았으며 폐부에 깊숙이 새겨지는 천금같은 순간이였다.

어머니는 잠시 숨을 돌리고나서 말씀을 이었다.

≪나무를 한다는 것도 그렇다. 네가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어머니나 동생들이 없었던 셈치고 집걱정은 아예 말아라. 네가 집을 떠나서 혁명사업을 잘하면 내 병이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 너는 부대를 데리고 곧 떠나거라. 그것이 내 소원이다.≫나는 즉석에서 대답을 올리었다.

≪어머니의 뜻을 명심하겠습니다. 오늘밤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소사하로 갔다가 부대를 데리구 남만으로, 양세봉선생한테로 곧 떠나겠습니다.≫ 나는 눈물이 콱 쏟아져나와 벽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어머니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지 구석쪽에 놓인 반짇고리를 끌어당겨 나의 군복저고리에 단추를 달기 시작하였다.

내 눈앞에서는 어째서인지 아버지의 장례식때에 체험했던 일이 느닷없이 떠올랐다.

그때 어머니는 상복도 입지 않고 아버지의 묘소에도 가지 않았다. 우리 삼형제들만 상복을 입혀서 장례에 보냈다. 오동진, 장철호, 양세봉을 위시한 독립군들이 우리 삼촌과 함께 수십 명 영구를 따라갔지만 어머니만은 묘지에 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되어 오월단오가 되었는데 그때 우리는 어머니보고 산소에 가자고 졸랐다.

어머니는 나야 거기 가서 뭘하겠니, 너희들끼리나 가라고 하면서 끝내 산소에 가지 않았다. 그 대신 우리에게 제물을 꾸려주고는 향불은 어떻게 피우고 술은 어떻게 부으며 절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 대주었다. 어머니가 우리와 함께 산소에 가지 않은 것은 자식들에게 눈물을 보이기 않기 위해서였다고 생각된다.


마동희의 어머니 장길부

어머니는 아버지의 묘소에 혼자서 가군 하였다. 그 관례를 깨뜨린 것은 단 한번, 이관린이 장례에 참가하지 못하고 뒤늦게 무송에 나타나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는데 그때뿐이었다. 그때 어머니는 이관린을 묘지까지 안내하였는데 그가 너무 슬프게 조상을 하던 나머지 기절할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울지 말라고 달리기까지 하였다.

우리 어머니는 이처럼 인정에 무른 분이었지만 눈물이 없었다. 여성으로서는 실로 드물다고 할만치 강의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어린 시절에 목격한 어머니의 놀라운 천품이 나의 일생에 잊혀지지 않는 인상으로 남아있다.

이런 어머니었기 때문에 그처럼 쓸쓸한 병상의 고독속에서도 서슴없이 아들이 갈길을 재촉할 수 있었고 아들에게 매를 대는 심정으로 온몸과 넋이 짜릿짜릿하게 한 생의 좌우명으로 되는 심각한 훈계의 말씀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보통 어머니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늘 마동희의 어머니 장길부녀사를 보통어머니가 아니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어머니가 해방 후 나를 만났다. 그런데 그분은 울지 않았다. 다른 여자들은 만나자마자 다 울었지만 그 어머니만은 울지 않았다. 내가 아들의 전우들이 많은 평양에서 살라고 했더니 장길부어머니는 아들이 고발한 원쑤들을 찾아내야겠다고 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고향으로 내려갔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서 밖으로 나갔다. 찌그러진 싸리바자 앞에서 찬공기를 쐬며 거닐고 있는데 철주가 조용히 문을 열고 토방에 나섰다.

우리는 둘이서 나무단을 깔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철주는 지금까지 공청사업에만 열중하다보니 어머니를 잘 돌봐드리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형이 집걱정을 하지 않도록 처신을 잘하겠노라고 하였다. 사실은 내 자신도 그런 부탁을 하고 싶었는데 동생이 먼저 말을 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에 우리는 콩비지를 맛있게 해먹었다. 나는 밥상을 물리고 나서 뒤집에 있는 김정룡이를 만나러 찾아갔다. 동생들의 운명문제를 의논하고 싶어서였다.

내가 남만으로 당장 떠나가야겠는데 집일이 걱정되어 토기점골에서 선뜻 발걸음을 떼지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실토했더니 김정룡은 집일은 다 나한테 맡기고 떠나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동생들도 돌보고 어머니의 병구완도 잘 할 테니 염려말라고 하였다.

나는 집에 나와 길떠날 채비를 하였다.

내가 신발끈을 메고 있을 때 어머니는 고리짝밑에서 5원짜리 지전 넉장을 나에게 주었다.

≪객지생활을 하느라면 돈을 써야할 때가 많겠는데 이걸 건사해라. 남자의 주머

니에는 정 급할 때 쓸 돈이 있어야 한다. 청나라말기에 손중산선생이 외국대사관 감옥에 갇혔을 때에두 소제부한테 돈을 몇 잎 쥐여주고 빠진 일이 있었다고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지 않더냐.≫정작 돈을 받아들였지만 손이 떨려서 주머니에 넣지 못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 망설였다. 그 돈 20원에 얼마나 큰어머니의 노고가 깃들어 였는가를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손가락끝이 모지라도록 삯빨래도 하고 삯바느질도 해서 푼푼히 저축해둔 20원의 돈, 소 한 짝에 한 50원정도식 할 때였으니 그만한 돈이면 중소 한 마리는 살 수 있었고 쌀을 사서 세 식구가 일년은 살아갈 수도 있었다.

나는 마치 그 돈의 무게 때문에 몸의 균형을 잃거나 한 것처럼 비척거리면서 토방밑에 내려선 다음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고개를 숙여 작별인사를 하였다. 그 순간에 내가 명심한 것은 나의 인사가 다른 때와 유다른 점이 있어서 어머니를 울리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였다. 그래서 될수록 표가 나지 않게 보통때와 다름없이 범상하게 인사를 하였다.

≪어서 떠나거라. 아무래도 갈 길인데.≫

어머니는 병색이 짙은 얼굴에 애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내가 걸음을 내디디었을 때 뒤에서 방문 닫기는 소리가 났다. 나는 걸음을 내짚었다. 그러나 나의 걸음은 동구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둘레를 돌기 시작하였다. 손에는 돈 20원이 그대로 쥐여져있었다.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세 바퀴를 돌고 그 길지 않은 시간에 내 머리에는 온밤 내 마음을 휘여잡고 놓아주지 않던 복잡한 상념의 쪼각들이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내가 이 마당에 다시 들어서게 되는 날은 언제쯤 될까? 과연 내가 지금 승산이 내다보이는 길을 가려고 하는가? 내가 가는 앞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그사이 어머니의 병이 호전될 가망은 있을까? 내가 이런 생각에 잠겨 집둘레를 속절없이 돌고 있을 때 어머니가 문을 열어제끼며 준열하게 나를 꾸짖는 것이였다.

≪상기두 무엇이 걱정돼서 그렇게 떠나지 못하구 우물쭈물하느냐? 나라를 찾겠다구 결심품구 나선 사람이 그렇게도 마음이 여리고 집걱정이 많아서야 어떻게 대사를 치르겠니. 너는 집안일을 걱정하기 전에 먼저 감옥에 계시는 삼촌을 생각하구 외삼촌을 생각해야 한다. 빼앗긴 나라를 생각하구 백성들을 생각해야 한다. 왜놈들이 나라를 강탈한지도 벌써 스무 해가 되어오는데 너두 조선의 사내라면 맘을 크게 먹구 걸음을 크게 떼야 할게 아니냐. 네가 장차로도 이 에미걱정 때문에 집으로 찾아올 생각이라면 아예 이 문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아들은 만나지 않겠다.

어머니의 말씀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내 가슴을 세차게 울리었다.

어머니는 그 몇 마디의 말씀에 기력을 다 소모해버린 것처럼 문설주에 머리를 기대고 정과 열과 노여움이 엇바뀌는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었다. 어쩌면 천리를 걸어 팔도구에 도착한 날 밤 하루도 재우지 않고 그달음으로 임강에 가라고 떠밀어 보내던 때의 모습을 방불케하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하였다.

나는 아들로서 그처럼 의에 불타고 열로 빛나는 강직하고 숭고한 어머니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다. 어머니는 온몸에 불붙는 그 의와 열로 하여 순식간에 재가 될 것 같은 형상이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나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만 생각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개와 넋은 내가 미처 상상하지 못할 그런 경지에서 나를 굽어보고 있었다.

그때의 모습은 차라리 어머니라기보다는 스승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 고마운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자랑으로 하여 나는 가슴이 터져나올

것 같은 행복감을 느꼈다.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모자를 벗고 머리를 깊숙이 숙이였다. 그런 다음 동구밖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아래목에 놓인 나무다리를 건느고나서 고개를 돌리는 흰옷을 입은 어머니가 문설주를 짚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었다. 그것이 내 눈에 비쳐든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였다. 저 섬약한 육체의 어느 구석에 이 아들의 가슴을 그렇게 드세게 흔들어 준 고결하고 강의한 넋이 깃들어있을까. 저렇게 훌륭한 어머니의 몸이 병마로 고통을 받지 않는다면 이 아들은 지금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겠는가.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소사하집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십수백번 체험하게 되는 그른 범상한 작별이 아니라 내 한 생에 가슴아픈 추억을 남겨놓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영별이었다. 나는 그 후로 어머니를 만나 다시 만나뵙지 못하였다.

몇 달이 지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였을 때 내 머리에 맨처음으로 떠오른 것은 마지막 작별의 순간에 더 따뜻한 말을 해드리지 못한 회한의 감정이였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런 감상적인 이별은 바라지 않았으니 나로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만은 사실이였다.

고령이 된 지금에 와서도 나는 그 때의 일을 잊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느라면 적어도 몇 번씩은 그런 대목에서 서게 되는 법이다. 그때마다 종이장 두께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 사람들의 운명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되며 그 종착점은 서로 다른 극에 이르게 된다. 그때 어머니가 내앞에서 집걱정을 하였거나 내 마음이 탕개를 늦추는 말씀을 한마디라도 하였더라면 깃을 펴고 대공으로 날을 차비를 하던 이 아들의 심중에서는 과연 어떤 파문이 있었을까.


소사하 무주툰 토기점골에 있던 어머니의 묘비

청소한 반일인민유격대의 대오를 이끌고 소사하등판을 떠난 그때로부터 나는 전우들과 함께 수십 년동안 인간의 상상을 조월하는 혈전의 길, 혹한의 길, 기아의 길을 들어왔다. 그 후에는 사회주의 기치를 들고 창조와 건설의 반세기를 해쳐왔다.

조국과 민족의 위해 그 준엄하고도 시련에 찬 길에서 혁명가의 신념을 검열하는 그런 곤경에 취할 때마다 나는 어떤 이념이나 철학적 명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나를 남만으로 떠밀어 보이면서 어머니가 하던 말씀과 흰옷을 입고 나를 바래주던 어머니의 모습을 회고하며 의지를 가다듬군 하였다.



여성들을 반일사상으로 교양하시는 조선공산주의여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강반석여사



혁명사업을 보좌하시기 위하여 망을 보시는 강반서여사

3. 기쁨과 슬픔

반일인민유격대의 남만진출과 때를 같이하여 우사령부대에서도 200명으로 편성된 구분대를 통화지방을 파견하였다. 이 구분대의 인솔자는 유본초선생이었다. 우사령이 자기의 오른팔이나 다름없는 유본초참모장을 남만으로 보낸 목적은 당취오자위군과의 합작을 실현하여 자위군을 통하여 무장을 해결하려는데 있었다. 그 당시 우사령은 무기의 부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요녕성에 본거지를 둔 남만지방은 자위군은 우사령의 구국군부대보다 좋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원정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소사하에 찾아온 유본초선생은 자기들도 남만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목적지도 같으니 기왕이면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자기네와 동행하면 당취오와도 만나게 해줄 수 있고 당취오와 연계를 가지면 무기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나는 유본초선생의 제의를 쾌히 받아들였다. 사실 우리한테도 무기는 얼마든지 필요하였다. 구국군과 함께 남만으로 가게 되면 노상에서 중국인반일부대들과 조우하여도 충돌을 피하고 우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었다.

당취오는 원래 동변도 성방군 1연대장으로 있던 사람인데 9.18사변 후 항일구국을 표방하는 요녕민중자위군을 조직하였다. 그의 휘하에는 만여 명 정도의 병력이 있었다. 당취오의 자위군은 통화지방에 활동거점을 두고 남만일대를 중심으로 심양주둔 관동군부대와 힘에 부친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 그들은 국민부산하의 조선혁명군 부대들과도 연합작전을 조직하군 하였다.

조직초기의 요녕민중자위군는 기세도 높았고 전과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대세가 일본측에 유리하게 기울어지고 난관이 중첩되자 당취오는 동요하기 시작했다.

국제연맹이 릿든조사단을 만주에 파견하여 9.18사변의 진상을 조사하게 하였지만 일본군은 이에 별로 큰 구속을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과를 확대해 나갔다. 1932년 정초에 금주를 점령한 일제는 그 해 1월 3일 음모적이고 강도적인 방법으로 상해사변을 도발하였다. 그들은 5명의 일본승려가 상해 홍구에서 구타를 당한 것을 구실로 삼아 중국의 공장과 상점들을 파괴하고 경찰들을 살해하였으며 뒤이어 해군육전대를 동원하여 상해시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장공격을 개시하였다. 일본이 상해사변을 도발한 목적인 이 도시를 중국본토침략을 위한 교두보로 만들려는데 있었다. 일본군부의 우두머리들은 전격전의 방법으로 상해를 점령하게 되면 그 전과를 타고 중국의 전영토를 일거에 삼킬 수 있으리라는 망상을 품고 있었다.

상해의 군인들과 인민들은 즉시에 영웅적인 반격을 가세하여 일본침략군대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장개석과 왕정위를 수위로 하는 국민당반동정부의 배신적인 매국정책으로 하여 항전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상해사변은 굴욕적이고 반혁명적인 ≪송호협정≫을 맺는 것으로 막을 내리었다.

상해항전의 실패는 구국군과 자위군을 비롯하여 반일을 지향하는 모든 애국적 군인들과 인민들의 사기를 저락시키었다.

상해사변과 ≪송호협정≫체결과정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국민당정부의 반동적인 매국배족정책은 항일구국역량앞에 가로놓인 가장 큰 장애로 되었다. 국민당반동집단은 상해항전을 지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고 범죄시하였다. 장개석과 왕정위는 제19로군에 대한 군수물자보급을 의도적으로 중지하고 전국각지에서 상해로 보내오는 원호금을 압수하면서도 해군에 비밀지령을 내려 일본측에 식량과 채소를 공급하는 수치스러운 반역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국민당반동들은 자신들이 항일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민들도 항일을 못하게 하였다. 그자들의 총구는 언제 어디서나 항일을 하는 사람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항일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예외없이 국민당의 테러를 당하든가 그들의 교수대에 올라야 하였다.

장개석은 일찍이 중국이 제국주의의 손에 망한다면 우리들은 망국노는 될지언정 그대로 살아갈 수는 있을 것이지만 만일 공산당의 손에 망한다면 노예로조차 남아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망발을 하였다. 이것은 장개석과 그를 두목으로 하는 반동집단이 외래 제국주의의 침략세력보다 인민혁명을 더 두려워하고 경계하였으며 그들 자신이 제국주의자들의 철저한 노복이고 앞잡이였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장개석의 매국행위는 국민당과 이러저러하게 연결되어있고 또 구군벌과 관료, 정객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은 구국군과 자위군의 상층에 사상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었다.

확대일로의 궤도를 달리는 일본군의 위력도 구국군의 사기를 저락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되었다. 릿튼을 필두로 하는 국제연맹조사단은 자기의 보고서에서 만주를 일본의 독점하에 두지 않고 국제공동관리하에 둘 데 대한 제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은 이 제의를 무시해버리고 전투행동을 계속하였다. 일본군의 무력은 점차 산해관과 북부만주방향에로 육박하였다. 그들은 북만의 넓은 지역을 차례차례로 점령하면서 열하 방면으로 역량을 집중하였다. 일제는 북만진공을 앞두고 관동군의 특무기관들을 발동하여 동북군을 정치적으로 와해시키며 특무들을 통한 매수, 음모활동으로 북만 동북군의 각 여단이 사분오열되어 서로 의심하거나 권력쟁탈에 몰두하게 하였다. 적들은 마점산을 칠 때에는 소병문을 끌어당기었고 마점산이 패한 다음에는 소병문을 일격에 소멸하는 식으로 북만의 반일부대들을 손쉽게 각개격파하였다.

북부만주일대에서의 반일부대의 와해과정은 동만의 왕덕림이나 남만의 당취오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당취오는 인민들의 혁명적 기세에 편승하여 항일구국의 기반을 들었으나 대담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지 않고 대세를 봐가면서 조심조심 행동하고 있었다.

그 당초 정초, 이두, 형점청을 비롯하여 적지않은 반일부대의 두령들은 적극적으로 항일을 해서는 안되며 국제연맹에 의거해야만이 만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망상에 포로되어 있었다. 그들은 지어 ≪장학량이 일본군에 저항하지 않는 것은 공산비적을 숙청하기 위해서다. 공산비적을 먼저 숙청해야 일본군도 쫓아낼 수 있다. 공산당이 일본놈을 끌여들였다.≫는 엉터리주장까지 하였다.

우리가 남만으로 떠나던 그 해 봄에 주보중이 자위군에 잡힌 적이 있었다. 주보중은 그때 자기를 체포한 지휘관들에게 당신네 부대를 왜 자위군이라고 칭하는가고 문의하였다.

질문을 받은 자위군의 우두머리들은 자위란 자기 역량을 보위한다는 말이다. 자기 역량을 보존하기도 힘든데 무슨 힘이 있어서 일본군을 치겠는가. 일본놈들이 우

리를 치지 않으면 우리도 치지 않는다. 자위란 이런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이것이 바로 자위군의 사고방식이었고 정치적 견해였다. 신심을 잃고 동요상태에 빠진 당취오는 산하부대들을 통솔하지 않고 방임상태에 두다싶이 하였다. 이런 때에 우사령이 유본초를 자위군본부에 파견한 것은 시기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첫날 행군노정을 짧게 잡고 6월 초사흗날 오후에 소사하를 떠난 원정대는 사하(하소사하) 농민협회 회장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도강을 건너 유가분방이라는 마을로 행군해갔다. 우리는 여기서 하루밤 묵음으로써 정치사업을 하기로 했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나서 넓다란 제분소앞으로 앞마당에 우등불을 피웠다.

유격대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인접부락의 사람들까지 유가분방으로 찾아왔다. 마을의 조직책임자들은 이집저집에서 멍석도 모아오고 이웃마을 손님들이 걸터앉을 강대며 서까래도 끌어왔다. 제분소마당에 모인 군중은 수백 명되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우등불두리에 빽빽이 앉아 자정이 넘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밤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다. 한평생 인민들속에 들어가 조직사업도 많이 하고 정치사업도 많이 해왔지만 그때처럼 무더기질문을 받아본 날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된다.

나는 목이 갈려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밤새도록 군중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안되었다.

처음에 사람들이 나에게 물은 것은 유격대가 어떤 군대이며 유격대와 독립군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였다. 그들도 소사하에 한 달 전에 반일인민유격대가 조직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단순하고 평범한 질문같지만 거기에는 새로 탄생한 무장력에 대한 기대와 그 힘에 대한 반신반의의 감정의 깔려있었다. 독립군도 조선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군대이고 반일인민유격대도 조선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군대라면 복잡하게 유격대라는 것을 따로 내올 필요는 무엇인가? 독립군도 어쩌지 못하는 일본군대를 유격대를 새롭게 만들어낸다고 해서 거꾸러뜨릴 승산은 있는가? 승산이 있다면 그 담보는 무엇인가? 독립군에게서 시달림도 많이 받고 독립군의 실패에서 암담한 절망감도 수없이 맛보아온 유가분방의 군중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요컨대 이런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나는 될수록 쉽고 간명하게 말하려고 애썼다.

반일인민유격대란 별다른 군대가 아니다. 말그대로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인민의 군대이다. 이 군대는 바로 여러 분들과 같은 노동자, 농민의 자식들과 청년학생, 지식인들로써 무어졌다. 반일인민유격대의 사명은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조선민족의 독립과 사회적 해방을 이룩하는데 있다.

반일인민유격대는 의병과도 다르고 독립군과도 다른 새 형의 군대이다. 독립군의 지도사상이 부르조아민족주의라면 항일유격대의 지도사상은 공산주의사상이다. 공산주의사상이란 쉽게 말하여 빈부귀천의 차별을 모르고 만사람같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세운다는 사상을 말한다.

돈있는 사람들이 주인되는 사회를 세우는 것이 독립군의 이상이라면 근로하는

사람이 주인된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 반일인민유격대의 이상이다. 독립군이 여러분과 같은 평백성들을 광복운동의 협조자로, 동정자로 보아왔다면 우리들은 당신들을 항일혁명의 담당자로, 주인으로 보고 있다. 독립군이 외부세력에 많은 기대를 걸고 그들의 힘으로 빌어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더 믿고 그 힘으로 나라를 찾으려고 한다.

의병의 뒤를 이어 독립군이 그 동안 만주산야와 조국의 북부지대에서 십수 년동안 일본침략자들과 혈투를 벌이느라고 수고를 많이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독립군의 군세는 점점 허약해지고 지금은 그 존립마저 위기에 처해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군대를 조직하였다. 독립군이 이루지못한 조국광복의 성업을 우리가 완수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조직한 것이 바로 반일인민유격대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마을의 한 청년이 반일인민유격대의 병력이 몇 천명쯤 되는가고 물었다.

초기여서 몇 천명까지는 되지 않고 수백 명쯤 된다, 지금은 유격대가 수적으로 많지 않지만 조만간에 수천수만 명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청년은 내 말을 듣고 나서 반일인민유격대에 입대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고 물었다.

나는 특별한 절차나 격식은 없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청년들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육체적 준비는 좋아야 한다, 입대는 혁명조직의 추천을 받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여러 명의 마을청년들이 즉석에서 나를 에워싸고 우리가 입대를 청원하면 이 자리에서 받아주겠는가고 물었다.

우리로서는 사실 큰 횡재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받아들이지요. 그런데 입대하더라도 당분간은 무기가 없이 지내야 하겠습니다. 무기는 전투마당에서 자체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도 입대할 용의가 있다면 우리는 그 청원을 이 자리에서 그대로 수락하겠습니다.≫ 청년들은 무기가 없어도 좋으니 유격대를 따라가겠다고 간청하였다.

그렇게 되어 우리는 여러 명의 마을 청년들을 선대원으로 흡수하게 되었다. 그것은 유가분방이 청소한 우리 유격대에 준 예상치 않았던 선물이었다. 우리는 이 선물앞에서 모두가 기쁨을 금치 못하였다. 혁명동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두 사람, 세 사람의 동지를 잃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었던 당시의 형편에서 열 명 가까운 청년들은 단꺼번에 대오에 받아들였으니 그때의 우리 심정을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생눈을 움켜먹으며 풍찬노숙에 어려운 길을 걷는 혁명가들에게는 부르조아지나 시정배들이 맛보지 못하는 고유한 향락이 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전우를 얻게 될 때에 느끼는 가슴을 뻐근하게 하는 정신적 충만감이다. 어제까지는 생면부지였던 사람들이 사선을 헤치고 입대를 청원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군복을 입히고 총을 에워주면서 속세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참으로 숭엄하고 장쾌한 희열을 느끼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식의 기쁨이고 향락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날밤 유격대원들은 신입대원들을 축하하는 오락회를 열었다. 나와 차광수도 노래를 불렀다.

우리가 이처럼 품을 얼마들이지 않고서도 큰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9.18사변 직후의 민심이 그만큼 항일유격대에로 크게 쏠리고 있었던데 기인한다. 일본이 만주까지 먹었으니 조선사람은 여기서도 마음놓고 살 수가 없게 됐다. 만주에서도 기를 펴고 살지 못할 바에는 죽든살든 한번 결판을 내보자라는 것이 그 당시 조선청년들의 공통된 심리었다.

우리는 밤새껏 이야기를 나누다가 새벽이 다 되어서야 우등불곁에서 멍석과 삿자리를 펴고 유격대 조직후 처음으로 되는 노숙을 하였다.

조선사람이 사는 동네에 와서 유격대가 노숙을 하면 유가분방백성들의 체면은 어떻게 되는가고 하면서 마을사람들이 막 야단을 하였으나 우리는 조직책임자들이 알선해주겠다는 농가들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노천에서 하루밤을 지냈다.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걸고 마을사람들의 청을 사양한 것도 사실이지만 혁명가는 따뜻한 아랫목의 보금자리보다 거치른 잠자리를 더 응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일종의 낭만적인 기분이 우리로 하여금 마을 사람들의 성의를 마다하게 하였다고 본다.


안중근

우리는 남만원정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도 이 마을에서 하루밤 숙영하였다. 그 때 우리가 숙영한 곳은 여수문이라는 중국노인의 집앞이였다. 그 집앞에 큰 감자굴자리가 있었다. 우리는 그 감자굴자리에 곡초를 엮어 바자를 두르고 그안에서 불을 피우며 하루밤을 지냈다.

우리가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한지에서 밥도 해먹고 잠자리를 정하는 것을 본 여수문 노인은 나를 찾아와 부대가 다 움직이기 곤란하면 대장만이라도 자기방에 가서 유숙하자고 권유하였다.

≪성주선생이 나하구 생판 모르는 남남이라면 몰라도 우리야 구안도에 있을 적부터 서로 낯을 익혀온 사이가 아닙니까?≫ 노인은 나까지 그렇게 에누리를 하지 않을 줄은 몰랐노라고 하면서 섭섭한 소리를 하였다.

사실 나와 그 노인은 서로가 구면이였다. 우리 집 식구들이 마춘욱의 객주집 웃방에 거처하고 있을 때 나는 거기서 여수문노인을 두세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때 노인이 보여준 활달하면서도 열정적인 기품이 내 인상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겨놓았다.

노인은 항일을 하려고 천리원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군대가 한지에서 숙식을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불속에 기여들어가겠는가고 하면서 밤이 깊도록 우리의 말동무를 해주었다.

유가분방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것처럼 그도 시국에 민감하였다. 그는 9.18사변후 일본군대가 만주국이라는 괴뢰국가를 조작해내었다는 것과 장춘을 신경이라 고쳐 수도로 정하고 거기에 부의를 데려다 앉혔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

노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안중근에 대한 이야기이다.

노인은 말하기를 조선의 열사들 가운데서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위인은 안중근이라고 하였다.

≪안중근선생이야말로 동양의 거인이지요. 오죽하면 원세개대총통까지 안의사의 의거를 칭송하는 시를 지였겠나요.≫ 노인의 이 말은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격살한 다음부터 만주지방의 중국인들속에서 그는 전설적인 존재로 알려지게 되었다. 어떤 중국인유지들은 집에 안중근의 화상까지 걸어놓고 신주처럼 모시였다.

≪노인님은 조선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되어 안중근을 그리도 잘 아십니까?≫

여수문이 안중근에 대하여 너무도 큰 애정을 가지고 말하므로 나는 슬며시 이렇게 물었다. ≪만주에 사는 사람치고 안중근을 모르는 이가 있습니까. 오죽하면 하얼빈역에다가 안열사의 동상을 세우자고 말한 사람까지 있었겠나요. 나는 지금도 자

식들에게 늘 말하군 합니다. 혁명가가 되겠거든 손중산선생과 같은 혁명가가 되고 대장부가 되겠거든 안중근과 같은 대장부가 되라구말이웨다. 김대장님. 이왕이면 부대를 무은 바엔 관동군사령관과 같은 거물들을 요정내지 못합니까?≫

나는 노인의 순박한 말을 듣고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까짓 관동군사령관이나 하나 없애버려서 무엇하겠습니까? 이등박문을 죽이면 새로운 이등박문이 나오듯이 혼죠를 죽이면 새로운 혼죠가 또 나올 게 아닙니까. 테러로써는 큰일을 치지 못합니다.≫

≪그럼 대장어른은 어떤 방식으로 싸울 작정입니까?≫

≪광동군이 십만이 된다니 그 십만을 상대로 싸울 작정입니다.≫

여수문노인은 그 말을 듣더니 몹시 감격하여 내 손을 꽉 그러잡고 놓지 않았다.

≪김대장, 참으로 훌륭하시오. 대장어른이야말로 안중근과 같은 분이 아니겠소.≫

나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나는 안중근이처럼 훌륭할 수는 없지만 망국노의 생활은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다음날 유격대가 마을을 떠날 대 여수문은 우리와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멀리까지 대로를 바래주었다. 나는 유가분방을 생각할 때마다 여수문노인을 만났던 때의 일을 뜨겁게 되새겨본다.

유가분방을 떠난 우리 부대는 이도백하부근에서 다시 하루밤 숙영하고 도로를 따라 행군을 계속하다가 무송에서 안동방향으로 이동하는 일제침략군의 척후대와 불시에 조우하였다. 우리는 행군할 때마다 앞장에 3-4명의 인원으로 편성된 척후대를 배치하군 하였는데 그 척후대와 일본군의 경계구분대 사이에 화력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여 우리는 그때 몹시 당황하였다. 유격대가 창건된 후 처음으로 당하는 조우전이었고 또 그것도 무적을 자랑하는 일본군대와의 첫싸움이었기 때문이다. 소영자령에서는 우리가 사전에 면밀히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매복전으로 적들에게 선제타격을 가하였지만 여기서는 문제가 달랐다. 상대는 어수룩한 위만군이 아니라 실전경험이 풍부한 영악하고 민첩한 일본군이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단 한번의 전투경험밖에 없는 초학도들이었다.

우리로 말하면 아직은 조우전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때였다.

원정의 목적으로 보나 유격전의 기본원칙으로 보아도 장거리 행군과정에서 될수록 아군의 행동에 불리란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익한 충돌을 피하는 것이 좋았다. 옛날병서에서도 ≪피실격허≫라고 하였다. 강한 적은 피하고 약한 적은 치라는 말이다. 그런즉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전부대가 긴장한 표정으로 내 얼굴을 주시하고 있었다. 나의 결심을 기다리자는 것이었다. 나는 적의 기본역량이 들이닥치기 전에 유리한 지형을 먼저 차지하는 것이 전투의 주도권을 틀어쥘 수 있는 최선의 방도라는 것을 간파하고 척후대가 총격전을 벌이고 있는 고지 북쪽능선으로 부대를 재빨리 이동시켰다. 그 다음 일부 역량을 도로 남쪽으로 진출시켰다. 부대는 도로의 남쪽와 북쪽에서 일제사격으로 척후대를 족쳤다.

적의 행군종대가 미구에 장구류들을 잔뜩 짊어지고 신작로로 달려오고 있었다. 얼핏 보기에도 한 개 중대는 잘되었다. 적들은 척후가 녹아났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포위하려 하였다. 나는 신호총을 울리기 전에는 절대로 사격을 시작하지 말하는 명령을 내리고 적들이 화력권안에 들어올 순간을 기다리면서 전방을 감시하였다. 우리에게는 탄알이 얼마 없었다. 내가 신호총을 쏘자 전부대가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

였다.

나는 사방으로 터져오르는 총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대원들의 정신상태를 가늠하려고 애썼다. 개개의 총성에는 흥분되고 앙양된 상태에 있으면서도 분별을 잃고 헤덤비는 전사들의 기분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적들은 무리죽음을 당하면서도 역량상 우세를 믿고 신속히 전투서열을 갖추면서 아군이 차지하고 있는 진지양측으로 맹렬하게 공격해왔다.

나는 도로 북쪽과 남쪽에 배치된 무력가운데서 일부 역량을 떼내어 아군의 양익측으로 재빨리 기동시키었다. 대원들은 진지를 차지하기 바쁘게 민속한 저격전으로 익측의 적들을 모조리 소멸하였다.

그러나 적의 주력은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악하고 끈덕지게 아군이 차지한 계선으로 그냥 기여들었다. 우리가 통선아래로 바위돌까지 굴리면서 완강하게 진지를 고수하였지만 적은 죽음을 무릅쓰고 돌격을 계속하였다. 적의 공격이 조금 약화된 기회를 타서 나는 전부대에 돌격명령을 내리었다. 수림을 뒤흔드는 나팔소리와 함께 능선을 번개같이 치달아내린 유격대원들은 도망치는 적들을 추격하여 사정없이 족쳐버렸다. 몇 명의 도주자를 제외한 적의 한 개 중대역량은 우리의 돌격앞에서 전멸을 모면할 수가 없었다. 김일룡은 육박전을 하면서도 적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 ≪또 한 놈 넘어간다!≫하고 환성을 올리군 하였다. 우리 유격대에서도 여러 명의 전사자가 났다. 이름모를 산등성이에 전우들을 안장한 우리는 그들의 무덤앞에서 영결식을 가지었다. 나는 군모를 벗어쥐고 오열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는 대원들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영결사를 하였다. 그 때 무슨 말을 했던지 지금은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는다. 다만 말을 끝내고 고개를 쳐들었을 때 대원들의 어깨가 세차게 떨리던 광경과 대오의 길이가 유가분방을 떠날 때보다 퍼그나 짧아진 것을 보고 온몸에 전율을 느끼던 일만이 기억될 뿐이다.

시간이 얼마간 흐른 다음 나는 대열에 다시 출발구령을 주었다. 모두가 길가에 정렬하였는데 차광수만은 무덤에 엎드려 있었다. 주인없는 무덤, 칠성판 하나 깔아주지 못한 어설픈 무덤을 두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능선으로 뛰어올라가 차광수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고함을 질렀다.

≪광수! 왜 이 모양이요. 일어나지 못하겠소.≫

나의 고함소리가 어떻게나 크고 모질었던지 차광수는 무릎을 짚고 벌떡 일어났다.

나는 음성을 낮추어 귀속말로 그를 타일렀다.

≪대원들이 모두 우리 얼굴만 쳐다보는데 칠전팔기의 기개는 다 어디갔소?≫

차광수는 눈물을 씻고 대열앞장에 묵묵히 걸음을 떼였다.

그 후 나는 이때의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였다. 안도-무송현경 전투를 치른 후 넉 달이 지나 차광수가 전사하였다는 비보를 받았을 때 맨 선참으로 내가 상기한 것이 바로 그때의 일이었다.

(그때 나는 왜 차광수에게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했던가. 다르게 말해서 일어나게 할 수는 없었을까)

하기는 내 자신도 전우들을 잃은 다음 며칠동안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였다.

전사한 대원들은 모두가 ≪ㅌ·ㄷ≫시절부터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의 길을 걸어온 골간이고 핵심들이었다. 희생


전쟁에서 사살된 일본군

이 없는 투쟁이란 물론 있을 수 없다. 혁명은 항상 희생을 동반하는 법이다. 자연을 개조하는 평화적인 노동에서도 이러저러한 손실이 생기는 법인데 항차 모든 병기와 수단들이 총동원되어 승패를 다투는 무장투쟁에서야 어찌 죽음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안도-무송현경에서 당한 희생을 너무나도 잔혹하고 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였다. 혁명이 아무리 가혹한 희생을 동반한다고 해도 방금 첫 시작을 뗀 우리 대오에 이렇게까지 무차별적인 손실을 가져다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나의 심정이였다.

산수적으로 계산하면 그것은 열 명 미만의 유생역량을 잃어버린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단 한 번의 싸움으로 전사자가 천 명도 나고 만 명도 나는 현대전에서 십단위의 인명손실이란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우들을 잃었을 때 그 손실을 산수적으로만 계산하지 않았다.

산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가치를 환산하는 수단으로 될 수가 없었다.

우리와 함께 투쟁의 길을 걸은 개개의 투사들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대비할 수 있는 귀중한 존재들이였다.

유격대원 한 명과 적 100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조였다. 적들은 국가의 법과 동원령을 발동하여 하루사이에도 수천수만 명의 병력을 모집하여 대량적으로 싸움터에 투입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물리적 수단이나 강권이 없었다. 설사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었다 해도 혁명동지 한사람한사람은 그대로 천금맞잡이였다. 뜻을 같이하는 한 사람의 동지나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한 명의 전우를 얻고 그런 사람들로 하나의 조직된 대오를 묶어세우자면 실로 고심참담한 노력을 쏟아붓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때문에 나는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 비록 그것이 100명의 적을 소멸한 승리한 전투라고 해도 아군에서 한 명의 희생자가 나면 그 전과를 큰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았다.

역사가들은 안도-무송현경전투를 조우전을 영활하게 반공격으로 전환시켜 한 개중대의 적을 완전히 소멸한 성공적인 전투라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승리한 전투였다. 이 전투의 의의는 비단 청소한 반일인민유격대가 한 개 중대의 정규군을 완전히 소멸해버리었다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격투쟁 사상 처음으로 천하무적을 자랑하는 일본군의 신화를 깨뜨려버렸다는 거기에도 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하여 일본군이 강한 군대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결코 무적도 아니고 불패도 아니며 불퇴도 아니라는 것과 우리가 유격전의 특성에 맞는 전법으로 전투를 능숙하게 진행한다면 적은 역량을 가지고서도 강대한 일본군을 얼마든지 타승할 수 있다는 신심을 얻었다.

그러나 ≪ㅌ·ㄷ≫의 첫 산아들을 열 명 가까이 잃어버린 이 전투에서 우리는 참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했다.

(한 개 중대의 적을 소멸하는데 열 명 가까운 전우를 잃어버렸다면 조선과 만주에 있는 10만이 넘는 일제침략군을 타승하는데는 얼마만한 희생을 당해야 하겠는가!)

초연이 채 가셔지지 않은 안도-무송현경의 전장을 떠날 대 나는 동지들의 유해가 묻혀있는 능선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다. 우리는 그때 첫 조우전을 치르고 나서 유격전쟁을 하느라면 앞으로 고생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한결같이 깨달았다.

안도-무송현경전투가 있을 후 우리가 십수 년동안 하여온 항일전쟁은 실지로 전쟁에 대한 인간의 기존개념으로써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고통과 난관과 희생을 동반하였다.

4. 합작은 불가능한가?



애국열사릉에
안치된
양세봉의 묘비

안도와 통화를 연결하는 반일인민유격대의 행군노정에는 우리 나라의 북부국경지대에서나 볼 수 있는 험준한 산악들과 계곡들이 많았다. 안도에서 무송까지는 장백산줄기가 뻗어있었고 무송에서 통화까지는 삼차자령이나 삼도노야령과 같은 험한 영들로 이어진 용강산줄기가 첩첩히 가로놓여 있었다. 이런 산줄기들을 타고 부대는 한 달 가까이 힘에 겨운 행군을 계속하였다. 낮에는 적들의 경계가 미칠 수 있는 대도시를 피해 산악행군을 하고 밤에는 조선사람들이 살고 있는 부락들에 들어 끊임없는 정치공작과 전투훈련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혁명조직들과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무송에서도 며칠동안 체류하였다. 거기서 그 때 장울화도 만나보았다. 장울화도 우리의 체류기일이 짧은데 대하여 매우 아쉬워하면서 학창시절의 자기와의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무송에 이틀이나 사흘쯤 더 있다가 가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도 그 요청에 응하고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다. 무송은 나와 수십수백 갈래의 사연으로 얽혀져있는 의미깊은 고장이였다.

그러나 나는 예정대로 사흘인가 닷새만에 부대를 출발시키였다. 지난날에 대한 추억이 아무리 소중하고 발목을 잡아당기는 인정이 아무리 눈물겨운 것이라 하더라도 양세봉사령과의 해후를 위해서는 섭섭한대로 장울화와도 헤여지지 않으면 안되였다.

무송에서 통화까지는 500리가량 된다고 하였다. 가면 갈수록 심산이라는 말과 같이 산세는 점점 더 사나와 지고 행군도 힘들어졌다. 생소한 메봉우리들과 골짜기를 타고 수백 리 산길을 강행군으로 돌파하는 사이에 대원들은 모두 녹초가 되었다. 부대내에서는 환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하였다. 나 역시 계속되는 행군으로 어지간히 지친 몸이 되였다.

원정대가 통화까지 갔을 때 차광수가 문뜩 나한테로 달려와 이도강에서 하루나 이틀쯤 숨을 돌리다가 통화로 들어가자고 제의하였다.

≪무송에서도 더 있고 싶은 것을 꾹 참고 500리를 내처 달려왔는데 통화를 코앞에 두고 휴식이라니 웬말이요? 차광수답지 않구만.≫

나는 차광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그 주장에 동조할 수가 없어 일부러 이렇게 물었다.

차광수는 대답에 앞서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닦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자기주장을 완강하게 고집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보여주는 특이한 습관이였다.

≪사람들이 모두 지칠대로 지쳤소. 대장동무자신도 극한점에 도달했구. 아니라고 변명하겠지만 내 눈은 속이지 못하오. 환자들이 생겨서 겨드랑이에 끼고 행군하는 형편인데 이꼴로 가서야 양세봉사령한테 어떻게 명함을 들이대겠소.≫

≪양세봉선생은 그만한 사정도 통찰하지 못할 옹졸한 사람이 아니요.≫

≪사령은 안목이 높아서 그렇다하고 수백 명이나 된다는 부하들의 눈은 어떻게 하겠소. 우리를 보구 오합지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면 야단이 아니요. 천리를 행군

해온 공이 나무아미타불이 될가봐 겁나오.≫

이쯤되면 차광수의 고집을 누구도 휘여낼 수 없었다.

나는 차광수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꾀죄죄한 몰골로 통화에 나타나면 독립군들이 우리를 시답지 않게 볼 수 있는 우려가 얼마든지 있었다. 그들이 만일 반일인민유격대를 얕보게 되면 모처럼 계획했던 합작도 우리의 의도대로 성사시킬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차광수가 제기한대로 이도강에서 하루나 이틀쯤 숨을 돌리다가 원기를 회복한 다음 질서정연하고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통화시내로 행진해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전부대가 행군을 정지하고 이도강에서 숙영할 것을 명령한 다음 양사령에게 연락원을 파견하여 독립군과의 합작을 위해 반일인민유격대가 안도를 떠나 통화근방에 도착하여 휴식중이라는 것을 통지하였다.

우리는 통화에 간 연락원을 기다리며 이도강마을에서 노독을 풀었다.

지휘부는 물레방아간집에 자리를 잡았다.

물레방아간집 늙은이들은 성의를 다하여 나를 돌보아주었다. 내가 독립군과의 사업에 필요한 행동조례를 해설해주기 위해 지휘부에 대원들을 여라문 명 불러다가 정치상학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집 영감은 백성의 성의를 몰라준다고 하면서 나를 몹시 나무랐다.

≪옛 성현들이 이르기를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기를 상하고 지나치게 기뻐하면 감정을 상하고 성내는 일이 많으면 의지를 상한다고 했네. 생각을 적게 하고 걱정을 적게 하고 일을 적게 하고 말을 적게 하고 웃음을 적게 웃으라는 것이 예로부터 내려온 섭생의 본도고 이치란 말일세. 그런데 대장처럼 말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야 기는 어떻게 보존하며 병은 어떻게 털어버리란 말인가. 항차 자네들이야 조선을 독립시킬 군사들이 아닌가.≫

노인이 머리에 새겨두기조차 힘든 수십가지의 양생법을 진지하게 설명해주면서 대사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장래를 생각해서 몸을 잘 돌봐야 하지 않는가고 역설하는 바람에 나는 부득불 정치상학에서 손을 떼고 그것을 차광수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는 노인의 말을 듣고 그가 허준의 숭배자라는 것과 노인이 우리들에게 장시간 해설해준 것이 바로 ≪동의보감≫에 있는 섭생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디서 어떻게 섭렵한 지식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노인은 보양법에 대한 조예가 상당한 정도로 깊었다.

우리가 이도강을 떠날 때 노인은 참지에 싸두었던 연밥과 꿀에 반죽했다가 말린 구기자환 여러 봉지를 차광수에게 맡기면서 많지 않은 약이지만 대장의 몸을 보양하는데 써주면 고맙게 생각하겠다고 하였다.

노인이 자신의 섭생을 위해 모처럼 지어둔 보약을 가볍게 받을 수가 없어 나는 그 약을 조심스레 사양하였다.

≪노인님, 성의는 고맙습니다만 저는 그 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것들이야 기가 허하거나 혈이 모자라서 못살겠습니까. 한평생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락을 보지 못한 노인님께서나 이 약을 쓰시고 조선이 독립되는 날까지 장수하십시오.≫

노인은 그 말을 듣자 가볍게 성을 내면서 우리한테 막무가내로 약을 밀어보내였다.

≪우리야 다된 인생인데 보약을 쓰면 뭘하고 안쓰면 뭘하겠나. 그렇지만 자네들이야 조선을 독립시킬 선봉대가 아닌가. 우리가 썩박드덜기라면 자네들은 청송녹죽이란 말일세.≫

우리는 통화에 갔던 연락원이 되돌아와 나의 서신을 받고 반일인민유격대의 통화입성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과 그가 부하들에게 유격대 환영준비를 잘할 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바쁘게 이도강을 떠났다. 이도강체류기간에 이발을 하고 바지에 주름까지 세운 반일인민유격대원들은 지휘관의 구령에 따라 정보행진도 하고 때로는 혁명가요도 부르면서 통화시가를 향해 위풍당당하게 행진해갔다.

나는 행길에 나서자 김일룡에게 대열을 맡기고 차광수와 함께 양세봉과의 담판계획을 다시금 상세하게 토의하였다. 나의 모든 사색과 상념은 미구에 맞다들게 될 독립군과의 사업에 집중되고 있었다. 물레방아간집 노인이 생각도 걱정도 일도 말도 다 적게 하고 지어 웃음까지 적게 웃는 것이 섭생의 본도라고 귀에 못박히게 강조하였지만 나는 도저히 그처럼 구속이 심한 섭생법을 지켜낼 수가 없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사람들이 아직 한번도 걸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가는 독특한 창조과정이였으므로 누구보다도 사색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의논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가장 관심한 것은 반일인민유격대와의 교섭에서 양세봉이 어떤 태도로 나오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 교섭의 결과에 대하여 차광수는 처음부터 미심쩍은 태도를 취하였지만 나는 시종일관 낙관적인 예측을 하였다.

통화시가의 전경이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내 머리에는 양세봉에 대한 유쾌한 일화가 불쑥 떠올랐다. 그것은 아버지가 병환에 계실 때 뜻을 같이 나눈 동지들을 한사람한 사람 회상하면서 나와 어머니에게 여담으로 들려준 일화였다.

3.1운동 전야에 양사령의 향촌에서는 빈농민들을 망라한 계가 중심이 되어 밭을 논으로 푸는 개답공사를 벌이였다. 양사령의 집도 이 계에 망라되어있었다. 소출을 많이 내는데서는 논이 밭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던 그는 이 개답공사를 적극 환영하였다. 그런데 계의 상층을 차지하고 있던 노장파들이 논농사가 파악이 없다는 구실을 내걸고 개답공사를 완강하게 반대해나섰다. 노장파와 소장파사이에는 봄씨붙임을 앞두고 연일 계가 생긴이래 처음 보는 아귀다툼이 벌어졌다.

소장파 젊은이들은 당나귀발통 같은 노장파 늙은이들의 고집을 도저히 휘여낼 수 없었다. 계에서는 그 해에도 파종기가 오자 젊은이들이 논으로 풀지 못해 안달아하는 밭에 조와 보리를 심었다. 늙은이들은 계의 농사가 젊은것들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예전대로 순조롭게 되어가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소장파의 우두머리였던 양세봉은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기회를 노리었다. 모내기철이 되어 사방에서 개구리가 울던 어느 밤 소를 끌고 들에 나간 그는 조와 보리 싹이 한창 푸름푸름 자라는 여러 뙈기의 밭을 쥐도 새도 모르게 다 논으로 갈아버리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와 보리가 무럭무럭 자라던 밭이 하루밤사이에 논으로 변하여 물까지 출렁거리는 것을 본 늙은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여 ≪생벼락을 맞을 놈, 계의 농사는 네가 다 망쳐놓았구나. 금년 농사를 망치면 거지가 될 줄 알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조나 보리를 심으면 아홉 섬밖에 나지 않던 그 뙈기밭에서 양세봉은 그 해 가을 스물넉 섬의 소출을 냈다.

계와 늙은이들은 깜짝 놀라서 ≪그저 세봉이가 하여튼 난놈은 난놈이웨다.≫하고 혀를 찼다. 그 후부터 양사령의 향촌과 그 인근마을에서는 논농사를 하는 집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계를 쥐락펴락하던 상투쟁이영감들도 양세봉의 말이라면 고분고분 다 들었다.

통화를 지척에 둔 노상에서 이런 일화가 내 머리에 떠오른 것은 무엇때문이었을까. 아마도 그것은 양사령과의 담판이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라는 자기의 예상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내자신이 사색을 집중하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양사령은 3.1운동전야에 고향(철산)을 떠나 남만의 흥경현으로 들어갔다. 우리 아버지가 양세봉을 맨 처음으로 만난 곳이 바로 이 흥경땅이었다.

그 당시 그는 통의부에서 겸무관으로 활동하였다. 정의부가 나온 다음에는 중대장으로 임명되어 일약 오동진사령의 총애를 받는 중견간부가 되었다. 그의 중대주둔지가 바로 무송이었다. 그래서 나도 양세봉을 만날 수 있었다.

우리가 팔도구에서 무송으로 이사한지 얼마 안되어 양세봉은 다시 흥경현을 소환되어 가고 그 대신 장철호가 그의 후임으로 무송에 왔다. 3부의 통합으로 국민부가 태어났을 때 독립군의 지도간부들은 성품이 바르고 실행력이 강하며 민중의 촉망이 높은 양세봉에게 군통수권을 맡기였다. 양세봉은 군부에서뿐만 아니라 3부의 원로중신들이 모인 조선혁명당안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양사령은 늘 자기와 김형직은 결의형제라고 하면서 나를 친구의 자식으로 극진하게 사랑해주었다. 오동진, 손정도, 장철호, 이웅, 김사헌, 현묵관과 함께 길림에서 나를 경제적으로 잘 후원해준 사람이 바로 양세봉이었다.

왕청문사건이 있은 후 국민부상층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몹시 나빠지고 또 그 반동화된 단체의 군부수뇌인 양세봉과도 오래동안 상면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지만 나는 나에 대한 양사령의 사랑과 믿음이 변치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이 모든 것은 어느것이나 다 인간 양세봉, 애국자 양사령에 대한 호감을 주는 회상들이었다. 우리의 합작활동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질 수 있는 그런 과거에 대하여서는 구태여 추억하지도 않았다. 나는 될수록 우리의 담판전망을 낙관적으로 조명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만을 회고하려고 애썼다. 그것은 담판의 전도를 어둡게 할 수 있는 불리한 증거들로 자기자신을 심리적으로 학대하지 않으려는 방어본능의 심리작용이었는지도 모른다.

통화를 비롯한 동변도의 20개 현은 모두 동변도 진수사 우지산의 관할하에 있었다. 그는 한때 장작림으로부터 제30군 군장으로 임명받은 바도 있는 장령이었으나 1930년 6월의 대도회의 반란진압에서 솜씨를 발휘하지 못하여 장학량의 신용을 잃었다. 우지산은 동변도 주요지점들에 1개 여단 규모의 성방위군을 배치하고 이 일대의 최고통치자로서 군림하였는데 9.18사변 후에는 동변도 보안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사령이 되었으며 관동군수뇌들과 연계를 가지면서 봉천성의 괴뢰정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관동군은 우지산의 협력을 담보로 이 지구에 대병력을 투입하지 않고 독립수비대와 만주국군, 경찰에 이 일대의 치안유지를 맡기었다. 관동군의 대부분 역량은 당시 북만에 쏠리고 있었다.

이런 기세를 타고 당취오의 요녕민중자위군이 양세봉휘하의 조선혁명군 부대와 함께 통화현성을 포위하였다. 오끼쯔 요시로주임을 비롯한 일본영사관 통화분관의 일본인 직원들과 가족들은 모두 이 포위속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구조를 기다리게 되었다.

관동군 사령부는 통화현성이 포위되어 현지의 일본인들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모든 병력이 북만일대에 총출동중이었으므로 다만 100명 정도의 경찰관들을 구원대로 파견하고 우지산군의 방조를 기다렸다. 우지산군은 두 대로 나

뒤어서 북쪽과 봉성 방면에서부터 양, 당의 연합군을 압박하였다.

관동군에서는 이다가끼참모장을 내세워 ≪통화에 있는 일본인 여러 분, 봉천에서 급히 지원부대가 내일 아침 도착하므로 잠시 완강히 견지하여 주십시오.≫하는 방송을 하게 하였다.

이처럼 9.18사변 후 국제연맹사단의 만주파견과 때를 같이 하여 봉천성일대의 반만항일군은 도처에서 일본침략군대와 만주괴뢰군대를 위협하였다. 이런 때여서 통화현성을 장악하고 있는 조선혁명군과 자위군의 사기는 매우 높았다.


독립군사령 양세봉

반일인민유격대가 통화현성에 입성한 것은 6월 29일 저녁이었다.

독립군들은 시내곳곳에 ≪반일인민유격대를 환영한다!≫,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조선을 독립시키자!≫ 등의 구호를 써붙이고 우리 일행을 성대하게 환영하면서 우리를 맞이하였다. 양세봉은 반일인민유격대의 통화입성을 독립운동으로 확대발전시키는데서 하나의 전환적 계기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다.

안도에서 온 우리 일행은 즉시에 두 패로 나뉘여 유본초가 데리고 온 구국군병사들은 자위군사령부 대표의 안내를 받아 중국사람들의 집으로 가고 내가 인솔하고 있는 반일인민유격대원들은 조선사람들이 사는 집들에 분숙하였다.

독립군대원들은 반일인민유격대원들의 숙소에 안내한 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우리와 함께 어울려 시간을 보냈다. 우리 부대에 대한 그들의 반영이 예상외로 대단히 좋았다. 그들은 안도에서 유격대가 온다는 연락을 받고 날창이나 화승대를 멘 촌바우들을 상상했었는데 만나고보니 멀쑥한 신사군대라고 하면서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날밤 나는 양세봉의 집을 방문하였다.

양사령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나는 먼저 양사령부부의 안부를 묻고 어머니가 보내는 안사를 전해주었다.

≪어머니가 안도에 가신 다음에도 선생님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양사령선생이 친구들과 함께 장례를 치르어주고 너를 화성의숙에도 추천해보냈는데 그 은공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양사령은 그 말을 듣자 사양의 뜻으로 손을 가로 흔들었다.

≪나하구 자네 아버지야 의형제간인데 은공이구 뭐구 할게 있나. 성주 아버지한테서 받아온 편달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 신세야말로 백골난망이라고 할 수 있지. 자네 어머니는 좀 어떤가? 안도에 이사한 다음 속탈로 고생을 많이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네, 병이 퍼그나 깊어진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일하는 날보다 누워계시는 날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이처럼 범상한 대화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통화시내에 들어설 때 받은 인상을 피력했다.

≪사령님의 부하들이 수백 명이나 거리에 떨쳐나와 박수를 쳐주면서 환영을 해줄 때 우리는 모두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독립군의 얼굴색이 밝은 것을 보니 우리의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우리 부하들이 싸움은 변변히 하지 못해도 손님대접만을 소홀히 하지 않네.≫

≪너무 겸손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안도를 떠나기 전에 사령님의 부대가 당취

오의 요녕민중자위군과 합세하여 통화현성을 포위하고 손쉽게 차지하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건 뭐 그리 자랑할 전과가 못돼. 자위군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성시 하나도 공략하지 못하면야 무슨 명분으로 밥을 먹겠나.≫

양세봉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통화현성포위전의 전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이야기해주었다.

그날은 그런 정도로 대화를 나누고 집에서 하루밤 잤다. 나도 찾아온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양사령도 그런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양세봉이 우리의 원정목적을 묻지 않는 것이 좀 불안스럽기도 하였지만 나는 나를 환대해주는 그의 진심에 넘치는 행동을 보고 담판이 잘돼갈 것이라는 당초의 확신을 더욱 두터이 하였다.

우리는 다음날 아침식사 후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의 꼭지를 뗀 것은 양사령이었다. 그가 그때 나에게 한 첫 말은 이런 것이었다.

≪대장도 알다시피 지금 만주땅은 벌둥지가 됐네. 숱한 벌들이 일본이라는 불청객을 쏘겠다고 독을 물고 일어났네. 당취오, 이춘윤, 서원원, 손수암, 왕봉각, 등철매, 왕동헌 이건 다 동변도의 벌들이구 동만과 북만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벌들이 일어났나. 이런 때에 우리두 합세해서 잘 싸우면 이길 수가 있다고 보는데 대장생각은 어떤가?≫

그가 한 말은 우리의 원정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양사령이 스스로 합작에 대해서 모색하고 그것을 주동적으로 우리에게 제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맙고 다행한 일이었다.

나는 독립운동전반을 대국적 견지에서 부감하는 양사령의 높은 안목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그의 제의를 흔연히 받아들이였다.

≪합세해서 싸우자는 사령님의 말씀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 문제를 의논해보려고 사령님을 찾아왔습니다. 조선의 무장부대들이 서로 합세하고 중국의 무장부대들도 서로 합세해서 조중 두 나라 애국자들과 인민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사우면 능히 일제를 타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세봉은 그 말을 듣자 미소를 지었다.

≪대장이 동감이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서로 진지하게 의논해보세.≫

≪그런데 사령님, 시국은 단결을 요구하는데 우리 민족내부는 유감스럽게도 단결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내부도 단결이 안되고 민족주의자들이 내부도 단결이 안되고 또 민족주의자들과 공사주의자들 호상간에도 단결이 안되고 있으니 이렇게 해가지고서야 일본이라는 강적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 좌익에 섰다는 층이 정치를 잘못하는 탓이야. 대장도 좌익이라니 그런 물계는 잘 알겠지만 그들이 투쟁을 과격하게 내밀기 때문에 인심을 잃었단 말일세. 소작쟁의를 해서 농사군들을 폭군으로 만들구, 무슨 적색 5월이요 해가지고서는 지주를 처단하구 이렇게 하니까 중국사람들이 조선사람들을 소닭보듯이 하거든. 이건 순전히 공산주의자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의 실책이야.≫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해온 온갖 폭력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다. 나는 그가 노동자, 농민들을 적대시하고 지주나 자산가들을 동정하는데로부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양세봉자신도 독립운동에 관여하기 전까지는 지독한 영세농민으로 고생을 많이 해온 사람이었다. 그는 섣달그믐께부터 매번 지주의 빚독촉 때문에 지긋지긋하게 단련을 받아오군 한 채무노예에 가까운 소작농이었으며 무시래기에 피쌀을 쑨 죽을 기아의 해들을 기적적

으로 돌파해온 빈농민의 후예였다.

나는 또한 그가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한 폭력투쟁을 비난하는 것은 공산주의이념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도 아니며 또 그 반대의 이념이 자본주의사상을 옹호하기 때문도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조소하고 비판하는 것은 일부 공산주의자들의 운동방식이나 투쟁방법이였지 공산주의이념 그 자체는 아니였다. 그러나 방법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곧 이념에 대한 인식과 관점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초기공산주의자들이 대중운동을 지도하는데서 범한 좌경적 오류는 유감스럽게도 새사조를 동경하던 많은 사람들의 넋속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애정을 추방하는 가슴아픈 결과를 빚어냈다. 나는 양세봉사령과의 담화를 통해서도 만주지방에서 공산주의기성세대가 범한 과오의 후과가 얼마나 막대한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새삼스럽게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대중투쟁과정에 범한 좌경망동적 과오를 시인하였다. 그러면서도 대중투쟁일반을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는 해독행위로 묘사하는 양세봉의 편견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사령님의 말씀과 같이 조선공산당출신의 지도인물이 계급투쟁을 하는데서 지나친 탈선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들의 좌경망동바람에 사실은 우리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조선사람이 일본놈의 앞잡이라는 인식까지 낳게 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사령님, 농민이 지주를 반대해서 들고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령님도 농사를 많이 지어보아서 아시겠지만 가을에 가서 지주에게 차례지는 것이 얼마인데 농민들에게 차례지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죽도록 일해서 농사지은 것은 다 빼앗기고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우니 농민들도 살아보겠다고 소작쟁의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덮어놓고 열닷냥금으로 다 나쁘다고 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양사령은 내가 대중투쟁의 불가피성을 변론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 변론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였는지 아무 응대도 하지 않았다.

그날 독립군부대에서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위한 환영회를 열었다. 독립군대원들속에는 유하와 흥경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파견한 ≪ㅌ·ㄷ≫성원들과 정치공작원들에 의하여 공산주의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들이 많았다. 그런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환영회인 것만큼 대단히 성대하고 열광적이였다. 그 환영회에서는 통화현성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도 많이 참가하였다.

주인과 손님이 서로 차례를 엇바꾸어가면서 연설도 하고 노래도 불렀는데 환영회의 모든 공정에서 반일인민유격대와 독립군의 개성상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독립군대원들은 반일인민유격대들의 소탈하고 겸손하고 낙관적인 품성과 절제가 있고 기백이 있고 질서정연한 대오의 면모에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들이 제일 부러워한 것은 우리 대원들이 부르는 혁명가요와 38식 보총이였다.

어떤 독립군대원들은 ≪저런 끌끌한 군대가 소문도 없이 갑자기 어디서 생겨났는가.≫고 하면서 어리둥절해하였고 어떤 독립군대원들은 ≪당신네와의 합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 양사령과의 담판이 어떻게 되었는가?≫고 묻기도 하였다.

양사령은 그날 성주가 데리고 온 군대를 보자고 하면서 반일인민유격대를 방문하였다. 우리 대원들은 박수도 치고 거수경례를 붙이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환영을 잘하였다 그런데 그만 양사령이 반공연설을 하는 바람에 모처럼 마련되었던 환영분위기는 적대적 분위기로 바뀌여졌다.

≪조선독립을 성사시키려면 우선 이적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공산당은 지금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공장에 가서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싸우게 하고 농촌

에 가서는 지주와 농민들이 싸우게 하고 가정에서는 남녀평등이라 하여 안해와 남편이 싸우게 한다. 쩍하면 수탈이요, 타도요 하면서 동족간에 불화의 씨를 뿌리고 이민족사이에도 불신의 벽을 쌓는다.≫

우리 동무들은 모두 그의 연설을 듣고 분개하였다. 차광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양사령을 원망스럽게 쳐다보기만 하였다.

반공으로 일관된 양세봉의 연설에 대해서는 나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나는 그가 왜 그런 연설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령님, 우리는 그런 이적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선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며 근로민중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입니다. 독립하자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노력자대중이 중심이 되어 투쟁해야지 그저 옛날식으로 몇몇 영웅호걸들의 힘만으로는 안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자 우리 동무들은 입을 모아 국민부를 공격하였다. 국민부가 왕청문에서 애국청년 여섯 명을 이유없이 살해한 것은 이적행위가 아닌가, 민족앞에 그런 대죄를 짓고서도 국민부집단은 감히 그 무슨 이적행위를 운운하면서 우리를 구박할 수 있는가고 떠들어댔다.

그러자 양사령은 노염을 타면서 우리들에게 욕을 막 퍼부었다.

그 노여움이 도수가 지나치고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도 아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갑자기 이성을 잃고 우리를 질책하는 것이 어쩐지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우리의 몇 마디의 말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나 아닌가, 아니면 합작을 달가와하지 않는 어떤 인물이 양사령에게 우리를 걸고 나쁜 말을 한 것이나 아닌가, 어쨌든 그가 노여움을 타는데는 무슨 곡절이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인내성있게 그를 설복하였다.

≪선생님, 그렇게 노하실 것까지야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건 좀 더 지내봐야 알게 아닙니까. 상대를 호상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령님부대와 우리 유격대가 자주 접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는 양사령도 별로 응대가 없었다.

나는 양사령의 반공자세가 요지부동이긴 하지만 꾸준히 설복하면 그를 돌려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한가닥의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숙소로 돌아왔다. 남을 믿지 않는 것을 일종의 배타주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면 남을 믿는 것은 최선의 인도주의라고 할 수 있다. 국토침탈의 비운을 당한 나라의 애국자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인도주의란 민족단합을 이룩하는 것이며 단합된 민족의 역량으로 부모형제 동포자매들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나는 간주하였다.

내가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되는 부대를 이끌고 천리밖에 있는 양세봉을 찾아온 것도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회담이 결렬된 그날 통화시내에 있는 우리의 조직원이 독립군이 반일인민유격대의 무장을 해제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정보를 보내주었다.

양사령이 그런 음모를 꾸민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였지만 우리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통화에서 벼락같이 철수하였다. 그렇게 되어 유본초선생과도 갈라졌다.

반일합작의 절박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독립군과의 충돌을 피해 통화를 떠난 반일인민유격대의 대오에는 음침한 기분이 떠돌고 있었다. 차광수는 대오의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노정도가 그려진 목책을 들여다보며 덤덤히 발걸음을 옮기였다.

≪광수동무, 오늘은 왜 그렇게 성난 사람처럼 뿌루퉁해있소?≫

나는 그의 기분을 짐작하고 일부러 웃으면서 말을 걸었다.

차광수는 때를 만났다는 듯이 주머니에 목책을 집어넣으며 볼부은 소리를 했다.

≪그럼 이런 판국에 웃어야 하겠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울화가 치밀어 못견디겠소. 피를 흘리며 천리를 달려온 노고가 허사로 돌아가지 않았소.≫

≪왜 참모장동무는 독립군과의 담판을 실패작으로만 보려고 하오?≫

≪그럼 실패작이 아니고 성공작이란 말이오? 어쨌든 양사령은 합작이 아니라 무장해제음모를 꾸미지 않았소.≫

≪참모장동무는 상층의 표정만 보았지 하층의 얼굴은 보지 못했구만. 독립군대원들이 우리 유격대를 보고 얼마나 감탄하고 부러워하였소, 나는 무장해제설보다 그걸 더 중시하고싶단 말이요. 중요한 것은 상층의 표정이 아니라 하층의 태도요. 나는 거기서 합작의 장래를 보고 있소.≫

이렇게 말하는 내자신에게도 합작의 장래에 대한 확고한 승산이 있은 것은 아니였다. 나는 그저 예감을 말했을 뿐이고 염원을 표시했을 뿐이다.

나도 사실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나를 지배하고 있던 고민이란 국적이 서로 다른 양사령과 당취오의 합작도 성사되고 우리와 우사령과의 합작도 성사되는데 동족끼리인 반일인민유격대와 독립군과의 합작은 불가능한가 하는 것이였다.

독립군이 그때 진실로 무장해제음모를 꾸몄는가 안꾸몄는가 하는 것은 오래동안 미지수로 남아있었다. 나는 그 정보가 조직원들이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근거 없는 정보이기를 바랬다. 설사 그것이 과학성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나는 양사령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인간의 사상이란 한계가 있는 법이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체험이 소모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때 통화를 떠나면서도 독립군과의 합작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를 서두르지 않았다.

오히려 양사령이 언제인가는 꼭 우리의 진심을 이해하고 합작의 대문에 들어설 때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였다. 애국은 연공의 바다에로 가는 시내물과 같은 것이였다.

여러 해가 지난 후 부대를 이끌고 조선인민혁명군에 병변하여온 독립군의 사령 최윤구는 나와 함께 1932년의 여름을 감회깊이 회고하였다. 최사령의 말에 의하면 그때 반일인민유격대의 무장을 해제할 음모를 꾸민 것은 양사령이 아니라 양사령의 수하에 있는 참모였다는 것이다. 원래 양사령은 반일인민유격대와 합작을 성사시키려고 하였는데 그 참모가 막후에서 반공마이크를 들고 우리를 쏠았으며 나중에는 자기의 심복부하들과 함께 우리 부대의 무장을 해제할 모의까지 하였다는 것이였다.

최윤구의 그 말이 양세봉사령에 대한 우리의 의혹을 완전히 풀어주었다. 양사령이 우리와의 거래가 결렬된 것을 두고두고 가슴아프게 생각하였으며 그가 우리를 반대하는 무장해제음모에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나는 안도감을 느끼였다. 그가 비록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애국심앞에서 결백하고 의리앞에서 한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인간임을 다시한번 확증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나를 기쁘게 하였다. 자기가 훌륭하다고 본 인간이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도 계속 훌륭한 인간으로 남아있으며 그 인간에 대한 깨끗한 인상에 때가 끼지 않고 얼룩이지지 않을 때 그보다 더 즐겁고 흐뭇한 일은 없다.

양사령의 과실은 간계를 보지 못한 것이였다. 그는 대바르고 강직한 사람이였지만 자기의 턱밑에서 참모가 우리와의 합작을 유산시키려고 작간질을 하는 것도 몰



양세봉부인과 함께

랐다. 그리고 자기가 공산주의자들을 악랄하게 헐뜯을 때에도 그의 본심을 꿰뚫어 보지 못하였다. 양사령이 억울하게 최후를 마친 것도 적의 간계에 속아넘어갔기 때문이었다.

양세봉사령이 반공으로부터 연공에로 방향전환을 한 것은 임종 전이었다. 그 당시 독립군 내부는 매우 복잡하였다. 밀정들과 그에 매수된 앞잡이들의 해독행위가 우심해지는가 하면 부대를 꺼나가는 낙오자들과 탈주자들이 속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자들과의 합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울려나왔다.

양사령도 공산주의자들을 더는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조중 두 나라 혁명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주세력으로 등장하여 천하를 쥐락펴락하는 새로운 격동기다 도래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냉철하게 검토하였으며 그 과정에 연공까지 결심하게 되었다.

공산주의에 대한 몰이해와 본의아닌 적대감에 포로되어 우리와의 합작마저 결심하지 못했던 양사령이 련공에로 방향전환을 한 것은 그자신의 생애는 물론, 독립군의 투쟁역사에서 하나의 특기할 사변이었다. 그가 반공을 배격하고 련공의 길을 택하였다는 것은 양정우와의 공동행동을 한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우리와도 합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의 헌병, 경찰기관들과 특무조직들은 양세봉을 살해하고 독립군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음모를 계획적으로 추진시켰다. 이 음모에는 봉천헌병대도 가담하고 조선총독부 후꾸시마기관도 미행하였다.

양세봉을 살해하기 위한 작전기밀비로 10여만원의 돈이 투하되었다는 말도 있다. 박창해를 비롯한 흥경의 밀정들도 이 작전에 동원되었다.

적들은 양세봉사령을 유인할 계책을 꾸미던 끝에 평소부터 그와 관계를 가지고

독립군을 협조해주던 배신자 왕가를 파견하였다. 어느 날 왕가는 양세봉을 찾아와 중국항일군이 독립군을 원조하기 위하여 사령을 만나려고 한다고 회유하였다. 양세봉은 중국항일군이 원조를 약속한다는 말에 그만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왕가를 따라 항일군이 기다리고 있다는 대립자로 향하였다

왕가는 노상에서 문득 권총을 뽑아들고 ≪나는 이전날의 왕명번이 아니다. 목숨이 아깝거든 일본군에 항복하라.≫고 하였다.

양사령이 왕가에게 벽력같은 호령질을 하면서 무기를 꺼내들자 수수밭에 매복하고 있던 적들은 선손을 써서 일제사격으로 그를 살해하였다. 최일천이 묘사한 것처럼 ≪계림(조선)의 벌은 받아도 왜왕의 작록은 먹지 않는다.≫는 박제상의 충언이 그대로 사령의 혼이 되어 원쑤들을 질겁케 하였던 것이다.

양사령이 만일 좀 더 일찍이 연공의 길에 나섰더라면 그의 운명이 달리 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다. 물론 그의 죽음을 애달퍼하는 한가닥의 미연일 것이다.

≪나는 죽어서 항일을 할 수 없지만 너희들을 살아서 **김일성**사령을 찾아가라. 살길은 그 길밖에 없다!≫

양사령은 부하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그것은 유언이라기보다도 반공의 벽을 부시고 뛰쳐나온 한 애국자의 죽음으로 탄생된 연공선언이었다

이 선언을 따라 4년 후에는 통화거리에서 우리를 환영하던 300여명의 독립군대원들이 최윤구사령을 앞세우고 조선인민혁명군에 합세하기 위해 백두산으로 찾아왔다. 그때 나는 화전에서 그들을 만났다.

환인현의 조선사람들은 적들에게 양사령의 시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마을뒤산에 그의 유해를 평토장으로 안장하였다. 평토장이란 지평면과 무덤의 높이가 동일한 봉분을 쌓지않은 평평한 묘를 말한다.

일본군경들은 그 묘마저 파헤치고 고인의 머리를 베여 통화시가에 걸어놓았다.

양사령의 유가족들은 모진 학대를 받았다. 그들은 일만군경들의 박해에 시달리다 못해 량가성을 김가로 고치고 철도에서 천여 리나 떨어진 환인현의 심산벽촌에 들어가 두더지 같은 생활을 하였다.

나는 해방 후 남만에 일군들을 파견하여 양사령의 유가족들을 조국에 데려오게 하였다. 그 일군을 따라 사령의 부인(윤재순)과 아들딸, 사위가 조국으로 나왔다.

≪아주머니, 그 동안 사령님을 잃고 일본군경들에게 내내 쫓겨 사시느라고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내가 첫 인사로 이런 말을 하자 윤재순여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한참동안 어깨를 떨었다.

≪장군님, 장군님의 얼굴을 보니 쌓였던 설움이 다 녹아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쫓겨다니는 거야 무슨 큰 고생이겠습니까. 장군님께서 왜놈들을 쫓아내시느라고 고생이 막심하셨겠습니다.≫

≪싸움을 하느라고 바삐 보내다보니 소식 한번 전하지 못해 죄송스러웠습니다.≫

≪장군님, 오히려 저희들이 죄송스럽습니다. 우리는 그 산중에서도 장군님의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장군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국의 원혼이 된 영감을 마음속으로 원망하군 했습니다.≫

≪그렇지만 양사령은 마지막 힘을 다할 때까지 굴하지 않고 잘 싸웠습니다.≫

그 후 우리는 양사령의 아들 양의준을 만경대혁명학원에서 공부시키었다.

4월 남북연석회의 때 이 학원을 참관한 김구선생은 거기서 양사령의 아들을 만나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나는 북조선당국이 빨치산투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런 학원에서 독립군사령의 자제까지 공부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학원에는 빨치산투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노조, 농조활동을 하다가 희생된 애국자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순국한 애국자라면 그가 어떤 계열이든지 우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김구는 감격하여 ≪이 학원은 민족단합의 상징입니다!≫하고 말했다.

학원을 졸업하고 공군부대의 정치일군이 된 양의준은 전후에 비행기사고로 사망하였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몹시 낙망하였다. 양사령의 혈통이 끊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였다.

다행히도 양의준은 아들 하나를 남기고 돌아갔다. 그 아이의 이름을 양철수라고 하였다. 그런데 철수는 소아마비의 후과로 불구의 몸이 되였다.

당에서는 그를 인민학교에도 보내고 고등중학교에도 보내고 대학에도 보내여 14년동안 건강한 아이들과 꼭같은 교육과정을 마치게 하였다. 그가 **김일성**종합대학을 다니는 4년동안 그의 동무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를 밀차에 태워가지고 다니며 17층에 있는 교실까지 오르내리였다. 애국선열들에 대한 우리의 2세, 3세들의 존경심은 불구의 유자녀에 대한 따뜻한 애정으로 표현되였다. 지금 양철수는 공화국의 당당한 현역작가가 되어 침상에서 문학작품을 써내고 있다.

양철수에게는 2남 1녀의 자녀들이 있다. 혈통을 따지면 양세봉의 증손자, 증손녀들이다. 추석명절이 오면 그 애들도 부모를 따라 애국열사릉에 있는 증조할아버지의 묘를 찾아가군 한다. 그들은 아직 자기네 증조할아버지의 생애를 얽어매고 있던 고뇌와 불행이 무엇이였던지를 알지 못한다.

그 천진한 것들의 어깨우에 다시는 반공이냐 연공이냐 하는 무거운 짐이 실리지 않기를 바란다.



애국열사릉

5. 단합의 이념아래


최창걸

나는 유하를 향해 행군을 다그치었다. 유하는 남만일대서 흥경, 통화, 화전, 반석과 더불어 조선독립운동의 중요한 책원지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고장이다. 이 지방에는 구세대의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새세대 투사들도 많았다. 우리 나라 독립운동역사에서 첫 무관학교로 널리 소개되었던 신흥강습소도 남만의 유하현에 속한 하니하라라는 곳에서 설립되었다.

우리가 유하를 행군노정의 하나의 목표로 정한 것은 이 일대에서 반일인민유격대의 군중적 지반을 넓히기 위한 정치공작을 본격적으로 벌이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유하뿐 아니라 삼원포, 고산자, 해룡, 몽강 등 안도까지의 귀환노정에 있는 지방들에서 군중을 혁명화하기 위한 작업과 함께 유격대의 대오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맹렬하게 벌이려고 결심하였다. 남만으로 원정의 길을 택할 때 우리가 설정했던 전략의 한 측면도 여기에 있었다.

원정부대는 먼저 삼원포, 고산자, 유하, 해룡 등지에 머물러 혁명조직들과의 사업을 하였다.

9.18사변 후 이 일대의 혁명조직들은 적의 백색테러에 의해 혹심하게 파괴되었다.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여러 해 동안 피와 땀을 바쳐 꾸려놓은 조직들이 대부분 파괴되거나 해체되었다. 성원전원이 잡혀가거나 학살되어 도저히 재생할 수 없는 조직들도 있었다.

9.18사변의 여파가 제일 심하게 미친 곳은 해룡지방이었다. 해룡에는 일본영사관이 있어 적들의 마수가 다른 고장보다 더 깊숙이 뻗어있었다. 조직선을 찾으려고 안타깝게 모대기는 사람들이 어느 고장에나 다 있었다.

나는 우리가 체류하는 모든 곳에서 첫 당조직을 모체로 확대된 기층당조직성원들과 공청,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 농민동맹, 반일부녀회, 소년탐험대의 책임자들을 만나 매개 조직들의 활동정형을 요해하고 당면한 혁명임무와 투쟁과업을 토의하였다. 사고방식에서 스쳐지나서는 안될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포착하게 되었다.

첫 번째 문제점은 9.18사변과 함께 속히 만연되기 시작한 패배주의적 경향이었다.

그런 경향은 우선 일본이 만주까지 먹었으니 이제는 만사가 다되었다고 생각하는데서 표현되었다. 일본은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제일 큰 러시아도 타승하고 청나라도 격파하였다. 지금은 만주에 이어 중국본토까지 먹어보겠다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다. 미국군대와 영국군대가 얼마가 강한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일본군대한테

는 견디지 못할 것이다. 자칫하면 일본이 세계를 정복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판국에서 조선독립을 기다리는 것은 부지하세월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청일, 러일 두 전쟁을 통해 생겨난 일본군에 대한 환상은 이 무렵에 와서 더욱더 크게 조장되고 전파되였다.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일제를 타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상공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이런 견해가 발전하면 싸워서 이기지도 못할 바에야 혁명은 해서 무엇하느냐 하는 투쟁주의로까지 굴러떨어질 수 있었다.

패배주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인민을 묶어세울 수도 없었고 애국역량을 혁명에 동원시킬 수도 없었다.

우리는 부대내에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대원들과 지휘관들을 선발하여 9.18사변과 조선혁명의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군중들속에 들어가서 강연도 하고 해설담화도 하게 하였다.

대중이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청취하는 것은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소식이였다. 그들은 항일유격대의 규모와 전략전술적 원칙에 대하여 특별한 호기심을 품고 있었다. 유가분방인민들앞에서 하던 나의 연설이 또 다시 재현되고 박수갈채가 터져올랐다.

우리의 강연이나 담화 가운데서 가장 인기가 있는 화제거리는 안도-무송현경전투담이였다. 광대한 만주대륙을 일거에 집어삼키고 만주국까지 조작해낸 일본의 전승결과에 비한다면 1개 중대의 적을 소멸한 전과는 사실 대비조차 할 수 없는 미비한 것이였다. 그런데 군중은 이 전투담을 제일 흥미있게 경청하였다. 일본이 만주의 통치자로 군림할 때에 방금 첫발을 뗀 청소한 반일인민유격대가 백주에 노상에서 왜군 1개 중대를 섬멸하였다는 소식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경탄시켰던 것이다.

사람들은 전투과정의 매 세부, 지어는 아군의 돌격 앞에서 저항을 포기하고 달아나던 순간의 적군의 구체적인 패주상까지도 죄다 알고 싶어하였으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끝없는 질문을 들이대였다. 우리는 한 장소에서 꼭같은 전투세부를 두번, 세 번 되풀이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안되였다.

나는 안도-무송현경 전투결과에 대한 사람들의 반향을 종합하면서 대중에게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수 있다는 신심을 주자면 말보다도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며 실전을 통하여 유격대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군중의 동향에서 제기되는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을 배경으로 하여 적지 않은 청년들속에서 무장투쟁을 절대시하고 지하혁명활동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였다. 그들은 적이 탱크와 대포와 비행기를 가지고 막 짓뭉개대는 때에 밤낮 모여앉아서 회의나 하고 말공부나 하고 삐라나 뿌리면 뭘하는가, 총을 들고일어나 왜놈들을 한 놈이라도 잡아서 제껴야 소득이 있지 지하활동 같은 것이나 해가지고서는 어림도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조직생활을 경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무장투쟁도 조직생활을 통해 육성된 핵심들에 의해 수행되며 조직이라는 거대한 저수지가 없이는 무장대오도 조직할 수 없고 더욱이는 그 대열을 늘어나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것도 역시 9.18사변이 만들어놓은 좌익소아병적인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항일유격대의 저수지가 조직이고 조직을 떠난 혁명투쟁이란 논할 수도 없고 성립될 수도 없으며 조직들이 활동하지 않으면 혁명이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생명이 끝장난다는 이치를 대중에게 인식시키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우

리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만주각지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하고 무력에 의한 항전을 개시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지난 기간 혁명군중이 조직활동을 잘해온 덕택이라는 것을 설득력있게 해설해주었다.

남만지방 인민들의 동향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국민부의 테러에 테러로써 대답하려는 경향이였다. 그 당시 국민부반동들은 남만지방에서 공산주의자들과 방향전환을 시도하는 혁신파민족주의자들에 대한 테러를 강화하고 있었다.


독립군사령 양세봉

유하지방의 공청원들과 반제청년동맹원들은 테러를 밥먹듯하는 국민부의 테러에 테러로 대답하는 것이 왜 유해로운가 하는 논거를 그들은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테러를 힘으로 제압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면 그것은 테러를 조장하는 결과만 가져온 것이였다.

나는 테러에 테러에 대답하는 것이 왜 온당치못한 처사로 되며 혁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망동으로 되는가 하는데 대하여 장시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부가 애국자들을 학살한 것은 물론 천추를 두고도 씻을 수 없는 대죄이며 동족의 손에 훌륭한 애국자들을 잃는 것은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 없는 우리모두의 비극이다. 국민부는 이 죄악으로 하여 우리 민족과 후손들로부터 두고두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국민부를 살인백정의 집단으로 낙인하고 복수를 다짐해나선 동무들의 심정은 물론 나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복수의 칼을 벼리기전에 이런 불상사가 어떻게 되어 일어나는가를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국민부가 민족주의우파의 소굴로 전락되었다고 하여 거기에 망라된 모든 성원들을 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일제가 국민부를 반동화할 목적밑에 앞잡이들을 파견하여 부단한 와해작전을 벌이는데 있다. 그들은 국민부내의 신흥세력인 혁신파에 주목을 돌리면서 그 내부의 분열대립을 교묘하게 조장시켜왔다. 우리가 테러로써 국민부를 타도한다면 좋아할 것은 일제놈들뿐이며 리득을 볼 것도 일제놈들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부의 반동화된 상층을 고립시키면서 거기에 잡입한 일제의 앞잡이들을 색출해내고 적들의 음모를 폭로해야 한다. 민족재생의 담보가 단합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잊지 말자.

내가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자 청년들은 알만하다고 하면서 고개들을 끄덕거리였다.

우리는 이런 경향들을 바로잡아주면서 남만의 동무들에게 파괴된 혁명조직들을 시급히 복구정비하고 그 두리에 대중들을 더 많이 묶어세울 데 대한 과업, 핵심들을 육성하여 무장대오에 보내줄데 대한 과업, 실천투쟁속에서 검증된 노동자, 농민 출신의 청년공산주의자들로 당조직을 확대해나갈 데 대한 과업, 중국인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우리가 삼원포, 고산자, 유하, 해룡 일대에 머무르고 있을 때 많은 청년들이 자원하여 우리 부대에 입대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남만지방에서 벌인 적극적인 정치활동의 총화라고 할 수 있었다.

유하지방의 혁명운동을 앙양시키는데서 걸린 고리들을 풀자면 최창걸을 비롯하여 이 일대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첫 당조직성원들과 공청핵심들의 역할을 높여야 하였다. 우리가 한해전부터 연계가 두절된 최창걸을 행방을 찾으려고 그처럼 애쓴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최창걸을 만나면 일제의 만주강점이 현실로 되고 무장투쟁

이 개시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남만지방에서 혁명을 어떻게 심화발전시키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논의를 할 수 있으며 그에게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었다. 최창걸은 남만지방에 파견된 우리의 대표나 다름없었다.

유하는 ≪ㅌ·ㄷ≫의 결정에 따라 그가 활동한 구역이었고 그와 여러 가지로 깊은 인연을 맺고 있던 고장이였다. 최창걸은 독립군생활도 거기서 시작하였고 화성의숙에 입학할 때에도 거기서 양세봉의 추천을 받았다.

화성의숙이 폐교된 후 최창걸은 출신중대에 돌아가 독립군 참사로 복무하면서 유하지방을 중심으로 남부만주의 광활한 지역에 ≪ㅌ·ㄷ≫의 판도를 넓히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 바치었다. 그는 유하에서 활동할 때 금천현성에 있는 일본영사관분관을 습격하는 전투에도 참가하였다.


화성의숙 기숙사

유하와 흥경을 비롯한 남부만주일대에서 ≪ㅌ·ㄷ≫의 대오가 빠른 속도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김혁, 차광수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최창걸의 눈부신 투쟁과 능숙하고 세련된 사업전개능력에도 기인된다. 그는 새 사조의 출입금지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독립군들속에 들어가 생활하면서도 자기가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보적인 독립군대원들속에서 의식화작업을 주동적으로 하여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신봉자로 개조하였다. 최창걸이 사람들과의 사업을 얼마나 통이 크고 대담하게 하였는지 그를 통솔하던 지휘관은 심지어 그가 주둔구역으로부터 10리나 떨어진 곳에 가서 몇 달씩 정치공작을 하여도 상급에 보고하지 않고 눈을 감아주었다.

유하는 종파분자들과 반공모략에 이골이 난 민족주의보수파분자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고 있던 곳이었다. 엠엘파분자들은 반석현에서 주민회라는 단체를 만들어내어 남만의 민족주의단체들과 대결하였고 혁신파와 보수파의 대립으로 분열직전에 있던 독립군내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일부 좌파인물들은 화요파, 서상파와 손을 잡고 민족단일전선조직을 서두르고 있었다.

현묵관, 고이허를 위시한 보수파인물들은 공산주의 사조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반동공세를 벌이었다.

이런 복잡한 분위기속에서 최창걸은 유하지구에 반제청년동맹을 조직하고 그 대열을 급속도로 늘려나갔다.

종파분자들은 주중청총이 중국에 있는 조선청년들의 유일한 조직인데 유하반제청년동맹이라는 것은 또 무슨 단체인가고 하면서 트집을 걸었다. 엠엘계의 종파분자들은 유하반제청년동맹내부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이색분자들도 잠입시켰다. 그들은 반석지방으로부터 수십 명의 청년들은 끌어들여 다니거우에 집결시키고 몽치단이라는 테러단을 무은 다음 삼원포에서 독립군이 반란을 꾸미고 있다는 거짓정보를 제공하고는 경찰과 연합하여 반제청년동맹간부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망동까지 부렸었다.


현묵관

그때 최창걸은 그들의 추태를 저지시키고 동맹의 핵심들을 폭행속에서 구원해주었다.

최창걸은 종파분자들의 도발에 군사적 방법으로 보복하지 않았다. 그는 원래 사람들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는데서 대범한 성미를 지니고 있었다. 후에 카륜에서 나를 만난 최창걸은 종파쟁이들의 곤장에 살을 찢기고 피를 토하는 반제청년동맹원들을 보면서도 자기가 총탄을 발사하지 않고 이성을 발휘할 수 있은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유하로 갈 때 제일 기뻐한 것은 차광수였다. 그는 최창걸과의 상봉을 눈앞에 그리면서 어린애들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다. 최창걸과 마찬가지로 차광수도 유하와는 범상치 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최창걸이 양세봉의 수하에서 육혈포를 차고 돌아다닐 때 차광수는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였다. 그때 그들은 서로 뜻이 맞아 동지로 되었다.


차광수

≪이 최창걸이가 눈은 높은 사람이지만 첫눈에 차광수한테 반했드랬소. 겉보기는 덜렁광창인데 속은 온통 노다지더란 말이요. 저 친구 머리속에는 칼, 맑스가 여라문 명 올방자를 틀고 앉아있소.≫언제인가 최창걸은 차광수와의 첫 교우를 회상하면서 이런 농을 하였다.

≪최창걸이가 만일 아가씨라면 저 덜렁광창을 제일 선참 낭군님으로 삼겠소. 그런데 길림의 아가씨들은 모두 소경들이 된 모양이거든.≫ 차광수는 그 농을 들으면서 씨물씨물 웃기만 하였다.

길림시절의 차광수는 그때까지만 해도 총각이었다. 그래서 최창걸은 늘 차광수의 중매는 자기가 선다고 하였으며 덜렁광창이 말을 타고 새 각시네 집으로 가는 날에는 견마잡이도 자기가 한다고 희떠운 소리를 하였다.

마주서기만 하면 나는 형님이고 너는 동생이니 형님대접을 잘하라는 식으로 허물없는 롱질과 입씨름에 열을 올리군하는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우정은 참으로 만 사람이 부러워하고 시샘을 느끼리만치 친밀하고 열정적인 것이었다.

그 우정은 유하와 흥경, 철령 일대를 중심으로 공청과 반제청년동맹 대열을 확대해나가던 나날들에 더 깊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최창걸은 차광수와 함께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고산자지부도 결성하였으며 왕청문을 중심으로 흥경현, 유하현, 반석현을 비롯한 남만의 여러 현들에 사회과학연구회라는 명칭을 가진 계몽단체들도 조직하였다.

사회과학연구회는 맑스-레닌주의와 조선혁명의 지도이론을 연구보급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있었다. 그 운영방법은 지금의 통신대학체계와 비슷하였다. 1년에 보름가량은 농한기를 택하여 청년들을 불러다가 강의를 해주었으며 나머지 시간에는 몇 달에 한번씩 이동강의도 해주고 필요한 학습교재들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계몽시키였다.

사회과학연구회 성원들은 참고서를 놓고 강의에서 받은 내용을 자체로 학습한 다음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앉아 토론회를 가지였으며 이해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으면 서면질의응답의 방법으로 배운 지식을 완전히 소화하였다.

남만청총대회가 소집되던 그 해 가을에 유하에서 사회과학연구회의 활동에 대한 차광수의 설명을 들은 나는 그 운영방법의 독창성과 참신성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으며 이 연구회를 이끌어나가는 세 전우(최창걸, 차광수, 김혁)를 통이 크고 창조성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들이 실천속에서 창조해낸 운영방법은 어려운 지하투쟁의 조건에서도 머리를 잘 쓰면 청년들을 시대의 선각자, 역사의 개척자로 훌륭히 교양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구에 있게 될 최창걸과의 상봉을 눈앞에 그리며 삼원포방향으로 행군대오를 인솔해가는 내 가슴도 차광수 못지않게 울렁거리었다.

카륜에서 첫 당조직을 뭇고 그와 헤어진지도 만 2년이 되어오고 있었다. 그 동안 최창걸은 유하, 흥경, 해룡, 청원, 반석을 비롯한 남만의 광대한 지역들에서 당조직들을 내오고 각종 대중단체들을 확대하며 조선혁명군의 한 개 대대를 지휘하면서 상비적인 혁명무력 건설에 필요한 인적, 물적 준비를 위하여 동분서주하였다. 1931년 봄에는 조선혁명군 길강지휘부를 동방혁명군으로 개칭하고 그 지휘관이 되었다. 나에게 소식을 전해준 최창걸의 연락원은 그가 국민부 반동파와의 알륵 때문에 고심한다고 말하였다.


현하죽

그 후로는 유하와의 연락도 두절되었다. 나는 이것이 은근히 불안스러웠다. 내가 불안해하는 것은 그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아무데나 텀벙텀벙 내대는 타고난 모험가이고 낙천가라는 거기에만 있지 않았다. 그는 테러를 만능의 수단으로 삼기 시작한 국민부의 테두리안에서 그 반동파들의 주시를 받으며 활동하는 공산주의자였다. 국민부의 시각으로 볼때에는 요시찰대상에 속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었다.

왕청문사건이 있었던 그 해 말에 국민부반동들은 최창걸, 최득혁을 비롯한 6명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을 체포하여 대우구라는 곳에서 처형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은 역사에 유하사변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새 사상을 지향하는 국민부내부의 혁신세력은 이 사건을 계기로 반동파에 대한 비난의 도수를 높이었다. 피해자인 최창걸자신은 파시스트화된 국민부상층에 대한 복수를 한다고 하면서 이를 갈았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유하지방에 박근원을 보내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신을 전달하게 하였다.

≪국민부와의 충돌은 어떤 형태의 것이든지 백해무익하다.

반일은 지향하는 동족사이에 유혈은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된다. 왕청문에서 6명의 동지를 억울하게 잃고도 피눈물을 머금고 참아온 우리가 아닌가. 매사에 심중하며 경거망동하지 말것이다.≫ 유하사변이 있은 후 국민부는 1930년 8월에 있은 조선혁명당 집행위원회와 대표회의를 계기로 두 개의 진영으로 분열되었다. 현묵관, 양세봉, 고이허, 김문거, 량하산 등이 기존방침의 고수를 완고하게 주장하고 그 실현을 강요해나선데 대항하여 고원암, 김석하, 이진탁, 이웅, 현하죽, 이관린 등의 소장파인물들은 조선혁명당을 인민의 의사와 배치되는 파시스트적인 정당으로 낙인하고 그를 해체하여 무산자들을 대표하는 계급혁명의 전위로 되게 하는 동시에 재만조선농민들을 계급적으로 영도해야 한다는 혁신적이고 방향전환적인 주장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이념상의 알륵으로부터 두 파는 서로 상대방을 타도하고 매장하기 위한 피투성이싸움을 벌이었다.

국만부파는 봉천성정부의 량해밀에 중국관헌들과 군경들까지 매수이용하여 반국민부파를 숙청하는 테러전에 달라붙었다. 그 과정에 그들은 이진탁을 비롯한 5명의 상대편 인물들을 암살하였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반국민부파도 국민부본부를 습격하여 4중대장인 김문거를 총살하였다. 그 후 반국민부파는 탈퇴성명을 내고 국민부타도를 목적으로 하는 반국민부위원회라는 단체까지 만들어내었다.

최창걸의 신변에 대한 나의 걱정은 이런 정치적 배경에 바탕을 둔 것이다. 삼원포로부터 한마장즘 떨어진 곳에서 나는 행군대오에 속보로 걸으라는 구령을 내리었

다. 최창걸은 한시바삐 만나고싶은 조바심이 우리의 발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러나 삼원포에 도착하여 최창걸의 소식을 들은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고장 조직원들이 그가 희생되였다는 비보를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것이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최창걸은 고산자공청지부의 사업을 지도하다가 국민부우파놈들에게 체포되여 종적을 감추었다는 것이였다. 반일인민유격대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를 찾아온 삼원포공청지부의 박가성을 가진 청년도 그와 비슷한 소리를 하였다. 그는 국민부테러분자들이 최창걸을 금천현 강가점에 유인해다가 학살하고는 공산당밀정이기 때문에 처단했다는 여론을 퍼뜨렸다고 하였다. 어떤 청년들은 해룡과 청원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활동하다가 피살되였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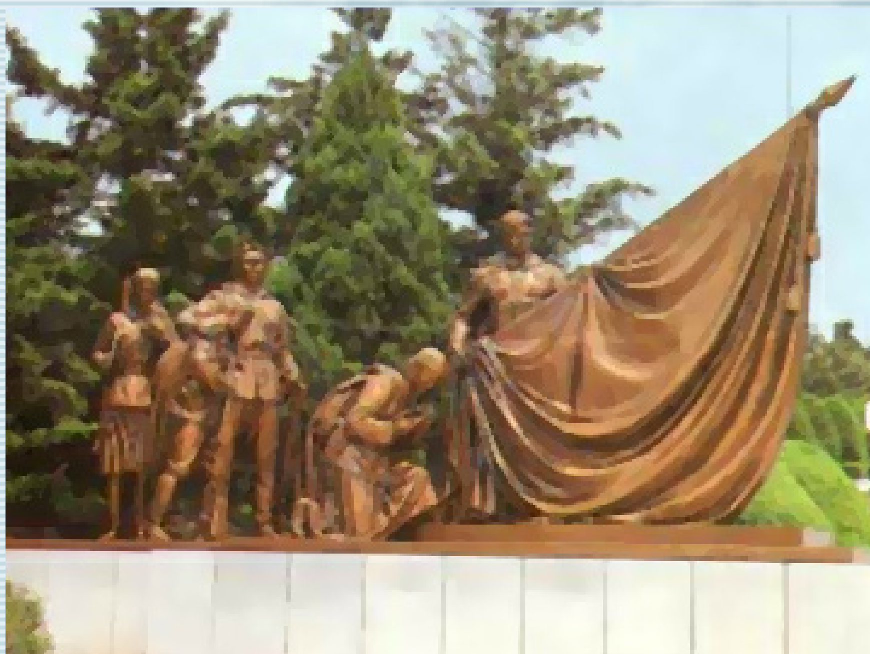
이렇든저렇든 최창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았다.

나는 너무나 분해서 말도 할 수 없었고 눈물도 흘릴 수 없었다. 언제나 한 모습으로 변함없이 열에 끓고 정에 넘치던 ≪ㅌ·ㄷ≫의 건아가 어쩌면 한 능선에서 맞본 슬픔에 뒤이어 우리의 마음속으로 무자비하게 기습해온 또 하나의 커다란 슬픔이였다.

무장투쟁이 역사무대에 군복을 입은 반일인민유격대의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그 총성이 만주의 광막한 대륙에 새로운 시대의 서곡으로 높이 울리고 있던 격동적인 나날에 최창걸과 같이 충실한 전우가 희생된 것은 우리 혁명을 위해서 정녕 가슴아픈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차광수도 내 옆에 앉아 폭양속에 시들어가는 풀밭을 눈물로 적시고 있었다.

나는 최창걸의 유가족들을 만나고싶어 부대를 데리고 고산자로 향하였다. 최창걸의 부인은 걸음마도 떼지 못하는 사내아이와 시동생과 함께 우리를 맞이하였다. 그 부인이 참으로 강의한 여자였다. 그 여자는 우리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에게 남편의 소원이 총을 잡고 왜놈들과 싸우는 것이였는데 그 남편을 대신하여 자기가 싸울 수 있도록 유격대에 받아달라고 청원하였다.



우리는 예정을 바꾸어 유가족들의 곁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날 아침 부대가 고산자마을을 떠날 때 최창걸의 미망인은 멀리까지 우리를 따라나와 바래주었다.

나는 무슨 말로 여인을 위로했으면 좋을지 몰라 아이를 안아들고 그 애의 볼을 다독여주었다. 이가 두 개밖에 나오지 않은 사내애는 신통히도 아버지를 닮았다. 아이는 나의 얼굴을 만지면서 ≪아빠≫, ≪아빠≫하였다. 그 광경을 보고 애어머니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었다. 나도 눈물이 저려올라 아이의 볼에 볼을 대고 한참동안 고산자마을쪽을 묵묵히 바라보기만 하였다.

≪아주머니, 이 애를 잘 키워 아버지의 뒤를 잇게 합시다!≫나는 목이 메여 그보다 더 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부대가 고산자를 떠나서 5리쯤 왔을 때 우리가 너무도 침통해하는 것을 보고 김일룡은 최창걸을 추모하여 조총을 울리자고 제기하였다. 조총이라도 울리면 우리의 기분이 좀 전환되지 않겠는가 하는 타산을 한 모양이었다. 역시 풍상고초를 많이 겪어본 김일룡의 속마음이 웅심깊은데가 있었다.

≪소문만 듣고서는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시신도 보지 못하고 어떻게 조총부터 올리겠습니까.≫ 몽강을 거쳐 양강구에 도착한 우리는 거기서 놀라운 정보를 입수하였다. 무송지방에 은거하고 있던 20명가량의 독립군이 70-80명으로 구성된 중국인민무장부대와 합세하여 우리 부대를 습격하고 무장을 해제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였다. 이 음모의 기안자가 바로 국민부산하의 독립군이였다. 그들은 몽강에서부터 양강구방향으로 이동하는 반일인민유격대의 행군노정을 내탐한 다음 중국인반일부대에 우리 부대가 공산군주력부대라는 것을 연락하였다. 독립군은 중국인반일부대와 함께 반일인민유격대가 통과하게 될 마을을 미리 차지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에게 이 정보를 제공한 것은 양강구에 있는 공청원들이였다. 그곳에는 내가 아는 조직원들과 청년들이 많았다. 우리가 양강구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나에게 이 내막을 알려주었다.

유격대원들속에서 국민부테러분자들을 타도하고 최창걸의 복수를 하자는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것이 바로 그때였다. 유하의 청년들이 국민부의 테러분자들을 요정내고 남만청총대회때 괴모산골짜기에서 학살된 6열사의 원쑤, 최창걸의 원쑤를 갚아야 한다고 부르짖을 때만 하여도 나와 목소리를 합쳐 그들을 달래던 동무들까지 지휘부로 찾아와 우리의 자제력에도 한도가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한번 싸움을 본때있게 하여 버릇을 떼주자고 하였다. 그런데 버릇을 떼준다는 것도 말은 쉽지만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였다. 우선 역량상으로 볼 때에도 상대는 우리보다 더 우세하였다.

그러나 이런 대비는 큰 문제로 되지 않았다. 제일 난처한 것은 상대가 적 아닌 적이라는 것이였다. 항일구국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무장부대들끼리 서로 맞총질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1930년대초기의 혼란된 시국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만화라고밖에는 달리 말할 수가 없었다. 반일인민유격대와 독립군이 합작하여 반일인민유격대를 공격한다는 것도 괴이한 일이였다.

싸움을 하면 물론 승패는 갈라질 것이였다. 하지만 이런 유의 싸움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다 도덕적인 규탄을 면치 못하는 법이였다. 승자는 목에 걸어줄 월계관도 있을 수 없거니와 패자의 희생을 동정할 눈물도 있을 수가 없었다.

중국인민무장부대를 잘못 건드려놓으면 우리의 활동에 수습할 수 없는 난관이 조성될 수 있었다. 모처럼 성사된 구국군과의 공동전선은 깨여지고 우리는 다시 남

의 집 뒤골방에서 무기소제나 하며 세월을 보내던 초기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독립군부대를 치는 것도 그만 못지 않은 악후과를 낳을 수 있었다. 공산군부대가 독립군부대를 치면 인민이 우리를 외면하고 냉대할 것이였다. 반공분자들은 좋은 때를 만났다고 공산주의자들을 헐뜯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아니였다. 반일인민유격대와 독립군이 서로 총구를 마주대고 혈전을 벌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였다. 그런데 독립군은 송화강 건너편에서 그런 혈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1932년 여름을 생각하면 그때의 일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그때 나는 밤잠도 자지 못하고 이 맹랑한 문제를 민족단합의 경륜과 항일구국의 대의에 맞게 처리할 방도를 찾느라고 마음을 썩이었다. 그 일 때문에 십년은 감수했다고 말할 수 있다.

공동의 적인 일본군과는 싸움 한번 변변히 해보지 못하면서도 동족인 우리하고는 금수도 낮을 붉힐 수치스러운 분노와 혐오를 금할 수 없었다. 지휘관들과 상론해보니 그들도 다같이 노기충천하여 국민부파시스트들에게 철추를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아 떠들었다.

≪다시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단단히 버르장머리를 떼줍시다. 그들이 죽어서 지하에 가더라도 두 번 다시 손에 동족의 피를 묻히는 일이 없도록 혼쌀을 내줍시다.≫ 차광수는 눈에 불꽃을 튕기며 국민부의 손에 쓰러진 동지들의 원한을 갚을 때가 왔다고 부르짖었다.

그러고 보면 그 당시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무장부대들은 어느 것이나 다 적인 셈이었다. 독립군도 적이고 구국군도 적이고 마적도 홍창회도 대도회도 다 적이었다. 반일인민유격대가 이런 역경에 처하게 된 것은 우리 부대가 구국군의 별동대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유본초와 같은 증인이 없는데 있었다. 우리는 유본초와 같이 유력한 증인을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언제나 사면팔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걸머지고 있었다.

우리가 통화에 갔다오는 사이 우사령부대는 안도에서 철수하여 왕덕림부대와 함께 영안현일대로 깊숙이 퇴각하였다. 안도는 자유지대로 남아있었다. 자위군은 싸움을 크게 해보지도 못하고 일본군에 속속 투항하였다. 그 당시의 자위군의 일부는 벌써 반만항일의 구호를 내던지고 일본군고문들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는 반동군대로 되었다. 중국인반일부대가 공산군주력군으로 알려진 우리 부대를 감히 소멸하려고 결심한 것은 그들이 일본군의 지휘를 받는 반동군대로 전락되었기 때문이었다.

국민부의 반공선전에 청맹과니가 되다싶이한 독립군의 잔당은 우리에 대한 진속도 모르면서 반동화된 반일부대를 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나는 심각한 사색을 거듭했다. 상대가 아무리 토비화되고 우경화된 군사집단이라고 하여도 한 피줄을 나눈 동족이고 또 구국투쟁에 몸을 바치고 있던 사람들인 것만큼 우리로서는 군사적 방법에 의한 보복이나 제재를 추구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하나 그들을 정치적 방법으로 설복하여야 하였다. 우리는 이토록 반일통일전선을 절대화하였다.

이렇게 되어 박훈을 책임자로 하는 몇 동무가 독립군이 머물고 있은 이도백하로 떠나갔다.

≪박훈동무, 오늘은 총대신 입이 동무의 무기요, 총은 한방도 쏘지 말고 입으로써 독립군들을 설복해야 하오. 동무는 말주변도 좋고 인상도 씨원씨원한 사람이니 능히 그들을 감화시켜 미연에 족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요. 그 어떤 경우에도 무력행사는 절대금물임을 꼭 명심해야 하오. 우리가 여기서 총성을 한방만 울리면 민

족주의자들과의 통일전선을 끝장이 날수 있소. 어떻소? 동무의 성미에 맞지 않는 과업인데 꽤 해낼 수 있겠소?≫내가 이렇게 묻자 박훈은 웃으면서 머리를 긁적거리었다.

≪까다로운 과업이긴 하지만 해보겠소.≫

나는 박훈을 떠나보낸 다음에도 송화강반을 오래도록 거닐었다. 오늘밤만을 제발 총성이 울리지 말았으면 하고 우려와 걱정도 없지 않았다.

물론 그는 능력있는 선동가였고 수완가였다. 그러나 일단 성만 나면 앞뒤를 가리지 않는 그의 곰같은 성미가 나로 하여금 좀처럼 마음을 놓지 못하게 하였다.



독립군과 그 무기

내가 박훈의 그런 약점을 알면서도 그를 독립군의 진영으로 서슴없이 들여보낸 것은 우리 부대에 그를 능가할만한 활동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이 분야에서 박훈과 견줄 수 있는 인물은 차광수였다. 정황을 보면 마땅히 그가 한 몫 할 때였다. 그러나 차광수는 최창걸의 희생에 대한 소식을 접한 때부터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자기를 다잡지 못하고 있었다.

(박훈이, 부디 성공하고 돌아오오!)

나는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거듭 뇌이면서 이도백하쪽에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다행히도 내가 우려하던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독립군은 애국역량의 단합을 절절히 호소하는 우리 동무들의 해설에 감화되었다. 그들은 저들 상층부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있으면서도 행동에는 옮기지 못하던 우유부단한 태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무장을 바치고 우리 반일인민유격대오에서 같이 싸울 것을 흔연히 결의해 나섰다.

독립군의 상층은 아직 우리와의 통합을 달가와 하지 않았지만 하층병사들은 대결이 아니라 합작을 하고 힘을 합쳐 같이 싸워야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기꺼이 우리와 손을 잡게 되었다. 이것은 독립군과의 통합의 첫 시작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또 하나의 어려운 고비를 무난하게 넘기였다. 양세봉과의 결렬에다가 최창걸의 희생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덧붙여져 국민부에 대한 증오와 원한이 참을 수 없게 되살아오르던 그때 우리가 민족대단합의 경륜을 위해 20대의 젊은 이들로서는 쉽지 않은 도량과 인내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만일 그때 우리가 이성을 잃고 복수감에 사로잡혀 국민부를 타도하였거나 독립군대원들과 무장대결을 하였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떳떳한 마음으로 후대들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할 것이다. 300여명에 달하는 양사령의 부하들이 엄동설한에 합작의 기발을 들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찾아오는 역사적 화폭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세상에 애국애족처럼 위대하고 순결하고 신성한 감정은 없다.

민족단합정신은 애국애족의 감정가운데서도 그 정수를 이루는 최고의 넋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민족해방을 위해 출범한 그 첫기슭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제 어디서나 민족단합의 이념을 변함없이 소중하게 간직해오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6. 구국군과 함께


이홍광

나는 유하에 머무를 때 이홍광, 이동광의 연계를 위하여 반석지방에 연락원을 파견하였다. 우리가 남만원정을 마치고 귀로에 오르던 그때 그 두 사람도 유격활동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들이 9.18사변 후 보민회를 비롯한 친일단체의 주구배들과 싸우기 위해 조직했던 무장적위대(일명 타구대, 개잡이대라는 뜻)는 1932년9월에 이르러 반석노농의용군으로 성립되었다. 이 의용군은 모두 탈량투쟁과 주구숙청, 무기탈취, 반일봉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대중투쟁을 통하여 단련되고 검열된 조선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1932년 여름부터 이홍광, 이동광은 항일유격구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었다.

그들은 주구숙청투쟁에서 특출한 수완을 발휘하여 많은 화제거리를 남기고 있었다.

내가 그들을 만나려고 한 것은 남만지방의 주인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의례방문이나 하고 인사나 나누자는 것은 아니었다. 중요한 목적은 의사소통을 하자는데 있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그들과 투쟁경험을 나누고 싶었다.

다음으로 내가 관심을 둔 것은 그들이 조선혁명의 전도를 두고 어떤 견해와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였다. 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부과된 당면과업에 대한 나의 견해와 입장도 발표하고 그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만주각지에서 분산적으로 무장투쟁을 개시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지역상호간의 연계는 어떻게 보장하고 인접과의 보조는 어떻게 맞추며 활동에서의 협조, 협력, 협동은 어떤 방법으로 실현하겠는가 하는 실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었다. 나는 북만의 김책, 최용건, 이학만, 이기동, 허형식과도 그런 의견을 나누고 싶었다. 남만과 북만은 우리의 인접이자 인측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인접과의 협동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것은 무장투쟁의 전반적 발전에 심대한 작용을 하는 중요한 고리이고 공간이다.


이동광

반석에 갔던 연락원은 우리가 해룡을 떠나 몽강에 자리를 잡았을 때에야 부대로 돌아와 리홍광과 이동광이 지방공작을 나가고 없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그곳 지하조직에 나의 편지만 남기였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나는 이홍광, 이동광과의 상봉을 뒤로 미루고 몽강에서 본격적인 군사활동을 벌이었다. 몽강에서 우리가 세운 활동의 총적 목표는 무장을 해결하는 것과 대열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정치공작과 함께 군사외교활동이 필요하였다.

몽강은 우리가 이런 목적을 이루는데서 몇 가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 몽강의 관리들가운데는 길림육문중학교시절의 나의 동창생들이 많았다. 계열을 따지면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고 어떤 정치운동에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머리를 싸매고 고분고분 공부만 해오던 샌님같은 사람들이였는데 그들이 몽강의 실권을 쥐고 있었다. 그들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국민당현공서에서 일하고 있다가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자 자위군이라는데 들어가서 큼직한 벼슬자리를 하나씩 차지하고 있었다.

몽강에는 통화지방에 본부를 두고 있은 당취오자위군 총사령부의 대표도 와있었다. 동창생들을 내세워 그 대표와 교섭을 잘하면 무장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 이런 실태를 파악한 우리는 몽강에 눌러앉아 자위군과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려고 결심하였다.

그때 부대의 지휘관들은 자위군과의 사업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 자위군과 접촉하는 것을 모험이라고 생각하는 지휘관들이 태반이였다. 같은 조선사람인 양세봉과도 뜻이 맞지않아 담판이 결렬되었는데 자위군과 사업하여 무기를 얻어낸다는 것은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일이다. 항차 자위군은 지금 와해상태에 있지 않은가, 어떤 부대에는 일본지도관이 틀고앉아 공산주의자들을 소탕할 모의를 한다는데 그런 함정에 대장자신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로서는 찬성할 수 없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나는 자위군내부에 일본지도관이 틀고앉아있는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놈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을 판별하는 촉수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들의 눈을 속이고 자위군지휘부에 뚫고들어가 그 상층을 설복할 수 있는 담력이 있다. 자위군이 와해상태에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공작목적을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될 수 있다. 그들은 왜놈들이나 토비들에게 총을 넘겨주거나 내버리는 것보다 항일을 하는 우리에게 양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처럼 완고한 우사령과도 뜻이 통하여 합작을 성사시켰는데 자위군이라고 해서 왜 굽혀내지 못하겠는가고 하였다.

그러자 지휘관들은 대장동무가 우사령과의 담판에 성공한 것은 천 번 중 한 번이나 있을가 말가 한 우연이다. 만일 그 부대에 유본초선생이 없었더라면 담판을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위군부대에 찾아가는 것은 좀더 심사숙고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나는 지휘관들에게 해보지도 않고 골방에 들어앉아서 콩이야 팥이야 하며 시야비야 하는 것은 공산주의자의 기질이 아니다. 유격대를 합법화하는데서 우리가 유본초선생의 덕을 크게 본 것은 물론 사실이다. 그러나 그 당시의 성공을 순전한 우연으로만 보는 것은 비과학적인 해석이다. 우리가 구국군과의 관계를 풀려고 주동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더라면 유본초선생도 우리를 도와나서지 못했을 것이다. 문제는 배심을 가지고 어떻게 주동적으로 활동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누누이 지휘관들을 설복하였다. 그런 다음 연락병을 한 명 데리고 자위군의 지휘부로 찾아갔다.

자위군의 병영에는 사병들이 꽉 차 있었고 정문으로는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는 우마가 그칠 새 없이 드나들었다.

정문에서 보초병이 우리를 멈춰 세우고 산동지방말씨로 ≪무슨 사람들인가?≫ 하고 물었다. 보초의 검실검실한 눈이 우리의 얼굴이 아니라 자위군과는 판판 다른 우리의 유격대복장과 모자의 오각별을 유심히 더듬고 있었다.

나는 그 산동사람의 말씨를 약간 본따서 중국말로 대답했다.

≪우리는 안도에서 온 구국군별동대요. 나는 별동대 대장 **김일성**이요. 당신네 사령을 만나러 왔으니 안내해주오.≫

≪**김일성**? **김일성**별동대면 공산당이 아닌가?≫

얼굴에 마마자국이 뚜렷한 두 번째 보초가 입속으로 내 이름을 중얼중얼 외우며 미심쩍은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마 **김일성**부대가 공산당부대라는 말을 어디서 얻어듣고 기억에 새겨두었던 모양이었다.

≪우리는 우사령의 별동대다. 당신 우사령도 모르는가?≫

내가 위엄을 풍기며 이렇게 따지자 마마자욱이 있는 보초는 ≪아, 우사령! 그 사람 알고 있소, 그 사람부대 남호두에서 왜놈의 기관총 노획했소, 우사령 대단한 사람이지.≫하면서 엄지손가락을 흔들어보였다.

결국은 우사령별동대라는 명함장이 은을 낸 셈이었다. 중국인반일부대들이 있는 데서는 이 명함장이 맥을 추었다. 그래서 우리는 행군을 할 때에도 반일부대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늘 구국군 조선인별동대라는 간판을 들고 다니었다.

잠시후 산동말을 하던 첫 번째 보초가 병영에 들어가서 풍채좋은 사나이를 데라고 나왔다. 그때 당시의 구국군들이란 대체로 옛 장학량군시절의 군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그런데 방금 보초를 따라 정문에 나타난 장교는 이상하게도 반소매에 가랭이가 무릎에도 채 닿지 않는 짧은 바지를 입고 발에는 포화를 신었다. 머리카락도 기름을 발라 윤기가 나고 있었다.

≪아, 이거 김성주주임이 아닌가?≫

그것은 이름대신 ≪장꺽다리≫라는 별명으로 불리우던 육문중학교시절의 동창생 장가였다. 그가 나를 주임이라고 한 것은 내가 육문중학교에서 공부할 때 맡아보았던 도서주임직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장가는 학생시절에도 나를 늘 ≪김주임≫이나 ≪성주주임≫이라고 불러주며 호의적으로 대해왔었다.

우리는 반갑게 손을 마주잡고 한참동안 학창시절의 회포를 나누었다. 해수로 계산하면 그와의 상봉은 3년만에 이루어진 셈이었다. 나는 감옥을 나온 다음 학우들에게 작별인사도 남기지 못하고 총총히 길림을 떠난 것을 후회하였다. 혁명을 위해 사사로운 모든 것을 다 희생시킨다는 정신을 가지고 동분서주하던 때여서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 같기도 하였지만 스승들과 학우들에게 인사를 남기지 못하고 떠났다는 그 도덕적인 빚이 마음속에 연덩어리처럼 무겁게 매달려 나를 괴롭힐 때도 없지 않았다.

장가를 만나고보니 이미 지평선너머로 사라져버린듯한 육문중학교시절의 가지가지 정경들과 그 시절에 맛보던 낭만적인 학생기분이 되살아올랐다. 나는 군화소리가 어지럽게 들리는 병영마당이 아니라 정향꽃향기가 진동하는 육문중학교 정원에 서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장가의 손을 잡고 그대로 병영문을 나서면 북산에도 가닿고 송화강바람도 쏘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가슴을 짜릿하게 하는 이상야릇한 향수였다.

장가는 학창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내 팔을 허물없이 잡아끼고 이따금씩 큰소리로 웃어대면서 나를 자기 방으로 안내하였다.

≪우리 학교 졸업사진에 김주임의 얼굴이 없는건 정말 유감이야.≫

그는 나에게 의자를 권하면서 이런 말부터 꺼냈다.

≪우린 졸업사진을 찍으면서도 그냥 김주임의 이름을 외웠댔어, 김주임이 학교를 중도반단하지 않았더라면 1등생이 되어 상을 탔을거라구. 혁명이라는게 중학공부를 단념할 정도로 그렇게도 성주를 유혹하던가?≫

나는 웃으면서 유쾌한 농질로 그 말을 받아넘기었다.

≪암, 물론이지. 너두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이렇게 싸창을 차구 자위군의 장교가 된게 아니겠어.≫

장가는 그 말을 듣자 눈을 슴뻑거리며 내 손등을 툭툭 두드렸다.

≪그건 그래, 9.18전만 해두 우린 세상물정을 모르고 살아온 속물들이였지. 그런데 일본이 만주로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서야 잠에서 깨여났거든.≫

≪그것보라구. 그러게 내가 뭐랬나. 사람은 정치밖에서 살 수 없다구 하지 않던가.≫

≪그땐 그 말을 귀등으로만 들었댔단말이야. 아, 시국이 왜 이리도 급전직하로 변해가는지 모르겠다. 이 만주땅이란 미친 바람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처럼 살풍경이란 말이야.≫

나는 장가가 시국을 옳게 평가하였다고 생각하였다.

만주를 무대로 하여 펼쳐지고 있는 역사의 흐름은 실로 세상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놀라운 변화들로 가득차있었다. 그 변화는 사람들의 운명에도 무자비한 곡절을 집어놓았다. 장가자신도 며칠전까지는 베이징대학에 가서 역사학공부를 해볼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였다. 일본군이 만주를 집어삼키는 것을 보자 그는 역사학을 전공하려던 학창시절의 꿈을 버리고 분연히 자위군에 입대하였다.

선비중에 선비라는 평판을 들으며 두보의 시행들에 흐르고 있는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정서를 친절하게 풀이해주던 유본초선생이 구국군의 참모장이 도여 초연속을 헤치게 되리라고야 누가 상상인들 했겠는가.

≪이것보라구 김주임, 9.18덕분에 나도 군복을 입은 호걸남아가 되었어.≫

장가는 이런 말을 하고나서 서글픈 웃음을 지었다.

≪군복을 입은 거야 너뿐인가. 나도 군인이 되어 몽강에까지 흘러오지 않았나. 동창 대 동창으로 뿐 아니라 군인 대 군인의 자격으로 이렇게 마주앉아 대세까지 논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얼마나 멋들어진 연분인가.≫

그는 이게 다 일본놈들의 ≪덕≫이라고 하면서 그놈들의 ≪덕≫에 사람들이 좀 총명해진 것 같다고 말하였다.

알고보니 몽강의 자위군부대에는 장가외에도 육문중학교시절의 동창생이 여러명 있었다. 나는 그날 저녁 그들과 함께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치와는 담을 쌓고 립신양명의 길만을 꿈꾸어오던 그들이 목에 피대를 세워가지고 일본을 규탄하고 장개석을 중화민족이 낳은 최대의 기형아라고 조소하는 것을 볼 때 만족감을 금할 수 없었다.

우리는 밤늦도록 반일인민유격대와 자위군사이의 공동행동문제도 협의하였다. 자위군의 지도부에 있는 동창생들은 우리 부대와의 합작을 환영하였다.

이렇게 되어 나는 어렵지 않게 자위군부대내부에 침투할 수 있었으며 몽강에 와있는 자위군총사령부의 대표와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나는 장가의 요청을 받고 자위군지휘성원들앞에서 연설을 하였다. 그 장소에는 총사령부의 대표도 와있었다.

나는 ≪여러 분, 우리와 함께 갑시다!≫하는 힘찬 호소로 연설의 첫마디로 떼였다.

≪자위군과 반일인민유격대는 공동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반일인민유격대에 공산군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적대시하는 것은 항일을 반대하는 일본을 돕는 길이다. 반일인민유격대와 자위군은 조선인독립군부대를 도와주고 연합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조중인민을 이간시키고 그 갈등을 이용하여 양쪽을 다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통치하려는 일제의 교활무쌍한 책동에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자위군은 대도회, 홍창회를 비롯한 민간무장력과 토비들을 설복하여 그들이 무고한 조중인민들을 살해하고 약탈하지 못하게 하며 그들을 반일투쟁에 적극 인입하여야 한다 대소민간무장대들은 모두 항일구국역량으로 단합되어야 한다.

일부 반일부대들 중에는 일본군의 위세에 겁을 먹고 중국관내로 들어가거나 투항하는 폐단들이 있다. 투항과 중도반단은 자멸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그때의 연설내용을 요약하면 대체로 이상과 같은 것이였다.

자위군지휘관들은 그 연설에 열광적으로 호응하였다.

이런 연설이 있은 후 총사령부대표는 우리에게 수십 자루의 무기를 넘겨주었다.


안도

우리는 몽강에서 한 뒤 달동안 자위군의 보호를 받으며 군중들속에 들어가 선전사업도 하고 훈련도 하였으며 끌끌한 청년들을 선발하여 선전사업도 확대하는 사업도 하였다. 안도를 떠날 때 40명에 지나지 않았던 대오가 몽강에 와서는 150명 정도로 불어났다. 김성주가 큰 부대를 무어가지고 진출한다는 소문을 듣고 몽강과 그 주변의 청년들이 연방 우리를 찾아와 입대를 청원하였다. 우리는 몽강에서 마치 주권을 잡은 것처럼 자유롭게 활약하였다.

안도에 연락원을 보내여 알아본데 의하면 동만의 형편도 대단히 좋았다. 우리는 그 연락원이 가져온 그 동안 많이 불어났다는 것과 왕청, 연길, 훈춘에서도 각각 100명 이상 규모의 유격대들이 꾸려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유격투쟁이 맹아적인 단계에서 본격적인 단계에로 이행하기 시작한 동만의 한복판(왕청)으로 우리의 활동무대로 옮기고 거기서 다른 현의 부대들과 힘을 합쳐 얻은 무장투쟁을 좀더 통이 크게 벌이려고 결심하였다. 남만원정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중요한 교훈의 하나는 바로 유격대의 역량이 미약한 현단계에서는 일정한 활동거점을 차지하고 투쟁하는 것이 유리하고 능률적이라는 것이였다.

우리는 몽강에서 무송을 거치지 않고 직발 안도로 갈 수 있도록 행군노정을 잡았다. 부대는 노상에서 비적들과 반일부대패잔병을 여러 번 만났다. 그들은 우리의 신식총이 탐나서 완력으로 그것을 탈취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위험한 고비를 여러 번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진한장

이런 때에 참의부계통의 좋은 노인이 옛말에 나오는 무슨 도사처럼 우리앞에 불쑥 나타나 산을 꿰지르면서 부대를 양강구까지 무사히 안내해주었다. 그때 산을 타본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단련이 되였고 앞으로 유격투쟁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로도 되었다.

우리가 양강구를 떠나려고 할 때 우사령의 휘하에 있는 한 개 연대의 주력이 양강구에 왔다. 그 연대를 맹탄장부대라고 불렀다. 맹탄장의 비서로 있던 진한장도 부대와 함께 양강구로 따라왔다.

진한장은 나를 보자 멀리서부터 두팔을 벌이고 환성을 지르며 껑충껑충 뛰어왔다.

≪성주, 이게 얼마만인가!≫

그는 마치 몇 십년동안 헤어졌다 다시 만난듯이 나를 얼싸안고 빙글빙글 돌아갔다.

안도에서 우사령과 담판한 후 헤어지고는 한번도 상종하지 못했던 진한장이었다. 시간으로 따지면 불과 석 달만에 이루어지는 상봉이었다. 그런데 진한장은 그

석 달을 삼 년이나 삼십 년으로 착각한 사람처럼 우정에 끓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역시 오랜 이별끝에 기적적으로 맞보는 상봉과 같이 느껴져 반가움을 참을 길이 없었다. 사람의 생애에서 석 달이란 하나의 작은 토막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석 달사이에 퍼그나 긴 인생이 흘러가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생활에 곡절이 많고 체험이 많으면 세월도 길어보인다고 하는데 그것은 옳은 이치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성주네 부대가 어데 있는지 몰라서 여러 곳에 수소문했더랬소. 남만에 갔다가 돌아왔다고는 하는데 행방을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양강구에서 조선공산군이 독립군과 통합을 시작했다는 소문을 우리 부대에까지 날아오지 않았겠소.≫


양강구

진한장은 맹탄장에게 나를 소개하고나서 이런 말을 꺼냈다.

≪고맙소. 진동무. 나도 진동무가 보고싶었소. 그런데 양강구에는 어떻게 오게 되었소?≫

≪내년봄까지 이 지방에서 활동하라는 왕덕림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어떻소? 양강구에서 얼마동안 우리와 함께 활동하지 않겠소?≫

곁에서 진한장의 말을 듣고 있던 맹탄장도 같은 제의를 하였다.

나는 맹탄장부대와 함께 있으면 모처럼 성사된 구국군과의 공동전선을 더 공고화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두 사람의 제의를 흔연히 받아들였다.

맹탄장부대는 장학량의 정규군으로 있다가 반변해서 나온 부대이므로 무기와 장비가 현대적이였다. 그 부대에는 포도 있고 기관총도 있었다. 총 몇 자루에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다를 구국군에 비길 수 없을 정도로 이 부대는 전투력이 아주 강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가 양강구에 머무르는 동안 맹탄장부대는 우리를 잘 호위해주었다.

그 당시 만주지방에 조직되었던 대부분의 반일부대들은 일본군의 강력한 공세앞에서 와해되거나 투항하여 그들의 지휘하에 움직이고 있었다. 구국군가운데서 그래도 투항하지 않고 큰 세력으로 남아있는 것은 왕덕림부대였다. 그러나 그 부대마저 일본군의 포화가 미치지 않는 만주의 동쪽변두리 동녕과 쏘련경내로 퇴각하고 있었다. 반일부대들의 무력한 붕괴과정은 우리의 군사정치간부들속에서 그들에 대한 불신임을 낳게 하였다. 어떤 사람은 중국인반일부대의 동요와 혼란을 막을 길이 없다고 하면서 그들과의 연합전선을 실현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고 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승산이 보이지 않는 반일부대와의 유대를 끊어버리고 반일인민유격대가 단독으로 싸워나가자고 하였다, 어느것이나 다 허용해서는 안될 위험한 사고방식이었다.


이광

반일연합전선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수만 명에 달하는 막대한 무장력을 적들의 편에 밀어던지는 것으로 되며 반일부대들을 각개격파하려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전술적 의도에 발맞추는 것으로 될 수 있었다.

반일부대들의 동요성과 불철저성은 그들을 지도하는 상층의 계급적 제한성에 근원이 있었지만 주로는 적들에 대한 공포에서부터 오는 것이었다. 반일부대의 동요

와 괴멸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동시에 전투를 통하여 그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줄 필요가 있었다.

이런 현실적 절박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양강구에서 진한장, 이광, 호진민 등 구국군부대들이 참가하는 반일병사위원회를 두 차례에 걸쳐 열고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에서 나서는 반일부대들의 동향이 분석총화되었다.

회의참가자들은 절대다수의 반일부대들이 항전을 포기하고 안전지대로 철수해가거나 적들에게 투항하여 반동군대로 변질된 조건하에서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점령지대를 확대해가고 있는 일본군에 타격을 주고 애국적 군민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우리 부대와 오의성부대, 맹탄장부대와의 연합으로 돈화현성과 액목현성을 습격하는 전투를 벌일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맹탄장도 우리의 전투계획을 환영하였다.

2000여명에 달하는 구국군부대는 세 개조로 나뉘여 길돈선방향과 연길방향, 돈화방향으로 각각 진출하였으며 우리부대는 맹탄장의 부대와 함께 푸르허 동쪽과 대포시하 동쪽 산길을 따라 돈화남방 대황구부근 수림속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돈화현성에 정찰조를 파견하여 고재림이 보내온 적정자료를 다시 확인하였다.

그 당시 돈화현성에는 일본군부대가 주둔해있었고 위만군길림경비 제3여단본부와 4연대, 9연대 비행장경비대와 일본영사관 경찰과 위만경찰을 비롯한 막대한 무



통북항일연군

력이 주둔하고 있었다. 적들은 매 성문포대와 영사관 분관정문에 물샐틈없는 경비진을 치고 있었다.

9월 2일 새벽3시 아군부대들은 일제히 돈화현성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우리 부대의 공격방향은 남문이었고 호진민이 인솔하는 구국군부대는 서문과 북문을 거쳐 현성으로 돌입하였다.

성안에 재빨리 돌입한 아군은 적들의 지휘처를 습격한 다음 적여단지휘부와 영사관분관, 경찰분서를 일거에 소탕하고 적여단구분대병력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였다. 전투의 주도권은 아군의 손에 튼튼히 쥐여져있었다.

혼란에 빠진 적들은 2대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아군에게 기총소사와 폭탄을 마구 퍼부었다.

구국군대원들속에서는 혼란이 일어났다. 이런 상태로 날이 밝는다면 전투상황이 역전되고 아군은 심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었다. 나는 진한장과 호진민에게 급전된 전투상황을 설명해준 다음 이미 차지하고 있는 계선에서 철수하여 유인전으로 적들을 소멸할 새로운 전술적방안을 제기하였다.

이 방안에 따라 우리 부대는 현성 서남쪽고지를, 구국군부대들은 관둔자 남쪽 무명고지를 차지하고 추격해오는 적들을 매복전으로 섬멸하였다. 불리하다고 보았던 사태가 순간에 뒤집히는 것을 보게 된 구국군부대 병사들은 사기충천하여 도망치는 적들을 추격하였다.

일본당국의 보도관계가 심한 때여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당시의 출판물들은 이 전투에 대해서 별로 소개하지 않았다. 세상사람들은 망국 스물두돐이 되던 그 해 초가을에 돈화에서 그런 전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돈화현성전투는 1933년 9월에 있은 동녕현전투와 성격상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돈화현성전투가 구국군과의 연합으로 진행된 것처럼 동녕현성전투도 구국군주력과의 합작으로 설계되고 성사된 전투였다. 규모로 보아도 돈화현성전투는 동녕현성전투와 어슷비슷하였다. 그러나 돈화현성전투는 조중인민의 공동투쟁역사에서 항일유격대가 중국반일부대와의 협동작전으로 일본군을 타승한 첫 현성전투라는데 의의가 있다.

≪중국사람들은 청, 러 두 대국을 일거에 격파한 일본의 군사적 명성앞에서 너무나도 혹독하게 위축되었더랬소. 그런데 오늘은 그 위축감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소. 영토해방에 앞서 정신해방을 이룩하였단 말이요.≫

진한장은 분명 나를 포옹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나는 지금도 그때 그의 눈에 이슬이 맺혀있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성주, 우리 이 길에서 영영 헤어지지 말자구!≫

그는 내 손을 그러잡고 격정에 넘쳐 말했다. 그가 이 길이라고 한 것은 공동투쟁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진한장은 그 후 전사할 때까지 자기자신이 선창을 뗀 이 서약에 충실하였다.

돈화현성전투가 있은 후 한주일가량 지나서 우리는 구국군과 함께 액목현성을 습격하였다. 아군은 이 전투에서도 역시 승리하였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그 총성이 남긴 여운은 컸다.

7. 소사하의 가을

우리는 양강구에 돌아오자 소사하에서 남만원정에 참가하지 않은 나머지 인원들까지 모두 불러다가 유격대가 창건된 후 반년동안의 사업을 총화하였다. 주되는 내용은 물론 남만원정과 관련된 것이었다. 우리 유격대원들은 우리의 무장대오가 반년사이에 비약적으로 성장발전하였고 그 과정에 유격전으로써도 능히 일제를 탕승할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한결같이 인정하였다.

우리는 그 총화회의에서 유격투쟁을 새로운 단계에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부대앞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업을 제기하였다.

첫째, 반일인민유격대의 근거지를 왕청지구로 옮길 것이다.

둘째, 중국인항일구국군과의 사업을 더욱 심도있게 전개할 것이다.

셋째, 동만일대에서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한 유격투쟁을 옳게 지도하며 혁명근거지창설을 다그치고 그것을 튼튼히 지켜낼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문제가운데서 제일 심각하게 논의된 것은 반일인민유격대의 활동근거지를 왕청으로 옮길 데 대한 문제였다.

이 문제 한 가지를 안도, 연길, 화룡에서 온 군정간부들과 함께 며칠동안 내처 토의를 거듭하였다.

안도의 동무들은 활동거점을 왕청으로 옮기는데 대해서 반대하였다. 안도에서 창건된 유격대가 안도에 있어야지 무엇 때문에 왕청으로 가겠는가, 유격대가 왕청으로 가고나면 안도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고 하면서 난색을 지었다. 편협한 지역감정에서 탈피하지 못한 소박한 고집이었다.

그 대신 연길과 화룡에서 온 동무들은 유격대의 효시이고 원종장인 안도부대가 조선사람들이 집결되어있는 간도한복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전략적 견지에서 보나 지역적 조건으로 보나 응당하고 시기적절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전투력이 제일 강한 안도부대가 왕청에 가게 되면 연길, 훈춘, 화룡을 비롯한 인접현의 유격부대들의 활동에서도 큰 전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왕청이 지역적으로 ≪명당자리≫라는 것은 안도의 동무들도 다 인정하였다. 왕청은 우선 국내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좋았다. 대안의 육읍지구는 ≪길림바람≫이 많이 들어간 고장들이어서 장차 유격투쟁에 인적, 물적 지원을 줄 수 있는 믿음직한 원천지로 될 수 있었다. 우리는 육읍지구를 발판으로 하여 국내혁명을 앙양시킬 수 있었다. 왕청일대의 군중들은 무장투쟁사에서 최고의 봉우리라고 볼 수 있는 청산리전투나 봉오골전투를 지원하는데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왕청은 북로군정서의 활동기지였고 역기에서 활동한 수백 명의 독립군과 무관학교의 학생들은 다 이 지방 사람들이 가꾸어낸 오곡으로 밥을 지어먹었다.

그러나 왕청이 좋은 고장이라고 하여 무턱대고 그리로 옮겨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안도현에 근거지를 잡고 우리자신의 힘으로 유격투쟁을 개척해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구국군과 같이 합법적인 활동을 계속하면서 살금살금 조선 사람부대들을 더 늘여가겠는가 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연일 토의를 심화해나갔다.

나는 구국군과의 공동행동 때문에 우리가 활동에서 좀 구속을 받는 한이 있더라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사업을 보좌하시기 위해 망을 보시는 강반석여사

도 피로써 얻어낸 반일인민유격대의 합법화를 더 공고히 하고 재만조선민족의 일제의 앞잡이도 아니고 척후병도 아니며 그네들이 친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무장부대는 친일이 아니라 반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간주하였다.

우리는 결국 일정한 기간 구국군과 함께 활동하면서 유격대의 합법화를 계속 고수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실지투쟁을 통하여 영향력을 확대하여 무장대오를 늘려가다가 그것이 커진 다음 서로 합류하자는 안을 채택하였다.

이런 안을 확정한 다음에는 동만의 여러 지방들에 사람들을 뽑아보냈다. 연길에도 보내고 화룡에도 훈춘에도 보내고 나자구의 구국군부대들에서도 유능한 공작원들을 여러 명 파견하였다. 왕청에는 별동대를 하나 더 만들어서 들여보냈다. 김일룡은 안도에 떨궈두었다. 백수십 명에 달했던 우리 부대는 또다시 40명 선으로 줄어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부대를 털어서 다른 현들에 사람들을 자주 보내게 되자 동만특위는 간부들도 만족해하였다. 그들은 우리부대가 기본부대이니만치 쫄쫄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다른 지방의 유격부대들을 보강해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다.

우리 부대가 소사하를 떠나 남만원정의 길에 오르던 그때로부터 넉 달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양강구의 강화와 산야에는 하루가 다르고 이틀이 다르게 가을빛이 짙어갔다. 밤을 자고나면 여기저기에 낙엽이 깔리고 그 우에 서리가 내려 미구에 닥쳐올 대륙의 사나운 겨울을 예고해주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차지니 은근히 병상에 계시는 어머니가 걱정되었다. 그러나 생각뿐이었지 소사하에 다녀올 엄두는 내지 못하였다.

나는 토기점골을 다녀오고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으나 어머니와의 상봉을 계속 뒤로 미루었다.

북만으로 출발할 날짜가 박두해오자 차광수는 나에게 어디서 구해들었는지 알 수 없는 첩약꾸레미를 가져다주면서 토기점골에 다녀오라고 권고하였다. 내가 주

저하는 기색을 보이자 그는 김성주답지 않다고 비난하면서 우리 대장이 자기 어머니도 몰라보는 사람이라면 다시는 말도 걸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렇게 되어 나는 소사하로 떠나게 되였다.

첩약을 들고 가면서도 걱정되는 것은 어머니가 이 약을 보시면 또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쓴다고 꾸짖지나 않겠는가 하는 것이였다. 그러나 차광수가 구해보내는 약이라고 하면 어머니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내가 소사하에 있을 때 사가지고 간 좁쌀 한 말은 벌써 거덜이 난지도 오랬을 것이였다. 어머니가 일을 못하시는 형편이니 지금은 무슨 돈으로 어떻게 가계를 유지해가고 있는지. 어머니는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는 법은 없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어머니나 동생들이 없었던 셈치고 집생각을 말라고 오금을 박았지만 사람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나 동생들을 잊고 집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였다.

그리 무겁지도 않은 첩약꾸레미를 들고 덜렁덜렁 집으로 찾아가는 나의 발걸음은 어째서인지 소사하가 가까워지자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이였다.

어머니의 병이 혹시 더 도지지나 않았을가 하는 불안도 불안이지만 제일 께름직한 것은 양사령과의 합작을 완전히 성사시키지 못한 채 남만에서 돌아온 사실이였다. 어머니가 알면 못내 섭섭해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가 중환에 계시면서도 나의 남만행을 그토록 독촉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친구였던 사람과 합작을 하러 간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뻤고 대견해서였을 것이다. 어머니는 젊은 사람들이 주의 만 따지면서 독립운동의 선배들과 등을 돌려대고 지내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병세가 어떤가하는 것이였다.

맹물같은 미음조차 잘 삭이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고 갔으니 그 사이 차도가 없었다면 지금쯤은 중태에 빠져 이전보다 더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계시지나 않겠는지 나로서는 이것도 저것도 쉽게 가늠할 수가 없었다.



신문 ≪새날≫을 배포하시는 강반석 녀사

나는 걸음을 재촉하면서도 가슴을 조이는 불안스러운 생각을 털어버릴 수 없었다.

토기점골의 낯익은 외나무다리를 건느면서도 그런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였다.

내가 그 외나무다리를 건늘 때면 매번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문을 열어젖히군 했었다. 어머니에게는 자식들의 발자국소리를 듣고 그것이 몇 번째 아들인가를 가려내는 특별한 감각이 있었다. 그런데 그날만은 예상외로 열리지 않았고 굴뚝에 저녁밥을 짓는 연기도 오르지 않았으며 땔나무나 구정물버치를 들고 부엌문으로 들락날락하는 동생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심장의 피가 일시에 얼어드는 것 같은 불안과 긴장감을 느끼며 가까스로 문고리를 잡아당기었다. 그리고 문을 열기 바쁘게 토방돌우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하였다. 어머니의 침상이 있던 자리가 텅 비어있었던 것이다. 내가 그만 걸음이 늦었구나 하는 후회가 번개같이 머리를 치는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철주가 소리없이 다가와 내 어깨에 왈칵 매어달리었다.

≪형, 왜 인제야 오우?≫

동생은 몸부림을 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을 나의 가슴에 마구 비비였다. 그리고는 목갈린 소리로 어린애들처럼 엉엉 울었다.

이번에는 영주동생이 돌덩이처럼 난데없이 날아들어 나의 왼쪽옆구리에 매어달리었다.

나는 토방돌우에 첩약꾸레미를 떨어뜨리며 통곡하는 두 동생을 으스러지게 그러안았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모든 것을 죄다 설명해주고 있었으니 어머니의 생사여부에 대해서는 더 물을 필요조차 없었다. 어쩌면 내가 없을 때에 이런 불행이 생길수 있단 말인가. 임종의 마지막순간에 이 애들의 얼굴을 바라본 모성의 마지막 행복마저 우리 어머니에게는 차례질 수 없었던 말인가, 가난속에 태어나 일생을 가난으로 살아오신 어머니! 수난당한 내 나라의 비운을 생각하며 남편이 희생앞에서도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키던 나의 어머니, 자기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의 행복을 위해서 한평생 온 넋과 육신을 깡그리 바치다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이 아들이 사사로운 인정에 빠져서 큰일을 그르칠가봐 늘 염려하시더니 혁명하는 아들에게 짐이 된다고 어머니는 그렇게도 서둘러 눈을 감으신 것이나 아닌가.

나는 이전날 어머니가 나를 마지막으로 훈계하실 때 잡고 계시던 그 문설주를 손으로 쓸어만지며 설사 그때보다 더 엄한 책망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 문앞에서 살아계실 어머니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철주야,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없었니?≫

내가 이렇게 물었을 때 사립문을 열고 뜨락에 들어선 김씨여인이 철주를 대신하여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머니는 나보고 이런 말을 했다우. ≪내가 죽은 후에 우리 아들 성주가 오거든 내가 대하듯 해주세요. 왜놈들이 살아있고 조선을 독립하지 못한 채 오거든 내 무덤을 파가지도 못하게 해야 해요. 아니, 문전에도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지요. 그렇지만 내 자식이라고 자랑은 아니지만 성주는 싸우다가 그저 돌아오지는 않을거예요.≫이런 말을 하시고는 나더러 문을 열어달라 하지 않겠소. 그리고는 저기 외나무다리가 있는 쪽을 바라보더구만.≫

김씨여인의 말은 먼 ≪하늘나라≫에서 울려오는 소리처럼 희미하게 들리었다. 그러나 나는 그 매 말마디가 안고 있은 심오하고도 비통한 뜻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죄다 똑똑히 깨달을 수가 있었다.

나는 두 동생을 부여안은 채 외나무다리쪽을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아들을 그리는 어머니의 심정,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한 채 영면하는 순간의 어머니의 심정을 상상해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상상의 대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오열이 급작스레 폭발하였다.

한창 울다가 고개를 쳐드니 김씨여인이 눈물어린 눈으로 내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얼마나 부드럽고 사려깊었던지 나는 하마터면 어머니의 눈이라고 착각할 뻔하였다.

≪어머니, 그 동안 우리 어머니를 돌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나는 가슴이 찢기는 것 같은 슬픔과 고통속에서도 잠시나마 이성을 되찾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의 길동무가 되어준 김씨여인에게 감사를 드리었다.

그러자 김씨여인은 더 슬프게 흐느껴 울었다.

≪고생은 무슨 고생이겠소. 나는 자주 와보지 못했소. 우리가 잘 돌보지 못하다나니 어머니의 곁에는 머리를 빗어드릴 사람도 없었다우. 아우들도 혁명사업을 하느라고 집에 붙어있지 못했소. 어느 날 어머니는 나보고 사내아이들모양으로 머리를 빡빡 깎아달라구 하지 않겠소. 머리가 가렵다고 하면서 나는 그런 부탁을 받고도 차마 가위질을 할 수가 없었소. 어머니의 머리야 얼마나 소담하고 칠칠했소. 내가 그것만은 못하겠다고 했더니 어머니는 소원대로 해달라고 간청하지 않겠소. 머리만 가렵지 않으면 하늘로 날아갈 것 같다구. 그래서 그 아까운 머리를 .≫

김씨여인은 말을 마치지 못하고 소리를 내여 울었다.

나는 차라리 그 말을 듣지 말았더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 비통한 최후에 대한 이야기는 나의 오장을 갈기갈기 찢어내는 것 같았다. 일생을 바쳐 자식들의 뒤바라지를 해오신 어머니인데 그 품에서 자라난 자식들에게는 임종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곁에서 머리를 빗어드릴 효성마저 없었단 말인가.

나는 전에 무송에서 살 때 내 나이 또래의 소년이 병든 어머니를 업고 남전자에서부터 소남문거리까지 땀을 철철 흘리며 걸어와 의원을 찾느라고 애쓰던 광경을 목격한 일이 있다. 그때 우리는 모두 그 소년을 보면서 효자라고 하였다. 김씨여인의 말을 듣고나서 어쩐지 땀을 철철 흘리던 그 소년이 모습이 불쑥 떠올랐다.

그 아이게 비하면 나는 불효자라고 해도 할 말이 없었다. 내가 도처에 스무 살이 넘을 때까지 어머니를 위해 해드린 것이 무엇인가. 어렸을 적에는 어머니에게 따뜻한 아랫목도 권하고 우물터에서 돌아오는 어머니의 언 손을 입김으로 녹여드리기도 하였다. 아침이면 어머니의 일손을 돕는다고 하면서 닭모이도 주고 조롱으로 물을 퍼다 드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혁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머니를 위해 해드린 것이 별로 없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올리사랑은 없다고 한 옛 사람들의 말은 바로 나를 염두에 두고 지어낸 명제인지도 모르겠다. 올리사랑이 없다고 한 말은 참으로 현명한 말이다. 섬기고 모신 자식들에게 바치는 부모들이 사랑을 능가하는 그런 효성으로 부모들을 섬기고 모신 자식들이 있다는 말을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철주야, 어머니가 너희들에게 남긴 말씀은 없었니?≫

나는 어머니가 이 세상에 남긴 유언중에 어찌 그것뿐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철주에게 또 물었다.

철주는 손등으로 눈두덩을 문지르고 목쉰 소리로 대답했다.

≪형을 잘 도와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형을 잘 도와드리구 형과 같은 혁명가가 되면 지하에 가서도 편히 잠들 수 있다구.≫

그러고보면 어머니의 모든 정신력은 마지막순간에도 오직 혁명 하나만을 위해 소모된 것이었다.

나는 동생들을 데리구 그달음으로 어머니의 묘소에 찾아갔다.

느릅나무고목이 외따로 서있는 언덕받이 한 옆에 수박무늬 모양으로 떼장을 덮은 어머니의 묘가 있었다.

나는 군모를 벗어쥐고 두 동생과 함께 그 묘앞에 절을 드리였다.

(어머니, 성주가 왔습니다. 불효막심한 이 아들을 용서해주십시오. 남만에 갔던 걸음이 늦어져서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내가 땅우에 주저앉아 이런 속대사를 하고 있을 때 철주가 느닷없이 묘우에 엎으려 손으로 떼장을 우벼내였다.

≪뭘 그러고 있느냐?≫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동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철주는 대답대신 눈물을 뚝뚝 떨구며 양강구에서 내가 가지고 온 첩약봉지들을 봉분밑에 무데기로 파묻는 것이였다.

동생의 그 말없는 행동이 그만 내 가슴에 연기처럼 서려있던 비애를 사정없이 건드려놓고야 말았다. 혁명가로부터 하나의 평범한 인간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지상만물이 그 무덤 하나로 응결되고 세상만사가 어머니의 상실이라는 하나의 비극으로 압축된 것 같은 순간이였다. 그러나 머리우에서는 푸르디푸른 가을하늘이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없이 명랑하게 대지를 굽어보고 있었다. 어쩌면 저 하늘이 우리의 슬픔앞에서 저렇게도 태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다. 그것은 망국의 연륜이 스물두 돐기나 감긴 1932년의 음산한 여름에 있었던 비극이다. 나라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는 좀 더 오래 이 세상에 살아있었을 것이다. 어머니의 병은 고생 끝에 생긴 것이었으며 그 고생은 망국의 시운이 빚어낸 것이였다.

자식들을 위해 바친 어머니의 노고는 참으로 헤아릴 수 없었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 기울인 효성이 열이라면 어머니가 나를 위해 부은 사랑은 천이나 만으로도 헤아



릴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지하활동을 하던 시기 4-5명의 공청원들과 함께 무송시가에서 적의 포위에 든 적이 있었다. 포위를 헤치고 싸움을 하면서라도 현성밖으로 나가야겠는데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리허에 있는 우리 동무들한테 가서 무기를 받아올 수 없겠는가고 부탁하였다.

어머니는 내 청을 쾌히 받아들이었다.

≪그까짓것 못하겠니. 내가 가서 가져오마.≫



어머니가 돌아가신 소사하집

말리허에 간 어머니는 우리 동무들한테서 권총 두 자루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그때 말리허의 우리 동무들은 어머니의 요구대로 당기면 나갈 수 있게 권총을 장탄까지 해주었다. 어머니는 그 싸창들을 소고기갈비속에 넣어 이고 성문을 대담하게 통과하였다. 성문앞에서 경찰들이 어머니의 그 소고기 함지를 가리키며 ≪그건 뭐야?≫ 하고 물었으나 어머니는 태연하게 ≪소고기웨다≫라고 대답하였다. 경찰들은 함지우에 씌워놓은 종이장만 들춰보고 어머니를 그대로 통과시켰다.

나는 장탄을 하고 안전장치까지 풀어놓은 권총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 큰일날뻔했구만요. 이 총들에 총알을 왜 재웠습니까?≫

≪내가 너희 동무들을 보고 재워달라고 했다. 놈들이 이 함지를 수색하면 답새기자구 말이다. 기껏해야 두 놈이나 세 놈쯤 달려들겠지. 접어들면 한 놈이라도 쏘고 나도 죽을 생각이었다≫

어머니의 그 말씀속에는 우리의 체험이나 천박한 사고방식으로써는 도저히 가늠하기 어려운 고결한 넋이 깃들어있었다. 자식들이 하는 일에 이해와 열렬한 공감이 없이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용기였고 참사랑이었다.

우리가 구안도에서 마춘옥의 집 곁방살이를 하고 있을 때였다. 하루는 우리 동무들이 권총을 손질하다가 오발해서 어머니의 다리를 다치었다. 치료를 잘하지 않으면 생명을 건들릴수도 있는 위험한 총상이었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바깥출입을 하지 못하였다. 누가 물으면 아침에 물을 던지러 나갔다가 낙상하여 다리가 골절됐다고 하였다. 상처도 보이지 않고 이불을 쓰고 누워있으면서 비밀리에 형권삼촌의 간호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원망하거나 오발을 한 사람에게 언짢은 기색을 지어보이지 안았다.

오발사고를 낸 동무는 너무나 미안하여 죽으려고까지 하였다.

어머니는 그 소문을 듣자 대노하여 ≪그러면 못쓴다.≫고 꾸짖었다.

≪너희들이 총이 서툴러서 그런 것인데 그래도 다행이다. 사내라는 것들이 그만한 일에 자살을 하다니. 그런 생각일랑 말구 비밀들이나 잘 지킬 궁리를 해라. 이 비밀이 새면 너희들도 큰일이 나고 이 집에도 큰일이 난다. 그리구 너희들은 성사를 못한다.≫

어머니는 다리의 총상보다도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는 사실이 경찰서에 알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셨다.

마춘옥이네도 이 오발사고에 대해서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았다.

우리 어머니의 품성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은 나의 동무들을 자기 자식과 같이 사랑하는 점이었다. 어머니는 나의 동무들을 나와 꼭같이 대해주었다. 우리 동무들이 집에 오면 사업비도 어머니가 대주었다. 그 사업비의 원천은 재봉일과 삯빨래질로 벌어들인 돈이었다. 목재소일군과 인삼을 캐러 다니는 계절노동자들이 광목을 끊

어가지고 와서는 우리 어머니에게 옷을 해달라고 자주 주문하였다. 어머니는 그들의 옷을 해주고 하루에 70-80전씩 벌었다. 일이 잘되는 날에는 1원도 벌었다.

비록 생활은 궁색하였지만 어머니는 돈을 쓰는데서 인색하지 않았다. 그저 쌀을 사는데 필요한 돈과 타고장으로 갈 때 쓸 노자와 집세만 계산해 놓고는 번 돈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동무들이 오면 밀국수 몇 근에 돼지고기 몇 근을 사다놓고 교즈나 수제비국을 만들어 먹이거나 사업비로 쓰라고 하면서 저축했던 돈을 다 내놓군 하였다.

우리 동무들이 ≪어머니, 성주네도 생활이 풍족치 못한데 밑천을 다 털어서 우리한테 주면 세간은 어떻게 해가시자구 그럽니까?≫하고 걱정하면 어머니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사는 것이 아니라 명이 모자라서 못산다.≫라고 대답하였다.



소사하 무주툰
토기점골에 있던
어머니의 묘비

어머니는 나의 동무들이 몇 달씩 집에 와있어도 절대로 언짢아하지 않고 시종일관 친자식처럼 변함없이 대해주었다. 그러기에 만주에서 청년운동을 한 사람들가운데서 우리 집에 며칠씩 와있다가 간 동무들은 나의 어머니를 ≪성주 어머니≫라 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라고 불렀다.

어머니는 일평생 혁명가들의 밥을 해주다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도 애국자들의 시중으로 나들이조차 다니지 못하고 바쁘게 지내던 어머니였다. 임강에서 살 때에는 매일밤 밥을 하였다. 우리가 밤에 이불을 쓰고 잠을 청할 때면 아버지의 친구들이 어느 때라고 편안히 잠을 자는가고 농을 하며 집으로 쓸어들어와 웃방에서 자군 하였다. 그러면 어머니는 또 일어나서 밥을 짓군 하였다.

어머니는 혁명가들의 시중을 들면서 자신도 혁명을 하였다. 어머니가 혁명활동을 시작한 것은 무송에서 살 때부터였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남만여자교육연합회 백산지구회에 들어가서 여성들과 아동들에 대한 계몽사업을 하였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는 부녀회사업도 하였다.

어머니가 혁명의 방조자로부터 직접적인 담당자로 성장하기까지에는 아버지나 우리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이관린의 영향 또한 대단히 컸다고 말할 수 있다. 그가 우리 집에 와있을 때 어머니를 남만여자교육연합회사업에 인입하였다.

어머니가 순수한 모성애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는 이처럼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어머니를 회고하지 못할 것이다. 어머니가 나에게 기울인 사랑은 단순한 모성애가 아니였다. 그것은 자식을 자기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라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기 전에 나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준 진실하고 혁명적인 사랑이였다. 어머니의 온 생애는 그대로 나의 가슴에 참된 인생관, 혁명관을 심어준 하나의 교과서와도 같은 인생이였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대를 이어가며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광복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심어준 스승이라면 어머니는 일단 혁명을 시작한 사람은 인정에 끌리거나 곁눈을 팔지 말고 끝장을 볼 때까지 오로지 목적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만 노력해야 한다는 이치를 깨우쳐준 고마운 선생이였다.

부모자식들사이에 흐르는 사랑도 맹목적인 것이면 그것은 공고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랑을 관통하는 정신이 참답고 고결해야 그 사랑은 영원하고 성스러운 것으로 될 수 있다. 망국의 그 시대에 나와 어머니사이를 오르내린 사랑과 효성을 줄기차게 관통한 넋은 애국이였다. 바로 그 애국을 위해 어머니는 모성으로서 자식들에게 효도를 요구할 수 있는 육친적 권리마저 희생시켰다.

나는 어머니의 무덤에 묘비도 세우지 못한 채 토기점골을 떠났다. 그 묘소에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가 세워진 것은 해방 후였다. 안도현인민들이 어머니를 잊지 못해 비석을 세우고 거기에 우리 삼형제의 이름까지 새겨넣었다.

유언대로 어머니의 묘는 아버지의 묘와 함께 조국이 해방된 후에야 만경대에 이장되었다.

나는 조국에 개선한 다음에도 한동안 이국땅에 묻혀있는 부모들의 묘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못하였다. 시국이 복잡다단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청춘시절을 고스란히 보낸 만주의 산야에는 나의 부모들 뿐 아니라 나와 함께 혁명의 불바다속을 헤치다가 희생된 전우들의 유해를 찾아오고 그들이 부탁하고 간 자식들을 해방된 내 나라 강산으로 데려오기 전에는 부모들의 분묘를 옮겨올 수 없다는 것이 나의 결심이었다.

그런 때에 장철호가 찾아와서 부모들의 분묘를 고향에 옮겨와야 한다고 나를 설복하였다.

천묘는 자기가 책임지고 할 테니 장군은 만경대에 나가서 좋은 땅을 골라 미리 묘소나 잡아두라는 것이었다. 만주시절의 연고자들가운데 우리 부모들의 묘를 아는 사람은 장철호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가 그 묘들을 옮겨오느라고 말없는 수고를 많이 하였다.

내가 무장투쟁을 할 때 적들은 우리 부모들의 묘소를 파헤치려고 무던히도 모질기게 돌아쳤다. 그러나 무송과 안도의 인민들은 해방되는 날까지 적들의 눈을 속여가면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묘를 성실하게 지키고 관리하였다. 화성의숙 시절의 나의 스승인 강제하선생은 1년에 두 번씩 한식과 추석명절이 올 때마다 제밥을 차려가지고 처자들과 함께 양지촌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 제도 지내고 벌초도 하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때로부터 나는 두 동생의 보호자가 되고 가장이 되었다.

그러나 혁명은 나로 하여금 가장의 구실도 보호자의 역할도 할 수 없게 하였다.

갈대가 처량하게 설렁거리는 소사하골짜기에 설움에 우는 어린 동생들을 두고 거치른 북만땅을 향해 기약도 없이 떠나가는 내 마음은 가볍지 못했다.



강반석여사께서 쓰시던 베틀



강반석여사의 일가분들이 사용하시던 생활도구들



조선공산주의여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녀사의 동상

8. 나자구 등판에서

일본군대의 도입성은 시간문제로 되고 있었다. 친일적인 지주들은 일본인들을 맞기 위하여 벌써 기발까지 준비하였다. 구국군은 양강구에 더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맹탄장부대에는 산을 끼고 초원이 있는 나자구, 왕청 방향으로 퇴각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우리도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여 구국군과 함께 안도를 떠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을 채택한 것이 바로 양강구에서 열린 병사공작위원회 회의였다. 총적인 지향은 왕청으로 활동거점을 옮기는 것이지만 당분간은 퇴각하는 구국군부대들과의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우사령부대도 안도에서 나자구로 철수하였다.

우리가 북만으로 갈 준비를 한창 다그치고 있을 때 철주동생이 나를 만나려고 양강구에 찾아왔다.

≪형, 나두 형님네 부대를 따라가구 싶어. 형님 없이는 토기점골에서 더 못살겠어요.≫

동생은 내가 묻기도 전에 찾아온 용건을 스스로 고백하였다. 동생이 우리 부대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심정은 나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소사하골짜기에서 남의 눈칫밥을 얻어먹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감수성이 예민한 그 나이의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로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너마저 토기점골을 떠나면 영주는 어떻게 하니? 그 애가 고독해서 견디지 못할텐데.≫

≪둘이나 남의 집 밥을 먹으니 미안해서 못견디겠어요. 막내 혼자만 있으면 덜 미안할 것 같애.≫

나는 철주의 말이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동생의 나이가 열여섯 살이니 총을 메워주면 부대를 따라다니며 군인생활을 할 수도 있었다. 철주는 나이에 비해 몸집도 크고 체격도 좋았다. 하지만 아직 뼈가 채 여물지 않아서 유격대의 짐이 될 수 있었다. 더구나 철주는 안도지구에서 공청사업을 추켜세워야 할 무거운 책임을 걸머지고 있었다.

≪네가 이년이나 삼 년 후에 그런 청을 한다면 형은 너의 청을 선뜻 받아들일게다. 그런데 지금은 그 청을 들어줄 수가 없구나. 좀 고생스럽고 고독스럽더라도 몇해만 참아다구.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도 하고 계절노동 같은 것도 하면서 공청사업을 좀 본때있게 내밀어보아라. 지하활동도 무장투쟁 못지 않게 중대한 사업인데 그걸 무시하면 안되지. 공청사업을 하다가 때가 되면 혁명군에 오너라.≫

나는 철주가 떼를 쓰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구슬려보았다. 그러다가 그를 데리고 못가에 있는 객주집에 갔다. 문풍지소리가 궁상스럽게 붕붕거리는 썰렁한 방안이었다.

나는 술과 안주를 청하였다. 싸늘하게 식은 언두부접시 두 개, 그사이에 놓은 술병 하나.

그것을 보더니 철주는 눈물이 글썽해지는 것이었다. 동생은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잔의 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벌써 짐작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청년들을 유격대에 입대시키는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철주동지

≪철주야, 너의 청을 들어주지 못하는 이 형을 용서해다구, 낸들 왜 너를 데리고 다니구싶은 마음이 없겠니, 너를 떼두고 가자니 내 가슴도 아파서 찢어질 것만 같구나. 그렇지만 철주야, 섭섭한데로 우리는 여기서 또 헤어져야겠다.≫

나는 술기운의 덕으로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서는 입에 쉽사리 옮길 수 없는 말을 단숨에 해버리였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고여오르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내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밖에 나오자 철주도 마시던 술잔을 내버린 채 나를 따라 일어섰다.

≪알겠어요. 형!≫

이 한마디와 함께 철주는 뒤로 다가와 내 손을 소리없이 잡았다놓는 것이였다.

이렇게 되어 나는 동생과 헤어졌다. 그리고는 다시는 만나지 못하였다.

그 음산하고 처량한 못가의 가을을 회상할 때마다 그날 내 손을 살그머니 잡았다 놓고 가던 동생의 손을 더 오래 그리고 더 뜨겁게 잡아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군 하였다. 지금 생각해보아도 그것은 너무나 쓸쓸한 작별이였다.

만일 그때 내가 철주의 청을 들어주었더라면 동생은 스무 살도 채 되지 못한 나이에 일찍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런지도 모른다. 실로 불같이 살다가 불같이 가버린 인생이였다.

철주는 열 살을 넘기기 바쁘게 혁명조직을 따라다녔다. 무송에 있을 적에는 새날소년동맹 선전책으로 활동하였고 소사하에 와서는 구공청위원회 비서로 사업하였다.

양강구에서 나와 헤어진 철주는 그 후 수많은 공청원들을 키워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시키였다. 그는 자청해서 어려운 반일부대와의 사업도 하였다. 그가 관계하였던 두의순이 지휘하는 반일부대는 일본군의 간도토벌대와 잘 싸웠다고 한다.

그 후 철주는 안도 반일부대 공작부장의 중임을 지니고 연길현 부암동 장재촌 사슴페에 있는 서규오반일부대와의 사업도 하였다. 서규오는 반일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조선공산주의자라면 덮어놓고 적대시하는 성미가 괴벽하고 고집이 센 두령이



반일부대공작을 진행하는 김철주동지

었다. 그도 초기에는 조선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냈다.

서규오가 조선공산주의자들을 냉대하기 시작한 것은 부암동의 반일부녀회원들이 그가 첩으로 삼으려고 억류해두고 있던 공청원처녀(조선여자)를 탈환해온 후부터였다. 일단 그렇게 걸려들면 어떤 여자든지 서규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서는 무사할 수 없었다.

서규오는 그런 방법으로 자주 여자를 갈아대였다.

부녀회원들이 공청원여자를 탈환해온 후부터 조선사람들은 서규오의 부대에 발을 붙일 수가 없었다. 과거에 서규오와 너나들이로 허물없이 지내던 사람까지도 그의 곁에 가서 붙지 못하였다. 서규오는 상사병으로 고민하면서 부하들을 시켜 조선사람들을 박대하고 탄압하였다.

이런 때에 철주동생이 한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임춘추동무를 데리고 서규오의 부대에 찾아갔다.

≪두령님이 병이 심하다기에 문병을 하러 왔습니다.≫

철주가 유창한 중국말로 깍듯이 인사를 하였지만 서규오는 거들떠보지 않았다. 조선사람은 보기도 싫고 조선사람들과는 말조차 하기 싫다는 것이였다.

≪두령님 병을 떼볼가 하여 용한 의원 한 분을 데리고 왔는데 한번 치료를 받아보지 않겠습니까?≫

철주가 다시 이런 말을 해서야 서규오는 조금 귀맛이 당겨 용한 의원이라면 진찰을 한 번 받아보자고 하였다. 그는 임춘추동무의 침을 며칠동안 맞고나서 편두통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림의원덕으로 골통속에 숨어들어왔던 잡귀를 쫓아버렸다고 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철주는 서규오부대에 눌러앉아 반일병사들과의 사업을 합법적으로 하였다.

훗날 우리의 방면군에 편입된 서규오는 10연대장으로 임명되어 최후까지 잘 싸웠다. 한때 아편과 여자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가지 못하겠다고 하며 난봉을 부리던 그다 혁명군에 편입된후에는 공산당에까지 입당하였다. 내가 부대의 이름으로 입당을 축하한다고 말하자 그는 ≪군지휘동지, 나는 오늘 입당하면서 군지휘동지의 아우를 생각했습니다. 철주가 아니였더라면 나는 오늘과 같은 날을 맞이하지 못

했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철주가 임춘추동무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병을 떼주던 사실과 자기가 반일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꾸준히 이끌어주던 사실을 옛말같이 이야기해주는 것이였다.

1935년 6월에 청주는 처창즈근방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나는 철주가 희생되였다는 소식을 경박호반에서 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큰 강이나 호수를 보기만 하면 동생생각을 하군 한다.

철주까지 전사하고나니 막내동생은 의지가지할 데 없는 고아가 되였다. 김정룡이네가 처창즈유격근거지로 들어간 다음부터 동생은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며 남의 집에서 아이보개도 하고 심부름꾼노릇도 하면서 밥을 얻어먹었다. 관동군이 나에 대한 ≪귀순≫공작에 써먹으려고 나의 연고자들을 닥치는대로 잡아들이던 때였으므로 막내동생은 자기의 이름자와 출신마저 속이고 동북3성은 물론, 중국 관내의 도회지들과 농촌들에까지 들락날락하며 정처없는 유랑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다나니 그는 베이징에도 얼마간 가 있었다.

나도 해방 후 일본경찰들이 남기고 간 문건에서 동생의 수배와 관련된 자료들을 보았다.

막내동생은 신경맥주공장에서 일했을 때 고향이 너무 그리워 조국에 나와서 석달가량 지냈다. 그때 그는 검은 양복차림에 흰구두를 신고 만경대에 나타났다.

그 차림새가 어찌나도 의젓하고 늠름해보였던지 우리 할아버지는 막내손자가 무슨 벼슬자리라도 얻어가지고 자수성가를 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지경이였다. 그때 막내동생은 조부모님들에게 시름을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장춘에서 대학을 다닌다고 하였다. 경찰이 사진까지 내돌리며 지명수배를 하고 있던 때여서 그는 고향에 나와서도 만경대에 있지 못하고 칠골 고모네 집에서 숨어지내다가 다시 만주로 들어가버리였다.

양강구를 떠난 반일인민유격대의 40명 대오는 돈화와 액목을 거쳐 산발을 타고 남호두방면으로 북상하였다. 우리 부대가 나의 ≪머슴군≫시절이 흘러간 그 유명한 푸르허마을에 들려 정치공작을 한 것도 이때이며 돈화현 할바령부근에서 돈도선(돈화-도문)철도부설공사에 동원된 일본군수송대와 격전을 벌인 것도 이 무렵이였다. 이 전투가 있은 후 나는 돈화현 두도량자에서 고재봉도 만났다.

적들의 폭압이 심한 사도황구를 떠나 두도량자로 활동무대를 옮긴 고재봉은 지하조직이 운영하는 농민학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두도량자에서 돈화현성까지는 30리밖에 안되였다.

나는 그때 두도량자에서 고재봉의 어머니도 만나보았다.

우리는 일본군소송대를 들이치고 노획한 밀가루를 집집마다 나누어주고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인민들과 함께 먹었다. 그 전투에서 노획한 광목천은 농민학원에 주어 학생들에게 교복을 해입히도록 하였다.

두도량자를 떠난 우리 부대는 다시 북상하여 관지 부근과 남호두지방에서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한 다음 왕청지구에 들어가 당, 공청 조직들과 대중단체들의 사업을 요해하면서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얼굴을 익히었다. 이것은 장차 왕청에 활동거점을 잡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왕청에 가서도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늦추지 않았다. 나는 이광의 별동대가 총 몇 자루를 해결하려고 잘못 건드려놓은 관보전부대를 만나려고 이수구에 찾아갔다. 그런데 관보전은 벌써 항일을 포기하고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었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그때 관영장을 만나 왕청동무들을 대신하여 그에게 사죄도 하고 공동투쟁을 위한 방도도 의논하면서 지난날 조, 중 무장부대들사이에 일시적으로 조성되였던 갈등과 대립을 청산하려고 하였다.

관보전은 달아났지만 나머지 사람들이라도 만나보려고 연락을 보냈더니 100명쯤되는 반일부대병사들이 돈화현성에서 일본군대를 족친 **김일성**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보자고 하면서 우리를 찾아왔다. 나는 그들앞에서 왕청별동대가 무기를 해결하기 위해 관영장부대의 병사들에게 손을 댄 것이 비우호적인 처서였음을 인정하고 조중인민이 공동투쟁과 반일부대의 사명과 관련된 허심탄회한 연설을 하였다.

그 연설에 대한 반일부대사람들의 반향이 좋았다. 코산이라는 지휘관은 그 연설을 듣고나서 자기도 관보전처럼 항일을 포기할 생각을 하였는데 이제부터는 옳은 길을 걷겠다고 하였다. 그 결의대로 그는 반일전선에서 잘 싸웠다. 왕청에서 큰 두통거리로 되었던 반일부대와의 화해는 이처럼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우리는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던 좌경적 편향을 없애고 그들을 항일연합전선에 더 많이 인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자구에서 반일병사위원회를 소집하였다. 그때 동녕현성에 집결된 구국군부대들은 쏘련을 경유하여 중국관내에로 퇴각할 차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국경밖으로 달아나려고 서두르는 구국군의 도주를 막고 그들을 반일전선에 튼튼히 묶어놓으려고 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유격투쟁앞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될 수 있었다. 반일부대들을 격파하기 위하여 사방에 분산되였던 적들의 ≪토벌≫역량은 몇백 명밖에 되지않은 우리의 무장력을 단숨에 질식시켜버릴 수 있었다. 적아의 역량관계는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해질수 있었다.

그 당시 일본군은 만주의 군소도시들을 다 점령할 계획밑에 도처에서 반일무장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현소재지까지 다 점령하려고 획책하였다.

회의에는 나와 이광, 진한장, 왕윤성, 호진민, 주보중을 비롯하여 30-40명이 참가하였는데 나와 이광은 우리 나라를 대표하고 진한장, 왕윤성, 주보중은 중국측을 대표하였다.

회의의 기본안건은 구국군의 도주를 막고 반일연합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문제였다.

회의에서는 먼저 왕청유격대의 과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과오의 시초로 된 것은 왕청부대에서 발생되었던 ≪김명산사건≫이었다. 김명산은 원래 장학량군시절이 ≪보위단≫에 있다가 9.18사변 후 6명의 중국인부하를 거느리고 왕청유격대로 반변해온 조선사람이었다. 그는 명포수출신으로서 싸움을 잘하였다. 왕청부대동무들은 그가 반변해오자 금덩이가 굴러들었다고 기뻐하였다.

그런데 반변해온 중국인대원 6명중 한 명이 적통치구역에 2정찰을 나갔다가 대감자음식점에 들려 값도 치르지 않고 호떡 한 그릇을 먹고 돌아온 일이 있었다. 그에게는 음식값을 물어줄 돈이 없었다. 그는 부대에 돌아와 자기가 돈도 내지 않고 음식을 먹고 온 사실에 대하여 솔직하게 보고하였다.

현당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좌경분자들은 유격대의 명예를 훼손시킨 해독분자라는 감투를 씌워 그 중국인대원을 총살하였다. 현당군사부의 조치로 왕청에서 처형당한 중국인대원들의 수는 무려 10여명에 달하였다.

김명산과 함께 반변해들어왔던 나머지 중국인대원들은 이러한 공포분위기에 놀라 부대를 탈출하여 마촌구근방에 주둔하고 있는 관보전부대에 찾아갔다. 유격대가 중국사람들을 함부로 총살한다는 그들의 선전을 듣고 위험을 느낀 관보전은 유격대의 주둔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깊은 골짜기에 부대를 이동시켜가지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살해할 기회를 노리었다.

10월 혁명기념일이 되자 왕청사람들은 날창과 몽둥이와 같은 원시적인 무기들을 휴대하고 행사장에 몰려들었다. 그들이 이런 유치한 무기들을 들고 기념식장에

나타난 것은 행사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였다.

기념식장에 사람들이 집결하는 것을 자기네 부대에 대한 공격준비라고 잘못 판단한 관보전은 분개하여 자기의 수하에서 참모장의 직책을 가지고 구국군대원들에 대한 교양과 통일전선운동을 추진시키고 있던 유격대공작원 김은식과 홍해일, 원홍권 등 여러 명의 조선사람들을 총살하였다.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와도 같은 역습이었다.

그 후 투쟁을 포기한 관보전의 부대는 삼삼오오 떼를 지어 적의 통치구역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왕청부대는 관부대의 투항을 막는다고 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 그들의 무장을 해제하였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무장을 순순히 내놓지 않는다고 하여 관부대의 투항병 몇 명을 죽이었다.

이 사건을 발단으로 하여 관보전부대는 조선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복수전을 시작하였다. 조선청년들 중에서 공산주의운동을 한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붙들어다가 총살하였다. 조직된 지 몇 달되지 않은 왕청유격대는 반일부대에 포위되어 많은 희생을 내였다.

반일부대와의 관계에서 발로된 이와 같은 미숙성과 무분별성은 조중관계를 급격히 약화시키고 조선 혁명앞에 헤어나기 어려운 함정을 파놓았다.

회의 참가자들은 반일부대와의 관계를 망쳐놓은 다음에도 그 과오의 엄중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 무슨 복수를 운운하는 왕청유격대의 지휘관들을 가차없이 비판하였으며 장시간에 걸치는 논의를 거쳐 구국군과의 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행동조례에 대하여 다시한번 확인하고 그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에 도달하였다.

다음으로 우리가 회의에서 논의한 것은 어떻게 하면 구국군과의 발목을 만주땅에 잡아매두고 그들로 하여금 항일을 계속하도록 하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구국군은 그 당시 수만 명에 달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에게 일본군을 당해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일본사람들 자신이 유포시킨 ≪천하무적≫설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말 이 세상에는 일본을 당해낼 힘이 없고 일본군대에 대적할만한 군대가 없다고 인정하면서 투쟁을 거의 다 포기하였다. 그들에게 남은 것이란 어떻게 하면 일본군에게 죽거나 포로되지 않고 아직 전쟁의 불찌가 튀지 않고 있는 산해관너머로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겠는가 하는 타산뿐이었다.

일본군은 간도지방에서 왕덕림부대에 함께 나자구를 사수하자고 결의하였다. 나자구를 사수하자면 왕덕림을 설복하여 그가 쏘련으로 달아나지 않도록 해야 하였다. 구국군의 속셈은 쏘련을 거쳐서 중국본토로 가자는 것이었다. 반일부대 두령들과 병사들속에서 쏘만국경을 넘어가는 것은 하나의 추세로 되고 있었다 수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던 이두와 마점산도 쏘련을 경유하여 중국본토로 달아나버리었다. 구국군의 도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출로는 일본군과 전투를 한 번 본때있게 하여 그들의 머릿속에서 ≪무적황군≫에 대한 환상과 공포심을 완전히 숙청해버리는 것이었다.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가운데서 왕덕림을 설복할 수 있는 적임자는 주보중이었다. 주보중은 국제공산당의위임을 받고 왕덕림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나는 주보중에게 왕덕림을 설복하여 그가 어떤 일이 있던지 퇴각을 중단하고 유격대와의 연합전선에 나서도록 해보라고 권고하였다.

≪우리는 동만에 거주하는 조선사람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유격전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소. 문제는 구국군인데 당신이 무슨 수를 써서든지 왕덕림을 설복해서 그들이 만주땅에 버티고 서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 항전을 계속하도록 해야 하오. 그 사람들이 쏘련으로 가겠다는건 시베리아에 가서 사회주의혁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쏘련땅을 거쳐 관내로 도망치려는 것이요.≫

주보중은 그말을 듣자 해결하기 힘든 숙제라고 하면서 머리를 흔들었다.

≪당신들이 아직 속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국군이라는건 사실 겁쟁이들의 집단이요. 일본놈들의 비행기가 우르릉하고 삐라 한 장만 뿌려도 부들부들 떨면서 꽁무니를 빼는 시라소니무리란 말이요. 그러니 도저히 전투를 해볼 수 없구만, 그렇게 비겁한 무리들을 나는 난생처음 보았소. 구국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을 친다는 건 망상이나 다름없소.≫

주보중과 같이 연합불가능설을 제창하는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었다. 이렇게 되어 의견대립이 생기고 불가능론을 고집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진행되었다. 그때는 다 제마끔 영웅이고 천재고 지도자였다. 구국군병사공작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각지에 나가서 지방공작을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임시적인 조직인 것만큼 누구라고 할만한 지도자가 없었다.


주보중

그러나 회의는 내가 의장이 되어 집행하였고 회의는 회의대로 하였다. 내가 의장으로 회의를 집행한 것은 직급이 높아서가 아니라 구국군들과의 사업에서는 **김일성**이 노장이라고 하면서 중국동무들이 나를 추대하였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바로 나자구회의다. 구국군병사공작위원회로서는 마지막회의였다. 이 회의를 마감으로 병사공작위원회는 해체되었다.

나자구회의 결정에 따라 나와 이광, 진한장과 주보중, 호진민은 왕덕림부대, 오의성부대, 채세영부대와의 사업을 나누어 맡기로 하였다. 오의성과 채세영은 다 왕덕림의 부하들이었다.

얼마후 오의성부대에 간 진한장한테서 통보가 왔다. 오의성이 나자구회의의 방침에 응하기로 약속하였다는 낙관적인 소식이었다.

내가 왕덕림부대와의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일본군이 나자구 일대로 밀려들었다. 적들은 우리 주력부대가 왕덕림부대와 연합전선을 형성하면 큰일이라고 하면서 대병력을 동원하여 빠른 속도로 공격해왔다, 왕덕림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나자구에서 도망쳤다. 수천수만 명의 대병력이 돌개바람에 말려가는 가을낙엽처럼 일본군의 탄막을 피해 쏘만국경쯤으로 철퇴하였다

몇십 명에 지나지 않는 유격대역량만으로는 도저히 나자구를 사수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도 구국군과 함께 동녕현쪽으로 후퇴하였다. 동녕현까지 따라가서라도 기어이 구국군을 돌려세우자는 것이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대병력과 격전을 벌이면서 후퇴하다니 우리는 도중에서 고생을 많이 하였다. 우리가 적의 대군과 싸우면서 동녕현방향으로 갈 때에는 추운 동지달이어서 반일병사들가운데도 얼어죽은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구국군을 따라가면서 꾸준히 왕덕림을 설복하였다. 그때 그가 나의 말을 들었더라면 공동전선을 하여 동북지방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왕덕림은 나의 권고를 듣지 않고 끝내 쏘련을 거쳐 중국관내로 가버리었다.

우리는 왕덕림과의 교섭을 단념하고 노정을 바꾸어 최종목적지인 왕청지구로 향하였다. 나자구에서 수백 리를 걸어 쏘만국경이 보이는 곳까지 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서는 내 마음은 비길 데 없이 침울하고 암담하였다. 수만 명에 달하는 구국군도 감히 일본군에 대항하지 못하고 빵소니를 치는데 18명밖에 남지 않은 우리 부대는 이 겨울을 도대체 어떻게 나야 하는가. 어떤 묘술로 이 엄혹한 고비를 넘겨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18명이면 일본사람들이 즐겨 쓰던 표현에도 있는 것처럼 ≪창해일속≫과 같이 미미한 존재라고 할 수 있었다.

부대가 40명으로부터 18명으로 줄어든 것은 여러 가지 사정에서였다. 싸움에서 전사도 하고 병을 만나 떨어진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몸이 허약해서 내보낸 사람도

있고 개중에는 투쟁을 못하겠다고 해서 집으로 돌려보낸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독립군출신의 나이 많은 대원들과 일부 농촌청년들이 더욱 견디기 힘들어하였다.

마지막까지 대오에 남은 것은 길림시절부터 공청조직에 망라되어 투쟁하던 동무들이었다. 그 18명을 데리고 사선을 헤치면서 왕청으로 나올 때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것은 사람은 조직생활을 통해 단련되어야 어떤 극단적인 정황에서도 자기의 신념을 끝까지 고수하고 혁명가로서의 도덕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였다.

우리는 왕청으로 가는 노상에서 오의성의 연락병을 만나 그와 함께 행동하였다. 그 연락병의 이름은 맹소명이라고 하였다.


진한장

우리 대원들을 처음에 신분을 알아보려고 그를 단속하였다. 일본간첩들이 사방에 우글우글할 때였으므로 우리는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몹시 경계하였다. 맹소명에게는 구국군병사공작위원회와 반일부대와의 협약으로 발급된 반일회원증이 있었다. 맹소명은 반일회원증 뿐만 아니라 오의성이 왕덕림에게 보내는 응원요청서까지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가 오의성이 연락병이라는 것을 완전히 신임할 수 있었다.

맹소명이 천교령으로 가게 된 데는 그럴만한 곡절이 있었다.

≪사실은 이 편지를 전하려고 동녕까지 갔댔는데 왕덕림이 달아나는 바람에 허탕을 치고 돌아옵니다. 오의성한테 오니 그도 노모저하에 한 개 대대만 떨구고 흥석라자쪽으로 철수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글쎄 노모저하에 떨궈두었다는 그 한 개 대대마저 소산차구(천교령)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대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나중엔 죽더라도 항일을 해야겠으니까요.≫

맹소명의 항일의식은 아주 견결하였다. 그는 동북3성에 시국을 평정할만한 인물이 없다고 개탄하면서 대장님은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일본이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었다.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의 어떤 작가는 사람은 패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다 승리를 위해서 지금 이 눈속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맹소명과 함께 소삼차구방향으로 갔다는 그 대대장을 찾기로 결심하였다. 우리는 그 한 개 대대에 연합전선의 명줄을 걸고 어떤 일이 있든지 그 대대만은 꼭 설복하여 투쟁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맹소명은 왕청까지 가서 우리와 함께 요영구방위전투에도 참가하였다. 그는 가장 어려운 때에 우리를 도와주었고 우리와 더불어 생사를 같이한 잊을 수 없는 동행자였다. 1974년에 맹소명은 나에게 편지를 보내여 우리가 나자구등판에서 만나게 된 때를 감회깊이 상기시키었다.

나는 그 편지를 보고 지난날 우리와 함께 고난속에서 우의를 나누던 오의성의 연락병이 살아있다는 것과 그가 돈화합작사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가장 힘들게 넘긴 고비는 노흑산에 갔을 때라고 생각한다. 노흑산까지는 덜렁덜렁하였지만 구국군이 동행하였으므로 우리는 고생을 많이하면서도 별로 외로운줄을 몰랐다. 그러나 그들이 쏘련으로 다 도망가버린 후로는 그 광막한 등판에 우리 18명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 왕덕림이 월경하면서 남겨두고간 일부를 데리고 주보중까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다나니 우리는 완전히 고립무원한 상태에 빠지었다.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돌아치면서 투항을 권고하는 삐라를 뿌리고 땅에서는 ≪토

벌≫에 동원된 일본군무리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포위하였다. 우리 나라의 고산지대에서조차 볼 수 없는 혹독한 추위와 허리를 치는 장설 때문에 대오는 좀처럼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었다. 임시변통으로 그날그날 얻어먹으며 힘들게 저축해둔 식량도 바닥이 났다. 5월에 소사하에서 입고 떠난 군복마저 다 찢기고 터져서 살이 드러났다.

이런 때에 우리는 나자구등판에서 마가성을 가진 좋은 노인을 만나 구사일생으로 어려운 고비를 모면하였다. 우리가 마노인을 만난 것은 음력 섣달그믐날이었다. 사상으로 보면 무정견, 무소속인데 국민당의 정치에 대해서는 털돼먹었다고 침을 뱉는 영감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것도 아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염세주의가 강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남들에게 덕을 베풀지 않고서는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는 착하고 인정깊은 호인이었다.

마노인한테는 집이 두 채가 있었다. 아래채에는 우리가 들고 위채에는 구국군패잔병들이 들어있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반쏘사상을 가진 사람들로서 쏘련이 공산국가라는 이유로 월경을 시도하지 않고 만주에 떨어진 자들이었다. 패잔병들가운데는 오의성이 노모저하에 떨궈두고 갔다던 곽대대장의 부하들도 있었다.

맹소명은 여장을 풀어놓기 바쁘게 구국군의 맥을 짚어봐야겠다고 하면서 자진하여 위채의 패잔병들을 찾아갔다. 나는 그에게 구국군병사들이 우리와 손을 잡고 공동으로 움직일 용의 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타진해보라고 하였다. 맹소명은 곽대대장의 부하들 중에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1차적으로는 자기가 먼저 그들의 속심을 떠보고 승산이 보이면 김대장이 가서 정신적으로 교섭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패잔병들을 만나고 온 맹소명은 어깨를 떨구고 우울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연합전선은커녕 아무것도 못할 놈들입니다. 저놈들은 벌써 로비가 될 공론을 하고 있습니다.≫

마노인도 구국군패잔병들이 우리의 무장을 해제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정보를 주었다. 그들이 우리의 총을 탈취해가지고 비적의 대오를 확장할 계획이라는 것이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고보니 우리는 모두 우리자신의 운명과 혁명의 전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변에서 반일부대병사들이 수천수만 명 와글와글할 때에는 일본군과 싸움을 해도 당장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들이 다 달아나고 없는데다가 우리 대오마저 18명밖에 남지 않고보니 그저 막연하다는 생각만 들었다. 왕청에 갔대야 총 여라문 자루밖에 없으니 그걸 가지고 무슨 일을 치르겠는가. 연길에 있는 무기라야 총 몇십 자루 정도밖에 안될 것이고 설상가상으로 저 무지막지한 패잔병들마저 우리의 무장을 빼앗겠다고 날치니 이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나자구의 이름모를 등판까지 왔는데 왕청으로 돌아갈 길도 묘연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작정이냐? 자신에게 반문도 해보았다. 무장을 줘버리고 다시 돌아가 지하투쟁이나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고생스럽더라도 무장투쟁을 계속 할 것인가?

이런 동요가 없었다고 하면 진실을 왜곡하고 역사를 위조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나는 그대 나 뿐만 아니라 우리 집단에서 동요가 있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으며 또 숨길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다.

강철도 산화되면 변하는 법이다. 인간은 강철도 아니거니와 그 강철보다 약하고 변이성이 많은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강철보다 훨씬 더 억세다고 말할 수 있다. 강철은 자기힘으로 산화과정을 막을 수 없지만 인간은 자기의 사상속에서 일어나



오직 조국의 광복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고 있는 변화를 스스로 통제하고 조정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동요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요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데 있는 것이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조절할 줄 하는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때문이며 혁명가를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역경을 순경으로 만들 줄 아는 강의하고 창조적이고 희생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향방을 잡지 못하였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한이 있더라도 무장투쟁을 계속해야겠는데 남아있는 대원들이란 모두 스무 살도 채 안되는 흥안의 청년들이였다. 내자신도 아직은 경험이 어리다고 할 수 있었다. 길림바닥에서 삐라를 쓰고 연설이나 하며 돌아다닐 때에는 모두가 영웅호걸이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누구나 다 조학도들이였다. 지하공작을 할 때에는 방법이 많았지만 수만 명의 우군을 다 잃어버리고 패잔병들만 남은 무아지경에서 18명의 행로를 어떻게 개척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였다.

윗집에 든 패잔병들은 토비가 될 것을 계획하였지만 우리는 그런 노릇을 절대로 할 수가 없었다. 조직군중이 있는 곳에 가야 무슨 방법이 나서겠는데 조선인부락은 200리쯤 가야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어간도 일본군이 없는 골짜기가 없다는 것이였다.

혁명이란 이다지도 간고한 것인가. 불과 2-3년동안이면 손쉽게 결판을 낼 수 있으리라고 보았던 우리 혁명이 어쩌면 이렇게도 험한 벼랑 끝에 와 서게 되었는가. 안도에서 나팔을 불며 도도하게 출발하였던 우리의 대오가 황량한 이 산등에서 전진을 멈추고 마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이 부대를 무으려고 끼니를 건는 것은 며칠이였고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은 몇 날 몇 밤이였던가. 이 부대를 위해 세상을 하직하시는 어머니의 곁에도 가있지 못하고 사랑하는 동생들과도 생이별을 한 내가 아닌가. 차광수도, 최창걸도 이 대오를 위해

청춘을 바치지 않았는가. 차광수는 돈화에 정찰을 나갔다가 전사하였다.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고 걸어가야 할 길을 생각하는 내 마음은 온 지구덩어리가 통째로 매달린 듯 무겁기만 하였다.

내가 아궁이앞에 앉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노인이 내 옆에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자네가 책임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장이라는 사람이 눈물은 왜 흘리는가?≫

≪눈바람을 맞으면서 오느라고 그런가 봅니다.≫

대답은 그런 식으로 굼때였으나 나는 사실 눈바람탓이 아니라 앞날에 대한 걱정때문에 눈물을 흘리었던 것이다.

노인은 한참동안 나를 굽어보면서 길다란 채수염을 연방 내리쓸었다.

≪자네가 저 위채에 든 놈들 때문에 근심하는 것 같은데 너무 상심하지 말게. 내 오늘저녁 좋은 곳에 데려다주겠으니 거기 가서 며칠 푹 쉬라구. 한 스무날 쉬면서 공부도 하고 영양보충도 하면 머리가 제갈량처럼 잘 돌아갈걸세.≫

밤중에 마노인은 깊은 잠에 곯아떨어진 우리들을 모조리 흔들어 깨워 설음식으로 빚어놓은 만두를 먹이었다. 그리고는 한 50리 실히 떨어진 곳에 있는 산막으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산막은 비행기도 볼 수 없는 울창한 수림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산막집이라고 해야 한 장 정도의 삿자리나 겨우 깔 수 있는 크기의 방이었는데 거기에 자그마한 헛간이 하나 붙어있을 뿐이었다. 헛간에는 마노인이 옹노를 놓아서 잡아 얼군 토끼와 노루도 있었고 밀, 강냉이 같은 낟알과 망도 있었다.

≪방은 좁지만 짚을 펴고 지내면 불편한데로 그럭저럭 급한 대목을 넘길 수 있을거네. 여기에 숨어있으면서 몸들을 추세우라구. 바깥소식은 내가 며칠에 한번씩 와서 전해주지. 자네들이 이 산막을 떠날 때는 길안내도 내가 해주겠네.≫

노인이 이런 말을 하면서 산막에 불을 지펴줄 때 우리는 고마움에 목이 메여 다같이 눈물을 흘리었다. 그처럼 한 적하고 쓸쓸한 등판에서 마노인과 같이 성실한 은인을 만난 것은 누구에게나 쉽게 차례질 수 없는 행운이였다. 대원들은 모두 ≪하느님≫이 우리를 굽어본다고 농을 하였다.

우리는 그 산막에서 보름 남짓하게 정양도 하고 학습도 하고 노루사냥도 하였다.

산막집에는 마노인이 가져다 둔 책들이 많았다. 소설책도 있고 정치서적도 있었으며 위인들의 전기도 있었다. 마노인이 비록 깊은 산중에서 사냥을 생업으로 삼고 있었지만 학식은 아주 풍부한 분이었다. 여럿이 순번을 다투어가면서 경쟁적으로 읽다가니 책은 어느 것이나 다 보풀이 일고 너덜너덜해졌다.

책을 읽은 다음에는 반드시 소감을 발표하거나 일정한 주제를 정해놓고 논쟁을 벌이었다. 제가끔 맑스가 어떻게 말했고 레닌이 어떻게 말했다는 식으로 명제를 따로 인용해가면서 자기주장을 논증하느라고 열을 올리었다. 맑스주의창시자들의 명제나 유명한 작가들의 명문가운데서 몇 가지씩은 다 뜬금으로 외워가지고 다닐 때였다. 그 당시에는 청년들이 모여앉기만 하면 손중산도 비판하였다. 그 누구를 숭배하는 것도 멋이었지만 모두다 숭상하는 위인을 비판하는 것도 하나의 멋으로 되고 있었다.

그때는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할 때였다. 모두가 다 걸작이고 영웅호걸이었다.

우리는 이 산막에서 앞으로의 행동방향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겠는가? 아니면 왕청의 조선인부락에 가서 거기에 있는 별동대를 모아가지고 부대를 확대하여 투쟁을 계속할 것인가?

누구나 다 투쟁을 계속하자고 결의하였는데 해룡에서 입대한 한 동무만은 몸이

약해서 우리들과 같이 무장투쟁을 계속할 것 같지 못하다고 실토하였다. 그 동무의 체력이 유격투쟁을 할만큼 준비되지 못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우리는 그가 그런 고백을 하는데 대하여 까박을 붙이거나 문제시하지 않았다.

≪못가겠으면 여기서 직방 못가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 혁명은 억지로 하지 못한다. 강권이나 위협으로써는 할 수 없는 것이 혁명이다. 그러니 가려면 가고 투쟁을 계속하려면 남아서 투쟁해야 한다.≫

나는 부대를 책임진 지휘관으로서의 자기의 견해를 이렇게 밝히고 각자가 스스로 결심을 채택하도록 시간을 주었다.

며칠 후 우리는 한자리에 다시 모여앉아 대원들의 결심을 들어보았다. 일행 중 16명은 죽는 한이 있어도 혁명을 계속하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런데 나머지 두 명은 부대를 떠나게 해달라고 제기하였다.

해룡에서 온 동무는 이번에도 몸이 약해서 무장투쟁을 하지 못하겠으니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렇다고 자기를 비겁쟁이라고 인정하지 말아달라는 부탁도 하였다. 몸이 약해서 못하겠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그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우리를 따라다니기가 힘들면 집으로 가라, 우리는 그걸 허물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꼴을 해가지고는 못간다. 옷이 다 꿰져서 거렁뱅이꼴이 되었는데 그런 몰골로야 부모들품으로 돌아갈 수 없지 않느냐, 가기는 가되 조선인 부락에 가서 여비를 얻어가지고 의복이랑 해입고 가라고 하였다.

다른 동무는 쏘련에 넘어가서 공부를 좀 하겠다고 하였다.

≪쏘련에 보증인도 없이 무턱대고 넘어가면 공부를 시켜주겠는지 노동을 시키겠는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다. 왕청에 가서 일을 좀 하다가 그곳과의 연계가 맺어지면 조직의 보증을 받아가지고 떠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두 동무는 내 말을 긍정하면서 내가 하라는대로 하겠다고 하였다.

그 후 우리는 마노인의 안내로 무사히 나자구등판을 떠났다. 노인은 우리를 왕청현 전각루까지 안내해 주였다. 참으로 친절하고 다심하고 인정깊은 노인이었다. 몇해후 우리가 근거지안팎에서 적들을 사정없이 답새기던 유격투쟁의 활성기가 도래하였을 때 나는 얼마간의 천과 식량을 가지고 나자구등판을 찾아갔다. 그러나 마노인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지금도 나의 기억속에는 마노인의 영상이 60년 전의 모습그대로 생생하게 남아있다. 어느 때인가 나는 작가들에게 그 노인을 원형으로 하여 가극이나 연극을 하나 만들어보라고 하였다. 그 노인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는 가극이나 연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 훌륭한 소재이다.

그 겨울에 우리가 나자구오지에서 굶어죽지 않고 얼어죽지 않고 총탄에 맞아죽지 않은 것은 기적중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지금도 그때 무슨 힘이 시련속에서 우리를 일어서게 하였는가, 무슨 힘이 우리를 패배자나 낙오분자로 만들지 않고 승리자로 만들어 항일의 기발을 그냥 추켜들게 하였는가고 자문하군 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것은 혁명에 대한 책임감이었다.≫라고 긍지에 넘쳐 자답하군 하다. 그 책임감만 없었더라면 우리는 눈구뎅이속에 그대로 주저앉아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나는 그때 우리가 주저앉으면 조선이 다시 소생하지 못한다는 자각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죽어도 조선을 구원할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더라면 우리는 나자구등판의 눈사태속에 파묻혀 더는 일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다.